

JOURNAL OF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Vol. 47

2025. 6

CONTENTS

Formation of iron production workshops and Trends of
Ironworking Communities in the Inland Region of Hoseo
during the Mahan Period

Kim, Gil-Sik-Jeong, Kyung-Hwa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gaya Multi-
Chamber Tombs

Yoo, Seung-Hye

A Study on the Evolution of Palace and Government Office
Building Sites during the Baekje Sabi Period

-Focusing on Busosanseong in Buyeo-

Gim, Dae-Young

A Basic Review of Iksan Ssangneung (Twin Tombs) as a
Royal Tomb

Lee, Moon-Hyoung

Inflow And Background Of U-Shaped Iron Shovel Blades
In Kofun Period

Lee, Sang-Won

Significance of Glass Beverage Bottles Excavated from Unit
731 Sites- Focusing o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ider and Beer -

Kim, Dong-il

The Beginning and Transition of Enjoyment of the
Neolithic Age Discovered Japanese colonial era

- Focusing on Prehistoric Sites in Amsa-dong-

Kim, Hai-Gyoung-Kim, Sun

中央考古研究

第47號 | 2025. 6

연구논문

호서 내륙지역 마한 제철 공방의 형성과 제철 집단의 동향 | 김길식·정경화

소가야 다곽식 고분의 전개와 특징 | 류승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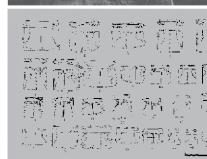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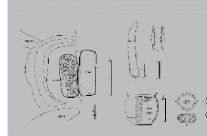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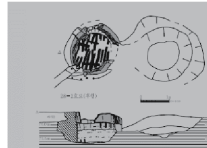
백제 사비기 왕궁·관아 건물의 변천 과정 연구 | 김대영

익산 쌍릉(雙陵), 능원으로서의 기초적 검토 | 이문형

일본 고훈시대 'U'자형 쇄삽날의 유입과 배경 | 이상원

731부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의 의미 | 김동일

일제강점기에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근대적 향유의 태동과 변천 | 김해경·김선



中央考古研究

第 47號 | 2025. 6

연구논문

호서 내륙지역 마한 제철 공방의 형성과 제철 집단의 동향 | 김길식·정경화

소가야 다곽식 고분의 전개와 특징 | 류승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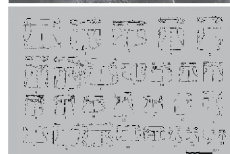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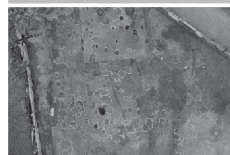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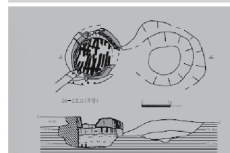
백제 사비기 왕궁·관아 건물의 변천 과정 연구 | 김대영

익산 쌍릉(雙陵), 능원으로서의 기초적 검토 | 이문형

일본 고훈시대 'U'자형 쇄삽날의 유입과 배경 | 이상원

731부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의 의미 | 김동일

일제강점기에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근대적 향유의 태동과 변천 | 김해경·김선



중앙고고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성정용(충북대학교)

위 원 권오영(서울대학교)

김범철(충북대학교)

성형미(동양대학교)

이영철(대한문화재연구원)

조윤재(고려대학교)

최태선(중앙승가대학교)

高田貴太(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간 사 오준혁(중앙문화유산연구원)

정수진(중앙문화유산연구원)

中央考古研究 -第 47 號-

인쇄일 2025년 6월 25일

발행일 2025년 6월 30일

발 행 중앙문화유산연구원

인쇄처 현대옵셋인쇄사

주 소 본원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삼평동) 서건타워 904호

tel. 031-708-8001 fax. 031-708-8010

분원 34029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7로 32-9(용산동)

tel. 042-933-2700 fax. 042-933-7300

홈페이지 www.jungang.re.kr

中央考古研究

第47號 | 202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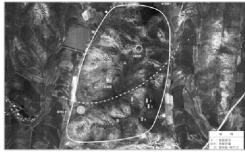
- 호서 내륙지역 마한 제철 공방의 형성과 제철 집단의 동향 1
김 길 식 · 정 경 화



- 소가야 다곽식 고분의 전개와 특징 35
류 승 혜



- 백제 사비기 왕궁 · 관아 건물의 변천 과정 연구 69
- 부여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
김 대 영



- 익산 쌍릉(雙陵), 능원으로서의 기초적 검토 97
이 문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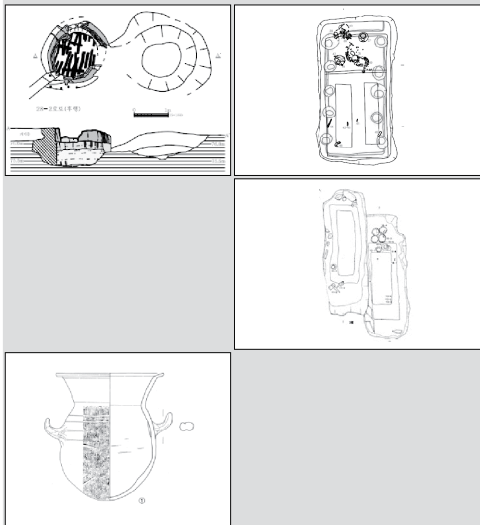
- 일본 고훈시대 'U'자형 석삼날의 유입과 배경 127
이 상 원



- 731부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의 의미 - 사이다와 맥주를 중심으로 - 159
김 동 일



- 일제강점기에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근대적 향유의
태동과 변천 - 암사동 선사유적을 중심으로 - 195
김 해 경 · 김 선



호서 내륙지역 마한 제철 공방의 형성과 제철 집단의 동향

Formation of iron production workshops
and Trends of Ironworking Communities
in the Inland Region of Hoseo during
the Mahan Period

김길식

용인대학교 문화유산학과 교수

정경화

중부고고학연구소 조사연구부 연구원

I. 머리말

II. 선행연구의 검토와 문제 제기

III. 마한 제철 공방의 성립과 확산

IV. 제철 조업주체와 제철 기술의 수용 배경

V. 맺음말

국문 요약

원삼국시대 호서 내륙지역의 고대 제철 유적은 미호강 유역과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단조철기 중심의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제련로는 배재부의 형태에 있어 양 지역간 차이가 확인되며, 노체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지하 구조에 목조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제철 공방은 크게 3개의 획기에 따라 전개된다. 2세기 전~후엽의 I 단계는 마한사회에 유입된 제철 기술을 계기로 제철 공방이 성립되며 중심지는 미호강 유역권의 청주 송절동 일원과 남한강 유역권의 충주 칠금동 일원이다. 3세기 전~후엽의 II 단계는 마한사회 내 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로 제철 공방이 주변으로 확산되거나 생산량이 이전 시기보다 더욱 집중되는 양상이다. 4세기 이후 한성백제의 등장과 세력이 각 지역으로 확장되는 III 단계에 들어서면, 청주 송절동 일대의 생산이 위축되며 새롭게 미호강 상류의 진천 일대로 제철 공방이 재편된다. 남한강 유역은 칠금동을 중심으로 생산이 이어지며, 남한강과 그 지류 근방으로 제철 공방이 확산되어 백제의 제철기지로 변모한다.

호서 내륙지역 제철 유적 주변에는 합장묘와 결구식 목관(곽) 등 낙랑 계통의 묘제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는 제철조업을 주도했던 집단이 낙랑 계통이며, 이들이 마한 사회에 동화되어 생산을 주도해 나갔음을 시사한다. 제철 공방이 본격적으로 성립되기 이전부터 전개되었던 진변한과의 교류는 철기의 유입뿐만 아니라 제철 기술자의 유입도 가능하게 하였고, 진변한계 유물은 낙랑계 묘제와 더불어 제철 유적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는 결과적으로 마한 제철 공방 형성에 기반이 되었으며, 마한보다 앞서 서북한계 문물과 접하고 선진 철기문화와 제철 기술을 확보하였던 진변한의 낙랑계 제철집단이 주도해 나갔던 것으로 파악된다.

주제어 : 마한, 진변한, 낙랑, 제철 공방, 묘제, 교류

I . 머리말

호서 내륙지역은 원삼국시대 마한 문화가 형성되어 발전되고 이후 백제 한성기의 지방으로 편제되어가는 양상이 다양한 고고자료로 확인되는 지역이다. 특히 미호강과 남한강 유역 그리고 금강 상류 일대에 최근까지 크고 작은 발굴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원삼국시대 마한의 주거와 다양한 생산활동 그리고 묘제 양상에 대한 해상도가 더해지고 있다.

제철 유적은 진천 석장리 유적(국립청주박물관 2004)의 조사로 중부지역에서 최초로 제련로가 확인된 이래 청주 송절동 유적(충북대학교 박물관 2018), 청주 문암동 유적(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1), 진천 송두리 유적(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8, 2020;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원 2024), 충주 칠금동 392-5번지 유적(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2018, 2020, 2024)에서 제철로가 대규모로 확인되어 당시 호서 내륙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철 생산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확보되었다. 무엇보다 이들 제철 유적에서 조사된 제철로는 유구 간의 중복관계 그리고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에 의해 원삼국시대부터 조성되어 지역에 따라 4세기 이후 백제 한성기까지 조업이 지속되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주목된다. 상기한 유적들의 조사로 이전까지 불분명했던 원삼국시대 마한의 철 생산에 대한 전모와 한성기 백제의 전략적 제철 공방¹⁾ 형성의 기반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호서 내륙지역 원삼국~백제 한성기에 해당하는 제철 유적의 특징을 정리하고 유의미한 분기를 설정하여 제철 공방의 성립과 전개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제철 유적과 제철로 자체에 관한 연구는 기왕에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조업을 주도한 집단의 성격 규명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철 유적과 그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유적, 특히 집단의 출자와 성격을 잘 반영하는 묘제와 마한 외 지역에서 유입된 유물들을 주목하여 단계별 조업을 주도했던 집단의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호서 내륙지역의 고대 철 생산에 관한 연구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전략적 성격이 강한 제철 공방에 대하여 제철기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김길식 2017; 정경화 2021), 해당 용어에는 통상 군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생산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는 ‘제철 공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문제 제기

1. 마한 제철 기술의 기원에 관한 연구

마한 제철 기술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화성 기안리 유적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 제철 현황과 제철 기술에 대한 논의도 이 유적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기안리 유적의 조사를 담당했던 김무중(2004)은 기안리 유적의 조성 세력을 낙랑 제철 기술과 제도술을 가지고 이주해 온 낙랑 장인집단으로 비정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여 이남규(2002)는 상대적으로 철기문화의 발전이 늦은 중부 지역에 군현 출신 장인집단이 유입되어 획기적인 철기문화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에 대응되는 고고학적 실체로 기안리 유적을 주목하였다. 낙랑의 선진 제철 기술 유입이 중부지역은 물론 마한문화권의 제철 기술과 철기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본 것이다. 최영민(2017)은 중부지역에 제련기술이 유입되어 확산되는 시기를 중요한 획기로 보고, 제련기술의 수용과 전개 과정을 I · II기의 2개 시기로 설정하였다. 그중 제련기술 I 기는 2세기 후반~3세기로, 서북한의 낙랑 제철 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그 특징으로 보았다. 앞서 이남규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낙랑의 선진 제철 기술은 기안리 유적으로 이주해 온 집단들에 의해 유입되었고, 그들의 정착에 마한 세력이 관여한 것으로 보았다.

이후 평택 가곡리 유적이 조사되면서 기원후 2세기 후엽에 해당하는 주구토광묘에 선행하는 정련로와 제련로가 확인되었다. 가곡리 유적의 조사 성과는 기존의 낙랑(서북한)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마한 자체의 제철 기술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김길식(2017)은 초기철기시대부터 이어져온 철기 제작기술에 기반을 둔 마한 제철 기술의 내재적 발전을 주장하였고, 가곡리 유적을 이를 방증하는 자료로 보았다. 나아가 기안리 유적의 제철집단은 서북한의 군현에서 이탈하여 마한 사회에 이주·정착하면서 대규모 제철 기지화된 것으로 보았다. 가곡리와 기안리 유적과 같이 경기 남부지역에 조성되었던 원삼국시대 제철 유적은 마한의 내재적 발전 과정을 거치며, 마한의 중심 세력이었던 목지국의 정치적 역량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정경화(2021)는 마한 제철 기술의 기원을 동남부 지역의 진변한에서 찾고자 했으며, 내륙 교역 루트를 통해 마한 사회에 유입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진변한

에서 유입된 제철 기술은 마한 목지국의 주도 아래 각 거점(요충)지로 확산되어 제철 기지화되고, 거기서 생산된 철과 철기는 목지국으로 공급되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러한 견해는 오창 학소리 유적(中原文化財研究院 2008a), 진천 송두리 유적(忠北大學校博物館 1991), 평택 마두리 유적(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2), 오산 궐동 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청주 송절동 유적(충북대학교 박물관 2018), 청주 오송 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아산 공수리 유적(기호문화재연구원 2020) 등 경기 남부지역과 충청 내륙지역에서 와질토기 및 유개대부호, 동물형대구, 이단병식 철모 등 진변한 계통 유물들을 주목하여 마한과 진변한의 교류를 주장하였던 김세복(2011)과 박장호(2020)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장호(2022)는 요강을 갖추고 목관 주위에 충전토를 채운 목관묘가 진변한 지역에서 성행한 묘제였으며, 마한 지역에서 이러한 묘제가 돌연 출현하는 것을 진변한 사람의 이주로 보았다. 그 이주 과정에서 제철 기술도 함께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박중국(2024)은 화성 기안리 유적의 조사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유적의 형성 및 제철 조업의 개시기를 기존 김무중(2004)의 편년에서 약 100년 정도 상향시켜 2세기 전~중엽으로 보았다. 나아가 중부지역의 제철 기술은 기안리 유적을 시작으로 하여 그 제철 집단의 제철 기술이 화성, 평택 등 경기 서남부지역을 거쳐 호서 내륙지역으로 확산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기안리 유적에서 확인되는 소위 '灰陶'에 해당하는 외래계(낙랑계) 토기의 기종과 수량이 가장 많으며, 주변으로 갈수록, 특히 기안리 유적에서 원거리에 있는 제철 유적에서는 토기 기종 구성이 단순해지거나 재지의 제작기법과 융합되는 등의 변형이 일어나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2. 호서 내륙지역 철기 생산에 관한 연구

호서 내륙지역의 철기 생산에 관한 연구는 진천 석장리 유적과 충주 칠금동 유적의 조사가 진행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당시 조사된 제철 유적은 4세기 이후 백제가 지방으로 진출하면서 백제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주류를 이루었다. 조록주(2010)는 백제 한성도읍기의 제철 유적을 미호강 유역(진천, 청주)과 남한강 유역(충주)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집성·분석하여 4세기부터 철기 생산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 배경에는 3세기 중엽 낙랑 공인 집단의 유입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았으며, 4세기 후반에는 고구려의 남진으로 철 산지와 생산시설

을 상실하여 백제 내 철 생산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았다.

이후 충주 칠금동 392-5번지 유적이 본격적으로 발굴조사되면서, 제련로의 지하에 시설되는 목조구조물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이러한 구조를 가진 제련로를 일명 ‘칠금동식 제련로’라고 명명하기에 이르렀다(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8). 당시 조사를 주도했던 한지선(2018)은 칠금동 유적 내 제련로를 포함하여 충북지역에서 조사되었던 제련로 자료를 집성하고, 비교 검토하여 제련로의 구조적 특징을 제시하였다. 칠금동 유적을 한성기 백제에 의해 조성되고 운영되었던 철 생산지로 파악하였고, 진천 석장리 유적과 더불어 백제의 주요 철 생산 거점으로 보았다.

이지은(2020)은 중부지역에 기원후 2세기 이전부터 제련기술이 유입되었음을 주장하고 생산의 중심지를 호서 내륙지역으로 보았다. 각 제철로의 방사성탄소연대값을 주목하여 이를 고고통계학적으로 정리하여 편년의 근거로 활용하였으며, 청주 송절동 유적과 충주 칠금동 유적 중-하층의 연대가 경기 남부지역의 가곡리와 기안리와 함께 이르게 측정된 것을 주목하였다.

정경화(2021)는 기원후 2세기 중엽부터 마한사회에 진변한에서 선진 제철 기술이 유입되었고 3세기 후엽부터 백제의 세력 확대와 마한 목지국의 위축으로 마한 제철 공방이 경기 남부지역에서 미호강 유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았다. 4세기 중엽 백제가 미호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운용주체는 완전히 백제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해당 연구에서는 편년의 근거로 기존의 고고학적 연대관을 취신한 결과로 마한 사회에서 가장 이른 제철 유적은 평택 가곡리와 기안리로 보았고, 호서 내륙지역 제철 공방은 3세기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보았다. 후속 연구(정경화 2022)에서는 백제와의 상호작용이 보이는 진천지역은 4세기 이후에도 조업이 지속되는 반면, 청주 송절동 일대는 조업이 중단되는 차이점을 주목하였다.

3. 문제점과 과제

앞서 마한 제철 기술의 기원과 호서 내륙지방에서의 철기 생산에 관한 주요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 및 미진한 부분이 드러난다.

첫째로 제철로만으로 제철 기술의 기원을 논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마한권역 제 유적에서 확인된 제련로는 모두 직경 1m 이상의 대형이며, 반지하식 원형 제련로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에는 호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이중굴광에

목조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 그동안 마한 제철 기술의 기원으로 보았던 낙랑(서북한)과 진변한 지역에서는 그 실체가 확인된 바가 없다. 제철로는 제철 기술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술 요소로서, 노의 축조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가 제철 기술의 유입 과정에서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다. 서북한 지역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제철 유적 조사 자료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북한 지역에서 마한권역 제련로와 동일한 형태의 노가 존재했는지 알 수 없다.²⁾ 즉, 호서 내륙지역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제철로가 타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자료조차 소략하기 때문에 제철로의 양상만을 가지고 기술의 기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로 마한 사회에서 제철 기술을 새롭게 습득한 집단은 누구(어떤 정치집단)이며, 그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제철 유적과 주변 유적에서 확인되는 고고 자료의 해석 문제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마한의 제철 기술 연구는 제철 유적과 제철로 자체에만 천착하여 노의 입지와 구조적 특징 파악, 생산품에 대한 분석 및 기술 체계 파악, 그리고 편년에 관한 논의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상기한 박중국(2024)의 연구는 주 논의 대상인 기안리 유적과 그 외 제철 유적 및 주변 유적에서 확인되는 회도(외래계 토기)에 주목하여 제철 기술의 유입과 확산 과정을 해석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해석은 제철 기술을 비롯한 철기문화를 창출한 주체에 관하여 기존보다 확장된 시각으로 접근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철 및 철기 생산 집단의 성격과 정체성을 파악할 때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이동성이 강한 토기보다는 보수성이 강한 묘제와 그 부장 유물이라고 생각된다. 토기는 사용 및 제작 집단의 직접적인 이동 이외에도 교역 대상물로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즉 경제적 행위의 결과에 따른 動産品 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분묘 조성 방법과 유물 부장 습속을 포괄하는 묘제는 가장 보수성이 강하며, 축조 집단의 정체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이론적 배경에 입각하여 호서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원삼국시대 마한 제철 공방 조업 집단의 성격과 그들의 동향, 그리고 제철 기술의 수용 배경을 제철 유적과 주변에서 확인되는 묘제를 통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당시 중국(한)에서는 鐵官에서만 철과 철기를 생산하고 생산지에 따라 ‘河三’, ‘河五’ 등의 표식을 하는 등 생산과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 군현에서 제련에서 단야, 주조에 이르는 일관 공정이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Ⅲ. 마한 제철 공방의 성립과 확산

원삼국시대 마한의 제철 유적과 제철로에 관한 연구성과는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충주 칠금동 유적, 청주 송절동 유적, 진천 송두리 유적 등 조사 성과를 기반으로 이 지역 제철 유적의 존재 형태와 철 및 철기 생산 실태에 대한 해상도가 높아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마한권역 제철 유적³⁾의 분포와 유적에서 확인된 제철로의 구조적 특징, 생산 체계를 살펴보고, 제철 공방의 확산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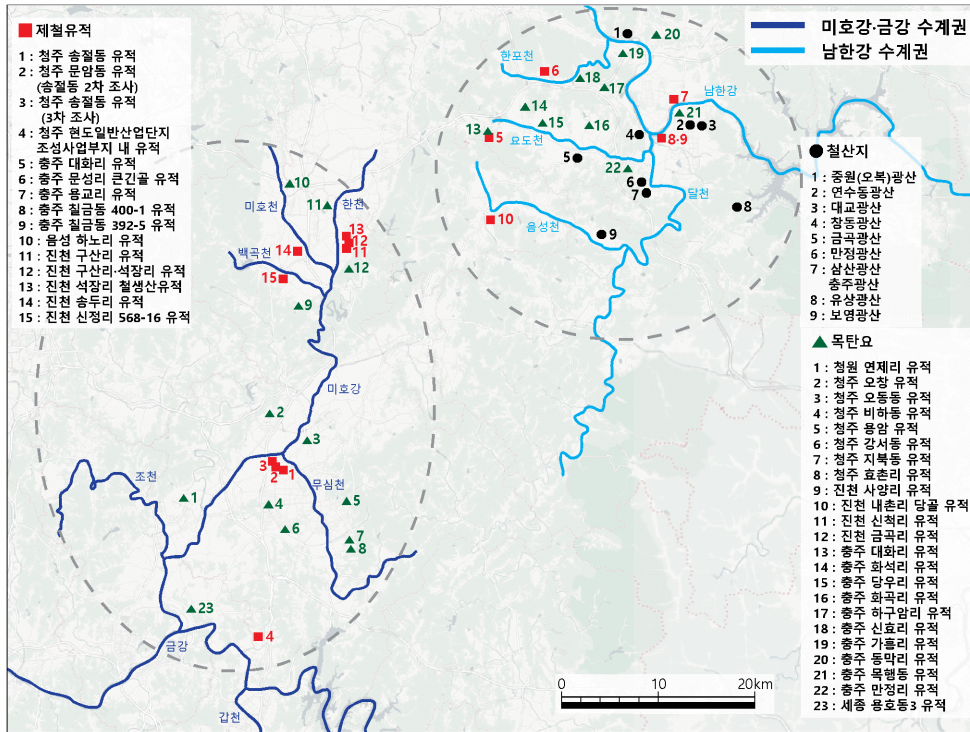
1. 제철 유적의 분포 양상

호서 내륙지역의 고대 제철 유적의 분포는 수계를 중심으로 볼 때 크게 미호강(금강) 수계권과 남한강 수계권의 두 지역으로 구분된다. 제철 유적은 모두 강과 하천에 인접한 곳에 조성되어 있어 원료와 연료 수급과 함께 수운을 활용한 생산품의 유통을 고려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조업 과정에서 원료와 함께 상당량의 목탄이 소모되기 때문에 제철 유적의 반경 10km 이내에는 목탄요가 조성되어 조업에 필요한 연료 수급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철 생산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 산지 입지는 지역별 차이가 확인된다. 남한강 유역권은 제철 유적과 목탄요, 철광석 산지가 수계를 중심으로 상호 근거리에 분포하고 있지만 미호강(금강) 수계권에는 철광석 산지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현재 제철 유적 주변에 분포하는 철광석 산지는 조선시대 이후의 문헌기록과 현대 광상 분포현황을 기반으로 파악한 것으로 당시 이루어졌던 채광과 완벽히 대응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호강(금강) 수계권의 진천, 청주, 세종 일대는 현재에도 철광산 분포가 확인되지 않아 당시 제철조업에 투입되었던 원료 광석을 어디에서 수급해 왔는지 현재로서 불분명하여 향후 호서 내륙지역 고대 철 생산 연구에 있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미호강은 금강의 최대 지류로서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발원하여 진천과 증평, 청주

3) 본 연구의 대상인 호서 내륙지역의 제철 유적 중 원삼국시대 마한에 의해 운영되었다가 4세기 이후 백제의 제철 기지로 변화하는 것으로 본 선행 연구(정경화 2021, 2022)를 참고하여 백제 한성기에 해당하는 유적과 유구도 함께 검토하였다.



[그림 1] 호서 내륙지역 고대 제철 유적과 철산지, 목탄요 유적의 분포(1:500,000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 배경지도 재편집)

를 지나 현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일대에서 금강에 합류하여 서해안으로 이어진다. 미호강 유역에는 충적 대지 및 미고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주변으로 완만한 구릉이 발달하여 일찍이 원삼국시대 마한과 관련된 유적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조사되었다(조상기 2015). 이중 제철 유적은 1994년 진천 석장리 유적이 조사된 이래로 진천 구산리 유적, 송두리 유적, 청주 송절동 유적, 문암동 유적 등 가장 밀집도가 높게 조사되어 호서지역의 고대 철 생산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미호강(금강) 수계권의 제철 유적은 크게 구릉 말단부에 입지하는 경우와 하천변 충적대지에 입지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미호강의 상류이자 지류에 해당하는 백곡천 일대의 진천 석장리, 구산리, 송두리 유적이 해당되며, 후자는 무심천변 충적대지에 위치하는 청주 송절동과 문암동 유적이 대표적이다.⁴⁾ 특히 청주 송절동

4) 송절동 유적과 문암동 유적은 각각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부지에 대한 1·2차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며, 최근 조사가 완료된 3차 발굴조사 지역에서도 제련로가 다수 조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경호·곽문수 2023). 3차 발굴 조사에 관한 내용은 정식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이번 연구에서는 약보고서에 수록된 내용만 참고하였다.

[표 1] 호서 내륙지역 고대 제철 유적 발굴조사 현황

번호	유적명	조사기관	제철관련 유구 현황	시기 ⁵⁾
1	청주 송절동 유적 I·Ⅷ지구지구 (1~3, 5지점)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7)	제련로 3기 폐기장 유구 3기	4세기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7)	제련로 5기 폐기장 유구 3기	3세기 후엽 ~ 4세기
		충청북도문화재 연구원(2017)	제련로 3기 단야로 6기 폐기장 유구 4기	3세기 후엽 ~ 4세기
2	청주 문암동 유적	충청북도문화재 연구원 (2021)	제련로 2기 정련로 6기 폐기장 유구 2기	2세기 중엽 ~ 3세기 전엽
3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3차) 1-1지점, 3지점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23) *약식보고서	제련로 20기 정련로 추정 2기 폐기장 유구 5기	2세기 전엽 ~ 3세기
4	청주 현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세종문화유산연구원 (2024) *약식보고서	정련로 1기	(추정)3~4세기
5	충주 대화리 유적	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제련로 2기 폐기장 유구 1기	4세기 중엽 ~ 5세기
6	충주 문성리 큰길골 유적	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제철로 확인 X 5호 주거지 내에서 가공된 철정 다수	4세기 중엽 ~ 5세기
7	충주 용교리 유적	중부고고학연구소 (2021)	철광석 배소로 2기 단야 공방지 2기 폐기장 유구 5기 제철로 확인 X 제련, 정련관련 부산물 다수 확인	4세기 중엽 ~ 5세기
8	충주 칠금동 400-1번지 유적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철광석 배소로 1기 제련로 1기	4세기
9	충주 칠금동 392-5번지 유적	국립중원문화유산 연구소 (2018~2024)	추정 배소로 9기 제련로 34기 공방지 1기 폐기장 유구 1기	2세기 중엽 ~ 4세기 후엽
10	음성 하노리 능모퉁이 유적	가경고고학연구소 (2021)	제련로 3기	3세기 후엽 ~ 4세기 전엽
11	진천 구산리 유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제련로 3기 폐기장 유구 3기	4세기
12	진천 구산리·석장리 유적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3)	제련로 2기 단야로 4기	4세기
13	진천 석장리 철생산유적	국립청주박물관 (2004)	제련로 3기 정련로 2기 단야로 5기	4세기
14	진천 송두리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제련로 23기 정련로 25기 단야로 10기	3세기 후엽 ~ 4세기 후엽
15	진천 신정리 568-16 유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8)	정련로 1기 폐기장 유구 1기	4세기 중엽

5) 주거지, 분묘와 같이 조사된 대규모 유적의 경우 제철 조업이 이루어졌던 시기를 기재하였으며, 조사보고자가 제정한 연대이다.

유적은 호서 내륙지역에서 조사된 제철 유적 중 유일하게 하천변의 충적대지에 대규모로 조성된 사례로, 입지 양상에서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미호강과 합류되는 금강 상류역은 그동안 제철 유적이 조사되지 않아 철기 생산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마한권역 내 제철 공방에서 생산된 철기를 공급받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정경화 2021). 그러나 최근 청주 현도산업단지 내 유적(세종문화재연구원 2024)에서 정련로 1기를 비롯하여 철기 생산과 관련된 추정 공방지, 폐기장 유구가 조사됨에 따라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유적은 금강 상류와 바로 인접하는 구릉 말단부에 입지하고 있어 생산품 유통에 금강 루트를 활용하기에 최적의 입지로 파악된다. 정련로는 제련로에서 생산된 괴련철을 소재로 하여 조업이 진행되는 특성상, 유적의 주변에서 추후 제련로가 조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⁶⁾

남한강 수계권의 제철 유적은 강의 본류에 인접한 구릉 말단부에 입지하는 경우와 그 지류인 요도천 근방의 구릉 중상부에 입지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충주 칠금동 유적⁷⁾과 용교리 유적이 해당되며, 후자의 경우 충주 대화리 유적과 문성리 큰긴골 유적, 음성 하노리 유적이 해당된다. 남한강은 강원도 태백시에서 발원하여 단양, 충주, 원주, 여주 등 충청북도와 강원도 동북부를 지나 양평군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합수되어 한강 본류를 지나 서해안으로 흐르는 중요한 수운 교통로이다.⁸⁾ 남한강 유역 일대 제철 유적은 지금까지 주로 충주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되었지만, 최근 음성 하노리 유적에서 제련로 2기가 조사되었고, 조선시대까지 다수의 야철지가 존재했음이 지표조사 등으로 확인되어 서충주 지역과 동일 생활권에 해당하는 음성 지역에도 향후 고대 제철 유적이 상당수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 현재 정식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제철 관련 부산물의 성격과 분석 결과를 알 수 없으나, 필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폐기장 유구와 수습 유물들을 실견한 결과, 노벽과 유출된 철재 등 제련 공정에서 파생되는 부산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충주 칠금동 제철 유적(중원문화재연구원 2008)과 392-5번지 일원 유적 I ~ III(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2018~2024)을 모두 포함한다.

8) 남한강 유로를 따라 가흥창과 덕흥창, 홍원창 등 고려~조선시대의 조세 운반과 관련된 조창이 존재했고, 곳곳에 발달되어 있는 하중도 또한 물품 운송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충주 일대를 지나는 구간은 강폭이 넓고 큰 하중도가 발달되어 있어 조선시대까지 목계나루터가 운영되는 등 선박을 운행하는데 크게 활용되었던 점이 주목된다.

2. 제철로의 구조적 특징과 철 생산체계

제철로는 단계별 공정⁹⁾에 따라 크게 제련로, 정련로, 단야로, 용해로 등으로 구분된다. 호서 내륙지역에서는 단일 제철 유적에서 제련로와 함께 후속 공정에 사용되었던 정련로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중 제련로는 그동안 노의 지하 시설 축조 방법이나 규모, 배재부의 형태 등 다양한 속성 검토를 통하여 형식 분류가 이루어졌다(한지선 2018; 조록주 2018; 이지은 2020; 정경화 2021). 정련로는 평택 가곡리 유적과 진천 석장리 유적에서 일부 조사되었으나 소수에 불과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이후 2020년대부터 진천 송두리 유적과 청주 문암동 유적에서 지하식 구조의 정련로가 다수 조사되면서 형식 분류 및 특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정경화 2021, 2022). 한편, 최근에는 기술적 관점과 공인의 시각에서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제련로 바닥의 위치와 배재부의 면적 및 형태를 주목하여 노 구조의 발전 양상을 검토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鄭宗鎬 2025).

본 절에서는 개별 제철로의 속성 분석 및 형식 분류는 기왕의 선행 연구 결과를 참고할 것이며 제철로 중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제련로와 정련로를 중심으로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제철로가 조사된 유적을 비롯하여 제철 관련 유물이 확인된 유적의 사례를 통해 철 및 철기 생산 체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제철로의 구조적 특징

호서 내륙지역의 고대 제철로는 앞서 유적의 현황을 통해 살펴본 결과, 생산의 공정에 따라 크게 제련로와 정련로, 단야로로 대별된다. 이중 구조적 특징이 간취되는 노는 제련로와 정련로이며, 단야로는 대다수가 특별한 시설이 없는 수혈식 구조로서 지역별, 시기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얇은 수혈을 굴착한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수가 노적의 형태로 그 흔적만 확인되어 구조적 특징 또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련로와 정련로를 대상으로 구조적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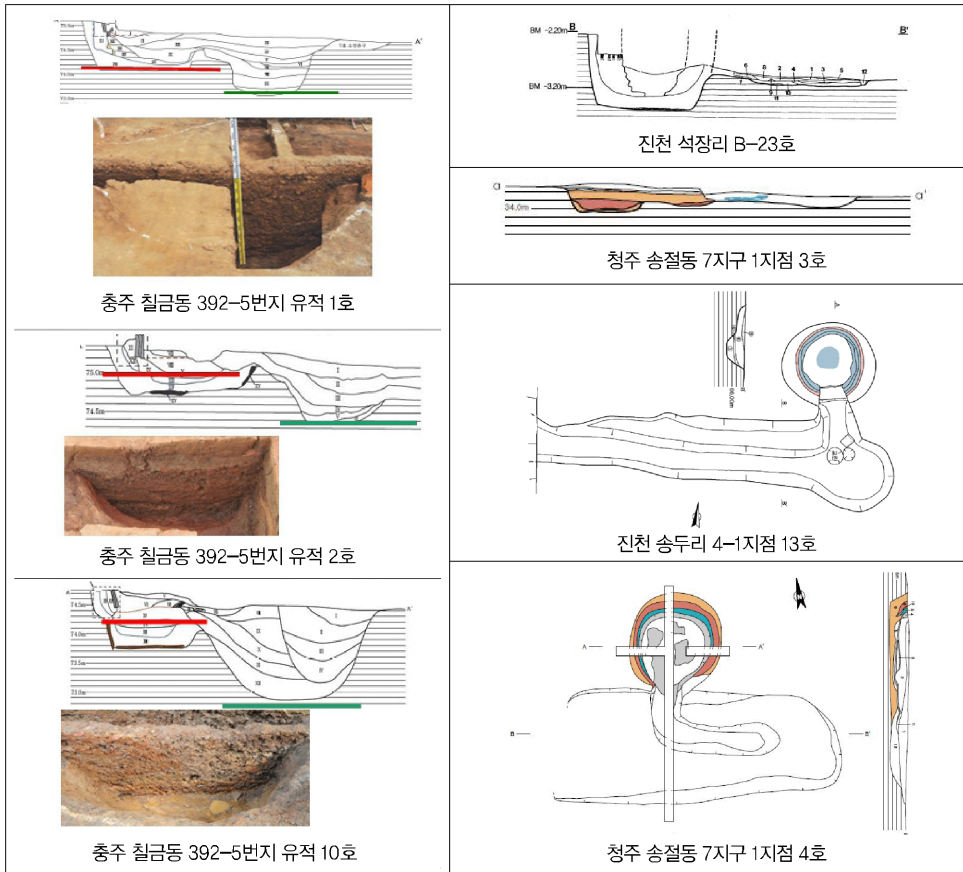
우선 제련로는 최근까지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구조적 특징이 가장 명확하게

9) 호서 내륙지역에서 확인되는 제철 공정은 진천 석장리 유적에서 출토된 주조쟁이 범심을 제외하면 대부분 괴련철을 기반으로 하는 단조 철기 생산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논지 전개에서 이남규(2019)가 ‘한국 고대 제철 공정도의 수정안’에서 제시한 제1공정(제련), 제2공정((괴련철)정련), 제3공정(단련단조), 제4공정(성형단조)의 개념을 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확인되었다. 제련로의 구조는 주로 배재부의 형태와 지하 구조¹⁰⁾의 조성 방식이 주목되어 왔으며, 이 두 가지 요소는 호서 내륙지역 고대 제련로의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요소들이다. 기왕의 연구에서 제련로 분석에 계층적 속성으로서 가장 많이 주목했던 것은 노의 규모였다. 제련로가 보통 2~3회 정도 수리되어 반복 사용되는 특성상, 최초 굴착면 혹은 최초로 조성된 노벽의 외경을 주목하거나 실질적인 면적을 반영하는 내경을 중요 속성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호서 내륙지역의 고대 제련로의 규모는 직경 1m 이상의 반지하식 구조의 원통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련로의 속성 분석을 통한 형식 분류가 아닌, 전반적인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제련로의 배재부와 지하 구조의 양상에 주목하여 제철로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배재부는 평면 형태의 다양성에 따라 형식 분류가 시도되기도 하였다(趙錄柱 2018). 이후 평면형태는 조업 당시 철재의 배출과 제거 방식이 반영되며 특히 노 바닥과 배재부 바닥 사이의 단차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鄭宗鎬 2025). 해당 연구방법에 착안하여 호서 내륙지역 제련로의 배재부를 보면, 호서 내륙지역 내에서 지역별 차이가 감지된다. 미호강(금강) 수계권과 남한강 수계권의 제련로에 큰 차이가 보인다. 미호강(금강) 수계권은 청주 송절동 유적과 진천 송두리 유적에서 배재부가 양호하게 잔존하는 제련로의 사례를 보면, 배재부 바닥과 제련로 바닥의 단차가 거의 없으며 이는 배출된 철재가 지속적으로 쌓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의미한다. 당시 조업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溝의 형태이거나 경사면을 따라 장타원형으로 형성되어 있어 조업 중간중간에 생성된 철재를 바로 제거하는 방식을 취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배재부 중앙에 형성된 소폭이 도랑이 주목된다. 반면 남한강 수계권은 충주 칠금동 유적의 사례를 보면 타원형 평면형태의 깊이 1m 내외의 배재부가 형성되어 있어 배출된 철재가 대량으로 누적될 수 있도록 고안된 구조로 볼 수 있다. 노 바닥과 배재부의 단차가 거의 1m에 가깝도록 차이가 큰 편이며 경사도 또한 급격하게 형성되어 있다. 보고서에 제시된 배재부 단면 토층사진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친 철재 퇴적이 확인되므로 연속적인 조업에 따른 철재 배출 및 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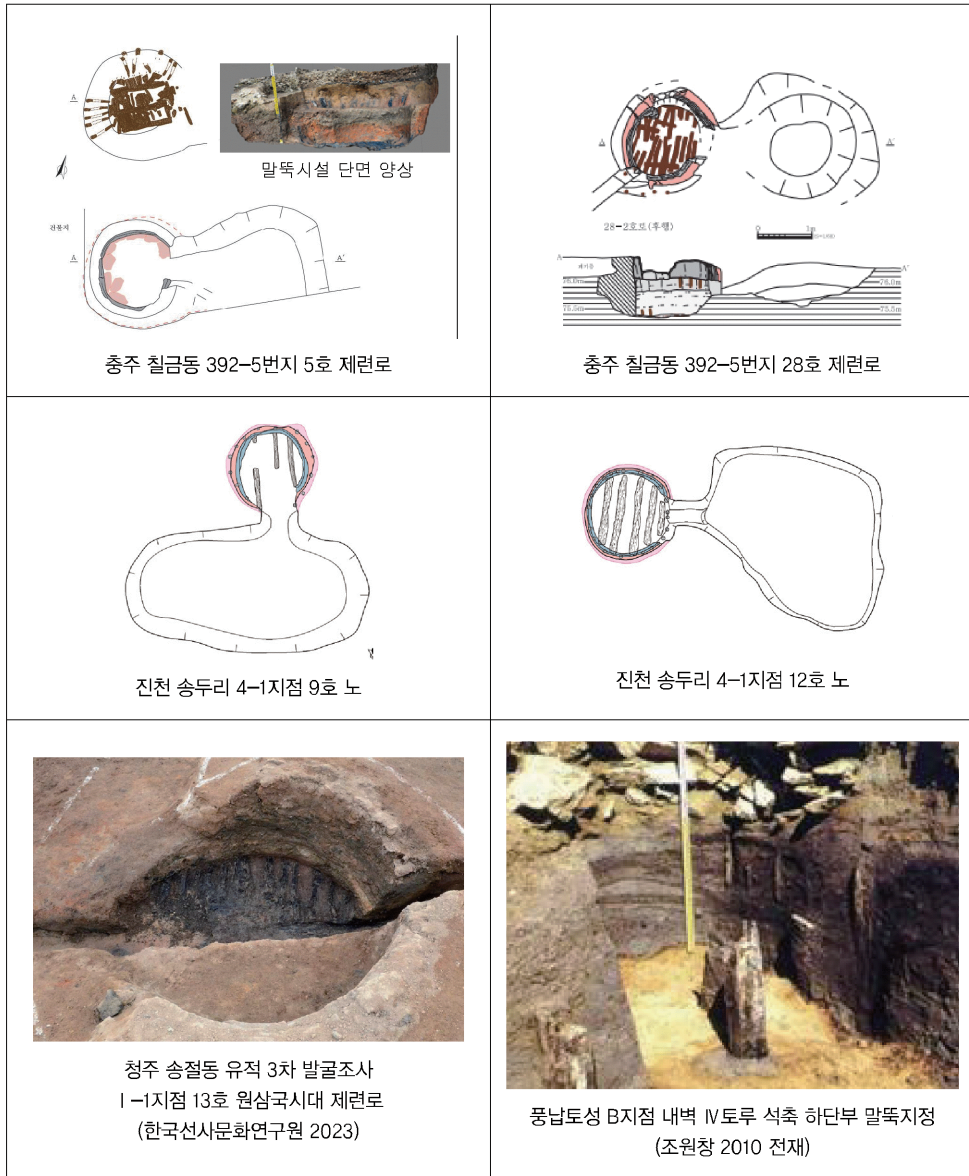
10) 노의 '하부구조'라는 용어와 주로 혼동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이는 일정 규모의 수혈을 굴착하고 기초부를 설치하고, 사용 당시엔 지상으로 노벽체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하부구조라는 용어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가장 아래에 대응하는 것인지, 노바닥 아래에 해당되는 지하에 설치된 구조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 바닥 아래에 해당하며, 사용당시 지면 아래에 매설되어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지하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2] 호서 내륙지역 고대 제련로의 지역별 특징 (左 : 남한강 유역, 右 : 미호강 유역)

성을 극대화한 구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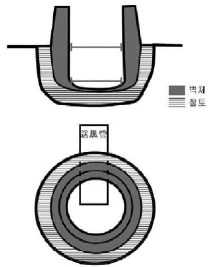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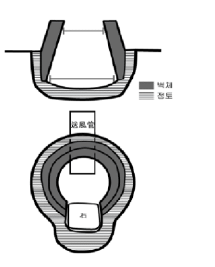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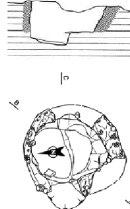
한편, 제련로의 지하구조는 가장 기초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방습시설과 노체 지지를 위한 시설이 모두 해당된다. 방습시설은 주로 목탄과 모래가 다수 혼입된 사질 토를 교차로 성토하거나 이를 혼합하여 다지는 방식으로 조성되며, 지하구조는 이러한 방습시설보다 하부에 조성되어 있다. 호서 내륙지역 고대 제련로의 지하구조는 굴착한 수혈에 점토만 사용한 간단한 구조이거나 진천 송두리 유적, 충주 대화리 유적의 사례처럼 활석을 사용한 사례도 일부 확인된다. 무엇보다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형태는 목조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목조시설물을 설치한 지하구조는 충주 칠금동 유적에서 최초로 확인되어 지역적 특징으로 파악(한지선 2018)된 이후 진천 송두리 유적과 청주 송절동 유적(3차)에서도 확인되어 이제는 호서 내륙지역 고대 제련로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조시설물의 성격은 최근 노체 지지를



[그림 3] 호서 내륙지역 고대 제련로 지하구조의 지정시설

위한 지정시설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정락현 2023). 이른바 말뚝 지정의 형태로 제련로 이외에도 성벽 기초부, 도로 조성 등 토목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사례로 보아 노체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서 마한 제련로 축조방식에서 매우 핵심적인 기술요소에 해당한다.

정련¹¹⁾은 제련에 후속된 공정으로서 앞서 제련에서 생산된 괴련철에 함유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된 철괴형태의 괴련철을 재가열하여 철재를 재배출시키며 경우에 따라 이를 여러차례 단타하여 내부에 응집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도 수반된다.¹²⁾ 정련로는 진천 송두리 유적과 청주 문암동 유적에서 제련로 조사지점과 이격된 곳에 조성된 것으로 보아 당시 공정 단계별로 노의 구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련로는 노 바닥이 완전히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식 구조이며, 수혈을 굴착하고 바닥과 벽면을 점토로 다진 후 벽체를 설치하고 노 후면에 중구경 송풍관이 장입되는 구조이다(정경화 2021).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경사면을 따라 전면부가 개방되어 있는 형태이며 개방된 부분을 석재로 막아서 조업에 따라 개폐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구조이다. 이는 불순물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발생된 철재를 원활히 배출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A형		B형	
			
			
평택 가곡리 유적 2지구 55호 제철로	진천 석장리 유적 B지구 7호 노	진천 송두리 유적 2-1지점 3호 노	진천 송두리 유적 7-2지점 5호 노

[그림 4] 정련로 구조 모식도와 사례 (정경화 2021)

11) 이남규(2019)가 제시한 한반도 고대 제철의 공정도에 따르면 제련에 후속된 제2공정인 정련은 제련 생산물의 성격에 따라 크게 괴련철정련과 용해정련, 초강정련으로 구분된다. 후술하겠지만 고대 호서 내륙지역에서 파악되는 생산공정은 괴련철을 기반으로 단조철기를 생산하는 체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련로는 '괴련철정련'에 사용된 노에 해당한다.

12) 청주 문암동 유적 C지구에서 조사된 정련로의 주변에는 철괴, 입상재와 더불어 단타작업의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는 단조박편들이 다량 검출되어 정련공정은 괴련철의 재가열뿐만 아니라 단타작업도 수반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생산 체계의 특징

호서 내륙지역에서 조사된 제철로는 제련로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며 후속 공정과 관련된 정련로와 단야로가 분포한다. 제철로의 구조 그리고 생산품과 부산물의 특징, 유통되었던 철기들이 대부분 단조철기들인 점으로 보아 괴련철을 기반으로 하는 단조철기 생산 체계가 중심을 이루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하식 구조의 괴련철 정련로를 이용한 후속공정이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체계가 특징적이다.¹³⁾ 이와 더불어 선철을 용해정련하여 주조철기를 생산하던 체계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대 제련에서는 의도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철도 생산되었을 것이라는 견해(이남규 2019)를 참조하면, 선철 생산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진천 석장리 유적에서 출토된 주조쟁이 용범편과 이후 백제 한성기에 들어 특히 주조쟁이 생산이 활발해진 점을 볼 때, 제련단계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산된 선철을 활용하여 주조철기를 생산하는 체계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상에 노 바닥이 위치하는 용해로의 구조적 특성상 노의 기초부까지 삭평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발굴조사를 통해 실체가 확인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용범이나 범심 혹은 용해 주조를 입증할 만한 기타 생산 관련 부산물의 확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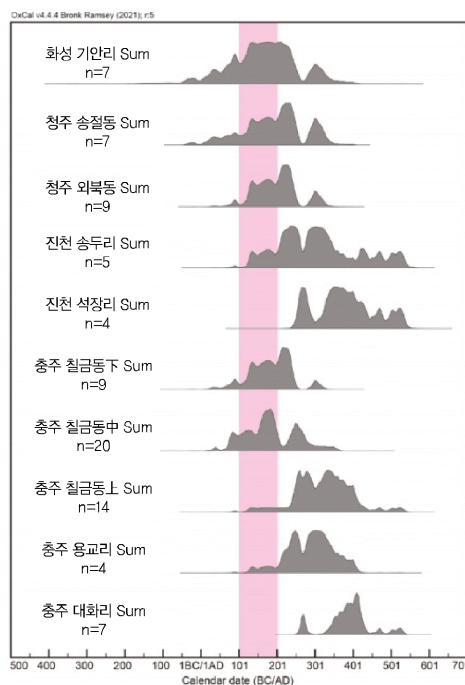
3. 제철 공방의 성립과 확산

제철 유적은 공반 유물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업 종료 후 폐기된 상태로 조사되기 때문에 편년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적별 제철로와 동반유구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을 그대로 적용하여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고고학적 접근과 유리될 수 있으므로, 제철로와 동시성이 상정되는 유구와 유물의 고고학적 편년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제철로 및 폐기장 유구와 중복되어 조사된 주거지와 분묘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그 변화 양상에 따라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 호서 내륙지역 제철 공방의 성립과 주변으로의 확산 과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3) 충주 칠금동 유적을 비롯한 남한강 유역 제철 유적에서는 아직까지 지하식 괴련철 정련로가 조사된 바가 없으나, 충주 용교리 유적(中部考古學研究所 2021)에서 정련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완형제와 다공질철제가 확인되었다. 칠금동 유적은 호서 내륙지역의 여타 제철 유적에 비하면 협소한 면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제련로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 외곽에 정련로가 조성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호서 내륙지역을 포함하여 중서부 지역 제철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성과(박중국 2024)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의 화성 기안리 유적과 더불어 호서 내륙지역의 미호강 유역, 남한강 유역도 2세기 전엽부터 조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원삼국시대 마한문화권에 해당하는 중서부지역 일대에서의 제철 조업은 크게 경기 남부, 호서 내륙의 미호강, 남한강 유역의 세 지역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시사한다.

충주 칠금동 유적은 총 3개의 문화층에서 확인된 제련로의 방사성탄소연대대값 측정을 진행하여 이를 통계적 수치로 보고하였다. 1차 조사가 완료될 때까



[그림 5] 중서부지역 제철 공방의 탄소연대 전체 누적확률 분포(박중국 2024)

지만 해도 4세기 이후 새롭게 조성된 ‘백제의 제철 공방’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2차 조사가 진행되면서 측정되었던 중·하층 제련로의 방사성탄소연대대값이 대다수가 2~3세기에 수렴하여 유적의 조성 시점을 원삼국시대까지 올려보는 계기가 되었고, 가장 하층에 조성된 제련로는 기원후 2세기 중~후엽, 중층에 조성된 제련로는 3세기 전~후엽, 상층에 조성된 제련로는 4세기 전~후엽까지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였다(국립중앙문화유산연구소 2024). 이러한 칠금동 유적의 새로운 연대 측정값에 대하여 충주 일대의 2~3세기 생활유적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당시 대규모 제철 공방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며,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 수용에 회의적인 입장도 제시되었다(정경화 2021). 현재까지 충주를 포함하여 남한강 유역 일대에서 원삼국시대 생활유적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지만, 칠금동 유적에서 직선 거리로 약 1.5km 이격된 곳에 위치하는 금릉동 유적(忠北大學校 博物館 2007;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21)의 양상으로 볼 때 대규모 제철 공방의 조성 기반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조사된 칠금동 420번지 유적(한라문화재연구원 2022)에서 확인된 원삼국시대 토광묘¹⁴⁾의 존재로 보아 남한강

14) 보고서에는 ‘백제시대 토광묘’로 보고되었으나, 부장된 철장검은 전장이 1m 이상이며, 검신의 폭이 세장하고

일대 미고지와 구릉 말단부 일대에 철금동 유적과 대응되는 생활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기한 견해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고고자료를 통하여 주요 제철 유적의 조업시기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청주 송절동 유적의 조업 연대는 1차 발굴조사 결과에서 제철로 및 폐기장과 주거지의 중복 관계를 바탕으로 파악되었다. 7-2지점 폐기층과 제련로를 파괴하고 후축된 원삼국시대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의 편년¹⁵⁾을 기반으로 제철조업의 시기를 3세기 후엽~4세기 전엽으로 보았다(이정아 외 2018). 그러나 제철로와 폐기장에서 측정된 연대값은 2세기 전~후엽 구간에 가장 높은 밀도로 분포하고 있으며, 3차 조사에서 측정된 연대값 또한 대부분 2세기 전~후엽에 수렴하고 있어 고고자료에 의한 연대관과 차이가 발생한다. 제철유구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과 유적 내 원삼국시대 분묘에 부장된 2세기대 철기들의 양상으로 보아 후행하는 주거지 출토유물의 연대에 따라 도출되었던 3세기 후엽~4세기 전엽의 연대는 제철 유구의 폐기 시점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송절동 유적의 제철 조업은 최소 2세기 전엽에는 시작되어 3세기 후엽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진천 송두리 유적은 출토된 토기의 제작 기법과 비사주식, 벽주식 주거가 공존하는 양상을 주목하여 기존 고고학 편년안을 대입하여 3세기 후엽~4세기 중엽을 중심연대로 파악하였고(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도 3세기 전엽~4세기 전엽에 중심을 이룬다. 진천 석장리 유적은 저부와 배신을 정지 깎기 방법으로 제작한 심발형토기와 고배, 개배가 진천 삼룡리·산수리 요지의 IV~V단계의 토기들과 비교될 수 있으며, 4세기 중엽~5세기 전엽으로 비정된다(정경화 2021 : 109). 충주 대화리 유적과 용교리 유적, 음성 하노리 유적은 제련로와 동반되는 주거지, 공방지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이 3세기 후엽~4세기 후엽에 수렴하여 4세기 이후 백제 한성기 남한강 유역에 전략적으로 조성된 제철 공방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호서 내륙지역의 마한 제철 공방은 미호강(금강)과 남한강 수계권 모두 늦어도 2세기 무렵 성립되어 자체적인 철기 생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며, 3세기 후엽까지 공방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변으로의 확산을 통해 마한

검격이 형성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김포 운양동 유적과 인천 검단지구 유적에서 출토된 철장검과 유사하다. 따라서 2세기 중~후엽의 원삼국시대 토광(목관)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5) 7-2지점 21호 주거지와 129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들이 인근의 청주 분평동 유적과 송대리 유적에서 출토된 시루, 동이, 원저단경호와 형식적으로 유사함을 근거로 하였다.

사회 내 철기 생산을 충당해 나갔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다가 4세기 이후가 되면 미호강 상류의 진천지역과 남한강 유역은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제철 공방 조업을 관리하는 주체가 백제로 변화한다. 이상 지금까지 검토한 각 제철 유적의 시간적 위치 그리고 조업주체의 변화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3단계의 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 I 단계 : A.D 2세기 전~후엽에 해당하는 시기로, 새로운 제철 기술의 수용과 제철 공방이 성립된다. 제철 공방은 미호강(금강) 수계권과 남한강 수계권으로 이원화되어 조성·운영되었으며 각각 청주 송절동 유적과 충주 칠금동 유적이 이에 대표된다. 조성 시점은 청주 송절동 유적이 더 이른 것으로 파악되며, 상기한 두 제철 공방은 각각 마한 사회 내 지역 정치체에 의해 관리되어 조업이 이루어졌고,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생산된 철과 철기가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II 단계 : A.D 3세기 전~후엽에 해당하는 시기로, 마한 사회 내 제철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제철 공방이 확산되는 시기이다. 미호강(금강) 수계권과 남한강 수계권 두 지역 제철 공방은 조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차이점이 나타난다. 미호강(금강) 수계권은 3세기 중엽부터 진천 송두리 유적 일대에 새로운 제철 공방이 조성되며 청주 송절동 유적 내에서도 이전 단계에 구릉 말단부에 조성되었던 제철로가 남쪽의 넓은 충적대지에 새롭게 조성되는 등 전반적인 확산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반면 남한강 수계권은 여전히 칠금동 일원에서만 지속적인 조업이 이루어진다. 실제 충주 칠금동 392-5번지 유적에서 30기가 넘는 제련로가 3개 층으로 중복되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제철 공방의 운영이 다소 폐쇄적이면서 집중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III 단계 : A.D 4세기 전엽~5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시기로 제철 공방 조업과 운영 주체의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주목되는 것은 이전 단계까지 활발하게 생산이 이루어졌던 송절동 유적에서의 생산이 위축되는 점이다.¹⁶⁾ 미호강(금강) 수계권의 제철 공방은 상류 지역의 진천 분지 일대로 완전히 이동하게 되며, 이

16) 청주 송절동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값의 확률분포를 보면 4세기 이후 측정값의 빈도가 급격히 떨어져 조업이 사실상 대폭 축소되거나 단절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 단계의 진천 송두리 유적이 지속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천 석장리, 구산리 유적이 새롭게 조성된다. 남한강 유역은 칠금동 유적에서 지속적인 조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외곽으로 새롭게 공방이 형성된다. 충주 용교리 유적과 대화리 유적 그리고 음성 하노리 유적에 공방이 형성되어 고구려의 남하로 충주지역을 상실하기 전까지 조업이 지속된다.

Ⅳ. 제철 조업주체와 제철 기술의 수용 배경

1. 호서 내륙지역의 묘제 · 출토 유물과 조업집단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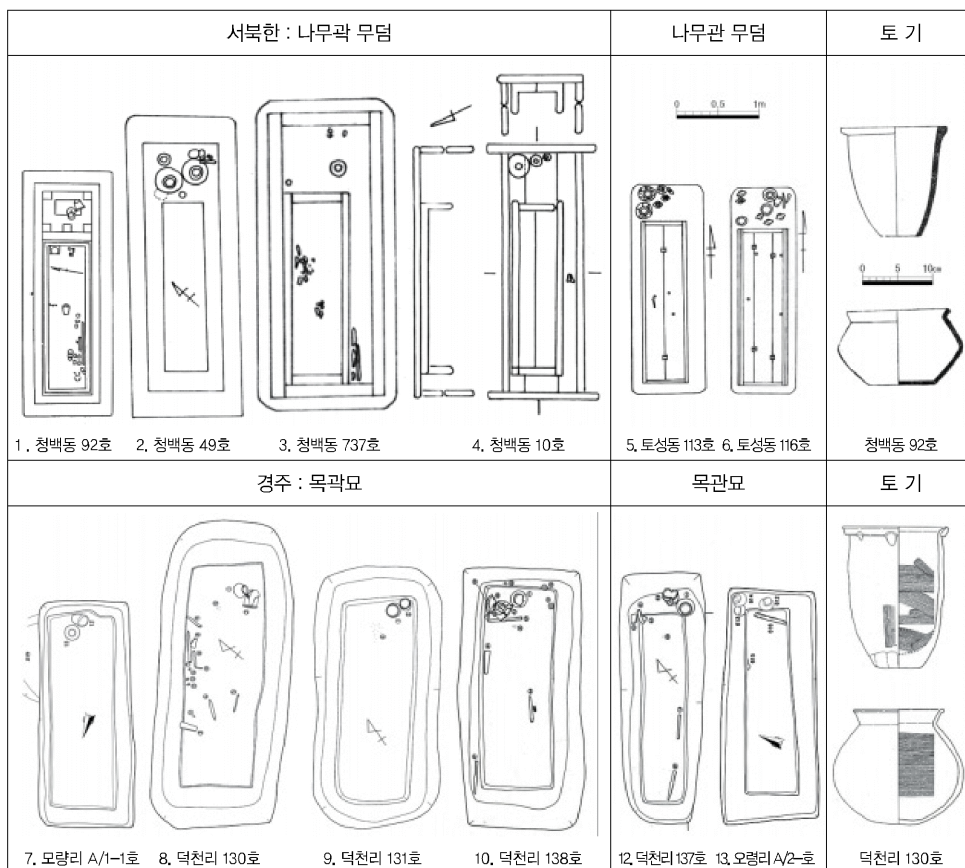
호서 내륙지역에서 확인되는 마한의 묘제는 주구가 없는 단장 목관(곽)묘가 일반적이며, 주구가 시설된 주구목관(곽)묘, 서북한 지역에서 유입된 합장묘, 대형목곽묘 등이 묘제로 채택되어 활발히 조영된다. 이중 합장묘는 낙랑 목곽묘에 채용된 대표적인 묘제로 조성 방식에 따라 동혈합장묘, 병혈합장묘, 이혈합장묘로 구분되며(高久建二 1995) 호서 내륙지역에서는 주로 병혈합장묘가 확인된다(박중균 2023). 합장묘는 대구, 울산, 경주 지역과 호서 내륙지역 중 청주 일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확인된다. 그 외에는 충주 금릉동 유적과 음성 용산리 유적 등 남한강 유역권에서 다수 확인되며, 공주 하봉리 유적, 연기 송담리 유적 등 금강 유역에서도 확인된다. 무엇보다 송절동과 오송 유적 일원을 중심으로 하는 청주지역은 가장 많은 수의 합장묘와 다량의 부장 유물 등으로 볼 때 합장묘 수용과 조성에 가장 적극적이었음이 분명하다. 호서 내륙지역에서 확인되는 원삼국시대 합장묘는 주로 병혈합장묘의 형태로 확인되는데, 이는 2~3세기대에 이루어졌던 서북한의 낙랑 문화의 과급 또는 주민 이동으로 등장한 것(박중균 2013)으로 재지 세력과 서북한 지역과의 교류 혹은 관련 주민의 이주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합장묘와 더불어 ‘표’자형 또는 ‘ㅂ’자형으로 결구된 목관(이하 조합식 목관) 또한 호서 내륙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묘제이다. 목곽과 조합되어 시신 안치 공간과 유물부장 공간이 구분되는 관·곽형식으로 조성되기도 하며, 단순 토광묘의 형태 혹은 주구와 결합되어 주구토광묘 형태로 조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목관묘는 진변한 지역에서 먼저 출현하며, 후기 고조선 또는 낙랑 목곽묘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서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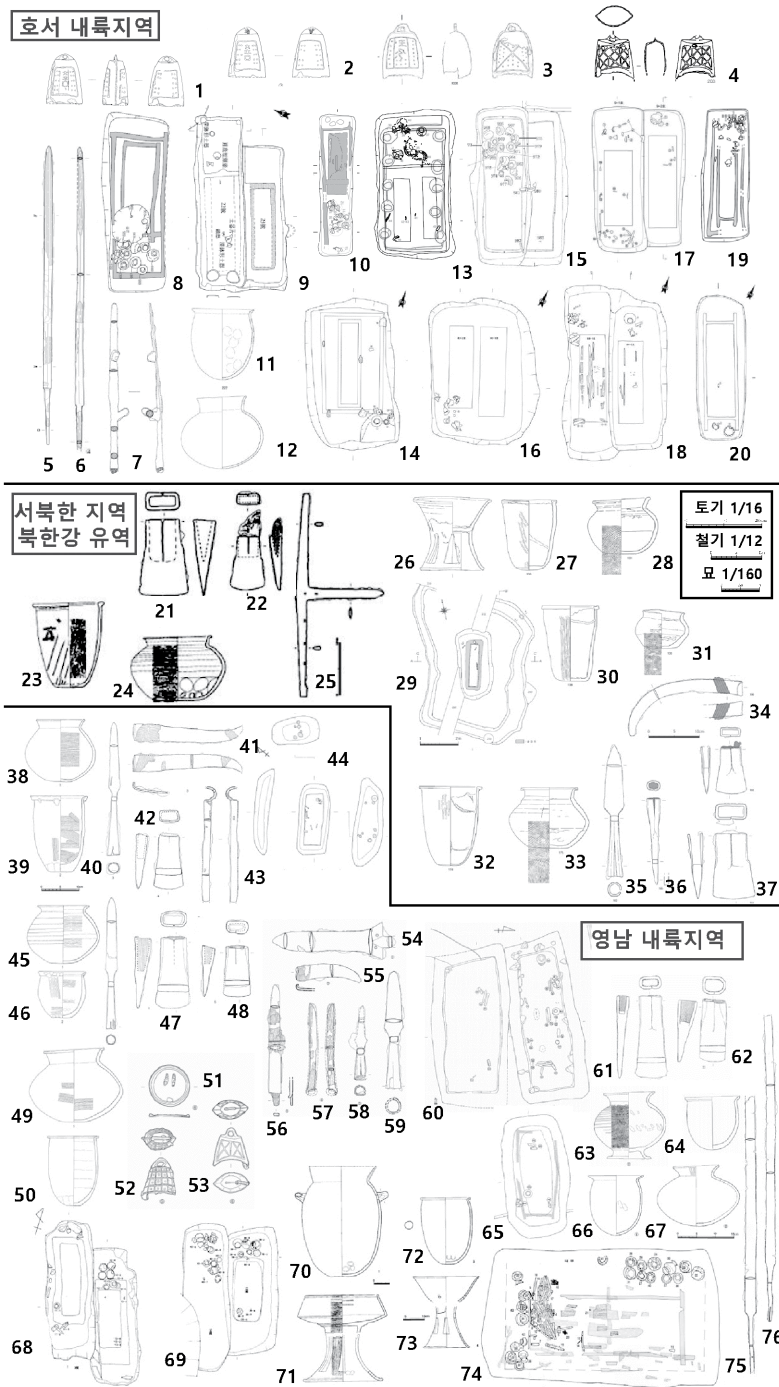
지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낙랑군이 설치된 기원전 2세기 말 이후에 등장하는 점으로 보아 그 출현 배경에는 낙랑군 설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김길식 2006).

조합식 목관은 경주를 비롯한 영남 내륙지역에서 보다 이른 시기에 출현하는데, 매장주체시설 구조와 유물의 부장상태가 서북한지역의 목관(곽)묘와 같다. 특히 부장유물의 경우 서북한지역의 단경호+화분형토기 조합이 단경소호+삼각형점토대토기로 대체되어 수용되었는데, 이는 서북한지역의 목관(곽)묘가 낙랑 설치 이전의 위만조선 시기부터 축조되었으며, 사로국 성립 무렵 위만조선 유이민의 유입과 정착을 의미한다(최병현 2020: 12).

이러한 고고자료를 통해 청주 송절동 유적을 비롯한 호서 내륙지역의 마한 제철 공방과 조업에 관여한 세력의 일부는 서북한 지역에서 유입된 낙랑계 이주민일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정경화 2022). 그러나 조업집단의 성격을 추정하는데 있어



[그림 6] 서북한·경주지역의 목곽묘·목관묘와 부장토기(최병현 2020: 11)



[그림 7] 원삼국시대 서북한계 묘제와 부장유물의 지역별 양상 비교

1~2:청주 봉명동 Ⅱ-Ⅳ지구 52호, 3:청주 송절동 2지구 4지점 61호, 5:청주 오송 16-17지점 6호, 6:충주 철금동 420, 7:청주 송절동 고분군(충북대94) 4호, 8:청주 송절동 3지구 5-2지점 15호, 9:청주 봉명동 Ⅱ-Ⅳ지구 22,23호, 10:청주 문암동(화랑) 2호, 11~12:청주 송절동 2지구 1지점 56호, 13:음성 용산리 3호, 14:충주 금릉동 32호, 15:청주 송절동 2지구 4지점 55,56호, 16:충주 금릉동 40호, 17:청주 오송 9호, 18:충주 금릉동 84호, 19:청주 외북동(충북연) B지구 61호, 20:충주 금릉동 90호, 21~25:가평 달천리 유적, 26~28:남양주 금남리 1호, 29~31:남양주 금남리 2호, 32~33:남양주 금남리 3호, 34~37:남양주 금남리 4호, 38~44:경주 덕천리 Ⅱ 130호, 45~48:경주 덕천리 Ⅱ 132호, 49~53:경주 덕천리 Ⅱ 134호, 54~59:경주 조양동 5호, 60~64:경주 황성동 513번지 40,41호, 65~67:경주 황성동 513번지 67호, 68:대구 팔달동(경북대93) 3,4호, 69:대구 팔달동(경북대93) 13,14호, 70~73:대구 팔달동 I (영문연) 50호, 74~76:포항 옥성리 고분군 Ⅱ 나지구 78호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호서 내륙지역에서 보이는 낙랑과 관련된 문화 요소가 묘제 위주로 확인되며, 부장 유물 중 토기는 영남지역과 마찬가지로 재지의 제작기법이 반영된 토기가 부장된다는 점이다. 서북한지역과 최근에는 북한강 유역의 낙랑계 분묘에도 부장되는 평저장경호(혹은 단경호)+분형토기의 조합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합장묘와 조합식 목관 등의 서북한 계통의 묘제가 나타나는 것은 피장자가 마한 사회에 동화된 집단이면서도 자신들의 출자(정체성)를 반영한 묘제는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세기 전~중엽 청주 송절동 유적과 충주 칠금동 유적을 시작으로 성립된 마한 제철 공방은 호서 내륙지역의 서북한 계통 묘제와 시간축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곧 마한사회 내 제철 공방 형성에는 서북한 묘제를 고수한 집단의 관여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2. 마한의 제철 기술 수용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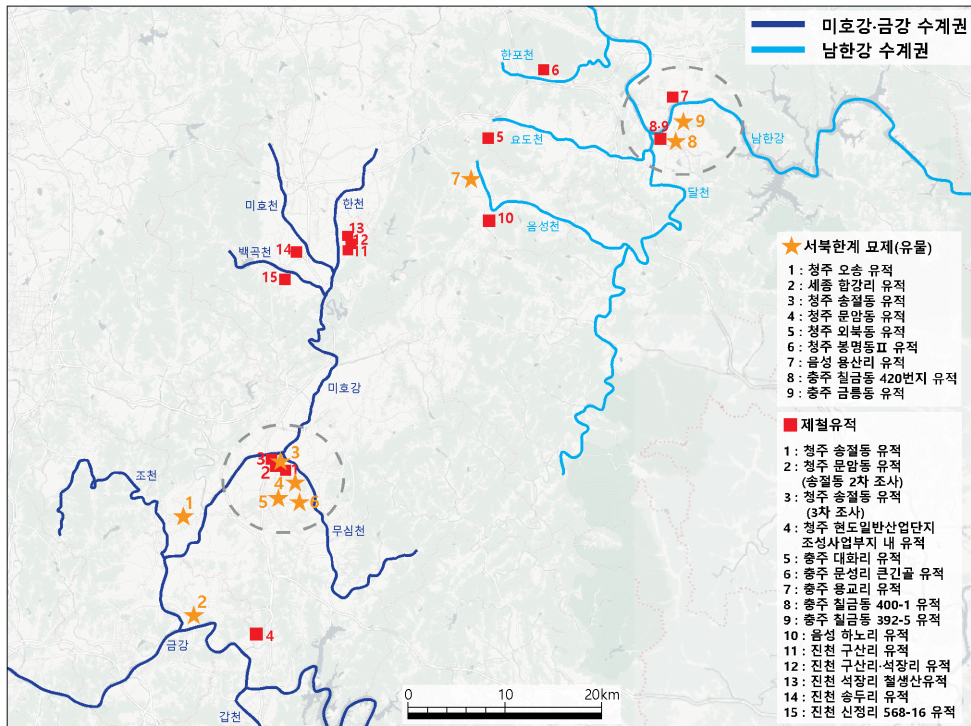
호서 내륙지역은 원삼국시대 전기부터 진변한 지역과의 활발한 교류가 존재했다. 이는 진천 송두리 유적과 오창 학소리 유적 주거지에서 조합식우각형과수호와 주머니호 등 전기 와질토기가 출토되면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청주 송절동 유적과 오송 유적, 아산 공수리 유적(기호문화재연구원 2020)에서도 원삼국시대 전기 토광묘에서 와질토기와 이단병식철모가 부장된 사례가 확인되어 마한과 진변한의 교류 양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분묘 부장품 중 보편적으로 출토되는 철모는 마한과 진변한 사이의 교류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김새봄 2011; 이용범 2018; 박장호 2020). 그중 이단병식철모는 진변한지역 원삼국시대 전기에 흔히 부장되는 철모 형식으로, 경주 황성동 575번지 유적과 평택 마두리 유적, 아산 공수리 유적에서 동일한 조합상이 확인된다.

이후 2세기 후엽, 소위 원삼국시대 후기에는 관부돌출형의 장신형철모가 호서 내륙지역을 비롯하여 마한권역 분묘에 부장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변한지역 철모와 동질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즉 마한과 진변한의 교류는 대구, 경주 중심의 영남 내륙지역에서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해안지역으로 그 대상지가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철모 외에도 호서 내륙지역의 2세기 전~중엽 분묘에는 판상철부 또는 봉상철부가 부장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 역시 대구 팔달동 유적, 경산 임당, 양지리 유적, 경주 황성동, 조양동 유적 등에서 다수 부장되는

것들이다. 상기한 철기들은 진변한에서 생산된 제품이 그대로 유입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도가 높으며, 원삼국시대 전기에는 철제 무기를 중심으로 제품 자체가 교역의 대상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호서 내륙-동남해안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는 3세기 중엽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충주 금릉동 유적과 증평 추성산성(구 이성산성), 연기 응암리 가마골 유적, 부여 논치리 유적 등에서 보이는 비대칭형 판상철정이 이를 방증한다. 비대칭형 판상철정은 주로 동남부 해안의 가야지역 분묘에 부장되는 것으로 철정을 매개로 한 교역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철기의 유입과 함께 상정되는 것은 마한 사회에 유입된 진변한인의 존재이다. 특히 진천 송두리 유적의 토광묘는 충전토가 조성되어 있고 바닥 중앙에 유물 부장을 위한 요갱이 설치되는 등 동 시기 진변한 지역 목관묘의 구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피장자가 어떠한 사회적 배경에서 진변한에서 마한 사회로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임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2세기 이전 분묘와 주거에서 출토되는 전기 와질 토기 또한 마한 사회로 이주해 온 진변한인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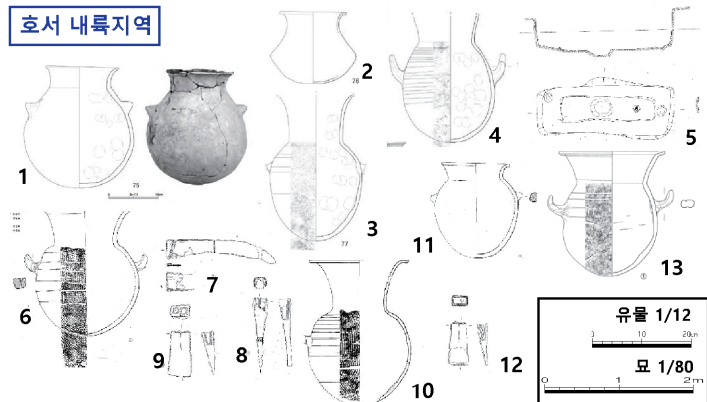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마한 사회 내 제철 기술의 도입 배경에는 제철 공방이 성립되는 2세기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진변한 지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변한 지역에 먼저 도입되었던 제철 기술이 호서 내륙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2세기 이전 마한 사회에 유입되어 이후 제철 공방 조성에 기반이 되었던 진변한 제철 기술의 기원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삼국지』 위서동이전에 위만조선 멸망 후 ‘역계경이 2,000여 호를 거느리고 진국(辰國)으로 망명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낙랑군 설치의 여파로 인하여 다수의 고조선 유이민이 남동쪽의 진변한으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대구, 경산, 경주를 중심으로 진변한 지역에 일찍이 유입되었던 서북한계 문물은 낙랑군 설치로 인한 고조선 유이민 유입에 의한 결과로 파악되며, 당시 漢의 강제 점령에 반한 토착 세력의 이주와 이탈이 빈번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지속적인 유이민의 유입은 이후 진변한의 대낙랑 교섭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변한 사회에 유입되었던 유이민 중에는 고조선 토착민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漢系 주민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은 중원의 선진 문물을 습득했을 뿐 아니라 낙랑군의 사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진변한 입장에서는 이들을 이용하여 낙랑과 효과적으로 교섭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고조선 요소와 한의 요소가 융합된 서북한의 문물이 진변한 사회에 유입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김길식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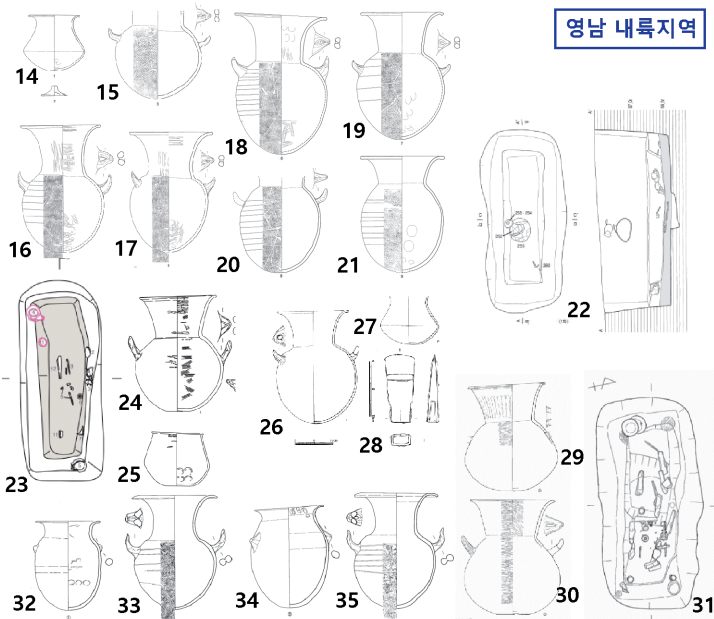
[그림 9] 호서 내륙지역 고대 제철 유적과 서북한계 묘제(유물)의 분포(1:500,000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 배경지도 재편집)

결국 낙랑군 설치에 따른 과급으로 고조선 유이민이 대거 진변한 사회로 유입되면서 마한보다 일찍 선진 문물과 기술이 유입되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제철 기술을 포함한 선진 철기문화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위만조선은 기존 고조선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롭게 漢의 병위재물(兵威財物)을 수용하여 이전의 전국계 철기문화와 단조철기가 결합된 철기문화를 구성하고 있었다(김세복 2024: 704). 영남지역에서 현재까지 2세기 이전 제련로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서북한계 묘제에 부장된 다종다량의 철기의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면 최소 기원전후 시기에는 이미 자체적인 철기 생산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서북한 계통의 묘제와 부장 유물로 볼 때 진변한 사회에 유입된 제철 기술은 서북한의 위만조선 그리고 漢 계통 기술에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2세기 초 이들이 내륙 교통로를 경유하여 마한 사회로 이입되어 마한 제철 공방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생각된다.¹⁷⁾ 이후 원

17) 제철 공방이 조성되는 2세기 이전의 철기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현재까지 실체가 불분명하다. 호서 내륙지역은 전반적으로 기원전후~1세기대에 해당하는 철기 유물의 조사 사례가 없기 때문에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 전기에 이르는 시기의 생산의 전모를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러나 아무런 기술적 기반이 없는 곳에 단



1:청주 송절동 5지구 2지점 1호, 2~3:청주 송절동 5지구 2지점 2호, 4:청주 송절동 5지구 2지점 9호, 5~9:진천 송두리(충북대 91) 2호, 10~12:진천 송두리(충북대 91) 1호, 13:오창 학소리 I 유적 1호 주거지



[그림 10] 2세기 이전 호서 내륙지역과 영남 내륙지역과의 교류 양상

1:청주 송절동 5지구 2지점 1호, 2~3:청주 송절동 5지구 2지점 12호, 4:청주 송절동 5지구 2지점 9호, 5~9:진천 송두리(충북대 91) 2호, 10~12:진천 송두리(충북대 91) 1호, 13:오창 학소리 I 호 주거지, 14~21:경산 신대리 670번지 1호, 22:경산 신대리 I 1호, 23~25:경주 탑동 20-1번지 2호, 26~28:대구 팔달동 I (영문연) 111호, 29~31:경주 조양동 II 38호, 32~35:성주 예산리 III 지구 4호

삼국시대 후기에 들어서 호서 내륙지역과 경기남부의 기안리 제철 집단과 그 기술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는 것도 진변한 지역에 선주했다가 호서 내륙지역으로 이주했

순히 문물 교류만으로 대규모 제철 공방이 조성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향후 호서 내륙지역에도 제철 공방 조성 이전의 철기생산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조사될 가능성이 높다.

던 낙랑계 제철 집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즉 선주한 진변한의 낙랑계 제철 집단이 이주하기 전 낙랑 지역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호서 내륙지역의 낙랑계 제철 집단의 이주를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진변한의 낙랑계 제철 집단이 먼저 호서 내륙지역에 들어와 제철 공방을 조성하여 제철 조업을 하는 가운데, 서북한 지역에서 새롭게 낙랑의 제철 집단이 대거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대규모 제철기지로 변화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원삼국 후기에 들어 기안리 제철 집단의 영향이 이 지역으로 미치기 시작하는 것도 결국은 진변한에 선주하고 있다가 호서 내륙지역으로 이주한 낙랑계 제철집단과 새로 호서 내륙지역으로 대거 이주한 낙랑계 제철 집단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제철집단으로서 낙랑의 특정 지역 집단에 속하며 서로 잘 알고 있던 제철 집단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호서 내륙지역에서 원삼국시대 마한 제철 공방과 인접한 곳에 조성된 서북한계 묘제는 마한 사회에서도 제철 공방 운영에 서북한 출신 집단이 깊이 관여했음을 시사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들 집단이 습득했던 제철 기술은 철기의 기종과 제철로의 구조적 특징으로 볼 때 위만조선과 중국 漢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수용된 양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 하남성 공현 철생구 유적의 제철로와 생산체계를 재검토한 연구가 주목된다(최영민 외 2024). 재검토 내용에 따르면, 철생구 유적에서는 직경 1.8m에 이르는 원형의 반지하식 제련로가 6기 확인되었으며 괴련철을 비롯한 반환원괴, 제련재 등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용해정련로로 보고된 제철로는 재검토 결과 노 바닥이 완전히 지하에 위치하는 수혈식 구조의 괴련철 정련로이며, 노 전면에 배재부가 조성되어 있고 청석받침이 확인된다(최영민 외 2024: 113~117). 즉 철생구 유적의 제철로 구조와 생산체계는 2세기 이후 형성된 호서 내륙지역의 제철로 그리고 생산 체계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마한 제철 기술의 기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제련로의 이중굴광, 단차를 형성한 배재부 및 지하구조의 목조시설 등의 구조는 현재까지 호서 내륙지역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은 마한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고안해 낸 기술력인 것으로 추정된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고대 호서 내륙지역 고대 제철 유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그동안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철로의 특성과 노의 구조적 특징을 정리하고,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값을 고고학적 편년으로 검증 및 보완하여 제철 공방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조업주체 변화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당시 제철 공방의 생산을 관리하고 조업을 주도해 나갔던 집단의 성격을 제철 유적 및 주변에 입지하는 분묘유적에서 확인되는 묘제, 그리고 마한 외 지역에서 유입된 유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격과 동향을 파악하였다.

호서 내륙지역의 고대 제철 유적은 청주와 진천 일대의 미호강 유역과 충주, 음성 일대의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제련로 다수와 이에 수반되는 정련로와 단야로가 확인되었다. 제련로는 배재부 구성에 있어 양 지역간의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남한강 유역권 제련로의 배재부가 철재 배출에 효율적인 구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체를 견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조구조물을 이용한 제련로 지하구조는 제련로 조사사례로 보아 호서 내륙지역 고대 제련로의 구조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원삼국시대부터 조성되었던 제철 공방은 크게 3개의 획기에 따라 전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먼저 2세기 전~후엽에 새로운 제철 기술이 마한사회에 유입되어 제철 공방이 성립되었으며 그 중심지는 미호강 유역권에서는 청주 송절동 일원, 남한강 유역권에는 충주 칠금동 일원이었다. 3세기 전~후엽 시기에는 마한사회 내 철 생산이 발전해 나가는 단계이자 사회적으로 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로 이를 반영해 제철 공방 또한 주변으로 확산된다. 미호강 유역권은 진천분지를 중심으로 상류지역에 또다른 공방이 형성되어 송절동과 조업이 병행되지만, 남한강 유역권은 칠금동 일원에서만 조업이 지속되는 등 차이가 보인다. 이후 4세기에 접어들면 한성백제의 등장과 세력 확장으로 인해 기존 호서 내륙지역의 마한 제철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제철 공방의 조업과 운영 주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전 단계까지 활발하게 생산이 이루어지던 청주 송절동 일대에서는 생산이 크게 위축되며, 미호강 유역권에서의 철 생산 중심지는 상류의 진천분지 일대로 이동하게 된다. 기존의 송두리 일대와 더불어 구산리와 석장리 일대에도 제철 공방이 형성되어 백제

의 지방 거점 제철 공방으로 자리매김 한다. 남한강 유역권은 여전히 철금동 일대에서 생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충주 용교리와 대화리, 음성 하노리 등 점차 주변지역으로 제철 공방이 확산되어 남한강 수로를 활용한 철기유통이 활발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호서 내륙지역의 제철 유적과 주변 유적에서 확인되는 묘제는 합장묘와 조합식 목관 등 낙랑 계통의 묘제가 다수 확인되어 피장자의 출자를 가늠할 수 있다. 제철 유적의 주변으로 분포하는 낙랑 계통 묘제는 결국 마한사회 내에서 제철조업을 주도했던 집단이 낙랑 계통이며, 마한 사회에 동화되어 생산을 주도해나갔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호서 내륙지역은 일찍이 원삼국시대 전기부터 진변한 지역과의 교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철기의 유입 및 제철 기술자 등 사람의 유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진변한계 유물은 낙랑계 묘제에 부장품으로 확인되거나 제철 유적의 주변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진변한과의 물적·인적 교류는 2세기 이후 성립되는 마한 제철 공방 형성에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변한 사회는 마한보다 앞서 서북한계 문물과 접하고 위만조선 유민과 漢계 주민의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선진 철기 문화와 제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결국 호서 내륙지역 제철 유적 주변에서 확인되는 진변한계 유물과 낙랑계 묘제의 양상은 바로 마한 제철 공방의 형성과 발전에는 선진 철기문화를 보유했던 서북한의 낙랑계 제철집단이 크게 관여하였던 것이다.

투고일 2025. 4. 30 | 심사완료일 2025. 5. 26 | 게재확정일 2025. 5. 28

참고문헌

- 加耕考古學研究所, 2021, 『陰城 下老里 능모루이 遺蹟』.
- 高久建二, 1995, 『낙랑 고분문화의 연구』, 학연문화사.
- 국립중앙문화유산연구소, 2024, 『충주 칠금동(392-5번지 일대) 제철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Ⅲ』.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18, 『충주 칠금동(392-5번지 일대) 제철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
- _____, 2020, 『충주 칠금동(392-5번지 일대) 제철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I』.
- 국립청주박물관, 2004, 『진천 석장리 철생산유적』.
- 기호문화재연구원, 2020, 『아산 공수리 유적』.
- 김정호 · 곡문수, 2023, 「청주 송절동유적의 제철유구 분석」, 『청주 송절동유적의 마한백제문화 성격과 활용』, 한국선사문화연구원.
- 김길식, 2006, 「진 · 변한 지역 낙랑 문물의 유입 양상과 그 배경」, 『낙랑 문화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7, 「원삼국~백제 한성기 경기남부지역 제철기지 운용과 지배세력의 변화 추이」, 『百濟文化』제56輯,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 金武重, 2004, 『華城 期安里製鐵遺蹟 出土 樂浪系土器에 대하여』, 『百濟研究』 3,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김세봄, 2011, 「原三國後期 嶺南地域과 京畿 · 忠清地域 鐵冶의 交流樣相」, 『한국고고학보』 81, 한국고고학회.
- _____, 2024, 「북한강유역권에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철기문화와 위만조선(衛滿朝鮮)」, 『한국고고학보』2023권 4호, 한국고고학회.
- 박장호, 2020, 「중부지역 진변한계 철기의 변화와 철생산」, 『고문화』제96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_____, 2022, 「진 · 변한인의 중부지역 이주와 그 역사적 함의」, 『영남고고학』제90호, 영남고고학회.
- 박중국, 2024, 「원삼국시대 화성 기안리 제철 공방의 조성 배경」, 『한국고고학보』 2024권 2호, 한국고고학회.
- 朴重均, 2013, 「금강유역 원삼국기 문화의 지역성과 ‘국’의 존재양태」, 『호서고고학』28, 호서고고학회.
- _____, 2023, 「청주지역 마한 · 백제 묘제의 전개 양상」, 『청주 송절동유적의 마한백제문화 성격과 활용』, 한국선사문화연구원.
- 세종문화재연구원, 2024, 『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내 유적 매장유산 표본 · 시굴 · 발굴조사 약 식보고서』.
- 이남규, 2002, 「韓半島 初期鐵器文化의 流入 樣相 -樂浪 설치 以前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第36號,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19, 「한국 고대 제철공정의 재검토 -중국과의 비교적 시각에서-」, 『한국고고학보』제111집, 한국고고학회.
- 이용범, 2018, 「2~3세기 마한과 진변한의 철제무기 교류의 배경」, 『고고학』 17-1, 중부고고학회.
- 李芝恩, 2020, 「南韓地域 古代 鐵製鍊爐의 變遷과 地域性」, 忠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이정아 · 김다희 · 김효진, 2018, 「송절동 유적의 마한 · 백제 주거지출토 토기 검토」, 『청주 마한 백제를 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부지 내 송절동 유적 학술대회 발표문.
- 정경화, 2021, 「원삼국~백제 한성기 중부지역 제철기지의 조성과 변화과정」, 『한국고고학보』2021권 2호, 한국고고학회.
- _____, 2022, 「3~4세기 미호천 유역의 철 생산과 조업세력 검토-청주 · 진천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제철 기술 연구논문집2』,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 정락현, 2023, 「충주 칠금동유적 제철 유적의 발굴조사 성과와 제련로의 구조적 특징」, 『강철백제-철생산의 중심지, 충주』,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 한성백제박물관 공동학술대회.
- 鄭宗鎬, 2025, 「한반도 고대 제련로의 변천양상과 그 배경」, 『百濟研究』 第81輯,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趙錄柱, 2010, 「中部內陸地域 百濟 鐵 生産 遺蹟의 性格」, 忠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18, 「충청지역 고대 제철 유적의 재검토」, 『최신 동북아시아 고대 제철 유적의 발굴 성과와 그 의의』,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 _____, 2024, 「백제 한성기 증원지역 철 생산의 흐름」, 『한성백제와 증원』, 서울특별시 · 충청북도.
- 조상기, 2015, 『청주지역 백제토기 전개과정과 고대 정치체』, 진인진.
- 조원창, 2010, 『백제시대 부여지역 저습지에 조성된 유적에서 나타나는 연약지반 개량공법 연구』, 건축역사연구 19, 한국건축역사학회.
- 中部考古學研究所, 2021, 『忠州 荷潭里 · 峇屏里 · 龍橋里 遺蹟』.
- 中央文化財研究院, 2013, 『烏山 關洞 遺蹟』.
- 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청주 오송 유적』.
- _____, 2020, 『진천 송두리 유적』.
- 中原文化財研究院, 2008a, 『梧倉 鶴巢里 · 場垜里 遺蹟』.
- _____, 2008b, 『충주 칠금동 제철 유적』.
- _____, 2012, 『忠州 大花里 遺蹟』.
- _____, 2014, 『충주 가신리 · 문성리 유적』.
- 忠北大學校博物館, 1991, 『鎭川松斗里發掘調査報告書』.
- _____, 2007, 『忠州 金陵洞 遺蹟』.
- 충북대학교박물관 · 충청대학교 박물관 · 증원문화재연구원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8, 『청주 송절동 유적』.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진천 구산리 유적』.
- _____, 2018a, 『淸州 松節洞 遺蹟 Ⅳ』.
- _____, 2018b, 『진천 신정리 568-16번지 유적』.
- _____, 2021, 『청주 외북동 · 문암동 유적』.
- _____, 2024, 『음성 용산리 유적』.
- 최병현, 2020, 「경주지역의 목관묘 전개와 신라 초기 왕묘의 위상」, 『목관묘로 본 사료국과 신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최영민, 2017, 『고대 한반도 중부지역의 제철 기술 연구』, 진인진.
- 최영민 · 이춘선 · 김세봄 · 정종호 · 정윤희, 2024, 「중국 하남성 공현 철생구 유적 발굴보고서의 재검토」, 『Digital+Humanities』 Vol.31, 아주대학교 도서관박물관 인문과학 연구소 디지털역사연구소.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3, 『진천 구산리 · 석장리 유적』.
- _____, 2018, 『淸州 松節洞 遺蹟 Ⅱ』.
- _____, 2023,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부분완료 약보고서」.
- 韓國文化流遺産研究院, 2012, 『平澤 馬斗里 遺蹟』.
- 한라문화재연구원, 2022, 『충주 칠금동 420번지 유적』.
- 한지선, 2018, 「백제 제철조업의 공정별 연구 현황과 과제」, 『백제학보』 제25호, 백제학회.
-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8, 『淸州 松節洞 遺蹟 Ⅵ』.
- _____, 2021, 『충주 금릉동 301-4번지 유적』.

Formation of iron production workshops and Trends of Ironworking Communities in the Inland Region of Hoseo during the Mahan Period

Kim, Gil-Sik(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Yong-In University)

Jeong, Kyung-Hwa(Researcher, Jungbu Institute of Archaeology)

Iron production sites from the Proto – Three Kingdoms period in the inland region of Hoseo are primarily distributed along the Miho River and Namhan River basins. These sites exhibit a production system centered on wrought iron manufacturing. Smelting furnaces reveal regional differences in tuyère structures between the two areas, and timber reinforcements were installed in substructure levels to stabilize the furnace architecture.

The development of ironworking facilities in this reg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phases. In Phase I (ca. late 2nd century BCE to early 2nd century CE), ironworking was first introduced into Mahan society,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production facilities at key locations such as Songjeol-dong in Cheongju and Chilgeum-dong in Chungju. Phase II (ca. late 2nd to early 3rd century CE) is characterized by increasing demand for iron within Mahan, resulting in the spatial expansion of workshops and intensified production. In Phase III (from the 4th century CE onward), with the emergence of Hanseong Baekje and its expansion into surrounding regions, production in the Songjeol-dong area declined, while new centers emerged in the upper Miho River region, particularly around Jincheon. In the Namhan River basin, production activities continued at Chilgeum-dong and further expanded along the main river and its tributaries, eventually forming an iron

production base for Baekje.

Funerary features such as multiple burials and mortise-and-tenon wooden coffins found near these ironworking sites suggest the presence of groups associated with the Lelang Commandery. These groups likely played a leading role in iron production and were gradually integrated into Mahan society. Earlier interactions with the Jinbeonhan region not only introduced iron artifacts but may also have facilitated the movement of skilled metallurgists. Jinbeonhan-type artifacts, found alongside Lelang-style burial features, support this interpretation. Such intercultural exchanges formed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ironworking facilities in Mahan, likely led by Lelang-affiliated groups from Jinbeonhan who had prior access to advanced metallurgical technologies through contact with the northwestern cultural sphere.

Key words : Mahan, Jinbeonhan, Lelang Commandery, iron production workshops, mortuary practices, interregional exchange

소가야 다곽식 고분의 전개와 특징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gaya Multi-Chamber Tombs

류 승 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I. 머리말

II. 묘곽 유형과 피장자의 정체성

III. 다곽식 고분의 유형과 매장례

IV. 소가야 다곽식 고분군의 전개 양상

V. 맺음말

국문 요약

그간 소가야 다곽식 고분의 연구는 배치를 통한 형식 분류와 변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다. 분류와 변천의 해명에 중점을 둔 그간의 연구는 같은 묘역에 배치된 묘곽의 피장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 없었다. 함께 묻힌 피장자의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곽식 고분을 막연히 가족묘 혹은 근친묘로 생각해 왔다. 다곽식 고분은 여러 묘곽이 모여 하나의 묘역을 공유하고 있다. 다곽식 고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묘곽을 분류하고 이러한 묘곽이 어떤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피장자의 정체성이 반영된 묘곽 분류를 통해 다곽식 고분의 피장자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분류와 유형화를 시도해 보고자 했다. 남부가야 사회에는 하나의 봉분 안에 여러 기의 묘곽이 배치된 다곽식 고분이라는 동일한 매장 의례가 확산되어 있었다. 제 지역 집단의 고분군들은 다곽식이라는 하나의 매장 관념에 따라 조영되었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피장자의 조합을 보여주는 다곽식 고분이 축조되어 각 조성 집단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주제어 : 소가야, 다곽식 고분, 묘제, 매장 의례, 정체성, 성별

I . 머리말

다곽식 고분은 하나의 묘역 내에 여러 기의 매장시설이 함께 축조된 무덤을 말한다. 다곽식 고분의 연구는 신라 적석목곽분을 외곽 무덤과 다곽 무덤으로 구분하고 다곽 무덤을 가족 또는 부부 무덤으로 분류한 것으로 시작되었다(박진욱 1964). 이후 가야의 다곽식 고분의 축조형식을 한 봉토분에 2기 이상의 묘곽이 있는 다곽식과 1기의 묘곽이 있는 단곽식으로 구분했다. 다곽식에는 주곽과 부곽이 있는 것과 3기 이상의 묘곽이 있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다곽식 고분의 존재를 다시 한번 부각하였다(윤세영 1974). 이처럼 초기 다곽식 고분의 논의들은 신라와 가야를 함께 논의하며 다곽식 고분의 성격을 이해하려 하기 보다는 다곽식에서 단곽식으로 변화하였을 것이라는 편년적 해석을 내놓았다.

이후 다곽식 고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다만 가축묘의 전환과정에서 낙동강을 경계로 서부지역은 비교적 큰 매장주체부를 축조로 해서 보다 소형의 매장주체부가 원형의 묘역에 둘러지며, 동부지역은 대등한 규모의 매장주체부 2기가 나란히 11자형으로 배치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이성주 1996), 다곽식 고분에 배치된 묘곽 사이의 관계에 처음 관심을 보인 연구로 평가된다.

사실 합천 삼가고분군이 발굴되고 그 성과가 보고되면서 이 고분군을 중심으로 연구가 다곽식 고분의 연구가 본격화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후 합천 삼가고분군의 다곽식 특징을 분석하여, 가야권역 다곽식 고분과 비교하는 연구가 여럿 발표되었다. 가야 지역의 고분군의 다곽분을 주변 석곽의 면적 차이, 매장주체부의 축조순서, 평면배치 형태를 기준으로 고령식, 고성식, 삼가식이라 칭한 연구(최영준 2017: 34~45), 5~6세기 소가야연맹체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며 소가야권역의 다곽식 석곽묘 ‘다곽식 석곽묘1’, ‘다곽식 석곽묘2’로 분류한 연구(여창현 2017: 134), 소가야권 고분의 축조공정을 통한 유형 설정을 바탕으로 축조공정별 축조기법과 매장의례에 대한 분석(정인태 2020: 64~79), 매장시설의 배치와 조성방식, 봉분의 증축과 묘역의 확장 등을 통해 다곽식 고분의 분포와 지역성에 대해 검토한 연구(하승철 2021: 241~243), 묘역, 봉분, 매장주체부 등의 속성 분석을 통해 삼가식 고분을 ‘봉토중첩 확장형 구조’로 정의하였던 연구(안기동 2023: 138)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다곽식 고분의 연구에서는 매장시설의 구조와 배치 형태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고분의 편년과 분포권역의 설정 그리고 계통 및 위계 등에 대하여 논의해 왔다. 그동안 다곽식 묘제에 관한 여러 논의를 통해 특히 소가야계통의 고분에 관한 이해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의 일체적 구조로서 소가야의 다곽식 고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되지 못한 의문이 많다고 생각된다. 즉 하나의 묘역 안에 배치된 피장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들은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들이었을까? 부장양상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무덤들로 구성된 고분군의 조영 집단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가?

여러 기의 매장시설이 일정 시기에 걸쳐 하나의 묘역 안에 배치된 다곽식 고분에 관한 의문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정체성을 달리하는 여러 피장자가 한 무덤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일회적인 축조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의 의례적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곽식 고분의 성격은 하나의 무덤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여러 피장자의 조합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다곽식 고분의 분석에서는 묘곽의 평면적 배치 양상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층서적 관계의 파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이 반영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속성들을 통해 각 묘곽을 분류하고, 하나의 묘역 안에 분포하는 묘곽의 조합과 배치관계를 분석하여 다곽식 고분에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다곽식 고분이 다수 확인되는 소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가야의 다곽식 고분은 합천, 의령, 산청, 고성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이 외에 거창, 순천, 함양, 통영, 진주에서도 다곽식 고분이 확인된다. 이 연구에서는 소가야 양식 토기가 출토되는 고분군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양식의 부장이 중단되고 대가야 혹은 신라 양식 토기가 대체 출토되더라도 소가야적 의례가 지속된다면 연구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대상지는 합천 삼가고분군, 합천 안계리 고분군, 합천 소오리고분군, 의령 오천리고분군, 의령 경산리고분군, 의령 천곡리고분군, 고성 내산리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고성 울대리2호분, 고성 신용리고분군, 산청 명동유적, 산청 생초고분군, 진주 가좌동고분군, 통영 남평리고분군, 통영 팔천곡고분군으로 총 15개소이다.

Ⅱ. 묘곽 유형과 피장자의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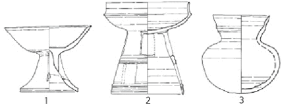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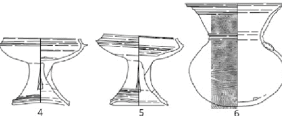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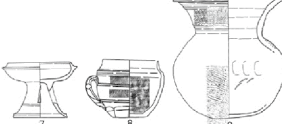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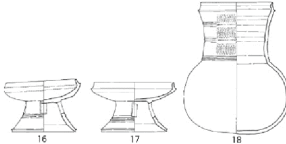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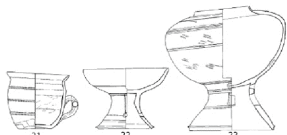
1. 편년

개별 묘곽의 연대를 설정하기 위해 고분에 부장되는 토기형식을 바탕으로 단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고성, 합천, 산청, 진주, 의령, 통영으로 소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편년 기준은 소가야 토기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일부 부장된 대가야와 아라가야의 토기도 참고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소가야 지역의 토기는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표 1)에 따르면 중촌 3호 동석곽 →

[표 1] 기존 소가야 토기 편년

연대	박승규(2000·2010)	하승철(2001·2015)	김규운(2009)	여창현(2013)	김지연(2013)
5C 1/4		중촌 3南 목곽 옥산 35·41·43	옥산 70 우수 18 무촌 2邱 52		
5C 2/4	우수 18 중촌 3南 목곽 옥산 38, 43, 60 중촌, 서동채집	우수 17·18 무촌 2구 60 옥산 29·63·80·189 중촌 3北·3西 목곽	무촌 2邱 60·29·85·16·14 무촌 3邱 129 옥산 21·40·80	현동(東西) 9·41·63 현동(島) 48 오곡 10	중촌 3南 목곽 현동 48 옥산 41 우수 18 중촌 3北 목곽묘 현동 56
5C 3/4	우수 12·16 연당 14 중촌 3東 석곽 현동 54 예둔 1, 25, 54, 57 고이 나-3, 10, 12	우수 11·12·16 무촌 2구 10·55·85 무촌 3구 147 현동 64 삼가 3·6·10 석곽 중촌 3東 석곽	월산 M1-A 중촌 3東 석곽 우수 16 무촌 2邱 25·51·55·80·82 무촌 3邱 83·145·147·170 명동 2지구 7·10·1·12·13	현동(東西) 8·130 대평 2-3 무촌 2邱 60·29·36·85·76·51 남평 10 우수 18 옥산 21·40 도항 19	무촌 2邱 10·11·14·16·29·36 ·55·60·85·96 무촌 3邱 129·147 창촌 A-158, 우수 16 도항 428-1번지 19 무촌 2邱 25·51·90 중촌 3東 석곽 평촌 167 오곡 152
5C 4/4	우수 14 예둔 27 가좌 1 고이 나-17 배만골채집	우수 14 삼가 9·14·15·20 중촌 21東 석곽 고성 내산 3곽 무촌 2邱 80 무촌 3邱 145 송학 1A-1호분 거제 장목고분	예둔 1·54 연당 14 무촌 3邱 82 가좌 1	무촌 3邱 129·147·145·55·80 ·82·83·54 무촌 2邱 55·80 대평 2·56, 남평 1 도항 17, 우수 16 현동(東西) 6 연당 14, 예둔 154 내산 3 명동 116, 112	무촌 3邱 133·145 합성 10·60 오곡 119·34·88 남평 1 명동 116, 115 평촌 148 도항 428-1번지 15
6C 1/4	가좌 2 연당 23 천곡 10-1 내산 8	명동 125-1·134 명동 178-3 삼가 M6-1 연당 23 가좌 1·2 송학 1B-1 사천 선진리고분	명동 169-1·78-2·99-1 명동 112 내산 34 연당 23 율대 2 가좌 2 우복 4	우복 4, 연당 23·18 명동 159·18·88-1·17·34 가좌 2, 예수 2 천곡 10-1·43·39-1·32 내산 34·8 송학 1A-11 신용 14-4	무촌 2邱 63 무촌 3邱 54·55·80·81 명동 117·31·41 명동 113·37·38 평촌 157 천곡 32 가좌 1
6C 2/4	가좌 4 연당 18 내산 34 천곡 35-2, 3 운곡 2	천곡 3·35-2·43 가좌 4 연당 18 내산 34 옥봉 7 운곡 2	천곡 3·32·39-1 명동 174	명동 17-1·78-33·20-1·74 명동 121 가좌 1·4 신용 116 내산 64·21-1·8-3	우복 4 무촌 3구 37 가좌 2 송학 1A-7·11 내산 21-1·15·34주·63-2 천곡 2·35-2·43

	소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도면 1] 연구대상지 편년

1·2·3: 통영 남평리10, 4·5·6: 삼가 I 지구 25, 7·8: 삼가 II 지구 M8-1, 9: 명동 I 25-1, 10·11: 천곡35-2,
13·14: 삼가3-A, 15: 삼가9-F, 16:10-1, 17·18: 오천 24-1, 19·20: 오천8-1, 21: 오천12-2, 22: 오천35-1, 23: 오천6-1

가좌 1호 → 내산 34호 · 천곡 8호 등의 순서로 이어진 상대편년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소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중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실연대의 부여에 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견해 차이가 나타난다. 하승철은 소가야 토기와 스에키의 공반관계와 주변지역 토기와의 교차편년을 통해 소가야 토기를 I a단계 5세기 1/4분기, I b단계 5세기 2/4분기, II 단계는 5세기 3/4분기, III 단계는 5세기 4/4분기, IV 단계는 6세기 1/4분기, V 단계는 6세기 2/4~3/4분기로 설정했다. 하승철의 편년안을 따르되, 본고에서는 25년 단위로 시간성을 부여하기 위해 6세기 2/4분기와 6세기 3/4분기도 세분하여 단계를 부여했다.

본고에서는 5세기 3/4분기부터 6세기 3/4분기까지 총 5단계로 나누고자 한다. 1 단계를 5세기 3/4분기, 2단계를 5세기 4/4분기, 3단계를 6세기 1/4분기, 4단계를 6세기 2/4분기, 5단계를 6세기 3/4분기로 하여 25년 단위로 시간성을 부여하였다.

2. 묘곽 유형과 피장자의 정체성

다곽식 고분을 분류하기 이전에 다곽식 고분이 어떤 묘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곽식 고분은 여러 묘곽이 모여 하나의 묘역을 공유하면서 배치되어 있다. 이에 다곽식 고분의 성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 묘곽을 분류하고 이러한 묘곽이 어떤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피장자에 배당된 사회적 정체성의 한 단면이 묘곽과 부장유물에 반영되어 있으리라고 전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 따라 묘곽을 분류하려면 묘곽의 종류, 크기, 축조 시기, 부장품 등 다양한 속성들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정체성이란 피장자가 생전에 생득적·후천적으로 얻게 된 개인적인 특성을 말하며, 피장자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어 갔었으리라고 생각된다(Chris Fowler 2004: 4). 무덤의 축조 혹은 매장행위는 단순히 피장자가 생전에 가졌던 사회적 페르소나를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무덤의 축조에 참여하거나 무덤의 피장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죽음과 무덤 그리고 피장자에 대한 기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Thomas 1996: 51~52). 그러한 가운데 피장자의 정체성을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 재해석하게 되고 그러한 인식이 매장의례에 표현되리라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부장품은 피장자가 살아생전 사회 내 지위, 역할, 혹은 성별 등을 감안하여 무덤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피장자를 나타낼 수 있는 정체성이라 여기고 이를 함께 묻어준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그중에서도 피장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부장품이라고 전제해두고 부장품을 중심으로 피장자의 정체성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 직업과 남녀의 구분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장품을 준비했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고 피장자로부터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부장품을 준비했다면 그러한 차별화가 부장유물에 나타났을 것이다.

따라서 유물의 조합상을 통해 묘곽의 피장자 사회적 지위, 성별, 직업 등의 정체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란 피장자가 생전에 어떤 위계성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의 무덤에는 후장이 배풀어져 피장자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했을 것이다. 유물의 수량이 많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대적인 지위를 추론할 때는 유물의 수량적인 면도 충분히 고려사항이 된다고 생각된다. 토기와 철기 같은 기본 부장품의 수량과 함께 금공품 유무를 통해 지위의 등급을 파악해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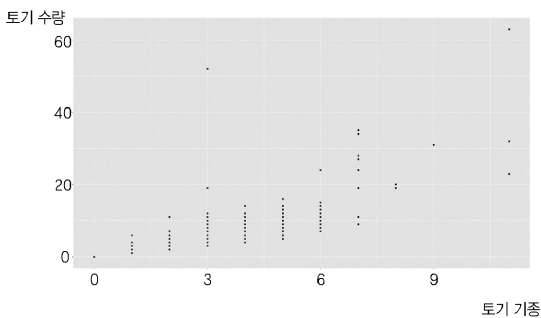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는 요소로는 토기 기종 대비 토기 부장 수량, 철기 부장 수량, 금공품 부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을 판단해보고자 했다. 그 결과 사회적 지위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판단했다.

(1) 토기 기종 대비 토기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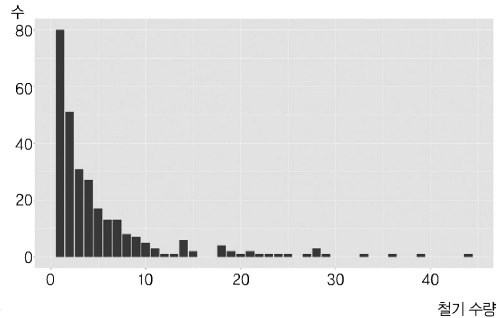
묘곽 내에 토기 기종의 조합이 증가할수록 토기의 수량도 증가하는 점을 알 수 있다. 토기의 기종을 달리해서 부장하는 것은 피장자의 장례 행위에 사용했거나 사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릇을 봉헌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토기 기종 수가 많고 토기의 부장량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보고자 한다.

(2) 철기 수량

철기는 피장자가 생전에 사용했던 사용재나 위신재 등의 의미로 다양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철기는 수량적인 부분도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결국 어떠한 철기가 부장되었는가가 사회적 지위를 파악하는데 핵심이다. 하지만 철기 조합에 관한 분석은 후에 피장자의 직능을 구분하며 분석할 예정이므로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는데에는 철기의 수량을 통해서만 판단하고자 한다.



[도면 2] 토기 기종 대비 토기 수량



[도면 3] 철기 수량

(3) 금공품 부장 유무

금공품은 매우 한정된 사람들이 권력의 과시를 위해 소유하는 위신제 가운데 대표적인 물품이다. 금공품이 부장된 매장시설의 피장자는 지위가 높을 것이라고 전해된다. 금공품이 부장된 묘곽은 579의 유구 중 26기이며 [표 2]와 같다. 금공품이 부장된 고분군도 매우 한정되어 있어 합천 삼가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산청 생초고분군, 고성 내산리고분군 등 전체 연구 대상의 고분군 15개소 중에 4개 고분군만이 금공품이 부장된 매장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고분군 내에서도 금공품을 부장한 묘곽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그러한 매장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고분군 자체의 위계도 소가야 내에서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금공품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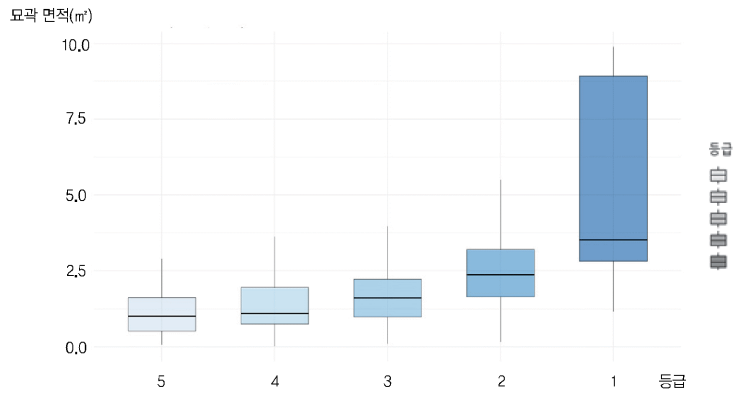
연번	곽명	이식	경식	금구	천	금제주식
1	삼가D1-G	○				
2	삼가2-M2-2	○				
3	삼가2-M4-3	○				
4	삼가2-M10-5	○				
5	삼가2-M15-1	○				
6	삼가2-M17-9	○				
7	삼가D69-1	○				
8	삼가1-M3-1	○				
9	삼가1-M3-2	○				
10	삼가1-M5-1	○				
11	삼가1-M8-5	○				
12	삼가1-M10-1	○				
13	삼가1-M10-3	○				
14	삼가1-M10-4	○				
15	삼가1-M10-7	○				
16	삼가1-3	○				
17	삼가1-26	○				
18	송학1A-1		○	○		
19	생초M4-1		○			
20	내산Ⅱ 34주곽			○	○	
21	내산Ⅱ 34-1				○	
22	내산Ⅰ 21-1			○		
23	내산Ⅰ 28-1				○	
24	송학1A-6			○		
25	송학1A-11					○
26	생초M12호분				○	

따라서 579개의 묘곽을 토기 수량, 철기 수량, 금공품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등급으로 나누었다.¹⁾ 이후 등급과 묘곽 크기 간의 상관관계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등급이 높을수록 묘곽의 평균 면적이 큰 경향을 보였다. 1등급의 평균 면적은 약 4㎡, 2등급은 약 2.5㎡, 3등급은 약 2㎡, 4등급은 약 1.2㎡, 5등급은 약 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묘곽의 크기가 클수록 높은 등급(1등급)에 해당하고, 작을수록 낮은 등급(5등급)에 해당하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1등급 묘곽은 매장시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피장자의 매장시설로 토기 기종 및 수량, 철기 수량이 가장 많고 금공품까지 부장된다. 이는 고분군 내에서도 높은 위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피장자는 소가야 지역군 내에서도 가장 높은 위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인다. 2등급은 토기 기종 및 수량, 철기 수량

1) 지면 관계상 579개의 묘곽을 1~5등급으로 분류한 내용은 실지 못하였으나, 필자의 석사 논문(류승혜 2024)에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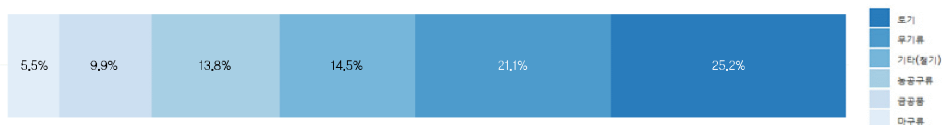
[도면 4] 등급과 묘곽 크기의 상관관계

이 많은 묘곽에 속하고 금공품도 부장되고 있으나 1등급보다는 수량적으로 못 미치는 경우를 2등급으로 설정했다. 이들은 각 고분군 내에서는 최고 위계를 가지나 소가야 권역 전체에서는 가장 높은 위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3등급의 경우에는 토기의 기종 조합, 철기 수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금공품이 부장되기도 한 묘곽이다. 금공품을 부장함으로써 위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알 수 있지만, 2등급처럼 고분군 내에서 높은 지위에 속하는 계층은 아니었다. 4등급은 토기의 기종 조합 및 토기와 철기의 부장량이 적고 금공품 역시 부장되어 있지 않은 피장자들이다. 이들은 고분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위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5등급은 유물이 거의 부장되지 않은 등급으로 고분군 내에서 최하위의 위계에 포함된다.

2) 성별

성별의 정체성은 남과 여 이원론적 구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가야 고분군에서는 인골과 같은 직접적인 자료가 결여된 상태가 일반적이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안된 몇 가지 가설(대도 가설 등)을 고려하여 추정이 가능한 매장시설에 대해서만 성별을 판단했다(김선주 2010; 김성태 2016; 하대룡 2016, 2019, 2023). 일부 발굴된 인골 자료와 대도와 방추차, 옥을 중심으로 성별을 규명하고자 한 시도를 참고하여 피장자의 성적 정체성을 추론하였다. 성별 구분을 유물을 통해 말한다는 점은 논리적 비약이 될 수도 있으나, 인골이 출토되지 않아 피장자의 성별을 명확히 할 수 없기에 부장 유물을 참고하여 추론해보고자 하였다.

대도와 함께 동반되는 유물군으로 토기류 25.2%, 철제 무기류 21.2%, 철제 농공구류 13.8%, 철제 마구류 5.5%, 기타 철기류 14.5%, 금공품 9.9%이다. 방추차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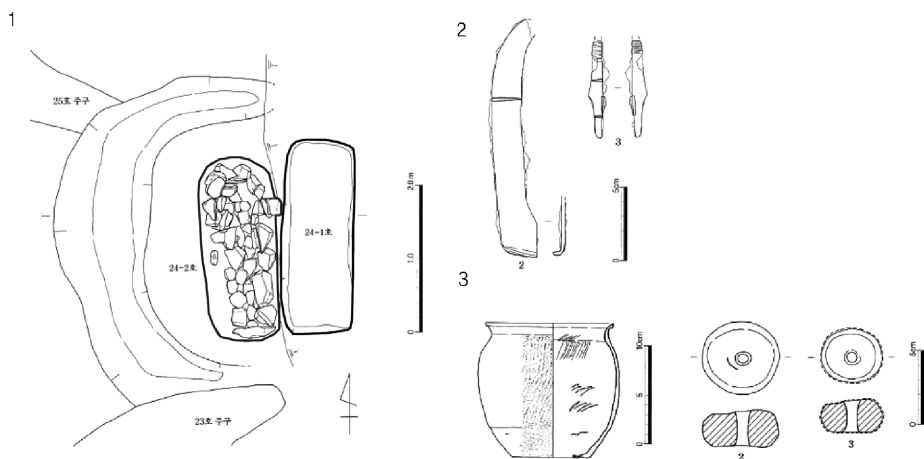
[도면 5] 대도 동반 유물군



[도면 6] 방추차 동반 유물군

계 동반되는 유물군으로 토기류 54.1%, 철제 무기류 2.9%, 철제 농공구류 6.2%, 철제 마구류 1.3%, 기타 철기류 15.6%, 금공품 2.7%, 옥 17.3%이다. 대도와 동반되는 유물군은 토기류의 부장이 상대적으로 낮고, 철기의 부장 비율이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철제 무기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방추차와 동반되는 유물군에서는 토기류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철기류의 부장 비율은 낮다. 또한, 방추차와 동반되는 유물군은 옥이 17.3%의 높은 비율을 가지며 같이 부장되나 대도와 옥은 함께 부장되지 않는다.

이에 선행 연구와 연구 대상지의 유물군을 참고하여 방추차는 여성, 대도는 남성으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대도와 방추차는 동반되는 유물군이 확연히 다르며 이는 대도와 방추차가 피장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장품의 역할을 어느 정도 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번 연구 대상지의 유구에서도 방추차와 대도가 배타적으로 부장되는



[도면 7] 성별 구분(1: 명동1-24, 2: 1-24-1(남성), 3: 명동1-24-2(여성))

점, 함께 부장되는 유물군도 상이하다는 점 등을 통해 방추차와 대도를 성별 구분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3) 직능

직능은 생전에 사회에서 어떤 직업적 역할을 수행했는가에 관한 것으로 철기 조합상을 통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철기는 매장의례에 봉헌되는 물품이면서 동시에 생전에 사용되었던 실용의 도구였다. 철기가 실용의 도구였다는 점에서 피장자의 개인의 사회적 활동이나 직업적인 역할을 추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문묘에 부장된 철기의 각 기종별 빈도와 조합²⁾을 통해 피장자 개인의 사회적 직능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부장품의 분류를 통한 등급, 혹은 유형 설정이 피장자의 당시 사회적 위계나 정체성과 일대일로 대응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이희준 2011: 53~54) 있다. 그러나 부장품 가운데 매장의례를 통해 피장자의 사회적 활동을 표상하고 기억하기 위해 부장하는 물품이 철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박지민 2023: 122), 철기 부장의 유형을 통해 피장자의 사회적 역할, 혹은 직능을 추론해보고자 했다.

철기의 조합상을 확인해볼 수 있는 고분군의 묘곽들을 대상으로 철기 부장 양상을 검토해보았다. 철촉, 도자 등과 같이 가장 흔하게 부장되는 철기 기종은 어느 매장 시설에서나 볼 수 있지만 마구나 환두대도와 같은 철기는 상위의 극히 일부의 매장 시설에만 부장된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 철기가 부장된 매장시설에는 여타의 철기 기종까지 빠짐없이 부장된다. 따라서 철기 기종별 조합수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더 중요한 철기 기종이 추가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첫째, 부장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철기 기종이 다곽식 고분 내에서 대략 30% 미만의 부장비율을 가진다. 가장 흔한 기종인 철촉이 다곽식 고분에서는 대략 30% 미만의 비율을 가지는 것은 철기를 소유한 것만으로도 일정 지위 이상이었음을 상정할 수 있다.

둘째, 조합수 별 철기 출토 빈도는 철촉과 농공구류나 무기류, 마구류가 조합수가 증가할수록 추가로 부장되는 패턴을 보인다. 단일 부장이 대개 많이 이루어지는 기종인 철촉을 바탕으로 철검을 비롯한 농공구류가 부장되며, 조합이 추가될수록 무기류가 추가 조합을 이룬다.

셋째, 유자이기, 주조철부, 철탁, 철착, 살포, 삽날, 철사 등의 철기는 출토 사례가

2) 철기 조합수 별 기종조합 빈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김민범 2016; 박지민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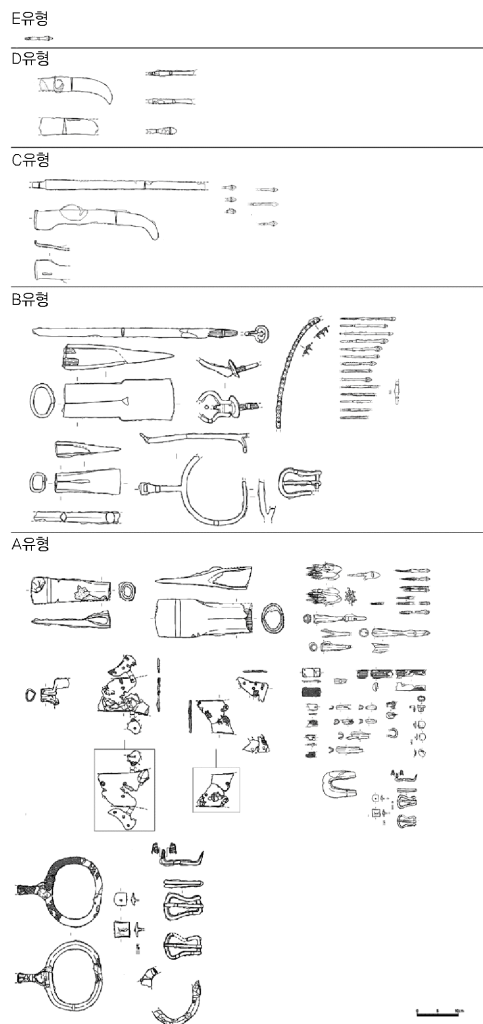
매우 적어 희귀한 기종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철기는 조합 기종에 따른 패턴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속한다.

철기의 조합 패턴을 바탕으로 설정한 철기 부장유형은 ①A유형: 철촉+농공구류+무기류+마구류, ②B유형: 철촉+농공구류+무기류 2종 이상, ③C유형: 철촉+농공구류+무기류 또는 무기류, ④D유형: 철촉+농공구류 또는 농공구류, ⑤E유형: 철촉이다.

A유형은 철촉인 기본철기와 농공구류와 무기류, 다량의 마구류가 부장된 묘곽이다. 이 무덤의 피장자들은 어떤 전문적인 역할의 수행보다 다목적 고분의 피장자들 내에서 최고 위계에 해당되는 인물로 파악된다. 그러면서 해당 집단에서는 경제적, 군사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이 부여된 사람일 것으로 추론된다. 흔하지 않은 마구류 등의 기종을 다량으로 부장한 것을 볼 때, 말을 소유하고 운용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A유형은 지역 집단의 리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B유형은 철촉인 기본철기와 농공구류와 무기류 2종 이상이나 유자이기 등 특수성을 띄는 유물이 부장되어 있는 묘곽이다. 이 묘곽의 피장자들은 집단 내에서 C유형보다 높은 위계를 가지며 우두머리 역할을 하거나 전투나 전쟁에서는 실질적인 지휘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B유형은 일부 집단에서는 A유형을 대신하는 리더 역할을 하기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C유형은 철촉인 기본철기와 농공구류와 무기류 1종이 부장된 묘곽이다. 이 피장



[도면 8] 철기 부장 유형 설정

자들의 사회적 역할은 기본 생산활동에 참여하면서 전쟁이나 전투 활동에서 D유형보다 더 큰 임무를 수행했으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때로는 다곽식 고분 피장자 가운데 최고 위계에 속하며 집단에서 리더에 준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D유형은 철촉인 기본철기 부장과 함께 농공구류가 부장된 묘곽이다. 이 매장시설 피장자의 사회적인 역할은 농업과 같은 기본 생산활동에 참여하며, 필요시 전투에 투입이 되지만 E유형보다는 지위가 높았을 것이다. E유형이 직접적으로 노동에 참여한다면, D유형은 E유형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이끄는 임무를 수행했을 것이다. 평소에는 집단 내부의 경계와 경비를 담당하며 필요시 전투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E유형은 가장 기본적인 철기, 철촉이 부장된 묘곽이다. 이들의 사회적 역할은 집단 내에서 생활 활동에 전담하며, 필요시 전투나 전쟁에 투입된 가능성이 있는 구성원이다. 이들을 일시적으로라도 전투나 전쟁에 참여한 인원인 것으로 보고자 한다.

4) 묘곽의 유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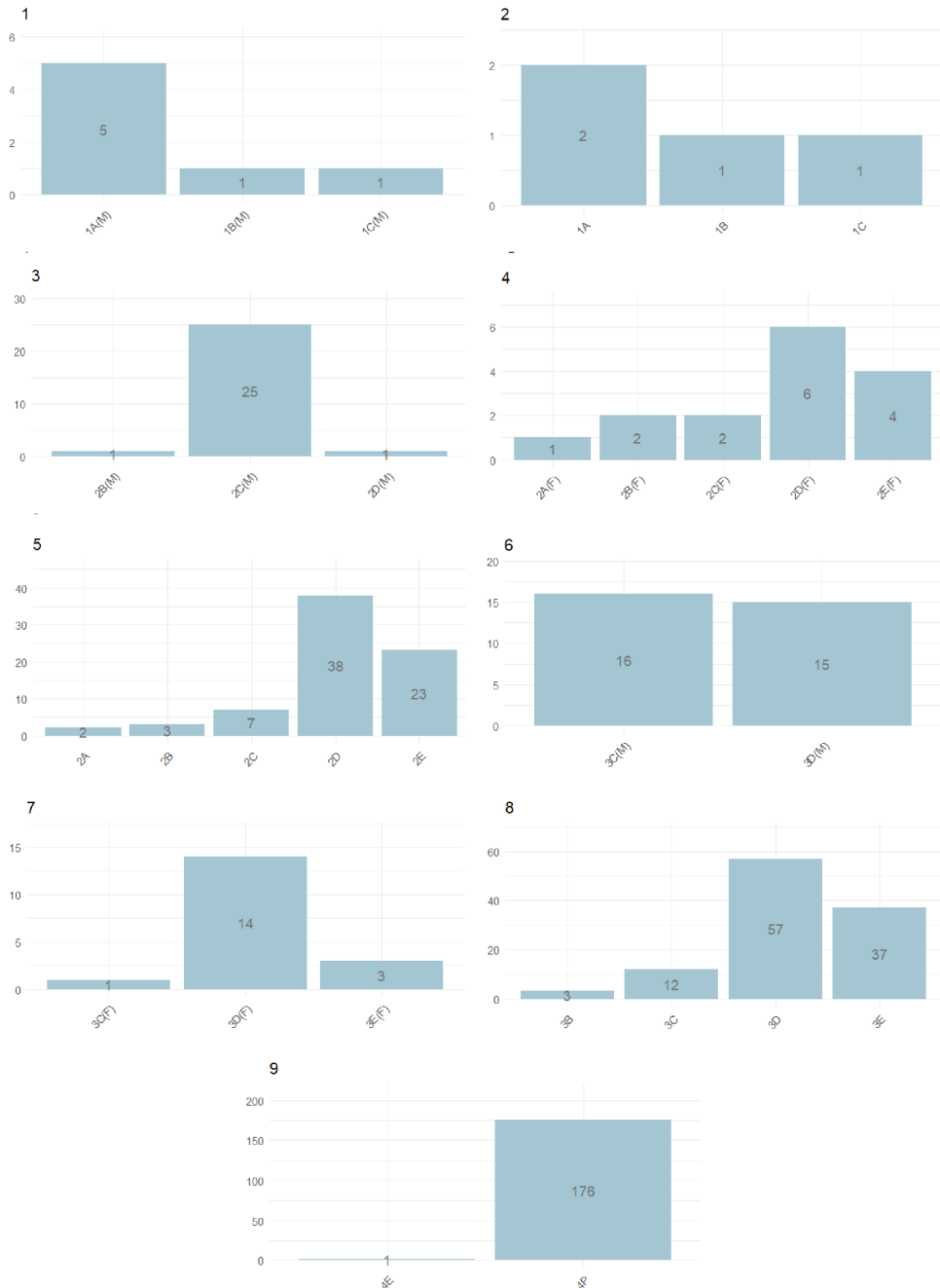
앞서 설정한 사회적 지위와 성별, 직능을 고려하여 피장자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묘곽의 유형을 설정했다. 사회적 지위는 부장 유물을 바탕으로 설정하여 유물이 출토되는 모든 곽에 대한 등급 설정이 가능했다. 따라서 묘곽 유형 설정은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하며, 성별은 방추차와 대도가 출토되지 않은 묘곽에서는 성별 설정이 어려웠기에 성별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분류된 유형은 총 9가지로 1등급 남성, 1등급 성별 미상, 2등급 남성, 2등급 여성, 2등급 성별 미상, 3등급 남성, 3등급 여성, 3등급 성별 미상, 4등급 성별 미상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직능은 사회적 지위와 성별을 분류한 후에 직능별 수(도면 9)를 파악하였다.

[표 3] 묘곽 유형 설정

연번	유형
1	1등급 남성
2	1등급 성별 미상
3	2등급 남성
4	2등급 여성
5	2등급 성별 미상
6	3등급 남성
7	3등급 여성
8	3등급 성별 미상
9	4등급 성별 미상

1등급 남성의 묘곽은 소가야 전체 고분군의 모든 고분 가운데 가장 높은 위계에 해당되는 매장시설이다. 1등급의 계층은 토기와 철기 모두 가장 많이 부장되며, 금공품까지 부장하고 있다. 부장 유물을 살펴보면, 토기는 다양한 기종을 바탕으로 하여 많은 수량을 세트로 부장하고 있다. 철기의 경우, 농공구류와 무기류, 마구류 모두를 부장하고 있으며 그 수량 역시 많다. 철기 조합을 통한 1등급 남성의 직능을 살펴보자면 A유형의 남성이 5개로 가장 많고, B유형의 1개, C유형 1개이다. 1등급 남성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직능 A유형은 기본철기인 철촉과 농공구류와 무기류, 다량의 마구류가 부장된 묘곽의 피장자들이다. 이들은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다



[도면 9] 묘곽의 유형 별 직능 수량(1: 1등급 남성, 2: 1등급 성별 미상, 3: 2등급 남성, 4: 2등급 여성, 5: 2등급 성별 미상, 6: 3등급 남성, 7: 3등급 여성, 8: 3등급 성별 미상, 9: 4등급 성별 미상)

곽식 고분 피장자들 내에서 최고 위계를 가지며 집단에서 경제적, 군사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이 부여된 사람들로 추정된다. 1등급 남성이 A유형의 직능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소가야 내에서 가장 높은 위계에 속하며 최상위 고분군 내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분군 내에서 리더일 뿐만 아니라 소가야 지역 전체에서 수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전제된다. 또한, 혼하지 않은 마구류 등의 기종을 다량으로 부장한 것을 볼 때, 말을 소유하며 운용한 것을 물론이며 말을 장식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배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1등급의 A유형은 지역 집단의 지배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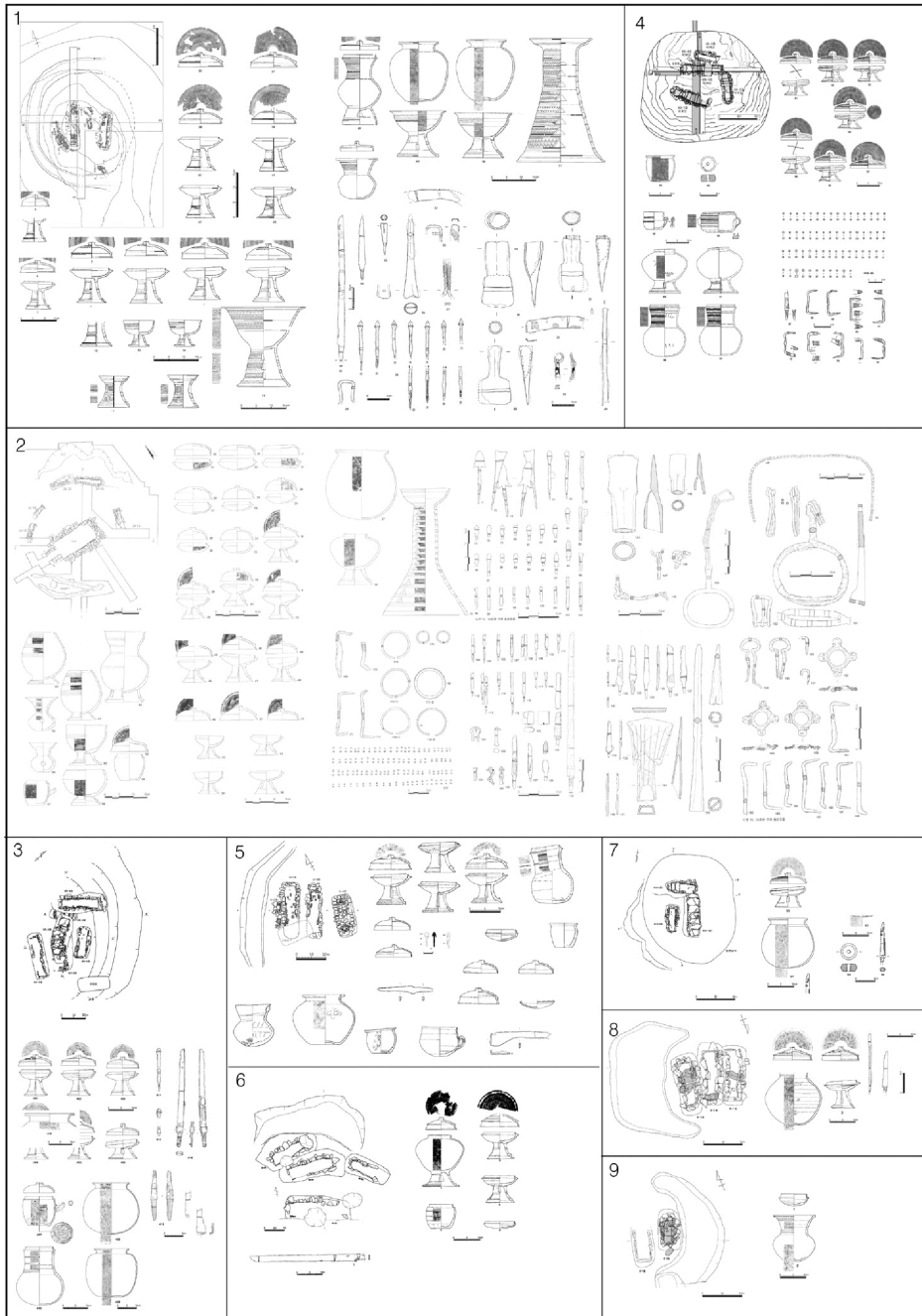
1등급 성별 미상의 묘곽은 성별을 판단할 수 있는 대도나 방추차가 부장되지는 않지만 부장품의 수량이 많고 위세품을 포함하고 있는 매장시설이다. 1등급의 성별 미상은 1등급의 남성과 마찬가지로 고분군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소가야 내에서도 가장 높은 위계에 속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1등급의 계층은 토기와 철기 모두 가장 많이 부장되며, 금공품까지 부장되는 매장시설이다. 부장 유물을 살펴보면, 토기는 다양한 기종을 바탕으로 하여 많은 수량을 세트로 부장하고 있다. 철기의 경우, 농공구류와 무기류, 마구류 모두를 부장하고 있으며 그 수량 역시 많다. 철기 조합을 통한 1등급 성별 미상의 직능을 살펴보자면 A유형의 2개, B유형의 1개, C유형 1개이다. 직능 A유형은 기본철기인 철촉과 농공구류와 무기류, 다량의 마구류가 부장된 피장자이다. 이들은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다곽식 고분 피장자들 내에서 최고 위계를 가지며 집단에서 경제적, 군사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이 부여된 사람들로 추정된다. 또한, 1등급의 성별 미상의 묘곽의 유물 중 유자이기, 청동령, 철환 등 제의용으로 사용되었으리라고 추정되는 부장품이 확인되는 피장자가 있다. 이는 집단 내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제의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옥이나 천이 다량으로 부장된 묘곽의 피장자는 그와 같은 장신구류를 통해 위세를 과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등급 성별 미상 역시 1등급 남성과 마찬가지로 고분군 내에서의 리더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2등급의 남성의 묘곽은 1등급보다는 위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래도 고분군 내에서는 높은 위계에 해당하는 매장시설이다. 2등급의 계층은 토기와 철기 모두 많이 부장되나 1등급과는 그 수량이 차이가 난다. 부장 유물을 살펴보면, 토기는 기종 대비 수량이 많도록 세트 부장을 하고 있다. 철기는 농공구류와 무기류를 주로 부장하고 있으며 마구류도 소량 부장하는 경우가 있다. 철기 조합을 통한 2등급 남성의 직

능을 살펴보자면 B유형의 남성이 25개로 가장 많고, B유형과 D유형은 1개이다. 2등급 남성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직능 C유형은 철축인 기본철기와 농공구류와 무기류 1종을 부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사회적 역할은 기본 생산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전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로 보여진다. 그리고 때로는 다곽식 고분 피장자들 중 최고 위계에 해당할 때도 있으며, 집단에서 리더에 준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A유형과 B유형이 없는 합천 안계리고분군, 합천 소오리고분군, 의령 경산리고분군, 의령 오천리고분군, 산청 명동 유적, 산청 생초고분군, 통영 남평리고분군, 통영 팔천곡고분군 내에서는 2등급의 C유형이 고분군의 리더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같은 C유형이지만 고분군 내에 상위 위계가 없는 경우에는 고분군 내에서 실질적인 리더의 역할을 수행했으리라고 생각된다.

2등급의 여성의 묘곽은 1등급보다는 상대적으로 위계가 낮지만 고분군 내에서는 높은 위계에 해당하는 매장시설이다. 2등급의 계층은 토기와 철기 모두 많이 부장되거나 1등급과는 그 수량이 차이가 난다. 부장 유물을 살펴보면, 토기는 기종 대비 수량이 많도록 세트 부장을 하고 있다. 2등급 여성의 경우에는 철기의 수량보다는 토기의 수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토기 부장과 함께 여성용 가채로 보이는 구슬이 다량 부장되기도 한다. 철기는 공격용 무기류보다는 꺾쇠와 같은 부장용 철기류가 다량 부장된다. 2등급 여성이 가지고 있는 직능은 A유형부터 F유형까지 다양했으며, 그 중 D유형의 직능을 가진 여성의 수가 가장 많았다. 직능의 수는 D유형이 6개, E유형이 4개, C유형과 B유형이 2개, A유형과 F유형이 1개씩이다. 가장 많은 수를 가진 D유형은 기본철기인 철축과 함께 농공구류가 부장된 묘곽의 피장자이다. 이들의 사회적인 역할은 농업과 같은 기본 생산활동에 참여하며, 필요시 전투나 전쟁에 투입이 되었을 것이다. 앞선 2등급 남성이 C유형에 해당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던데 반해 같은 등급이지만 여성의 경우 D유형이 많은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전투의 참여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등급의 성별 미상의 묘곽은 1등급보다는 상대적으로 위계가 낮지만 고분군 내에서는 높은 위계에 해당하는 매장시설이다. 2등급의 계층은 토기와 철기 모두 많이 부장되거나 1등급과는 그 수량이 차이가 난다. 부장 유물을 살펴보면, 토기는 기종 대비 수량이 많도록 세트 부장을 하고 있다. 2등급 성별 미상의 경우 특징적인 유물이 부장되기 보다는 토기와 농공구류 철기 위주로 부장되고 있다. 2등급 성별 미상이 가지고 있는 직능은 A유형부터 F유형까지 다양했으며, 그 중 D유형의 직능을 가진 성별



[도면 10] 묘곽 유형 유물조합

(1: 1등급 남성-진주 회망공원 내 1-1, 2: 1등급 성별 미상-내산Ⅱ 34주곽, 3: 2등급 남성-삼가2-M3-6, 4: 2등급 여성-합천D-69-1, 5: 2등급 성별 미상-신용4-4, 6: 3등급 남성-천곡2-39-1, 7: 3등급 여성-삼가M16-1, 8: 3등급 성별 미상-명동2-9-1, 9: 4등급 성별 미상-2-8-2)

미상의 수가 가장 많았다. 직능의 수는 D유형이 38개, E유형이 23개, C유형은 7개, B유형과 F유형이 3개, A유형이 2개이다.

3등급의 남성의 묘곽은 토기와 철기를 고루 부장하나 그 수량이 많지 않고, 금공품을 부장하고 있는 매장시설이다. 토기 부장의 경우 수량이 적으며, 철기의 부장 경우에도 그 수량이 많지는 않으나 대도 같은 공격용 무기가 부장되고 있다. 철기 조합을 통한 3등급 남성의 직능을 살펴보자면 C유형의 남성이 16개, D유형은 15개이다. 3등급 남성은 C유형과 D유형이 거의 비슷한 수량을 가진다. 3등급에 C유형은 고분 내에서 리더로 활동하기보다는 농업과 같은 기본 생산활동에 주로 참여했을 것이다. 다만 필요시 전쟁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했을 것이다. 3등급의 남성은 C유형과 D유형만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 고분군 내에서 중간 위계로 추정되는 남성 인원들의 직능은 한정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등급의 여성의 묘곽은 토기와 철기가 고루 부장되어 있으나 그 수량이 많지 않고, 금공품이 부장되기도 한 매장시설이다. 토기 부장의 경우 수량이 적으며, 방추차를 부장하고 있다. 토기와 철기 수량이 그리 많지 않고 성별을 나타내는 유물이 부장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철기 조합을 통한 3등급 여성의 직능을 살펴보자면 D유형이 14개, E유형은 3개, C유형과 F유형은 1개이다. 3등급 여성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직능인 D유형은 철촉과 농공구류를 모두 부장하기보다는 농공구류 1종만을 부장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3등급 여성에게 필요시에 전투나 전쟁에 투입되는 역할보다는 농업과 같은 기본 생산활동으로서의 역할이 더 요구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등급의 성별 미상의 묘곽은 토기의 기종 조합, 철기 수량은 낮으나 금공품이 부장되기도 한 매장시설이다. 금공품을 부장함으로써 위계성을 나타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지만, 2등급처럼 고분군 내에서 높은 지위에 해당되는 계층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성별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으며, 주로 소량의 토기와 농공구류나 철촉이 부장된다. 3등급 성별 미상의 직능을 살펴보면 D유형이 57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E유형이 37개, F유형이 8개, C유형이 12개, B유형이 3개이다.

4등급 성별 미상의 묘곽은 토기의 기종 조합, 철기 수량이 낮고 금공품 역시 부장하지 않은 매장시설이다. 4등급은 대부분 토기를 제외한 유물은 부장되지 않으며, E유형이 1개 속해 있는 성별 미상은 토기가 부장되지 않고 철촉만 부장된 경우이다. 4등급에서 철기 조합에 따른 직능을 가지고 있는 유구는 E유형 1개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토기만 부장되어 있다. 4등급의 토기만 부장된 경우는 176개이다. 이처럼

4등급은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이 부장되지 않아 이들의 사회적 역할 역시 모호했거나 위계가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Ⅲ. 다곽식 고분의 유형과 매장례

1. 다곽식 고분의 유형화

피장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묘곽 1~9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묘곽의 조합과 배치를 고려하여 다곽식 고분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묘곽 조합을 설정할 때, 이미 정의된 피장자의 등급에 직능의 특징을 결합하여 분류하였다. 여기에 묘곽 조합과 묘곽 배치를 함께 고려하여 다곽식 고분을 유형화해보고자 했다.

우선 피장자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분류된 묘곽의 조합을 살펴보고자 한다. 피장자의 정체성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매장시설들을 중심으로 분류해보았을 때, 묘곽의 조합 유형은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I 유형은 1등급의 남성 1명과 2·3·4등급의 여성 2명 혹은 성별 미상 2명 이상이 매장되는 경우이다. I 유형은 1등급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조합이다. 1등급 남성의 묘곽이 묘역의 중심에 위치하며 그 주변에 2·3·4등급의 여성 2명 혹은 성별 미상 2명 이상의 묘곽이 함께 배치되어 있다. I 유형은 최상위 위계의 남성이 1명만 매장되며 최상위 남성의 묘곽은 분묘 내에서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묘곽을 조성할 때 최상위 위계의 남성을 고려하고 이를 중심으로 묘곽을 형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함께 매장된 여성이 2명 이상으로 보이는 묘곽의 조합도 있다. 그 외에 성별 미상인 묘곽들은 리더를 따르던 하위자들의 매장시설로 보인다.

II 유형은 2·3등급 남성 2명과 2·3등급의 여성 2명 혹은 4·5등급의 성별 미상 2명 이상이 매장되는 경우이다. II 유형의 경우 2·3등급이 주로 매장되는 분묘로 분묘 내에서 독보적인 상위의 위계를 가진 묘곽이 있다기보다는 비슷한 위계를 가진 묘곽들이 함께 매장되어 있다. 묘곽이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중심부에 특정 위계나 성별이 위치하기보다는 처음 축조된 묘곽이 능선상의 하단부쪽에 먼저 축조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단부 쪽으로 중첩해서 축조되는 양상이다. II 유형의 분묘는 묘곽의 중심 피장자를 정해두고 축조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피장

자들이 사망 시점에 따라 순서대로 묻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분묘 내에서는 I 유형과는 다르게 성별 미상이라고 하더라도 낮은 위계가 아닌 비슷한 위계를 가진 것으로 보아 비교적 수평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III유형은 2·3등급의 남성 1명과 3·4·5등급의 성별 미상 2명 이상이 함께 매장된 분묘이다. III유형의 경우 2·3등급의 남성이 매장되기는 하나 다른 성별을 추론할 수 있는 비슷한 등급의 묘곽은 매장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2등급의 남성과 가까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매장되거나, 2명이 매장되더라도 그 위계가 높은 경우 III유형으로 설정했다. 혹은 2개의 묘곽만 배치되어 있지만 둘 중 하나라도 2등급의 높은 위계에 해당될 때 III유형으로 분류했다.

IV유형은 3·4·5등급 남성 1명과 3·4·5등급 여성 혹은 성별 미상이 1명이 매장된 경우이다. 이 유형은 3·4·5등급의 남성이나 여성이 함께 합장된 분구묘이다. 남성과 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묘곽이 함께 매장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남성 혹은 여성을 구분할 수 있는 묘곽과 나머지 한 묘곽은 성별 미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는 낮은 위계의 부부 무덤으로 보인다. II 유형과 마찬가지로 묘곽이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중심부에 특정 위계나 성별이 위치하기 보다는 처음 축조된 묘곽이 구릉 사면의 아래쪽에 축조되고, 그 위쪽으로 중첩해서 추가 묘곽이 축조되는 형태이다.

다음으로 묘곽의 배치는 묘곽의 규모, 축조 순서, 배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총 4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대형 묘곽 1기와 소형의 묘곽 여러 기가 복합형으로 배치된 것이 a유형이다. 중심에 위치한 대형 묘곽과 주변 소형 묘곽의 등급이나 규모 차이가 명확히 보이는 것으로 하나의 묘곽을 중심으로 다수의 묘곽들이 중심을 감싸는 듯한 배치를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축조되는 대형 묘곽이 분묘의 중심에 위치하며, 후축하는 묘곽들은 일관된 장축 방향 없이 큰 묘곽을 둘러싸는 모습으로 축조된다.

b유형은 대형 묘곽 1기와 소형 묘곽이 병렬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다. 이는 중심에 위치하는 묘곽과 주변 묘곽의 등급이나 규모의 차이가 보이나 중심 묘곽을 제외하고 3개 이하의 묘곽이 배치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중심으로 보이는 대형 묘곽이 가장 먼저 축조되며 분묘의 중심에 위치한다. 이후 후축하는 묘곽은 소형의 크기로 병렬 배치이기는 하나 대형 묘곽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병렬되는 형태로 확장 병렬형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c유형은 비슷한 크기의 묘곽 여러 기가 대략 병렬에 가깝게 배치된 다곽식 분묘이다. 묘곽의 규모와 등급의 일관성 없이 선축 묘곽이 구릉 사면 아래쪽에 축조되며, 후

축 묘곽은 선축 묘곽의 상단부에 축조되어 원래 분구에 중첩하는 형태이다. 이는 선축 묘곽의 분구를 고대하게 보이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된다. 또한 후축 묘곽을 의식해 묘역을 확보하거나 분묘 중심에서 치우쳐 묘곽을 배치하는 점도 후축 고분을 고려한 축조로 생각된다.

d유형은 비슷한 크기의 묘곽 3기 이하가 병렬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이 유형의 묘곽은 규모와 등급이 모두 비슷하며 묘곽이 11자형으로 병렬하여 배치된다. 축조 순서는 선축 묘곽이 구릉 사면의 아래쪽에 축조되고 후축 묘곽은 그 위쪽에 축조된다. 두 묘곽의 장축 방향이 평행하지만, 일부는 그중 하나가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선축 묘곽의 방향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후축 묘곽을 배치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또한, 분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선축 묘곽에 주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후축 묘곽이 들어서면서 주구를 파괴하고, 선축 묘곽에 주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후축된 묘곽을 중심으로 주구가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2. 고분의 유형에 따른 매장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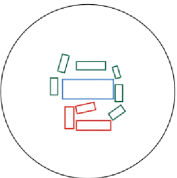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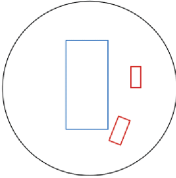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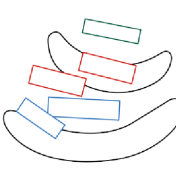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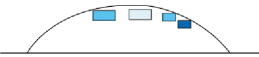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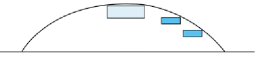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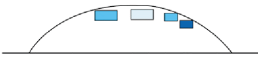
무덤은 단순히 그 무덤이 축조될 당시의 해당 사회의 정태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전통적이고 관습적으로 지닌, 경우에 따라서는 규범화되어있는 일련의 장례행위의 절차와 형식의 일부, 즉 사회적 행위로서 장례의 마지막 단계인 동시에 제사와 같은 또 다른 사회적 행위의 출발점이 된다(김종일 2024: 10). 이에 무덤이 형성되는 과정에 포함된 모든 행위를 종합하였을 때 이는 집단의 특수한 매장행위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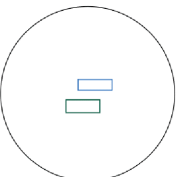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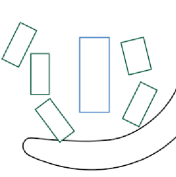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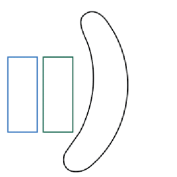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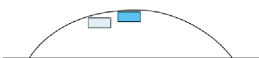
매장의례란 사람이 죽은 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장지를 정지하고 무덤을 형성할 때까지의 행위이다(김용성 2014; 김은경 2020, 2022; 서현주 2020: 152). 이러한 행위의 결과물이 무덤이라는 물질적 산물로 나타난다. 시신을 운반하고 장지가 무덤으로 조성되는 과정을 매장의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무덤에 남겨지게 된다. 고분의 축조, 매장의 절차, 부장유물의 배치, 봉분의 조성과 묘역시설의 구축, 봉분 제사 등 매장의례라는 행위의 과정은 상당 부분 무덤에 결과물로 남겨진다.

본고에서는 앞선 검토를 통한 묘곽의 조합과 묘곽의 배치를 바탕으로 다곽식 고분의 매장의례 유형을 6가지(도면 11)로 분류할 수 있었다. 6가지의 유형은 묘곽 조합, 묘곽 배치, 축조 기간, 축조 순서 등의 속성을 달리하며 각기 다른 매장의례를 행

하여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고자 하였을 것이다.

I a유형은 1등급의 남성 1명과 2·3·4등급의 여성 2명 혹은 성별 미상 2명 이상이 매장되며, 대형 묘곽 1기와 소형의 묘곽 여러 기가 복합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배치를 살펴보면 중앙에 1등급 남성이 대형 묘곽으로 중심부에 자리하며, 그 주변으로 소형 묘곽이 대형 묘곽을 두르듯이 자리하고 있다. 축조 순서 역시 대형 묘곽이 축조된 후 소형 묘곽들이 축조되며 축조 기간은 한 분기 내 이뤄지고 있다. 구성원은 1등급 남성 1명이 분묘 내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매장되고 있다. 1등급 남성의 매장이 먼저 이뤄진 다음 혼인관계로 보이는 여성 묘곽의 매장이 뒤따라 이어진다. 이는 높은

	I a유형	I b유형	II c유형
배치도 성별 □ 남성 □ 여성 □ 성별 미상			
단면도 축조 순서 □ 1 번째 ■ 2 번째 ■ 3 번째 ■ 4 번째			
구성원	1등급 남성 1명 : 2·3·4등급 여성 2명+2·3·4 등급 성별 미상		2·3등급 남성 2명+ 2·3등급 여성 2명+ 4·5등급 성별 미상

	III d유형	III c유형	IV d유형
배치도 성별 □ 남성 □ 여성 □ 성별 미상			
단면도 축조 순서 □ 1 번째 ■ 2 번째 ■ 3 번째 ■ 4 번째			
구성원	2등급 남성 1명 : 3·4·5등급 성별 미상		3·4·5등급 남성 1명+ 3·4·5등급 여성 1명

[도면 11] 다곽식 고분의 모식도

위계의 남성이 먼저 묘곽을 형성하고 나면 이후 그 남성과 혼인관계의 여성이 매장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혼인관계를 가졌던 사람뿐만 아니라 높은 위계자를 따랐던 하위자도 함께 뒤이어 매장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Ia 유형은 높은 위계를 가진 남성 리더를 중심으로 혼인관계나 하위자가 다수가 함께 분묘를 형성한 최상위자 중심의 다곽식 고분으로 추정된다.

Ib 유형은 1등급의 남성 1명과 2·3·4등급의 여성 2명 혹은 성별 미상 2명 이상이 매장되며, 대형 묘곽 1기와 소형 묘곽이 확장 병렬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배치를 살펴보면 중앙에 높은 위계의 남성 한 명이 규모가 큰 묘곽을 사용하며 매장되며 주변의 소형 묘곽에 처로 보이는 피장자가 매장된다. 위계 높은 남성을 중심으로 분묘가 먼저 형성되고 그 보다 하위의 위계를 가진 여성이 추가 매장되거나 성별 미상이 소량 추가 매장된다. 한 분기 내에 축조가 완성됨으로 축조되는 묘곽의 피장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구성원은 상위 위계의 남성과 처가 함께 매장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Ib 유형은 최상위자의 부부관계의 다곽식 고분으로 추측된다.

Ic 유형은 2·3등급 남성 2명과 2·3등급의 여성 2명 혹은 4·5등급의 성별 미상 2명이 확장 병렬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유형은 비슷한 크기의 묘곽이 축조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능선의 하위에서 상위로 축조되는 모습이다. 이는 매장과정에서 중심 묘곽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매장했다기보다는 사망 시점에 따라 매장했음을 알 수 있다. 구성원은 2·3등급의 여성과 남성이 2명 이상 매장되어 부부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두 그룹 이상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징적인 점은 묘곽 간에 위계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수평적인 관계를 가진 묘곽이라는 점이다. 축조 기간은 50년 내외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묘곽의 수가 많은 경우 100년 내외로 축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매장이 필요할 때 생전에 관련이 있었던 사람과 함께 같은 분묘에 묻어주기 위해 묘곽을 후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자 부부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세대에 걸쳐 2그룹 이상 함께 분묘를 형성한 것으로 보여 상위 위계에 속하는 직계자손 관계의 다곽식 고분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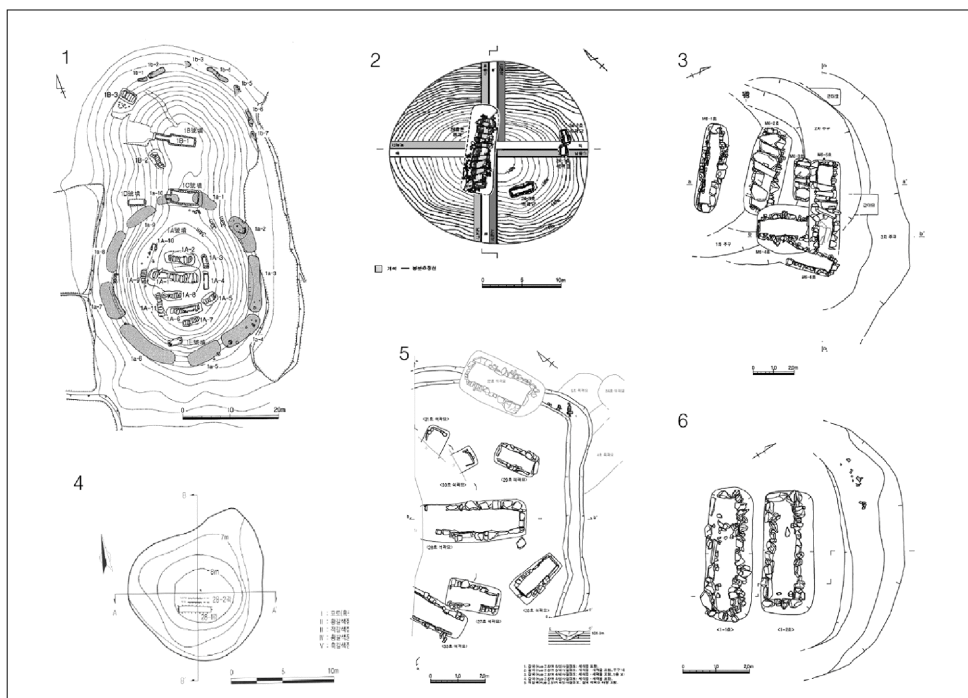
IIId 유형은 2·3등급의 남성 1명과 3·4·5등급의 성별 미상 2명 이상이 함께 매장되어 비슷한 크기의 묘곽이 병렬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배치를 살펴보면 비슷한 크기의 묘곽 두 개가 봉분 중앙에 나란히 배치되며, 후축되는 묘곽이 조금 더 분묘 외곽에 설치되고 있다. 구성원의 등급의 차이는 나지만 묘곽의 크기는 거의 차이 나지

[표 4] 분묘 유형 분류표

연번	봉분명	분묘 유형	연번	봉분명	분묘 유형	연번	봉분명	분묘 유형	연번	봉분명	분묘 유형
1	송학1A	I a	42	내산Ⅲ 44	Ⅱ c	83	삼가3-26	Ⅲ d	124	명동1-71	Ⅳ d
2	내산Ⅰ 21	I a	43	내산Ⅰ 1	Ⅱ c	84	내산Ⅱ 36	Ⅳ d	125	명동1-7	Ⅳ d
3	삼가1-M5	I a	44	오천38	Ⅱ c	85	천곡2-38	Ⅳ d	126	명동1-69	Ⅳ d
4	내산Ⅱ 34	I a	45	삼가1-29	Ⅱ c	86	천곡1-4	Ⅳ d	128	명동1-61	Ⅳ d
5	삼가2-M2	I a	46	삼가2-M8	Ⅲ c	87	오천45	Ⅳ d	129	명동1-5	Ⅳ d
6	삼가1-M3	I a	47	삼가D8	Ⅲ c	88	오천34	Ⅳ d	130	명동1-48	Ⅳ d
7	내산Ⅲ 46	I a	48	삼가2-M16	Ⅲ c	89	오천24	Ⅳ d	131	명동1-45	Ⅳ d
8	가좌회망1	I a	49	삼가1-M1	Ⅲ c	90	오천23	Ⅳ d	132	명동1-24	Ⅳ d
9	삼가D69	I b	50	삼가1-23	Ⅲ c	91	오천14	Ⅳ d	133	내산Ⅰ 62	Ⅳ d
10	생초M12·M13	I b	51	삼가2-M14	Ⅲ c	92	신용Ⅱ 8	Ⅳ d	134	경산8·9	Ⅳ d
11	삼가G24	I b	52	삼가1-M6	Ⅲ c	93	생초M48	Ⅳ d	135	경산46·48	Ⅳ d
12	삼가2-M4	Ⅱ c	53	내산Ⅰ 28	Ⅲ d	94	명동2-8	Ⅳ d	136	가좌1-36	Ⅳ d
13	삼가1-M7	Ⅱ c	54	천곡2-35	Ⅲ d	95	명동1-52	Ⅳ d	137	팔천8	Ⅳ d
14	삼가D3	Ⅱ c	55	안계1·2·3	Ⅲ d	96	명동1-25	Ⅳ d	138	천곡2-39	Ⅳ d
15	삼가1-M10	Ⅱ c	56	천곡1-19	Ⅲ d	97	명동1-20	Ⅳ d	139	천곡2-25	Ⅳ d
16	삼가2-M7	Ⅱ c	57	오천39	Ⅲ d	98	명동1-1	Ⅳ d	140	신용Ⅰ 4	Ⅳ d
17	삼가2-M17	Ⅱ c	58	오천19	Ⅲ d	99	경산19·20	Ⅳ d	141	생초M73	Ⅳ d
18	생초M22	Ⅱ c	59	오천12	Ⅲ d	100	가좌3-2	Ⅳ d	142	생초M4	Ⅳ d
19	삼가D9	Ⅱ c	60	신용Ⅱ 9	Ⅲ d	101	가좌2-6	Ⅳ d	143	삼가2-M9	Ⅳ d
20	삼가1-M8	Ⅱ c	61	생초M75	Ⅲ d	102	가좌2-4	Ⅳ d	144	삼가2-M12	Ⅳ d
21	삼가D1	Ⅱ c	62	생초M68	Ⅲ d	103	천곡2-40	Ⅳ d	145	삼가1-M4	Ⅳ d
22	삼가4-M13	Ⅱ c	63	생초M36	Ⅲ d	104	천곡2-34	Ⅳ d	146	명동3-29,30	Ⅳ d
23	삼가1-36	Ⅱ c	64	삼가D70	Ⅲ d	105	오천6	Ⅳ d	147	명동1-77	Ⅳ d
24	내산Ⅰ 8	Ⅱ c	65	경산30·31·32	Ⅲ d	106	오천46	Ⅳ d	148	명동1-55	Ⅳ d
25	삼가2-M6	Ⅱ c	66	가좌1-37	Ⅲ d	107	오천29	Ⅳ d	149	명동1-13	Ⅳ d
26	삼가2-M5	Ⅱ c	67	가좌1-11	Ⅲ d	108	오천28	Ⅳ d	150	명동1-12	Ⅳ d
27	울대2	Ⅱ c	68	천곡1-10	Ⅲ d	109	오천13	Ⅳ d	151	남평10	Ⅳ d
28	삼가2-M3	Ⅱ c	69	오천43	Ⅲ d	110	오천1	Ⅳ d	152	경산4·5	Ⅳ d
29	삼가1-48	Ⅱ c	70	오천35	Ⅲ d	111	안계7·8	Ⅳ d	153	경산33·34	Ⅳ d
30	삼가1-3	Ⅱ c	71	오천33	Ⅲ d	112	안계4·5	Ⅳ d	154	가좌3-1	Ⅳ d
31	내산Ⅰ 63	Ⅱ c	72	오천32	Ⅲ d	113	신용Ⅱ 2	Ⅳ d	155	가좌1-6	Ⅳ d
32	소오1	Ⅱ c	73	오천25	Ⅲ d	114	생초M72	Ⅳ d	156	가좌1-25	Ⅳ d
33	삼가2-M15	Ⅱ c	74	오천10	Ⅲ d	115	삼가D6	Ⅳ d	157	가좌1-17	Ⅳ d
34	삼가1-M2	Ⅱ c	75	신용Ⅰ 6·7	Ⅲ d	116	명동3-35	Ⅳ d	158	가좌1-16	Ⅳ d
35	신용Ⅰ 5	Ⅱ c	76	경산41·42	Ⅲ d	117	명동3-33	Ⅳ d	159	가좌1-13	Ⅳ d
36	신용Ⅰ 4	Ⅱ c	77	경산38·39	Ⅲ d	118	명동3-32	Ⅳ d	160	가좌1-1	Ⅳ d
37	삼가D2	Ⅱ c	78	경산35·36	Ⅲ d	119	명동3-14	Ⅳ d	161	오천8	Ⅳ d
38	삼가2-M18	Ⅱ c	79	경산10·11·12	Ⅲ d	120	명동2-9	Ⅳ d	162	오천4	Ⅳ d
39	삼가2-M10	Ⅱ c	80	가좌1-8	Ⅲ d	121	명동2-10	Ⅳ d	163	오천37	Ⅳ d
40	삼가1-M9	Ⅱ c	81	가좌1-7	Ⅲ d	122	명동1-88	Ⅳ d	164	신용Ⅱ 10	Ⅳ d
41	명동1-78	Ⅱ c	82	오천9	Ⅲ d	123	명동1-72	Ⅳ d	165	신용Ⅰ 10	Ⅳ d

는 않는다. 2등급 남성 1명과 3·4·5등급의 성별 미상이 함께 부장된 것은 2등급 남성 중심의 분묘로 생전에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함께 매장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하위자일 가능성도 있지만, 묘곽의 크기와 부장품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점을 통해 부부관계를 나타내고자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축조 기간은 한 분기 내로 축조가 이루어져 연령대가 비슷한 피장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III d 유형은 중상위자 부부관계의 다곽식 고분으로 보여진다.

III c 유형은 2·3등급 남성 2명과 2·3등급의 여성 2명 혹은 4·5등급의 성별 미상 2명이 확장 병렬형이거나 복합형의 배치 형태를 보여준다. 중심 묘곽이 정해져있지 않고 비슷한 크기의 묘곽이 사망의 순서에 따라 구릉의 하단부부터 상단부로 축조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봉분 내 중심 위치의 묘곽이 선축되는 경우에는 복합형 배치가 대부분이다. 구성원은 2등급 남성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 있는 피장자들이 함께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부부관계를 가진 사람들 2그룹 이상이 함께 매장된 것으로 추측되나 위계가 낮은 분묘로 성별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거의 부장되지 않고 있다. 축조 기간은 50년 내외로 장기간 축조되어 후손 관계의 추가 피장자들이 함께 매장



[도면 12] I a 유형, I b 유형, II c 유형, III d 유형, III c 유형, IV d 유형 분묘 유형

(1: 송학1A, 2: 삼가G-24, 3: 삼가2-M6, 4: 내산 I-28, 5: 삼가3-26, 6: 오천1)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Ⅲc유형은 한 세대 이후의 하위자가 포함된 다곽식 고분으로 생각된다.

Ⅳd유형은 3·4·5등급 남성 1명과 3·4·5등급 여성 혹은 성별 미상이 1명이 비슷한 크기의 묘곽으로 병렬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초축 묘곽이 구릉의 하단부, 후축 묘곽이 구릉의 상단부에 병렬 배치된 후 주구가 설치된다. 이때 초축과 후축에 따른 성별은 관련이 없어 보이며, 성별에 따른 배치보다는 사망 순서에 따라 분묘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축조 기간은 한 분기 내에 축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성별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는 묘곽 2기 이상이 등급과 묘곽의 크기가 유사하며 한 분기 내에 축조를 마쳤다는 점에서 부부관계로 생각된다. 즉, Ⅳd유형은 하위자 부부관계의 다곽식 고분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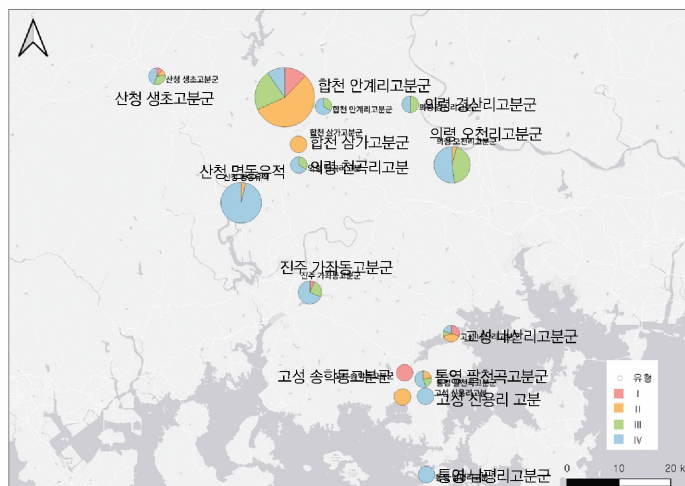
Ⅳ. 소가야 다곽식 고분군의 전개 양상

1. 소가야 다곽식 고분군의 특성

합천 삼가고분군은 41기의 다곽식 고분 가운데 Ⅱc유형 23기, Ⅲc유형 7기, Ⅳd유형 4기, Ⅰa유형 3기, Ⅲd 2기, Ⅰb유형 2기를 포함한다. 상위자와 함께 후손 관계에 속하는 피장자가 포함된 다곽식 고분인 Ⅱc유형을 중심으로 축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 세대 뒤의 하위자를 포함하는 다곽식 고분 Ⅲc유형의 축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합천 삼가고분군의 다곽식 고분은 직계자손, 혹은 한 세대 뒤에 속하는 후손의 묘곽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2기만 발견되는 상위자 부부관계로 추정되는 Ⅰb유형은 고분군 내 구릉 정선부에 위치하며 1등급이 포함된 분묘는 고분군 내에서도 위치를 달리했음을 알 수 있다. Ⅲc유형은 합천 삼가고분군에서만 발견되는 유형으로 합천 삼가고분군에서는 다곽식 고분을 통해 후손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합천 삼가고분군은 소가야 지역 내에서도 다곽식 고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분군으로 유일하게 모든 유형이 분포하고 있다.

산청 명동 유적은 28기의 분묘 중 Ⅳd유형 27기, Ⅱc유형 1기이다. 산청 명동 유적의 대부분 분묘는 Ⅳd유형으로 하위자 부부관계의 다곽식 고분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의령 오천리고분군은 25개의 분묘 중 Ⅱc유형 1기, Ⅲd유형 11기, IVd유형 13기이다. Ⅲd유형과 IVd유형을 합치면 전체 분묘 수에서 한 기를 제외하고는 부부무덤을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의령 경산리고분군은



[도면 13] 다곽식 고분 유형 분포도

10기의 분묘 중에서 Ⅲd유형 5기, IVd유형 5기이다. 의령 천곡리고분군은 9기의 분묘 중에서 Ⅲd유형 3기, IVd유형 6기이다. 합천 안계리고분군은 IVd유형 2기, Ⅲd유형 1기이다. 의령 경산리 고분군과 의령 천곡리 고분군, 합천 안계리고분군 역시 부부관계의 다곽식 고분을 채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진주 가좌동고분군은 16기의 분묘 중 IVd유형 11기, Ⅲd유형 4기, I a유형 1기이다. I a유형 1기를 제외하고는 IVd유형, Ⅲd유형 모두 부부관계로 추정되는 다곽식 고분이다. 또한 I a유형은 진주 가좌동고분군 내에서도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고분군의 리더만이 진주 가좌동고분군에서 최상위자 중심의 다곽식 고분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성 내산리고분군은 총 10기의 분묘 중 Ⅱc유형 4기, I a유형 3기, IVd유형 3기, Ⅲd유형 2기이다. 산청 생초고분군은 9기의 분묘 중에서 IVd유형 4기, Ⅲd유형 3기, I b유형과 Ⅱc유형 1기이다. 고성 신용리고분군은 9기의 분묘 중에서 IVd유형 5기, Ⅱc유형과 Ⅲd유형 2기이다. 합천 안계리고분군은 IVd유형 2기, Ⅲd유형 1기이다. 이 고분군들은 다곽식 고분이 많지 않아 유형 분포에 특징적인 점은 찾기 어려웠다.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1기가 다곽식 고분으로 축조되어 있는데 I a유형에 속한다.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소가야 내에서도 최상위의 위계에 해당하는 고분군으로 송학동 1A호분이 다곽식을 채택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1기의 고분이 다곽식 고분으로 축조된 합천 소오리고분군, 통영 팔천곡고분군, 통영 남평리고분군은 IVd유형, 고성 울대리 고분군은 Ⅱc유형이다. 이 고분들은 적극적인

으로 다곽식 고분의 묘제 형식을 채택했다기보다는 주변 고분의 영향을 받아 다곽식 고분을 일정 시기에 축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다곽식 고분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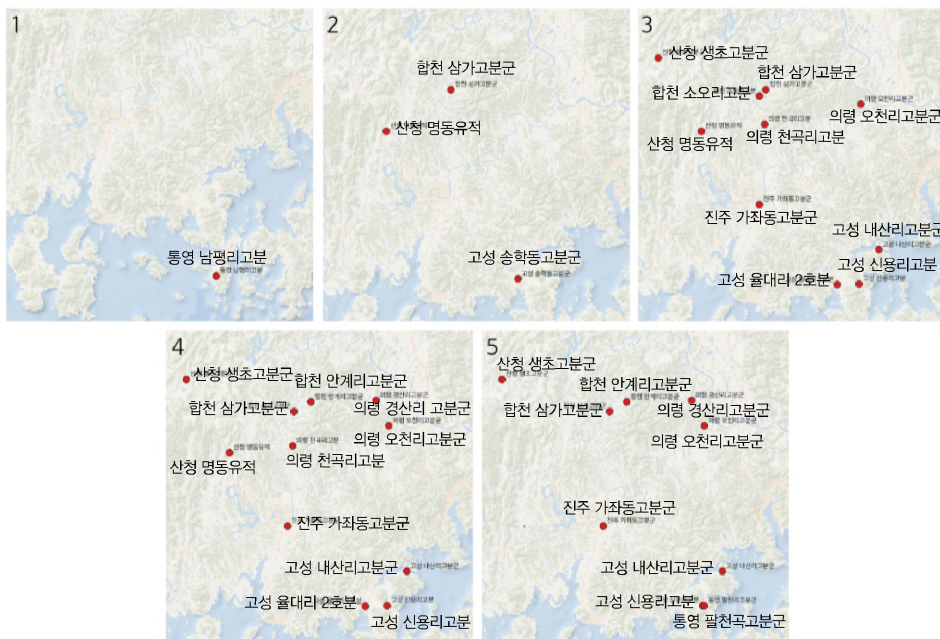
시기별 다곽식 고분을 살펴보자면(도면 14) 앞선 편년에 따라 설정된 5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1기는 통영 남평리고분군에서 처음 다곽식 고분이 출현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다곽식 고분의 주요 묘제로 사용되는 석곽묘가 아닌 그 이전 시기의 묘제로 많이 쓰인 목곽묘가 다곽식 고분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다. 또한, 처음 다곽식 고분의 출현은 하위의 묘제에서부터 사용된다. 초창기의 다곽식 고분은 상위 계층의 위계성을 드러내기 위한 묘제라기보다 중하위 계층의 피장자들 간의 관계성을 나타내고자 출발한 묘제로 보인다.

상위 계층의 위계성을 드러내고자 한 묘제로는 대가야의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같은 순장을 통해 매장이 행해지는 동시기에 여러 사람을 매장하며 동시성을 전제한 과시적인 매장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소가야 지역의 다곽식 고분은 한 봉토에 묘곽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덧붙이는 중첩성이 전제된다.

2기는 합천 삼가고분군을 중심으로 다곽식 고분이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합천 삼가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산청 명동 유적에서 다곽식 고분이 축조된다. 이 시기는 가야권역 내 토기의 지역양식이 성립되기 시작하며, 석곽묘의 축조가 성행하게 되며 고대한 봉분을 조성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때부터는 고분군마다 상이한 형식의 다곽식 고분이 축조되어 고분군의 특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한마디로 다양한 형식의 다곽식 고분이 출현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소가야권역 내에서는 단곽식 구조에서 다곽식 구조로 묘제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단곽식의 축조도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한 고분군 내에서 단곽식의 축조가 다곽식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확인되기도 한다.

다곽식 고분으로의 전환은 다인장을 통해 고분을 고대하게 조성하기 위함과 동시에 피장자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은 다곽식 고분이 축조된 합천 삼가고분군의 경우 선축 묘곽의 조성 이후 그 다음 묘곽은 선축곽의 상단부에 조성함으로써 봉분을 고대하게 보이도록 했다.



[도면 14] 다곽식 고분의 시기별 분포(1: 1기, 2: 2기, 3: 3기, 4: 4기, 5: 5기)

3기는 본격적으로 다곽식 고분의 축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2기에 축조가 시작된 고분군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도 다곽식 고분의 축조가 이뤄지기 시작한다. 합천 삼가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주변 지역의 다곽식 고분의 축조가 확산되어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합천 소오리고분군, 의령 오천리고분군, 의령 천곡리고분군, 고성 신용리고분군, 고성 울대리고분군, 산청 명동 유적, 산청 생초고분군, 진주 가좌동고분군에서도 다곽식 고분의 축조가 시작된다. 이 시기에 형성되는 고분군은 합천 삼가고분군을 제외하고 다곽식 고분의 유형 중 부부무덤으로 추정되는 Ⅲd유형과 Ⅳd유형이 가장 많은 축조를 이루고 있다.

4기는 모든 시기 중 다곽식 고분의 축조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시기이다. 앞선 시기에 축조되었던 합천 삼가고분군, 의령 오천리고분군, 의령 천곡리고분군, 고성 신용리고분군, 산청 명동 유적, 산청 생초고분군, 진주 가좌동고분군에서도 축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추가적으로 합천 안계리고분군, 의령 경산리고분군, 고성 내산리고분군, 고성 울대리고분군에서도 다곽식 고분의 축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4기는 모든 유형의 다곽식 고분이 축조되는 시기로 고분의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매장예의 관념이 확산되어 모든 소가야 고분군에서 다곽식을 채용한 것으로 보

인다. 다곽식 고분의 채택은 집단 내부적으로는 같이 매장된 사람들의 관계성을 나타내고자, 집단 외부적으로는 같은 묘제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집단 간의 관계성을 드러내고자한 것으로 추측된다.

5기에는 다곽식 고분의 축조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가야의 정치가 격변하는 시기이다. 합천 삼가고분군, 합천 안계리고분군, 의령 오천리고분군, 의령 정산리고분군, 산청 내산리고분군, 고성 신용리고분군, 산청 생초고분군, 진주 가좌동고분군이 앞선 시기에 이뤄진 축조를 뒤이어 일부 추가 축조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 시기에 새로운 다곽식 고분의 조성은 극히 드물어지며, 통영 팔천곡고분군 1개소만이 새롭게 축조된다. 이를 통해 5기를 기점으로 다곽식 고분의 축조가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묘제의 변화로만 볼 수 없고, 대가야 서진과 562년 신라에 의한 가야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가야의 연맹의 정치적 중심이었던 대가야가 가야 남부지역으로 세력을 확산하면서 다곽식 고분의 축조가 서서히 쇠퇴하고 가야 소멸과 함께 가야 제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다곽식 고분 역시 사라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전 석곽묘를 중심으로 이뤄진 묘제의 구성이 전환되는 시기로 석실묘가 도입된다. 석실묘의 축조는 다곽식 고분의 추가장의 관념이 묘제의 전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합천 삼가고분군에서는 일부 석실묘가 다곽식 고분의 묘제로 채택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다곽식 고분에는 석곽이라는 매장시설이 주로 채용되어왔다. 이 시기에는 석곽묘를 중심으로 한 다곽식 고분이 축조되는 가운데 석실을 매장시설로 채용된 고분이 등장하였다는 것이 큰 변화로 이해된다. 다곽식 고분은 한 묘역을 공유하는 묘제들을 바탕으로 추가장을 이루고 있었다면 석실로의 전환은 매장시설 자체가 추가장을 위한 묘제이기 때문에 매장의례의 관념에 중대한 변화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V. 맺음말

그간 소가야 다곽식 고분의 연구는 배치를 통한 형식 분류와 변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왔다. 배치나 형식을 통한 분류는 피장자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

여 다곽식 고분은 막연히 가족묘나 근친묘로 생각되어 왔다. 다곽식 고분은 여러 묘곽이 모여 하나의 묘역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다곽식 고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묘곽을 분류하고 이러한 묘곽이 어떤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피장자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묘곽 분류를 통해 다곽식 고분의 피장자들, 혹은 그 조합을 통한 분류를 해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묘곽의 정체성 분류와 묘곽에 따른 분묘 유형을 먼저 설정하였다. 정체성이란 피장자가 생전에 생득적·후천적으로 얻게 된 개인적인 특성이며, 계층, 성, 연령, 직업 등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 무덤의 부장품을 통해 피장자의 정체성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어떤 속성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 신중히 검토했다. 부장품은 무덤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피장자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표상하고 그의 사회적 활동을 기억하기 위해 선택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토기, 철기, 금공품 등 부장품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위, 직업, 성별에 따라 분류하고 피장자의 정체성에 접근하려 했다.

다음으로 피장자의 정체성에 따라 분류된 묘곽이 하나의 다곽식 고분에서 어떤 조합과 배치로 축조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한 묘역 내에 배치된 묘곽의 특성과 배치 구조를 통해 개별 고분의 매장례를 유형화해 보고자 하였다. 개별 묘곽은 피장자의 정체성을 함의하고 있고, 이러한 묘곽이 어떤 관계를 맺으며 한 분묘 내에 매장되었는지 살펴본 것이다.

묘곽 조합과 묘곽 배치를 중심으로 다곽식 고분의 유형을 6가지로 분류했다. 6가지의 유형은 묘곽 조합, 묘곽 배치, 축조 기간, 축조 순서 등의 속성을 달리하며 유형별 각기 다른 매장례를 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상위자 중심, 최상위자 부부관계, 상위자의 후손 관계, 중상위자 부부관계, 하위자 후손관계, 하위자 부부관계로 추정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은 시기별로 분포 양상이 변화했던 것이 아니라 고분군 별로 그 분포양상이 상이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었다. 합천 삼가고분군은 후손관계, 의령·진주·산청에 위치한 고분군은 부부관계,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최상위자 중심의 다곽식 구성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본고는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류승혜 2024)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투고일 2024. 12. 31 | 심사완료일 2025. 5. 25 | 게재확정일 2025. 5. 28

참고문헌

- 김규운, 2009, 「고고자료로 본 5~6세기 소가야의 변천」,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범, 2016, 「철기의 조합양상을 통해 본 지역집단과 구성원」, 『한국고고학회』 101, 한국고고학회.
- 김선주, 2010, 「출토유물을 통해서 본 피장자의 성별의식」, 『신라의 고분 문화와 여성』, 한국학자료원.
- 김성태, 2016, 「황남대총 북분 피장자의 성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중앙고고연구』 20, 중앙문화재연구원.
- 김용성, 2014, 「고분으로 본 신라의 장송의례와 그 변혁」, 『중앙고고연구』 15, 중앙문화재연구원.
- 김은경, 2020, 「적석목곽묘 두상부 부장군 부장 용기와 그 의미」, 『한국고고학보』 116, 한국고고학회.
- _____, 2022, 「신라 마립간기 장송의례의 다양성과 재편과정」, 『한국고고학보』 124, 한국고고학회.
- 김지연, 2013, 「소가야양식 토기의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일, 2024, 「몸, 기억 그리고 정체성: 분묘고고학의 새로운 전망」,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33, 영남고고학회.
- 류승혜, 2024, 「소가야 다곽식 고분의 매장의례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승규, 2000, 「고고학을 통해 본 소가야」, 『고고학을 통해 본 가야』, 한국고고학회.
- _____, 2010, 「가야토기 양식의 확산과 계층성」, 『고고학에서의 중심과 주변』, 제29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 박지민, 2023, 「부장천기로 본 울산지역 중소형고분군 축조집단과 사회구조」, 『영남고고학』 95, 영남고고학회.
- 박진옥, 1964, 「신라 무덤의 편년에 대하여」, 『고고민속』 4.
- 서현주, 2020, 「백제 사비기 호서지역 고분과 매장의례」, 『선사와 고대』 64, 한국고고학회.
- 안기동, 2023, 「합천 삼가식 다곽분 연구」, 『한국고고학회 학술대회』, 한국고고학회.
- 여창현, 2013, 「소가야연맹체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7, 「묘제를 통해 본 5~6세기 소가야연맹체 연구」, 『영남고고학』 78, 영남고고학회.
- 윤세영, 1974, 「古新羅·伽倻古墳의 編年에 關하여」, 『백산학보』 17, 백산학회.
- 이성주, 1996, 「신라식 목곽묘의 전개와 의의」, 『한국고고학전국대회』 20, 한국고고학회.
- 이희준, 2011, 「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 『영남고고학』 58, 영남고고학회.
- 정인태, 2020, 「고분 축조기법과 매장의례를 통해 본 소가야권 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 - 대형 봉토분과 분구묘를 중심으로 -」, 『문물연구』 38, 동아시아문물연구소.
- 최영준, 2017, 「가야 다곽식 고분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대룡, 2016, 「고총단계 신라 고분의 부장 정형과 그 함의」, 『한국고고학보』 101, 한국고고학회.
- _____, 2019,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재고」, 『한국고고학보』 111, 한국고고학회.
- _____, 2023, 「신라 고분의 젠더 분석 시론」, 『고고학』 22, 중부고고학회.
- 하승철, 2001, 「가야서남부지역 출토 도절토기에 대한 일고찰」,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5, 「소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 _____, 2021, 「합천 삼가고분군의 다곽식 고분과 가야권역 다곽식 고분의 비교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61, 동아시아고대학회.
- Chris Fowler, 2004, 『The Archaeology of Personhood』, Routledge.
- Thomas, J. 1996, 『Time, Culture & Ident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gaya Multi-Chamber Tombs

Yoo, Seung-Hye(Researcher, Silla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Research on the multiple-chamber tombs of the Sogaya region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classification of tomb forms and their evolution based on burial arrangements. However, such classifications, centered on arrangement or form, do not reflect the identities of the interred, leading to the assumption that these tombs were family or kinship graves. Multiple-chamber tombs consist of several burial pits that share a common burial space, necessitating a classification of each burial pit and an understanding of their compositional combinations. This study aims to categorize burial pits based on the identities of the interred to attempt a classification and typology of the tombs. In the Southern Gaya society, the practice of multiple-chamber tombs, in which several burial pits are arranged within a single mound, was widespread. Although the tombs of each regional group were constructed based on a common burial concept, they show diverse combinations of interred individuals, reflecting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This paper explores how the burial arrangements and their combinations reveal social and cultural identity through the lens of gender, kinship, and other factors.

Key words : Sogaya, multiple-chamber tombs, burial system, burial practice, identity, gender



백제 사비기 왕궁·관아 건물의 변천 과정 연구

- 부여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volution of Palace and Government Office Building Sites during the Baekje Sabi Period

- Focusing on Busosanseong Fortress in Buyeo -

김 대 영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사

I. 머리말

II. 부소산성 내부 건물지 조사 현황

III. 건물지 분석 및 재인식

IV. 부소산성 내 건물지와 사비기 왕궁·관아 건물의 변천

V. 맺음말

국문 요약

본 연구는 백제 사비기 왕성으로 연구되고 있는 부소산성 내 건물지를 대상으로 기존 조사 자료를 재검토하고, 백제 후기 왕궁·관아 건물의 성격과 변천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부소산성 내부 건물지는 과거 수혈식 건물지가 주요 건물지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연구를 통해 수혈 건물지는 통일신라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신 가구식 굴림주 건물지, 벽주 건물지, 외적기단 건물지 등이 주요 건물지로 확인되었다.

특히 백제 사비기 건물지는 종교시설인 사찰을 중심으로 발굴조사와 연구가 우선 진행되면서, 왕궁·관아 유적의 건물지는 사찰 내 건물지와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변천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왕궁·관아 유적과 종교 유적에는 당대 최고의 기술과 최고급 자재가 사용되나 종교유적은 교리와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건축양식이나 사용되는 자재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완성된 종교가 유입될 경우 그 건축양식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왕궁·관아 유적의 건물지와 종교 유적의 건물지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백제 사비기 왕궁·관아 유적의 건물지만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사비기 왕궁·관아 유적의 건물지는 크게 3단계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건물지 1단계는 사비천도가 진행되는 6세기 전반부터 사비도성 내부가 재개발되는 6세기 후반 이전으로 이 시기는 웅진기 가구식 굴림주 건물지와 벽주 건물지가 왕궁·관아 유적의 중심 건물로 계속 유지되는 시기이다. 사비기 건물지 2단계는 6세기 후반부터 무왕 31년(630)까지 시기로 대부분 주요유적에서 1단계 건물지 상면을 성토하고 외적기단 건물지(초석 건물지)를 조성하여 중심 건물로 이용하는 시기이다. 사비기 건물지 3단계는 7세기 전반(630년)부터 백제가 멸망하는 7세기 중반(660년)의 기간으로 부소산성 내부에 더 이상 새로운 형식의 건물지가 조성되지 않으며, 관북리 유적과 왕궁리 유적에 대형전각건물지가 중심 건물로 조성된다.

이러한 단계별 건물지의 변화 모습과 중심 건물지의 조성 위치 변화는 부소산성을 비롯한 사비왕궁지구 일대의 중심지 변화와 함께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백제, 사비기, 사비도성, 건물지,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 왕궁·관아 건물지

I . 머리말

건물은 사람들이 살거나 일하거나,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해 만든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¹⁾ 인간의 주거문화와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단서이자, 만들어진 크기나 재료, 축조한 방식에 따라 성격이나 위계가 달라지기도 한다.

건물은 선사시대 수혈식에서 점차 지상화 되는데, 건물의 지상화 과정은 생활면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건물의 다양한 건축구조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사람들의 생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김대영 · 한옥 2023: 35~36). 중국에서는 이미 신석기 시대 후기부터 지상 주택이 등장하여 일반화되었으며, 불완전하나마 목조 주택이 정착된 것으로 연구(손세관 2001: 115~116)되고 있다. 하지만 백제에서는 한성기 후반부터 수혈 건물지가 점차 지상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류기정 2003; 이견일 2009)가 일반적이다.

고대국가에서 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왕궁 · 관아 유적과 종교 유적에는 당대 최고의 기술과 최고급 자재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종교 유적은 교리와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건축양식이나 사용되는 자재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완성된 종교가 유입될 경우 그 건축양식이 함께 들어와 사회에 이질적인 물질문화가 이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 국가나 정치체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수도나 중심지의 물질문화가 가장 유용한 자료이며, 그중에서도 왕궁 · 관아 유적은 그 나라의 기술력과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물질 자료이다.

왕궁 · 관아 유적에서 가장 핵심 시설은 고대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왕과 직접적 관련 있는 왕궁과 왕성일 것이며, 고대국가의 왕도, 즉 수도에는 왕궁과 왕성이 필수적으로 위치해야 한다. 즉 왕궁과 왕성을 중심으로 한 물질문화 연구를 통해 백제 국가가 어떻게 변화 · 발전되었는가를 究明하는 작업은 고대국가 백제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중 건물지는 왕궁과 왕성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유구로 그 공간의 위계를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문화이다. 그러나 그동안 백제 사비기 건물지는 종교 유적인 사찰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왕궁 · 관아 유적의 건물지 변천 과정에 대한

1) 표준국어대사전

이해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사비 천도를 전후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 조성된 것으로 연구되는 능산리 사지나 군수리 사지 등에서 이미 와적기단 건물지와 초석 건물지가 완성된 형태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사비기 중심 건물은 초석 건물지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왕궁·관아 유적의 건물지는 적어도 종교 유적에서 확인되는 건물지와 비교하여 동일한 위계를 갖거나 보다 더 위계가 높아야 한다는 가정하에서 건물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미 부소산성이나 쌍북리 유적, 화지산 유적에서 웅진기 건물지에서 이어지는 굴립주나 벽주 건물지 흔적이 조사되었으나 이를 왕궁·관아 유적의 중심 건물지로 연결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부소산성의 성격은 발굴조사가 진행될수록 왕성에서 후원이나 방어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연구 자료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백제 건물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비도성 내에서도 다수의 건물지가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조사된 자료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백제 사비기 왕성인 부소산성 내 건물지를 검토하는 것은 백제 후기 왕궁·관아 건물을 이해하는데 가장 유의미한 작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더하여 부소산성 내 건물지의 단계별 변화 모습을 중심으로 사비도성 내 대표적인 왕궁·관아 유적의 건물지 변화 모습과 비교·검토하여 웅진~사비기로 이어지는 백제 왕궁·관아 건물의 모습과 변천 과정을 究明하는 것이 이번 논고의 목적이다.

Ⅱ. 부소산성 내부 건물지 조사 현황

부소산성 내부에서 확인된 유구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건물지로 보고서에서는 수혈 주거지와 건물지를 나누어 고찰하였으며(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3: 205~207), 보고된 수혈 주거지의 수는 18기이다. 수혈 주거지 중 2000년에 조사된 나 1~4호와 다-3호는 주거지의 잔존상태가 좋지 않고 내부에서 노지와 같은 시설이 확인되고 있지 않아 유구의 성격이 확실하지 않으며, 그 외 주거지는 한 변이 4m 내외인 경우가 많다.

부소산성 내 건물지 내부에서는 기존 백제 웅진·사비기에 보이는 벽주, 가구식

굴림주 건물²⁾과 다르게 대부분 수혈식 건물지로 노지가 확인되거나 노지를 설치했던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노지의 형태는 크게 두 종류로 세분되는데, 한쪽 벽면을 따라 비교적 길게 연결되는 터널형의 노지가 시설된 것이 8기이며, 주거지의 모서리 부분이나 중앙 벽면 등에 부뚜막식 노지나 소토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3기, 노지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 6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1983년 수혈주거지를 ‘병영지’로 추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군사들이 상주하면서 조성된 군사시설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으며, 다만 군사시설물이라고 보기에는 무기류 등이 출토된 사례가 거의 없어 성이 군사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때 일종의 민가가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되었다(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3: 206~207).

그러나 당시 왕궁 등 백제의 중심시설들이 부소산성에 있었다면 왕성 내 민가와 왕궁이 같이 배치된 것이며, 왕궁 바로 옆에 별도의 구분이나 차단 없이 민가들이 들어서 있는 것이다. 이는 병영지 성격이어도 어색하다. 만약 왕궁이 부소산성 밖에 관북리·쌍북리 일대에 있었다 하더라도 왕궁 바로 뒤 더 높은, 왕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지점에 평상시 병영지나 민가가 위치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이 주거지들은 비록 일부 중복 관계 등이 보이기도 하지만, 평면 형태나 내부구조 등에서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조성 시기는 보고서에서는 병영지 성격으로 주거지의 구조상 비교적 정연한 노지가 시설된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노지가 백제 사비기 주거지의 전통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일단 축조 자체는 백제 사비기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3: 207).

하지만 백제 웅진·사비기의 왕궁·관아 건물지에서는 대부분 노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웅진기부터 왕궁·관아 건물은 지상화되고 국가시설 외의 건물은 아직까지 수혈 주거지가 조성된 것으로 연구된다(김대영·조운득 2024: 154).

비교적 잔존상태가 좋은 1983년에 조사된 수혈 주거지와 2000년의 나-6호 주거지, 2002년의 다-1호 주거지의 바닥에서는 7세기대에 해당하는 인화문 토기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출토된 바 있다(洪潛植 2001: 80). 보고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주

2) 김대영·한옥(2023: 36~37)에 따르면 생활면 위치, 규칙적인 기둥 간격 유/무, 기둥 세우는 방식에 따라 백제 건물지를 분류하였다. 이중 가구식 굴림주 건물은 일정 간격의 주공이 주망을 형성하고 기둥을 땅을 파고 세우는 형식으로 청동기시대 굴림주 건물지와 구분하여 가구식 굴림주 건물지로 명명하였다.

[표 1] 부소산성 건물지 조사 현황표(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3: 206, <표 4> 수정 후 재인용)

조사 지역	조사 연도	유구명	평면 형태	규모(m)	구조 특징 및 내부 시설	바닥층 출토유물
부소 산성 서남편	1983	제1수혈 건물지	방형	4×4	· 노지-위치: 서벽, 규모: 길이 3.7, 폭 0.6, 석축	· 인화문 토기 등
		제2수혈 건물지	방형	4.2×4×0.5~0.6	· 노지-위치: 동벽, 석축	
		제3수혈 건물지	방형	4×4×0.7~0.9	· 노지-위치: 동벽, 규모: 길이 3.6×0.3×0.3, 석축 · 출입구 계단시설-위치: 남벽 - 규모: 높이 0.35, 2단 · 추정 침상시설 - 위치: 주거지 서편 - 평면형태 및 규모: 'ㄱ'자형, 북변길이 2.48, 서편길이 2.78, 깊이 0.28	· 노지 바닥부 5세기대 뚜껑 · 인화문 토기
군창지 남편 대지	1992	방형 주거지1	방형	3.5×3.5×0.3	· 방형주거지 2에 의해 북동편 파괴 · 노지-위치: 남벽 동편, 규모 2.35×0.85, 석축	
		방형 주거지2	방형	4×4	· 노지-위치: 동벽 북편, 석축	
		방형 주거지3	방형	4.6×3.6(잔존)	· 노지-위치: 서편, 규모: 0.9×0.7, 타원형 소토층	
		방형 주거지4	방형	5.2×5.2	· 북벽, 서벽 내측 바닥 5개 주공 (직경 0.2, 깊이 0.15~0.2), 주칸거리 0.95~1.3	
북문지 동편 일대	2000	나-1호 주거지	.	3.6×3.1(?)	· 추정 주거지 · 노지- 위치: 동벽중앙부, 타원형, 규모: 1.1×0.4	
		나-2호 주거지	방형	2.5×2.5	· 추정 주거지 · 내부 수혈 2기 확인	
		나-3호 주거지	근방형	4×3×0.3	· 추정 주거지 · 내부 수혈 2기 확인	
		나-4호 주거지		1(잔존)×2.6	· 내부 수혈 1기 확인	
		나-5호 주거지	방형	4.1×3.8×0.7	· 출입시설-남벽 중앙부 출입시설의 기둥 2기 · 노지-위치: 북벽 서편, 규모: 1.5×0.5, 토축 · 내부 수혈 4기	· 인화문 합 완형
		나-6호 주거지	방형	4×4×0.4	· 노지-위치: 북벽 서편, 규모: 1.3×0.6~0.9 · 바닥 점토다짐	
		나-7호 주거지	근방형	4.4×3.7	· 노지-위치: 북벽동편, 소토부 · 주거지 남편 주머니형 수혈1기(선행유구)	
		나-8호 주거지	근방형	3.7×3.2×0.2		
	2002	다-1호 주거지	방형	4.4×4.2×0.3	· 노지-위치: 북벽동편, 규모: 폭 약 60(티널형)	· 인화문 토기
		다-2호 주거지	장방형	4.1×2.7×0.1~0.3	· 바닥 점토다짐 · 노지-위치: 서북 모서리, 규모: 1.5×0.5	
		다-3호 주거지	근방형	4.2×3.7		



제1 수혈 건물지



제3 수혈 건물지



다지구 수혈 건물지 전경



나지구 6, 7호 주거지 전경



다지구 수혈 건물지 전경 및 바닥 출토 인화문토기



외적기단 건물지



굴립주 건물지

[사진 1] 부소산성 조사 건물지 현황

거지의 구조상 축조의 상한 연대는 백제 사비기로 보고, 주거지의 사용 또는 폐기의 하한연대는 통일신라 이른 시기라고 보았다.

추가적인 이유로 통일신라시대의 테피식산성이나 서북편의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등에서 9세기 이후의 명문와나 유물들이 출토되는 것에 반해 이 주거지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인화문 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2000년에 확인된 주거지를 덮고 있는 상층에서 늦은 시기의 유물들이 출토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부소산성이 대대적으로 수축·보수되었던 통일신라시대 말까지는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고찰하였다(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3: 207).

백제 사비기의 건물지에 대해서는 1985년과 1993년에 각각 추정 서문지 일대 및 군창지 동편에서 확인된 瓦積基壇 建物址 2기와 2001년 북문지 동편에서 확인된 굴립주 건물지 1기가 보고되었다. 서문지 주변에서 확인된 와적기단 건물지는 북편 기단 일부와 동편 기단만이 잔존해 있는 상태로 동편 기단의 남북 길이는 약 10m, 북편 기단의 동서 잔존 길이는 약 2.5m이다. 기와는 최대 12층까지 풍화암반층을 ‘ㄴ’자형으로 파내고 평적하여 쌓았으며, 동편 기단의 남북 양단에서 각각 2.1m 거리를 두고 폭 0.9m 구간에는 와적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출입구 시설로 추정하였다.

군창지 동편의 와적기단 건물지는 조선시대 건물지2 하부에서 확인된 것으로 동서방향의 1열, 2m 정도만이 잔존해 있어 정확한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부소산성 발굴조사 결과 성 내부에서 위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지가 확인되지 않고, 수혈건물지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소산성의 성격을 왕성보다 후원이나 배후산성으로 비정하는 하나의 지표자료가 되었다.

Ⅲ. 건물지 분석 및 재인식

최근 조사·연구 자료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백제 건물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비도성 내에서도 다수의 건물지가 조사되고 있다. 새롭게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1981년부터 2002년까지 조사된 건물지를 재검토한 결과 기존 부소산성 내 주요 건물지로 인식되고 있던 수혈건물지는 대부분 통일신라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 벽주 건물지, 와적기단 건물지, 초석 건물지 등이 부소산성 내 주요 건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소산성에서 보고된 수혈 건물지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백제 웅진·사비기 왕궁·관아 건물로 이해하기에는 어색한 부분이 많다. 보고서에서 수혈 건물지(주거지)로 보고된 유구 내부에서 유물이 확인되는 경우 대부분 통일신라시기를 대표하는 인화문 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표 2] 통일신라 유물 출토 수혈주거지 현황표

위치	유구	종류	세분류		수량	비고
추정 서문지	수혈건물지1	토기류	뚜껑 (물방울무늬, 점열문)	인화문 토기	3	
			대부완(이중원문)	인화문 토기	1	
	수혈건물지2 남쪽 구덩이·저장공	토기류	대부완편(점열문)	인화문 토기	1	
			주름무늬병		1	
		기타류 기타류	납석제 뚜껑		1	
			납석제 손잡이편		1	
	수혈건물지3 북편 저장공	토기류	뚜껑편(마제형문)	인화문 토기	1	
추정 북문지	나지구 5호 주거지	토기류	병 저부편(점열문)	인화문 토기	1	주거지 내 수혈
	나지구 6호 주거지	토기류	대부완 (이중원, 물방울무늬)	인화문 토기	1	유구 바닥
	나지구 7호 주거지	토기류	뚜껑(이중원문)	인화문 토기	1	유구 바닥
	다지구 1호 주거지	토기류	완 구연편(물방울무늬)	인화문 토기	1	유구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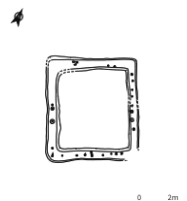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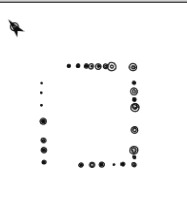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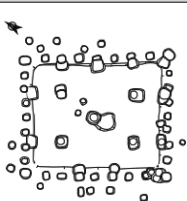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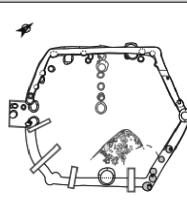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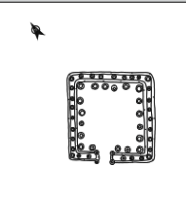
보고서에서 수혈 건물지에 귀속시켜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군창지 주변 평탄지에서도 수혈 건물지가 조사된 지역 주변으로 인화문 토기가 92점이나 출토되었다. 따라서 군창지 주변 수혈 건물지도 통일신라 시기로 편년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022년 부소산성 군창지 주변 시굴조사 시 군창지 서쪽에서 새롭게 확인된 수혈 건물지 안에서 인화문 토기가 출토되는 양상으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소산성 내부에서 확인된 대부분 수혈 건물지는 통일신라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소산성 출토 통일신라 토기는 백제 멸망 이후 7세기 후반부터 9세기에 이르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인화문 토기 중 이른 형식의 것으로 이중반원무늬·이중원무늬·물방울무늬 등이 표면에 베풀어졌으며(홍보식 2020: 333~334), 이 토기들의 본격 확산은 671년 소부리주가 설치되는 시점 이후로 연구되고 있다(서현주 2017: 170).

최근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소산성 내 유구들을 재검토하면 그동안 부소산성

내에서 조사가 되었으나 주목되지 않았던 유구들이 있다. 먼저 1983년 조사된 추정 서문지 동쪽 대지를 보면 수혈건물지들과 중복되면서 북동쪽과 남서쪽 벽면이 훼손되었으나 직경 40~80cm의 주공이 매우 정연하게 열을 맞춰 존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보고서에서는 별도의 유구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조사되고 있는 벽주 건물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웅진·사비기 가장 일반적인 벽주 건물지 3형식에 해당하는 건물임을 알 수 있다(김대영·조운득 2024: 153).

1984년 서문지 남동쪽의 목책유구로 보고된 자료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유구는 방형으로 굴광한 주공의 내부에 목주의 흔적이 확인되는 형상인데, ‘ㄱ’자 형태로 격이는 모습을 보면 최근 쌍북리 유적이나 공산성 추정왕궁지 일대에서 확인되는 굴립주 건물일 가능성이 있다. 2002년 조사된 북문지 동쪽 산사면 평탄지에 토기 밀집유구로 보고된 자료도 있는데(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3: 151~152), 이는 건물지 2기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이고, 중복된 위치에 수혈 건물지가 조성되었다. 밀집된 토기는 수혈건물지 폐기층에서 확인된다.

형식	1유형		2유형	
	1-1유형	1-2유형	2-1유형	2-2유형
도면				
유적	부여 나성-북나성 V·Ⅶ Ⅱ-1단계 건물지2	익산 신동리 유적 1지구 1호 건물지	부여 쌍북리 56번지 유적 2호 건물지	공주 공산성 건물지 굴건식 건물지1
형식	3유형	특수형		
도면				
유적	부여 쌍북리 56번지 유적 25호 건물지	공주 정지산 기와건물지	공주 공산성Ⅳ Ⅷ-24호 건물지	부여 왕포천변 유적 정밀2지점 백제Ⅰ층 3호 건물지

[도면 1] 벽주 건물지 유형분류(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24b: 36 재인용)

조선시대 군창지의 北庫 주변에서는 주공열이 확인되는데, 조사 당시에는 백제 주혈 유구로 보고되었다. 이 주공 유구들은 군창지와 중복되어 군창지 초석 사이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전체 현황을 보면 정연한 열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벽구 내에 주공열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유형의 벽주 건물지로 판단된다. 대부분 2유형의 건물지가



(추청서문지)유구명× → 벽주 건물지 3유형



(추청북문지)토기밀집유구 → 굴립주 건물지



(추청서문지)목책유구 → 벽주 건물지 3유형



(군창지)백제 주혈유구 → 벽주 건물지 2유형



(군창지)유구명× → 와적기단 건물지



유구명× → 초석 건물지



[사진 2] 부소산성 재인식 건물지

웅진기 벽주건물 중 면적 분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중심 건물에 사용되는 (세)장방형 평면 형태의 건물지로 확인된다(김대영 · 조운득 2024: 161).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나 벽주 건물지 외에 와적기단 건물지와 초석 건물지도 확인된다. 군창지 동쪽의 와적기단 건물지는 발굴조사 당시 조선시대 건물지2를 설명하면서 건물지 내 와적기단이 200cm 남아 있으나 주변의 유적이 심하게 교란되어 상황 파악이 어렵다고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7a: 74).

당시 사진을 살펴보면 기반토에는 크고 작은 굴립주 주공들이 다수 확인되며, 그 상면을 수평하게 성토하여 와적기단 건물지를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지에 대해서는 최근 부소산성 17차 발굴조사를 진행하면서 와적기단 건물지의 북쪽 기단을 추가로 확인하여 건물지의 남-북 길이가 약 11m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23a).

이외에 1983년 추정 서문지 주변 북동편으로 제2수혈 건물지 북쪽에서 3개의 초석이 일정 간격으로 확인되어 초석 건물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초석의 지름은 약 70~100cm 정도이며, 기단 없이 기반토에 바로 올려 놓고, 두꺼운 석재를 사용해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추었다. 사진으로만 확인하여 정확한 시기는 알기 어려우나, 부소산성 17차 시 · 발굴조사를 진행하면서 2지구 41번 트렌치에서 유사한 건물지가 확인되어 백제 사비기 건물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소산성 내 건물지는 2020년 이후 발굴조사가 재개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하였다. 2020년 부소산성 내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공사와 더불어 진행된 군창지~사자루 구간 긴급 시 · 발굴조사와 16차 학술발굴조사, 백제 사비기 왕성 · 왕궁 확인을 위한 종합학술연구로서 2022년부터 진행된 부소산성 17차 시 · 발굴조사가 추진되면서 부소산성 내 유구의 시대별 변화모습과 내부 공간의 활용 양상, 성내 주요 건물지의 분포 모습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2020년 진행된 군창지~사자루 구간 긴급발굴조사 지역 중 추정 서문지와 사자루 사이 평탄지에서는 기반암에 굴립주 · 벽주 건물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후 건물지 상면을 약 30~50cm 가량 물성이 다른 흙을 교호성토한 뒤 상면에 초석 건물지를 조성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부소산성 17차 발굴조사(군창지 구간)에서도 백제 사비기 와적기단 건물지 조성층 하층에 원형과 방형의 굴립주 건물지 주공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부소산성 동쪽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군창지 일대 평탄지나 서쪽

구릉부에 있는 사자루 남쪽 건물지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부소산성 내 건물지는 크게 2단계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소산성 내 건물지 1단계(하층)는 대지를 정리한 후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나 벽주 건물지를 조성하였고, 2단계(상층)는 1단계 상



군창지 일대 굴립주, 벽주 건물지(1단계)



사자루 남쪽 상·하층 건물지 현황(左 하층)



부소산성 17차(군창지구간) 와적기단 건물지 및 하층 굴립주, 벽주 건물지 노출 현황



군창지 동쪽 와적기단 건물지



군창지 서쪽 초석 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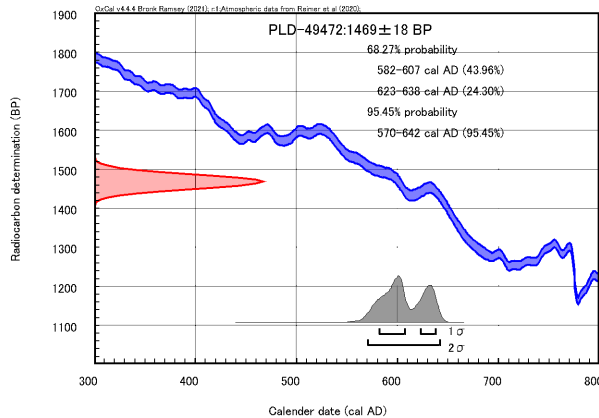
[사진 3] 최근 조사된 부소산성 건물지

면을 성토하거나 대지를 다시 조성한 뒤 와적기단 건물지나 적심이 사용되지 않는 초석 건물지가 축조되었다.

1단계 건물지의 조성 시기는 웅진기 건물지의 형태와 연결되며, 사비 천도 시기를 고려할 때 6세기 전반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단계 건물의 조성 시기는 와적기단 건물지에서 나온 방사성탄소연대 결과와 관북리 일대 와적기단 건물지가 축조되는 시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부소산성 17차 시·발굴조사 중 와적기단 건물지 남쪽의 기단에서 목탄이 확인되었다. 목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 수종은 소나무과이며, 방사성탄소연대측정 및 역년교정 결과 기원후 560~642(95.45%)이거나 A.D. 582~607년(43.96%) 또는 A.D. 623~638년(24.30%)이 산출되어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의 시간 폭에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관북리 유적의 성토 대지가 조성되는 6세기 후반경과 거의 동일한 시기로, 관북리 유적에서 대지 성토 후 2단계에 와적기단 건물지가 조성되는 것을 보았을 때, 부소산성과 관북리 일대의 건물 변화는 거의 동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2] 부소산성 와적기단 건물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Ⅳ. 부소산성 내 건물지와 사비기 왕궁·관아 건물의 변천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소산성 내 백제 사비기 건물은 1단계에 가구식 굴림주 건물지와 벽주 건물지, 2단계에는 초기 초석 건물지와 와적기단 건물지가 중심 건물로 확인되는데, 이는 웅진기 중심성인 공산성 내 유구 현황이나 사비기 천도 초기

중요 건물지가 확인된 쌍북리 일원, 이궁지로 비정되고 있는 화지산 유적 등의 건물지 조사 현황과 비교해 보면 유사한 건물지 전개의 흐름을 살펴 볼 수 있다.

사비도성 내에는 수혈건물지,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 벽주 건물지, 초석 건물지(와적기단 건물지, 1동 2실 건물지), 특수형 건물지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지가 조사³⁾되고 있다.

그동안 사비도성의 건물지 연구는 왕궁·관아 유적과 종교 유적인 사찰을 같은 선상에서 연구해왔기 때문에 그 변천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사비기 가장 이른 시기 사찰로 논의되는 군수리 사지, 능산리 사지 등에서 이미 기단이 있는 초석 건물지, 와적기단 건물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비 천도를 전후한 시점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사찰에서 이미 초석 건물이나 와적기단 건물, 1동 2실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발달된 건물지가 확인되므로, 웅진기 중심 건물은 벽주(굴립주) 건물이고, 사비기 중심 건물은 초석 건물이라는 인식만 있었을 뿐 연결되는 두 지역의 건물지 변화 모습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사비도성 내 발굴조사는 일찍부터 대부분 사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비기 위계가 높은 건물은 발달된 초석 건물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이에 따라 일찍부터 사비기 왕궁·관아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부소산성과 관북리, 쌍북리 일대에서 건물지가 조사되었으나 적어도 왕궁이나 관아의 중심 건물은 사찰과 비슷한 형태나 위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사비기 초기 건물지 이해의 어려움이 있었다.

사찰과 같은 종교 유적은 교리와 신앙의 대상에 따라 건축 양식이나 사용되는 자재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완성된 종교가 유입될 경우 그 건축 양식이 함께 들어와 사회에 이질적인 물질문화가 이식되기도 한다. 이는 한반도나 일본에 사찰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백제는 일본 최초의 사원인 飛鳥寺를 건립하는데 瓦博士 등 기술자 집단을 파견하여 사원 조영 기술 전반을 전수해 주고(이병호 2013a), 이 당시 일본에는 사찰에서만 기와가 사용되었다. 일본에서는 7세기 후반 藤原宮을 조영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독자적인 기와 문양 창출과 내재화는 물론 기와 공급체계를 완성시키게 된다(이병호 2013b: 197). 또한 藤原宮 시기부터 이전에 궁전에 사용되던 전통적인 굴립주식 기

3) 사비도성 내부 건물을 축조 기법에 따라 상조건물, 지상건물, 수혈건물로 구분되며, 지상건물은 고상식건물, 지상식건물, 벽주식 건물로 세분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강소희 2017: 143).

등이 아닌 궁전에 처음으로 초석을 사용한 건물지가 조성된다(小澤毅 2003).

飛鳥寺 창건을 『日本書紀』나 『元興寺緣起』를 바탕으로 588년 조영이 시작된 것으로 보면 6세기 후반에 종교시설인 사찰에는 기와 건물과 초석이 있는 건물지가 백제 기술자들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일본 왕궁에는 초석과 기와가 약 100년이 지난 7세기 후반에 사용된다. 따라서 고대 건물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실·관아 건물과 사찰과 같은 종교 건물은 구분하여 전개 양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사비도성 내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건물들의 배치를 살펴보면 부소산성이나 북나성(청산성 정상부) 유적과 같이 비교적 고지대에 있는 중심 유적에는 벽주 건물과 가구식 굴립주 건물, 초석건물, 와적기단 건물 등 다양한 건물지 형태가 모두 확인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천도 초기 유구가 집중되어 있는 부소산성의 남동쪽 쌍북리 일원에는 벽주 건물지가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가구식 구조의 건물 중에서는 가구식 굴립주 건물이 주로 확인될 뿐 초석 건물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저지대였던 부소산성의 남서쪽 관북리 일원에서는 벽식구조의 건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가구식 초석건물의 분포비율이 높다. 관북리 일대는 6세기 후반경 대단위 성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다수의 가구식 초석건물은 이 성토대지 상면에 조성되었다.

이외에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는 사비도성 내 대부분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평탄지나 저지대에서 확인되는 비중이 좀 더 높으며, 초석 건물지는 관북리나 화지산 등 백제 왕궁·관아시설로 비정되는 중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찰에서 확인되는 특징이 관찰된다.

사비도성 내 왕궁·관아 유적 건물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웅진기 왕성과 국가시설로 이해되고 있는 공산성과 정지산 유적의 건물지와 사비기 왕궁, 관아, 이궁 등으로 연구되고 있는 부소산성과 관북리, 쌍북리 일대, 화지산 유적의 건물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웅진기 왕성으로 이해되고 있는 공산성에서는 웅진기 주요 건물은 모두 가구식 굴립주 건물과 벽주 건물이다. 공산성 내 건물지 변천은 추정왕궁지에서 확인된 가장 이른 시기의 벽주 건물지로 구에 의해 주공열이 연결된 벽주 건물지 → 대형 기둥구멍의 굴립주 건물지 → 초석 건물지로 중복관계가 확인되었으며, 공북루 남쪽의 백제 왕궁 관련 유적에서는 구에 의해 주공열이 연결된 벽주 건물지 → 구가 없는 벽주 건

물지 → 적심토, 초석 건물지가 중복되어 조사되었다(이현숙 2023: 70).

다만 여기서 제시한 초석 건물지는 대부분 지하식 초석의 형태로 벽주 건물지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 사비기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이현숙 2023: 77) 하였는데, 이는 사비기에 조사되는 초석 건물지와는 다른 벽주 건물 내 기둥에 초석이 일부 채용된 형태로 벽주 건물지 범주에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즉 공산성 내부에서는 웅진기부터 사비기까지 일부 변화 발전은 있으나 가구식 굴립주건물과 벽주 건물지가 백제 사비기까지 주요 건물로 지속된다.



공산성 백제 왕궁 관련 유적 건물지

정지산 유적 중심 건물지

[사진 4] 웅진기 공산성 및 정지산 유적 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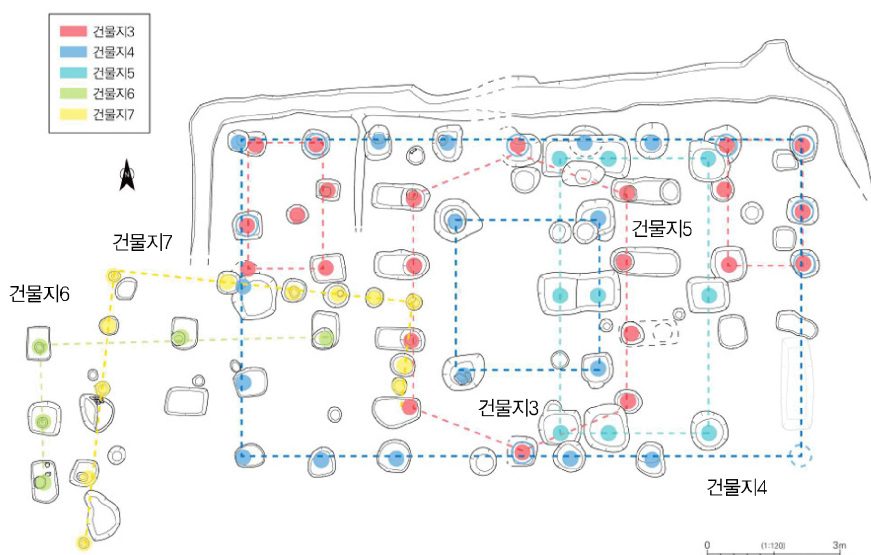
정지산 유적의 경우 백제 웅진기 국가시설물로 I 기(5세기말~6세기초)에는 수혈 주거지와 저장공이 조성되고, II기가 유적의 중심 시기로 정상부를 평탄화한 다음 벽주건물(대벽건물)과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가 축조된다. 이후 백제 사비기에는 석실묘나 옹관묘가 들어서 6세기 중엽경에는 유적의 성격이 변화되었을 것으로 보고되었다(국립공주박물관 1999: 218~222). 정지산 유적 건물지의 경우 목책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상부 중앙 평탄지에 이중 구조의⁴⁾ 특수형 건물지와 1유형의 벽주 건물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목책의 바깥으로는 남쪽 경사면을 따라 2유형과 3유형의 벽주 건물지만 확인되고 있어 건물지 배치에 목책 안과 밖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김대영 · 조운득 2024).

부소산성 남쪽의 부여 쌍북리 일대에서 최근 사비기 초기부터 조영된 건물지 8기

4) 정지산 유적 기와건물지와 쌍북리 유적의 건물지4에서는 내부에서 일정 간격으로 주방이 형성된 기둥 자리가 방형으로 배치되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벽주 건물지 내부에 기둥이 배치되지 않는 것과 다르게 기둥이 내부에도 방형의 구조로 확인되어 이중 구조 건물지로 명명하였으며, 이는 상부 구조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확인되었다(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2024a). 이중 중요 건물지는 조사지역 북쪽 경사면 상단부 평탄지에 약 5번 중복 구성되어 있다. 중심 건물은 대지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물지 3과, 이중 구조의 대형 건물인 건물지 4이다. 건물지 3은 ‘品’자형 배치의 건물로 공주 정지산 유적의 중심 건물지와 배치가 유사하다. 건물지 4는 장방형의 대형 건물로 내부에 정방형의 기둥이 있는 이중의 건물 기둥 배치가 확인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이중 구조의 건물은 웅진기 국가차원의 제의 시설로 보고된 공주 정지산 유적의 중심 건물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쌍북리 유적에는 웅진기 공산성이나 정지산 유적에서 조사된 건물지 형식이 유지되고 있으며, 건물지의 중복 조성, 유적 내에서 출토된 가야 토기 등으로 볼 때 사비천도 초기부터 말기까지 건물지가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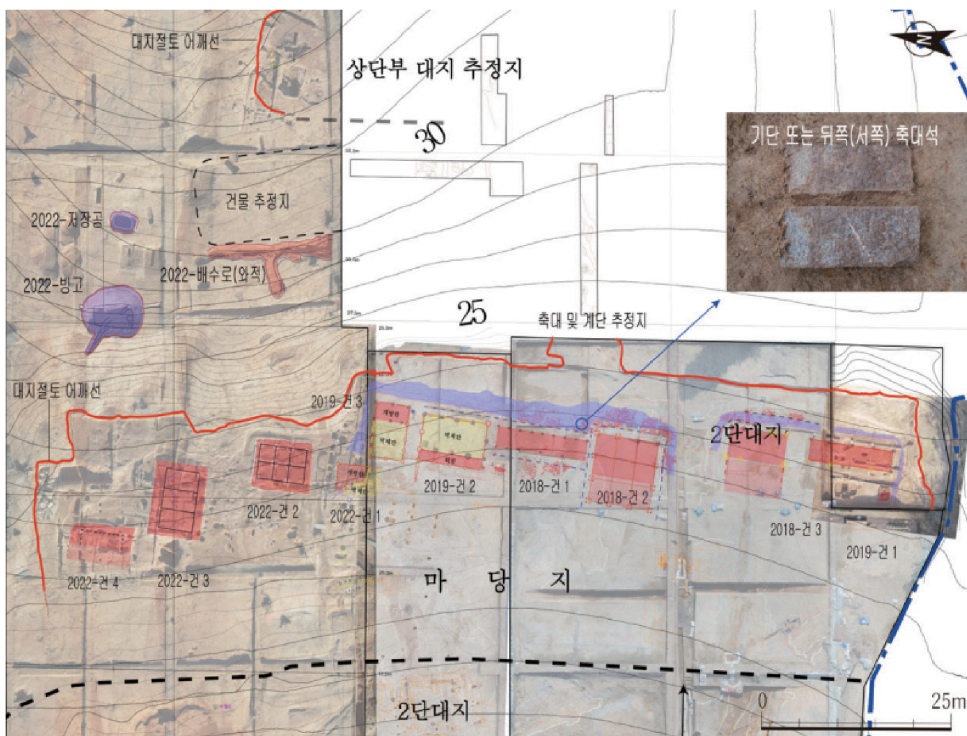


[도면 3] 부여 쌍북리 유적 중심 건물지 배치(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2024a: 110)

다만 쌍북리 유적의 건물지 중복 상황으로 보았을 때 3번째 조성된 건물지인 건물지 4까지 ‘品’자형 건물지와 대형의 이중구조 건물지 등 중요 건물지가 조성되다가, 건물지 4 이후 조성된 건물지 6, 7은 일반적인 건물로 변화된다. 즉 쌍북리 유적에서는 사비천도 초기 특수 건물지나 대형 건물지가 조성되다가 사비기 후기에는 일반건물지로 성격 변화가 관찰된다.

부여 화지산 유적은 사비기 이궁(김낙중 2021: 181~184)이나 최근 22부사 중 외곽의 客部관련 국가시설(최병화 2023: 171~172), 사비기 최고 지배층이 사용한 공적시설로 왕족 들의 거주 공간(이병호 2024: 54), 익산과의 관계에 따라 이궁에서 객관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을 가능성(김영심 2024: 295) 등이 제기되고 있다.

부여 화지산 유적은 총 14차례 이상의 지표 및 시·발굴조사를 통해 백제 유구를 다수 확인하였으며, 백제 건물지는 수혈 건물지 3동, 벽주 건물지 약 10동 이상, 굴립주(고상) 건물지 1동 이상, 구들 시설 건물지 1동, 초석 건물지 19동 등 총 34동 이상이 확인되었다. 화지산의 사비기 건물지는 2단계 정도로 구분된다. 사비 1기(6세기 전 중반~후반)에는 수혈 건물지(건물지 8호), 굴립/벽주 건물지, 굴립주열 등이 있으며, 사비 2기(6세기 후반~7세기 중·후반)에는 대지를 조성한 뒤 초석 건물지, 계단지 및 축대 등이 확인되었다(최병화 2023: 156). 화지산 유적의 중심 시기는 초석 건물지가 조성되던 6세기 후반~7세기 중·후반이다.



[사진 5] 부여 화지산 유적 중심 건물지 배치(최병화 2023 : 도 22 재인용)

부여 관북리 유적은 크게 3단계로 유적의 변화상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유적의 1단계와 2단계는 관북리 일대가 대단위로 성토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2단계와 3단계는 조사지역 '라'지구를 중심으로 와적기단 건물군이 조성되다가 건물들이 폐기되고 상면으로 대형 전각건물이 조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된다(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9a).

성토 이전에 조성된 1단계 유구들을 살펴보면 관북리 유적의 동쪽으로는 가마터·공방터·공방폐기장·노시설 집중분포지 등 생산과 관련된 유구들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조사지역 서쪽으로는 목곽고와 석곽고 그리고 다양한 평면형태의 구덩이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저장과 관련된 시설이다.

2단계와 3단계 유구들은 소위 제Ⅶ층군으로 구분한 성토층 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1단계에 비해 경사지와 저지대 지역이 평탄화 되면서 유적의 분포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전 1단계에서 보이던 저장이나 생산과 관련된 시설보다는 점차 대형 건물과 상하수도시설, '+'형태로 교차하는 도로유구 등이 조성되고 있어 유적의 성격과 위계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단위로 성토가 시작되는 2단계 이후의 중심건물군은 2004년~2007년 조사된 관북리 유적 라지구에 위치한다. 라지구의 2단계에서 확인되는 와적기단 건물지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3동이 위치하고 있는데, 상면으로 다시 3단계 문화층이 조성되면서 그 잔존상태가 양호하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잔존하고 있는 유구의 흔적을 기준으로 제원을 추정해 본다면 대략 9.5m~16m 정도의 크기로 추론해 볼 수 있다.

3단계에는 이러한 와적기단 건물지의 상면으로 크기 35×18.5m, 또는 35×19.25m 규모의 대형전각건물이 조성되고 있으며, 대형 전각건물의 주변으로는 담장을 제외하고는 주변에 시설물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적 현황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3단계에는 관북리 일대의 중심 건물이 이 서쪽 구역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백제 웅진·사비기 왕궁·관아 유적 건물지를 살펴본 결과, 사비천도가 진행되는 6세기 전반부터 사비도성 내부가 재개발되는 6세기 후반까지를 사비기 건물지 1단계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웅진기의 건물지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시기이다. 웅진성인 공산성과 정지산 유적에서 확인되는 벽주 건물지,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가 사비천도 후에도 계속 중심 건물지로 사용되며, 부소산성 군창지를 중심으로 기반토에 대형의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 벽주 건물지가 조성된다. 부여 쌍북리 일원에는 '品'자형

굴립주 건물지, 화지산 유적에서는 수혈 건물지(건물지 8호)와 가구식 굴립주·벽주 건물지가 조성되는 시기이다.



공산성(웅진성) 백제 왕궁 관련 유적 건물지



부소산성 군창지 하층 건물지



부여 쌍북리 525-1유적 건물지 현황 및 출토 가야 토기

[사진 6] 사비기 건물지 1단계

사비기 건물지 2단계는 6세기 후반부터 무왕 31년(630)까지 시기로 대부분 유적에서 1단계 건물지 상면을 성토하고 와적기단 건물지나 초석 건물지를 조성하는 시기이다. 2단계에서 주목되는 건물지는 와적기단 건물지가 있는데, 부소산성 군창지 동쪽에서는 대단위 성토 후 대형의 와적기단 건물지 5동이 일정한 배치를 가지고 조성되고 있으며, 서문지 주변과 궁녀사 구간에도 와적기단 건물지가 조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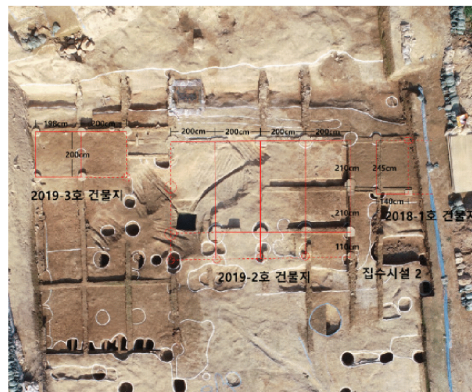
이 시기는 도성이 확장되는 시기로 부소산 남쪽의 쌍북리 유적에는 ‘品’자형 굴립주 건물지 상면으로 성토 후 대형의 이중 구조 건물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화지산 유적에서도 성토 후 중심 건물지인 초석 건물지군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저지대였던 관북리 일대가 대단위로 성토되어 개발되는 시기로 건물지가 거의 조사되

지 않았던 관북리 일대에 와적기단 건물지가 조성되는 시기이다.

2단계의 시작 시점은 관북리 유적의 성토대지 조성시점(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9a: 70~74)(6세기 4/4분기)과 사비도성 내 왕궁 유적에서 와적기단이 축조되는 것으로 연구되는 시기(김혜정 2011: 123) (6세기 3/4분기), 화지산 유적의 초석 건물지 조성시기(6세기 후반), 부소산성 내 와적기단 건물지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값 A.D. 560~642(95.45%), 좀 더 세부적으로는 A.D. 582~607년(43.96%)을 고려하였다.



부소산성 와적기단 건물지(상층)



화지산 유적 초석 건물지(상층)

[사진 7] 사비기 건물지 2단계

사비기 건물지 3단계는 7세기 전반(630년)부터⁵⁾ 백제가 멸망하는 7세기 중반(660년)의 기간으로 부소산성 내부에 더 이상 새로운 형식의 건물지가 조성되지 않으며, 와적기단 건물지가 계속 중심 건물지로 유지되고, 쌍북리 일대는 이중구조의 대형 건물지 폐기 후 더 이상 중요 건물지가 조성되지 않고 소형의 일반 벽주 건물지와 가구식 굴림주 건물지만 조성되는 시기이다.

화지산 유적에서도 2단계 건설했던 초석 건물지가 계속 이어진다. 이 단계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곳은 부여 관북리 일대로 와적기단 건물지 상면으로 2차 성토가 진행되며, 이전 건물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인 35m 크기의 대형 전각건물지가 조성된다. 이러한 대형 전각건물지와 유사한 형태와 크기의 건물이 익산의 왕궁리 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3단계의 시작 시점은 사비 궁궐을 수리하여 고치는 왕궁의 축조나 중수에 관한 첫

5) 『三國史記』百濟本紀4, 武王三十一年, '春二月 重修泗水之宮 王幸熊津城 夏旱 停泗水之役秋七月 王至自熊津'

번째 기사로 무왕이 사비궁 중수에 따라 웅진으로 이동하는 무왕 31년(630) 시점과 관북리 유적 2차 성토대지 내에서 확인되는 개원통보(唐 武德4年 621년 처음 주조)의 연대를 고려하였다.



부여 관북리 유적 대형 전각건물지



익산 왕궁리 유적 대형건물지

[사진 8] 사비기 건물지 3단계

V. 맺음말

지금까지 부소산성 내 건물지를 재검토하고 사비기 왕궁·관아 건물지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기존 부소산성 내 주요 건물지로 인식되고 있던 수혈건물지는 대부분 통일신라기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혈건물지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인화문 토기가 주로 출토되며, 주변에서 ‘大唐’ 명 와당, 중국제 자기 등이 확인된다.

이러한 유구 현황과 출토 유물을 종합해 봤을 때, 부소산성 내의 수혈건물지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660년)한 뒤 672년 소부리주(사비주)가 설치되기까지 당과 신라군이 부소산성을 점령했던 때와 신라 소부리주(672년~686년)로 주성(州城)의 역할을 했던 시기에 조성되었던 유구로 판단된다.

부소산성 내 건물지는 사비천도 직후부터 부소산성 군창지 일대를 중심으로 대형의 굴립주 건물이 조성되며, 6세기 후반부터는 군창지 동쪽으로 대단위 성토 후 대형 와적기단 건물지가 5동 이상 일정한 배치로 조성되고 있어 중심 건물지군이 군창지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세기 후반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와적기단 건물지는 부소산성 서쪽 공간인 서문지 주변과 궁녀사 구

간에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사비기 건물지는 630년을 전후한 시기 다시 변화가 관찰되는데, 관북리 유적에는 대형전각건물지가 중심 건물로 조성된다. 그러나 부소산성에는 6세기 후반 조성되었던 와적기단 건물지군이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 이어져, 통일신라시대까지 일부 재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건물지 변화 양상을 고려하면 부소산성 내 중심 공간은 사비 천도 후 한동안 군창지 주변 평탄지가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세기 후반경 관북리 일대가 개발되기 시작하며 부소산 서쪽 공간에도 와적기단 건물지가 조성된다. 하지만 사비기 건물지 3단계에는 중심 건물지가 관북리 유적과 익산 왕궁리 유적에 대형전각건물지 형태로 조성되며, 부소산성 내에는 더 이상 새로운 형태의 중심 건물지가 조성되지 않고 이전 시기 와적기단 건물지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중심건물지 조성 현황은 사비기 건물지 3단계에 부소산성 군창지 일대가 사비도성 내 핵심 공간으로서 중요도가 감소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 논고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김대영 2025)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정리 한 것이다.

투고일 2025. 4. 29 | 심사완료일 2025. 5. 25 | 게재확정일 2025. 6. 5

참고문헌

- 강소희, 2017, 「백제 사비도성의 건물유형 연구」, 『마한·백제문화』30,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公州大學校博物館, 1992, 『公山城 建物址』.
- _____, 2016, 『公州 公山城 I』.
- _____, 2019a, 『公州 公山城 IV』.
- _____, 2019b, 『公州 公山城 V』.
- 공주대학교역사박물관, 2023, 「공주 공산성 추정왕궁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 公州師範大學 百濟文化研究所, 1982, 『公山城』.
- 국립공주박물관, 1999, 『艇止山』.
- 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扶蘇山城 發掘調査報告書』.
-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3, 『扶餘 舊衙里 百濟遺蹟 發掘調査報告書』.
- _____, 1995, 『扶蘇山城 發掘調査 中間報告』.
- _____, 1997a, 『扶蘇山城 發掘調査 中間報告 II』.
- _____, 1997b, 『王宮里 發掘調査 中間報告 II』.
- _____, 1999a, 『扶蘇山城-整備에 따른 緊急 發掘調査』.
- _____, 1999b, 『扶蘇山城 發掘中間報告書III』.
- _____, 2000, 『扶蘇山城 發掘中間報告書IV』.
- _____, 2002, 『花枝山 遺蹟發掘調査報告書』.
- _____, 2003, 『扶蘇山城 發掘調査報告書V』.
- _____, 2009a, 『夫餘 官北里百濟遺蹟 發掘報告III』.
- _____, 2009b, 『夫餘 官北里百濟遺蹟 發掘報告IV』.
- _____, 2011, 『부여 정림사지 발굴조사보고서』.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1, 『扶蘇山城 1981~2002』.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부여군, 2022, 『扶蘇山城-종합학술연구보고서』.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3a, 「부여 부소산성 17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23b, 「부여 관북리 유적(16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2024a, 『부여 쌍북리 525-1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24b, 『백제 후기 벽주 건물지 유형분류 자료집』.
- 김낙중, 2021, 「백제의 익산 경영 방식의 전환과 사비 재정비」, 『문화재』54-2, 국립문화재연구원.
- 김대영, 2025, 「백제 사비기 부소산성의 성격 변화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대영·조운득, 2024, 「백제 후기 벽주 건물지 유형과 전개」, 『한국고고학보』2024-1, 한국고고학회.
- 김대영·한옥, 2023, 「사비기 부여지역 건축구조 복원 -벽주(다주주) 건물지를 중심으로-」, 『백제건축고고학 땅 속에서, 땅 위로』, 제47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 김영심, 2024, 「부여 화지산 유적의 문헌사적 검토 -유적의 성격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 『백제학회』48, 백제학회.
- 김혜정, 2011, 「백제 사비기 외적기단 건물지 검토」, 『지방사와 지방문화』14권, 역사문화학회.
- 백제고도문화재단, 2021, 「부여 부소산성 발굴조사 2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 _____, 2014a, 『사비왕궁지구 유적』.
- _____, 2014b, 『부여 쌍북리 154-10번지 泗沘 工房區 유적』.
- 류기정, 2003, 「사비기 구들시설 건물지에 대한 일고-부여 정동리유적 건물지를 중심으로」, 『국립공주박물관

기요』제3집, 국립공주박물관.

서현주, 2017, 「분묘로 본 백제 고도의 신라 지배 양상—부여·청양 지역을 중심으로」, 『백제학보』22.

小澤毅, 2003, 『日本古代宮都構造の研究』.

손세관, 2001, 『넓게 본 중국의 주택 중국의 주거문화上』.

윤무병, 1985, 『夫餘官北里百濟遺蹟發掘報告(Ⅰ)』, 忠南大學校博物館, 忠清南道廳.

_____, 1999, 『夫餘官北里百濟遺蹟發掘報告(Ⅱ)』, 忠南大學校博物館, 忠清南道廳.

이건일, 2009, 「湖西地域 百濟住居址의 地上化過程에 관하여」, 『호서고고학』24, 호서고고학회.

이병호, 2013a, 「百濟寺院과 飛鳥寺 三金堂의 源流」, 『백제연구』57,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_____, 2013b, 「일본의 도래계 사원과 백제 유민의 동향 2—飛鳥, 기타 지역의 고고학 성과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39, 한국고대학회.

_____, 2024, 「기와의 분석을 통해 본 부여 화지산 유적의 성격」, 『百濟學報』, 백제학회.

이현숙, 2023, 「백제 웅진기 건물지의 평면변화와 위계」, 『호서고고학보』55, 호서고고학회.

최병화, 2023, 「부여 화지산 백제 초석 건물지의 구조와 성격에 대하여—부여 화지산 유적의 연구 쟁점과 향후 과제를 위하여」, 『백제의 왕궁·왕성』,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_____, 2024, 「부여 화지산 유적 백제 유구의 조사현황과 층위별 조성양상」, 『부여 화지산유적 조사 성과와 위상』(부여지역 백제왕도 핵심유적 학술대회), 백제역사문화연구원.

洪潛植, 2001, 「6~7世紀代新羅古墳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20, 「물질문화로 보는 삼국통일—고고학적 접근」, 『역사비평』131, 역사비평사.

A Study on the Evolution of Palace and Government Office Building Sites during the Baekje Sabi Period -Focusing on Busosanseong in Buyeo-

Gim, Dae-Young (Researche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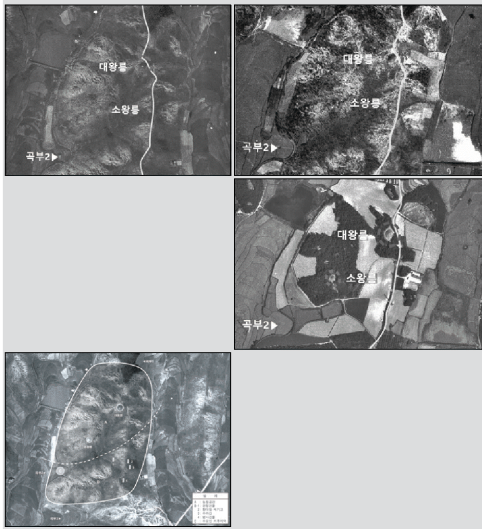
This study reexamines existing excavation data of the building sites within Busosanseong Fortress, which has been studied as the royal palace site of Baekje during the Sabi Period. The study explores the nature and transformation of the palace and government office buildings from the late Baekje period. While past research has primarily recognized the sites within Busosanseong Fortress as those of sunken-floor dwellings, recent studies have revealed that these sunken-floor buildings were constructed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Instead, the primary building sites identified include raised-pole buildings, wall-supported buildings, and those with fired brick foundations.

In particular, research on the Baekje Sabi period buildings has mainly focused on religious structures, such as temples. This has made it challenging to understand the transformation of building sites related to the royal palace and government offices. While the highest quality materials and advanced techniques were employed in both the royal and religious buildings, religious structures often used selective architectural styles and materials based on doctrinal and faith-based needs. Moreover, when foreign religions were introduced, their architectural styles were brought in, potentially leading to different forms of construction compared to the royal and government office buildings.

The study finds that the building sites of the Baekje royal palace and government offices at Busosanseong can be divided into three distinct phases of transformation. The first phase, from the early 6th century to the late 6th century, during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to Sabi, shows that the primary structures were raised-pole buildings and wall-supported buildings similar to those of the earlier Gongjin period. The second phase, from the late 6th century until the 31st year of King Mu's reign (630 AD), saw the raising of the building platforms and the construction of raised-brick foundation buildings (basal buildings) that became the main structures. The third phase, from the early 7th century (630 AD) until the fall of Baekje in the mid-7th century (660 AD), was marked by the cessation of new building types within Busosanseong, with large palace buildings at Gwanbuk-ri and Wanggung-ri becoming the central structures.

The transformations of building types and the locations of the central buildings align with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enters of the Sabi capital and the royal palace area.

Key words : Baekje, Sabi Period, Sabi Capital, Building Sites, Busosanseong, Gwanbuk-ri Site, Royal Palace and Government Office Building Sites



익산 쌍릉(雙陵), 능원으로서의 기초적 검토

A Basic Review of Iksan Ssangneung (Twin Tombs) as a Royal Tomb

이 문 형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I. 머리말

II. 익산 쌍릉과 주변유적

III. 능원(陵園)으로서의 쌍릉

IV. 익산 쌍릉의 능원 영역과 공간 구성

V. 맺음말

국문 요약

익산 지역은 백제 제30대 무왕(재위 600~641)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등 가시적인 고고유적이 산재한 백제의 고도(古都)이다. 특히, 무왕과 비(妃)의 능으로 알려진 익산 쌍릉은 2017년~2019년까지 재(再)조사가 실시되어 백제 말기 왕릉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쌍릉 주변에서 대형건물지를 비롯한 제의 관련시설로 추정할 수 있는 일련의 시설물들이 확인되었다.

백제의 상장의례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익산 쌍릉은 공주 및 부여왕릉원의 능과 달리 저평한 구릉 정상부에 단독(독립)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의 변화는 중국 당나라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익산 쌍릉 주변의 조사 성과와 과거 항공사진을 분석하여 능원의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남-북 670m, 동-서 370m, 평면 형태는 장방형, 면적은 약 260,000m² 내외로 추정되었다.

쌍릉 능원의 공간은 크게 능침공간과 제의 및 수묘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능원의 북쪽에 마련된 능침공간은 능원 영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남쪽에는 구릉의 동-서 사면에 북쪽으로부터 수묘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 제기 등을 보관하던 향대청, 구릉의 낮은 하단부에는 음식을 마련하던 수라간, 그리고 남쪽 출입구 인근에 위병(衛兵)들의 숙소와 업무공간 순으로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능원 관리의 실질적 주체였던 수묘인들의 거주 공간은 시야에 띄지 않는 저지대에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익산 쌍릉, 무왕, 능원, 능침, 제의, 수묘.

I . 머리말

익산 지역은 백제 제30대 무왕(재위 600~641)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등 가시적인 고고유적이 산재한 백제의 고도(古都)이다. 특히, 무왕과 비(妃)의 능으로 알려진 익산 쌍릉¹⁾은 일제강점기 조사된 이후, 2017년~2019년까지 재(再)조사가 실시되었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1a, 2021b).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보고된 소략한 정보에서 생산되고 파생된 인식이 실제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극명하게 확인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백제 말기 왕릉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이문형 2019, 2022). 또한 대왕릉에서 출토된 107개체의 인골은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그 피장자가 무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이성준 외 2018, 이우영·김이석 2019). 이러한 분석 결과로 볼 때 의자왕이 중국 당(唐)으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점을 생각하면 대왕릉은 이 땅, 한반도에 영면한 백제 왕의 마지막 능인 것이다.

최근 익산 지역의 백제시기 고고학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중요 유적의 가시적인 실체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쌍릉의 주변 정비과정에서 확인된 대형건물지(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3), 傳 서동생가터에서 발견된 석축(石築) 저장시설(전북문화재연구원 2023)과 중국 북조(北周)에서 주조된 오행대포(五行大布)의 출토(전북문화유산연구원 2024), 오금산성(舊익산토성)에서 발견된 집수시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4b) 등을 들 수 있다.

발표자는 익산 쌍릉 재조사 이후 그 특징을 정리하면서 능원(陵園)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이문형 2022). 본 논고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조사된 주변 유적의 성과를 더하여 한 발 더 나아가보려 한다. 현재 백제 능원과 연관된 문헌 및 고고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더불어 필자의 능력 한계로 인하여 곡해나 오독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연구자 분들의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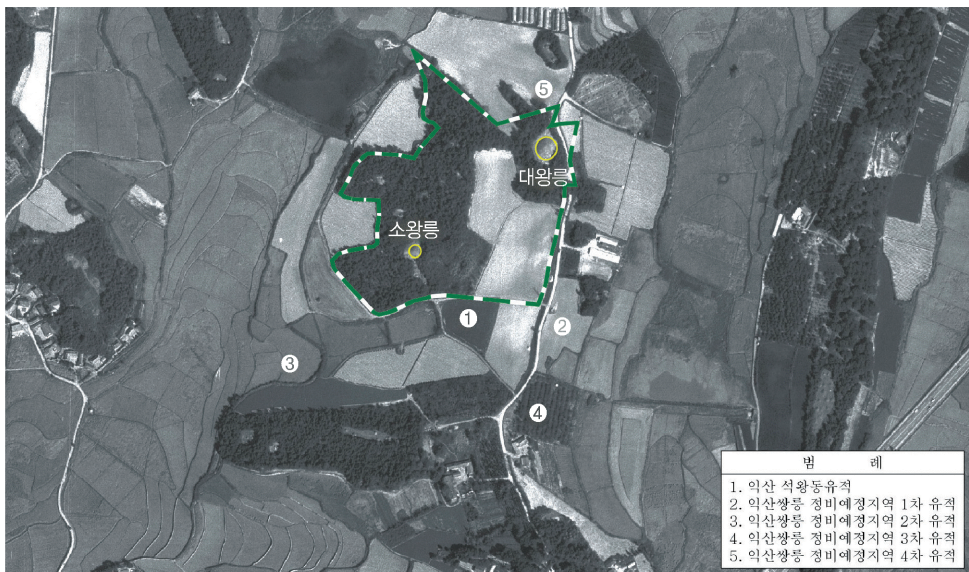
1) 현재 '능원'의 구역은 대왕릉과 소왕릉을 포함한 일부 구역이 해당된다.

Ⅱ. 익산 쌍릉과 주변유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팔봉면 석왕동 왕묘리(王墓里)라는 곳에 두 기의 능이 남북으로 나란히 있는데 ‘쌍릉’이라 한다(조선총독부 1920: 648~661). 쌍릉은 동-서로 길게 뻗은 오금산(해발 120m)에서 다시 남쪽으로 분기한 능선상에 자리하고 있다. 두 기 모두 낮은 구릉 정상부에 약 18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북동쪽이 대왕릉, 남서쪽이 소왕릉에 해당한다.

쌍릉은 1917년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이후, 약식 보고서를 통해 봉분의 크기, 석실의 규모 등 개략적인 양상만 알려져 왔다(조선총독부 1920: 648~661). 이 같은 답보 상태에서 미륵사지 석탑(서)에서 출토된 사리봉영기를 계기로 2017년 다시 조사되었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1a).

한편 쌍릉 주변에 대한 조사는 능 주변의 정비과정에서 간헐적인 조사가 몇 차례 이루어졌다. 이후 대왕릉과 소왕릉의 조사 성과를 계기로 ‘익산 쌍릉’이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포함되면서(문화재청 2020) 주변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조사가 실시되었으며,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쌍릉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²⁾ 최근 조사된 주변 유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익산 쌍릉 및 주변 유적분포도

2) 쌍릉의 주요 특징은 필자의 2022년 논고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 익산 쌍릉

재(再)조사로 밝혀진 쌍릉의 주요 특징으로는 1)봉분 조성-판축기법 적용, 2)석실 구조-명확한 제원과 세부기법 확인, 3)묘제 축조-수릉(壽陵)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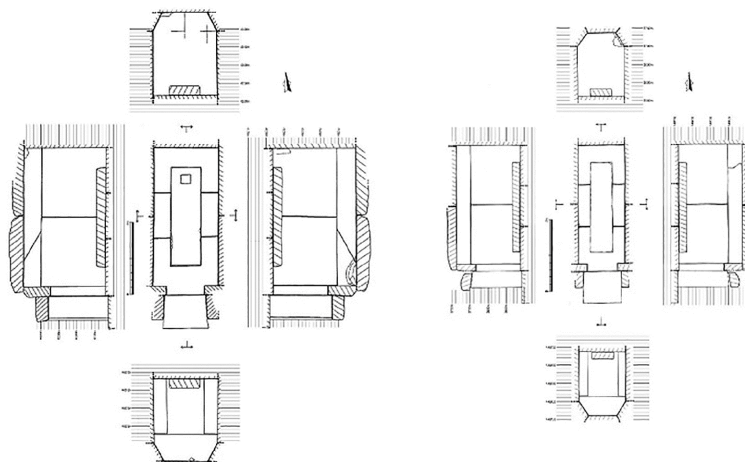
피장자가 안치된 석실 즉, 현실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구조와 축조방식에서 대왕릉과 소왕릉의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크기에 있어 대왕릉이 약 50cm 정도 큰 규모, 그리고 소왕릉에 시설된 배수로와 돌레석, 묘표석 등은 대왕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석실의 구조를 보면 평면형태는 장방형, 단면 육각형의 고임식 구조, 짧은 연도를 중앙에 개설한 백제 말기의 전형적인 횡혈식(橫穴式) 석실이다. 석실의 각 부재는 양질의 화강암을 잔다듬하여 면을 고르게 치석하여 사용하였으며, 벽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판석을 빈틈없이 견고하게 결구하였다.

석실은 북벽 1매, 동-서 양장벽에 각각 2매의 판석, 장대석(고임석) 1매, 바닥은 3매의 판석을 사용하였다. 석실의 각 부재는 북단벽의 십자형의 먹선(墨線)을 기준점으로 동-서 양장벽과 고임석이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결구하였다. 현실 바닥 중앙에는 화강암 재질의 관대를 설치하였다.

입구부인 남쪽은 2매의 문주석(門柱石), 그 상부에 평면 육각형의 판석 1매를 올렸으며, 대형 판석 2매를 뚜껑돌(蓋石)로 사용하였다. 연도부는 판석 2매를 사용하여 비교적 짧게 개설하였으며, 바닥에는 1매의 판석을 시설하였다.

현실 및 연도부 입구의 폐쇄는 각각 1매의 판석을 사용하였다. 특히, 대왕릉의 경



[그림 2] 대왕릉(左) 및 소왕릉(右) 석실 실측도

우 현실 폐쇄석 가장자리에 백회(白灰)를 발라 밀봉하였다. 그리고 연도부 남쪽에는 외부에서 현실로 연결되는 긴 널길(墓道)을 개설하였는데 소왕릉의 경우 바닥면 중앙에 배수로를 시설하였다. 세부 제원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익산 쌍릉 주요 제원(이문형 2022, 일부 수정)

		대왕릉	소왕릉
입 지		낮은 구릉 정상(해발 44m 내외)	낮은 구릉 정상(해발 38m 내외)
봉분 규모(m:직경×높이) (남-북×동-서/높이)		26.0×24.0/4.0	13.6×12.8/2.9
석 실	천장 유형	고임식	고임식
	현실규모(cm) (길이×너비×높이)	401×175×225	343×128×175
	장축 방향	N-7°-E	N-2°-E
	평면/단면형태	장방형/육각형	장방형/육각형
	석실 위치	반지하식	반지하식
	축조 석재	판석(화강암)	판석(화강암)
	관대(cm)/무게(kg) (길이×너비×높이)	화강암 1매 270×84×25/1,727kg	화강암 1매 245×63×20/926kg
연 도	규모(cm) (길이×너비×높이)	68×125×165	45×107×139
	위치	중앙	중앙
	형태	현문식	현문식
	폐쇄	판석(1매)	판석(1매)
묘 도	규모(m) (길이×너비)	25.0×3.5~6.4 내외	15.0×3.8~5.2 내외
	평면 형태	‘八’ 자형	‘八’ 자형
	바닥	생토면	생토면 / 암거형 배수로
기 타			둘레석(경계석), 묘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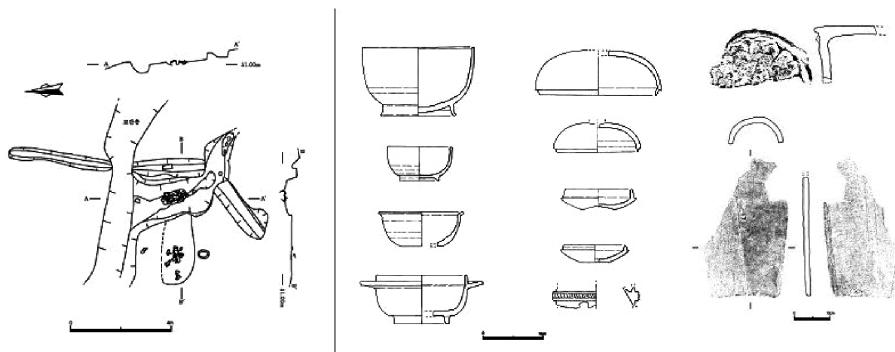
2. 주변유적

현재 익산 쌍릉의 보호구역은 두 기의 능과 그 주변 지역 일부에 해당된다. ‘백제 왕도 핵심유적 발굴조사 마스터플랜’에 따라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백제시기의 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현재까지 조사된 유적의 주요 성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익산 석왕동유적(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2)

2009년 쌍릉 테마관광지 조성과정에서 조사된 유적으로 소왕릉과 남쪽으로 연결 되는 지역이다. 서쪽으로는 구릉의 사면과 동-서 방향의 곡간부가 해당되는데 묘목

장과 계단식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었다. 조사는 3개 지점에서 지상건물지,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었으나, 후대 경작 등으로 인해 잔존 양상이 좋지 않다. 반면, 상대적으로 유물은 연화문막새와 인장과 등의 기와류와 녹유벼루편, 대부완, 전달린 토기 등의 토기류가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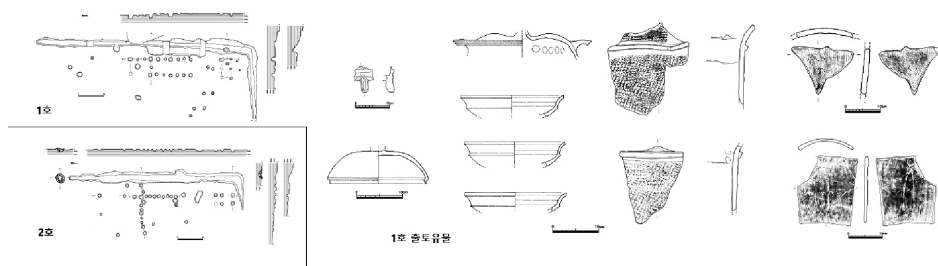


[그림 3] 석왕동 유적 2지점 추정건물지(左) 및 주요 출토유물(右)

2) 익산 쌍릉 정비예정지역 내 유적-1차-(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3)

1차 정비예정지역은 오금산에서 분기하여 남쪽으로 뻗은 구릉의 동쪽 사면으로 북쪽에 자리한 대왕릉과 동일한 구릉의 남동쪽으로 약 180m 떨어진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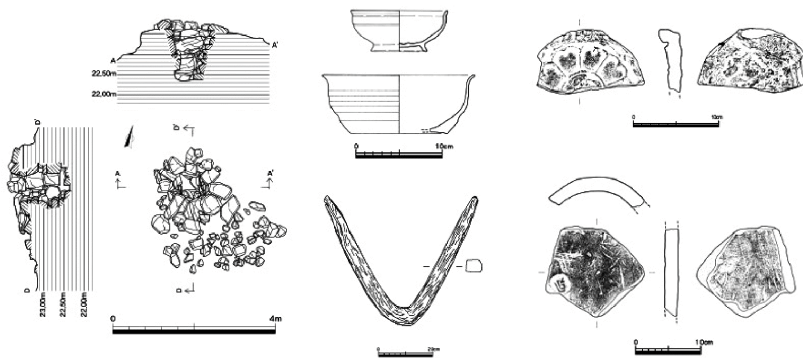
조사결과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지상식 건물지 3동과 수혈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1호와 2호 건물지는 30m에 이르는 대형건물지로 내부에서는 벼루, 기대 등의 토기류와 함께 인장과를 포함한 암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그림 4] 익산 쌍릉 정비예정지역 내 1차 유적(건물지 및 출토유물)

3) 익산 쌍릉 정비예정지역 내 유적-2차-(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3)

2차 정비예정지역은 앞 서 2009년 공원조성과정에서 유구가 확인된 3지점으로



[그림 5] 익산 쌍릉 정비예정지역 내 2차 유적(우물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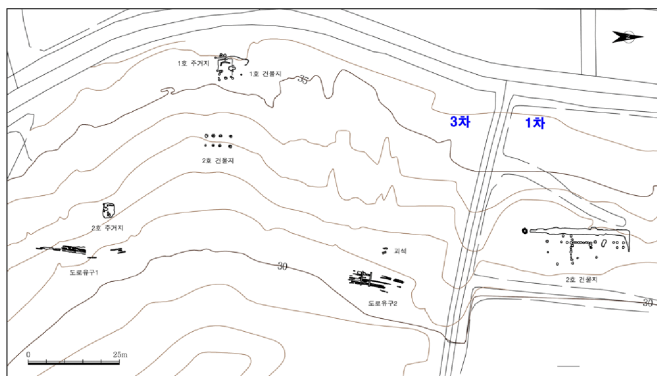
당시 석축우물, 건물지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나, 복토·보존조치가 이루어진 곳으로 소왕릉에서 남서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곡간부가 해당된다.

조사결과 석축우물, 수혈유구를 비롯하여 도로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대부분 완 등과 함께 연화문막새(2009년), 인장과, 목기 등이 출토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회색점질토(빨층) 상부에 산화망간이 함유한 갈색사질토층이 약 30~70cm 두께로 유적 전반에 걸쳐 수평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원래 곡간부의 경작층(빨층)을 인위적인 성토과정을 거쳐 상층에 생활 관련유구를 시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익산 쌍릉 정비예정지역 내 유적-3차-(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4a)

3차 정비예정지역은 대왕릉과 연결되는 동일한 구릉의 남동쪽으로 1차 예정지역과 남쪽으로 연결되는 동쪽 사면이다. 후대의 경작과 시설물 등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훼손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삼국시대의 지상식 건물지를 비롯하여 수혈주거지, 도로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그림 6] 익산 쌍릉 정비예정지역 내 3차 유적(상단부 배치도)

Ⅲ. 능원(陵園)으로서의 쌍릉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이면의 그림자를 항상 지니고 산다. 특별한 신분의 왕(王)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 두려움은 ‘계세(繼世)사상’을 낳고 ‘상장의례(喪葬儀禮)’로 발전하였으며, 그리고 그 가시적 완성체인 ‘능원(陵園)’으로 귀결된다.

능원은 ‘능(陵)’과 ‘원(園)’이 합쳐진 말이다. 능원은 능묘, 이와 연관된 각종 시설물, 더불어 수묘(守墓)에 필요한 시설 등을 포함한 영역(공간)을 칭하는데 중국에서는 그 출발점을 진시황릉으로 인식하고 있다. 진시황릉(여산릉) 즉, ‘여산원(驪山園)’은 복합형무덤건축³⁾으로 분묘제사의 시작이며(黃曉芬 2006: 407) 이후 후대 능원제도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박순발 2024: 9) 보고 있다. 이후 한-위진남북조-수를 거쳐 당(唐)대에 이르러 능원은 상장의례와 함께 완벽하게 제도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齊東方 2012: 71).

백제 웅진시기 이후의 상장의례는 기본적으로 중국 남조의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남조(六朝) 능묘의 특징으로는 장지 선택에 있어 풍수설의 중시, 가족묘 풍습의 유행, 단실(單室)이면서 전실(塼室)의 구조, 무덤 전방 배수로 설치 등을 들 수 있다(羅宗眞 2012: 128~137). 더불어 북조(北朝)는 동위와 북제 황릉의 능묘에서는 연장자를 하단인 남쪽에 배치하고 아랫사람을 상단인 북쪽에 배치하는 방식,⁴⁾ 벽화와 가족묘 풍속의 유행 등을 꼽을 수 있다(羅宗眞 2012: 116~118). 그리고 수·당 초기의 왕릉들 역시 북조의 왕릉들과 마찬가지로 침전과 부속건물을 포함하는 능원을 갖추고 있다(임영재 2022: 162).

백제 왕릉 역시 풍수에 입각한 입지, 전실묘의 축조 등 무령왕릉을 통해서도 중국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과거에 비해 왕릉과 그 주변 시설을 연계하여 능원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시각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공주왕릉원의 A·D지구에서 조사된 두 곳의 방단적석유구(조유전 1991; 윤근일 1988)를 제의(제단)시설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서정석 1995; 이남석·이현숙 2016; 정재윤·박초롱 2019;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20; 이현숙 2024). 그리고 부여왕릉원 중앙고분군 남쪽 전면의 궁터를 배례 행위의 공간으로 추정하거나(김규운·양숙자 2016: 110~111) 최근

3) ‘복합형무덤건축’은 지하의 거대한 매장시설과 주위의 각종시설 그리고 지상의 거대한 판축무덤, 각종 건축물,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담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4) 전체적인 능묘 배치에 있어 부여왕릉원의 중앙고분군 능의 배치와 연결되고 있어 주목된다.

서고분군에서 조사된 1호 건물지(취사·난방 기능 없음)를 의례용으로, 2호 건물지(취사·난방 기능 있음)는 4호분 조영기간 주거용 건물지로 보거나(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20: 220~221), 무덤 앞에 일정기간 머물렀던 빈(殯)과 연관된 시설로 본 견해도 있다(정재윤·박초롱 2019: 48). 여하튼 공주 및 부여왕릉원의 능의 배치 등 전체적인 공간이나 경관으로 볼 때 의례를 포함하여 해당 시설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부속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단시설 이외에 뚜렷한 관련유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익산 쌍릉 주변에서는 길이 30m 내외의 지상식 건물지 등 일련의 시설물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앞서 전술한 것처럼 익산 지역에는 무왕(재위:600~641)과 연관된 고고유적이 산재해 있다. 무왕 재위시기는 중국 수·당대에 해당하는 시기로 중국의 상장의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무왕은 618년 당(唐)이 중국을 통일하자 여러 차례 걸쳐 사신을 파견하였고,⁵⁾ 당 고조는 책봉으로 화답했다.⁶⁾ 또한 『舊唐書』에는 무왕의 부음을 접한 당 태종이 곡(哭)을 하고 부물(賻物)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⁷⁾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볼 때 무왕의 능으로 비정되는 익산 쌍릉 조성에 당나라의 상장의례가 공주 및 부여왕릉원 보다 구체화 혹은 체계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입지(立地)

먼저 입지의 변화를 찾을 수 있다. 공주 및 부여왕릉원의 능묘가 구릉의 사면에 축조된 반면, 쌍릉은 낮은 구릉의 정상부에 단독으로 독립되어 각각 조성되어 있다. 공주왕릉원은 해발 80m의 송산에서 남쪽으로 분기한 구릉의 사면에 남-북 좌향(坐向)을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다. 1~4호분의 동-서 방향으로 일렬로 연결하고 있으며,⁸⁾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하단 20m 범위 내에 6호분-29호분(서)-5호분(동)이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부여왕릉원은 능산리산의 남쪽 능선의 사면에 중앙고분군을

5) 『삼국사기』 「백제본기」 5 22년조(“遣使入唐 獻果下馬”), 27년조(“遣使入唐 獻明光鎧”), 38년조(“獻鐵甲雕斧”), 40년조(“又遣使於唐 獻金鐵甲雕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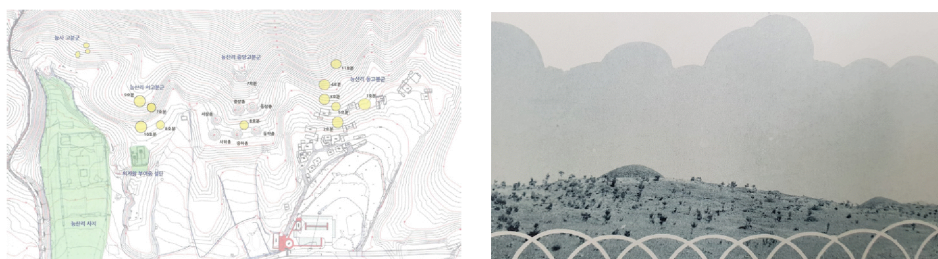
6) 『삼국사기』 「백제본기」 5 25년조, “高祖嘉其誠款 遣使就冊爲帶方郡王百濟王”.

7) 『구당서』 동이열전 백제, “貞觀 15年 璋卒 其子義慈遣使奉表告哀 太宗素服哭之 贈光祿大夫 賻物二百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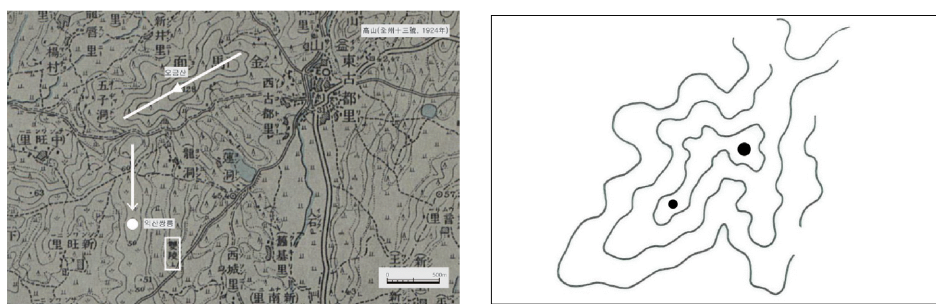
8) 1~4호분 이외에도 동-서 장축방향의 수혈식석곽묘가 1호분과 2호분의 사이에 7호분이, 4호분 남쪽으로 8호분이 조사되었다.

중심으로 동고분군과 서고분군, 크게 3곳에 군집으로 분포하고 있다(그림 7-左). 중앙고분군은 동-서 방향으로 3+2열의 능과 5호분에서 북쪽으로 약 50m 떨어진 7호분으로 자리하고 있다.⁹⁾ 7기 무덤 모두 남향 사면에 남-북 좌향을 취하고 있다. 정리하면, 공주와 부여왕릉원 모두 구릉의 남사면에 남-북 좌향의 묘실을 가진 수기의 무덤이 가족장(家族葬) 형태로 조성되었는데, 이는 당시 중국 남·북조 능묘의 특징과 동일하다. 반면 익산 쌍릉 두 기의 능은 오금산에서 남쪽으로 분기한 가지능선의 구릉 정상부에 각각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다. 또한 아래 [그림 7-右]는 1957년경 익산 쌍릉의 모습이다. 지금의 소왕릉 남쪽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측으로 멀리 대왕릉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두 기의 능이 한 눈에 조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전통의 풍수지리적 관점의 ‘산봉우리를 뒤로 의지하고, 전방으로 평원을 바라보는(背倚山峰 面臨平原)’ 즉, 좌북조남(坐北朝南)의 풍수지리를 따른 점에서 공주 및 부여왕릉원과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익산 쌍릉 역시 동-서 방향의 오금산(해발 120m) 기슭에서 정남향으로 분기한 구릉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전통적인 석실의 남-북 좌향은 역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림 7] 부여왕릉원 배치도(左) 및 익산 쌍릉 1957년 전경(右)



[그림 8] 익산 쌍릉 지형도(左: 1924년) 및 배치도(右)

9) 또한 1호분(동허총)과 2호분(중허총) 사이 북쪽에서 8호분이 조사되었다.

쌍릉의 독립적인 입지 변화는 당 고조 이연(李淵)의 헌릉 이후, 독립(獨立)능 원으로의 전환(齊東方 2012: 72~76), 그리고 분묘제사로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나라 능은 산 능선에 만든 것과 평지에 봉분을 쌓아 만든 것, 두 종류가 있는데 익산 쌍릉의 독립(단독) 능은 당나라 평지에 조성된 능과 동일하다(齊東方 2012: 72~73).¹⁰⁾ 결국 당나라 상장의례를 수용한 입지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이문형 2022: 162). 특히 소왕릉의 경우 일정한 성토 과정을 거쳐 대지를 조성하여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1a: 127~128). 그리고 이러한 입지의 변화는 현실의 위치가 지하식(부여 능산리)과 반지하식(익산 쌍릉)이라는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이문형 2022: 162).

2. 수릉(壽陵)

수릉은 최고 권력자인 왕이 생전에 자신의 사후 무덤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고대 사회에서 죽음은 곧 흉사(凶事)로,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예법(禮法)에 어긋나는 행위이지만 왕의 장수(長壽)를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수릉’이라 했다고 한다.¹¹⁾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사후 본인이 영면할 지하왕국을 건설하였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진시황의 여산릉이 대표적이다.

수릉에 관해 우리 학계에서는 과거 무령왕릉의 조사에서 출토된 ‘士壬辰年作’ 명문전을 통해 512년 무령왕이 무덤을 생전에 미리 조성했다는 전해가(박용진 1973: 63) 제기되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며,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편, 문헌에는 고려 공민왕(1330~1374)이 왕비인 노국대장공주가 죽자 공주의 현정릉(玄正陵)을 조성한 뒤 자신의 능을 조성했다는 기록이 전한다.¹²⁾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왕실의 수릉제도는 주자학(朱子家禮)의 영향으로 성종(1457~1494)때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충현 2021: 140).

익산 쌍릉의 대왕릉 묘도(墓道)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릉으로 판단되는 흔적

10) 전자의 예로는 소릉(昭陵), 건릉(乾陵), 태릉(泰陵)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대표적인 능으로는 헌릉(獻陵), 장릉(莊陵), 단릉(端陵) 등이 있다.

11) 『後漢書』 권1下, 「光武帝本紀」第1下, 26年 春正月. “初作壽陵[初作陵未有名, 故號壽陵, 蓋取久長之義也. 漢自文帝以後, 皆五作陵, 今循舊制也.]”

12) 『高麗史』 권43, 공민왕 21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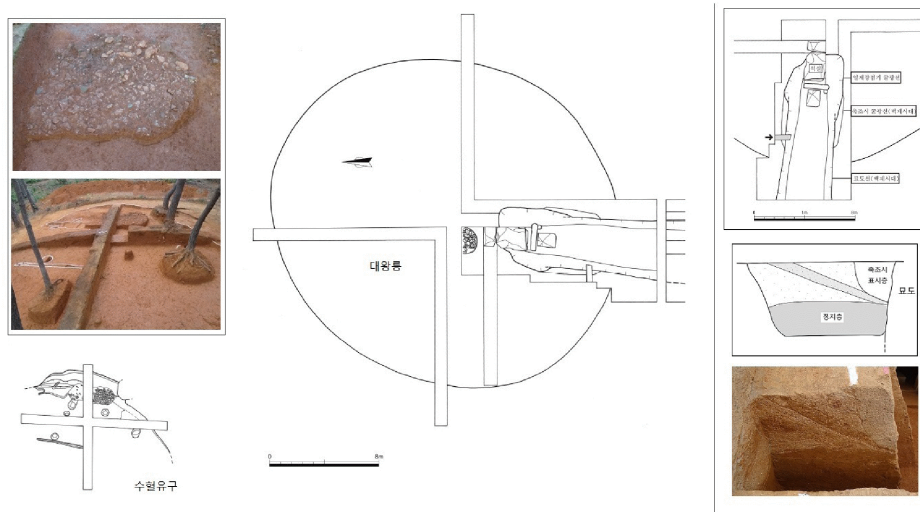
『高麗史節要』 권29, 공민왕 22년 4월.

이 확인되었다. 대왕릉의 널길(墓道) 바깥쪽으로 길이 5.6m, 너비 4.7m 내외로 굴광 후 되메운 범위가 확인되었다. 타원형 형태의 내부에는 양질의 백색사질점토가 충전되어 주변 퇴적층과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1a: 136~141). 이러한 양상이 석실 출입구를 포함하여 일정부분에 한정되는 점, 관축토가 아닌 양질의 단일토양(표식)으로 주변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 피장자를 매납하기 위한 묘도 조성에서 해당 충전토가 절개된 점 등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대왕릉은 주인공이 생전에 미리 능을 축조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왕릉의 전체적인 축조 과정을 정리하면 대지조성→현실 축조와 봉분 조성→입구부 충전(표식)후 관리→피장자 사망→입구 노출 및 묘도 개설→주검 안장→봉분 재조정 및 묘도 성토 순으로 볼 수 있다.

왕릉은 곧 절대왕권을 상징한다. 그 상징적 공간인 능원을 조성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 총동원되었을 것이다. 특히, 현실(玄室)은 최고 권력자의 사후 안식의 공간이다. 백제 사비기에 축조되는 판석조 석실은 석재의 채석-이동-치석-결구(조립)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기술력과 함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대왕릉과 소왕릉 석실에 사용된 화강암은 마치 오늘날 기계로 마연한 듯 매우 매끄럽다. 왕릉이기에 최고의 장인이 최고의 예우로 석재를 다루었을 것이다. 대왕릉의 현실 내 관대(270×84×25cm)의 무게는 약 1.7톤에 달한다. 이 같은 중량으로 보아 각 부재는 채석과정을 거쳐 능원으로 옮겨져 치석·가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왕릉 북서쪽으로 약 15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된 수혈유구가 주목된다. 수혈의 규모(잔존)는 남-북 10m 내외로, 내부에서는 주공과 구 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특징적으로 유구의 동쪽 벽가에서 목탄(소결혼)과 함께 화강암 석재 잔편이 퇴적되어 있었으며, 더불어 소량의 토기편과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수혈유구의 해당 석재편과 대왕릉의 축조에 사용된 석재편을 채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성분, 미량, 희토류 원소 등에서 동질성이 확인되어 단일 채석지의 화강암 석재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최명주 외 2019: 84~95). 따라서 대왕릉 석실에 사용된 양질의 화강암 석재는 이곳에서 치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혈유구에서 수습한 목탄 시료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AMS) 결과 A.D.540~660(95.4%)로 밝혀졌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1b: 192).



[그림 9] 대왕릉 수릉 관련 충진토 양상(右) 및 북서쪽 수혈유구(左)

3. 제의(祭儀) 및 수묘(守墓) 관련시설

백제의 상장의례가 중국 남조의 영향에 많이 받게 된 그 중심에는 무령왕이 있다. 무령왕은 양나라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실시하는데, 양무제가 국학(國學)에 오경박사(五經博士)를¹³⁾ 설치하자, 이를 본받아 태학(太學)을 설치하여 오경을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오경박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양기석 2013: 135~139).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미 백제에서는 유교적 상장례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단적인 예가 무령왕릉의 축조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주왕릉원에서 확인된 방단적석유구도 분묘제사를 위한 제단시설일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효(孝)를 중시하는 유교적 관념의 확산과 이에 따른 분묘제사의 중요성은 사비기까지 지속되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능원은 역대 왕들의 능묘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 분묘제사를 위한 여러 시설물이 설치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익산 쌍릉 주변에서 대형건물지를 비롯한 제의 관련시설로 추정할 수 있는 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그 유적 가운데 성격을 추정할 수 있는 유구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¹⁴⁾

13) 오경박사는 易經·書經·詩經·春秋·禮記로 경학에 능통한 전문가를 칭한다.

14) 정비구역 3차에 대한 정식 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표 2] 익산 쌍릉 주변 유구의 제원과 특징

유적	유구명	해발 (m)	장축	규모(cm) 길이×너비	주요시설	출토유물
석왕동 (2012)	2지점- 1호 건물지	31.70	남-북	(783×490)	-구 · 주공열 -목탄 및 소토(아궁이?)	-토기류: 자배기편, 뚜껑, 배편 -기와류: 연화문막새, 수키와, 암키와(인장과: 巳刀)
정비 1차 (2023)	1호 건물지	36.80	N-17°-W	(3,510×1,120)	외곽: 溝('ㄱ'자형) 규모-35.1×11.2m 내부: 굴립건물지 2동 -남북 9칸×동서 1칸 : 960×240cm -남북 2칸×동서 1칸 : 280×130cm	-토기류: 벼루, 대형뚜껑편, 원통형토기편, 기대편 -기와류: 암키와(인장과:?)
정비 2차 (2023)	2호 건물지	33.10	N-4°-W	(2,730×642)	외곽: 溝('ㄱ'자형) 규모-27.3×6.42m 내부: 굴립건물지 3동 소성시설 -중앙: 1동2실(?) 우측: 520×520cm 좌측: 560×520cm 북측: 남북 2칸×동서 1칸 : 260×130cm -취사: 타원형구덩이 : 180×90cm -집수정: 남쪽 외곽 위치 : 직경130×깊이 62cm	-토기류: 백제 및 신라(병형) 토기편 -기와류: 암키와
정비 2차 (2023)	우물	23.50	.	입구 상부: 60 하부: 30 깊이: 160	-석축 -상부 '八'자형 출수구	내부: -기와류: 연화문막새, -기타: 복숭아씨앗류 외부: -토기류: 대부완, 자배기, 시루편 등 삼국~통일신라 시대 토기편 -기와류: 암키와(인장과: 辰) -기타: 복숭아씨앗류 주변: 삼족토기 등 수습
정비 3차 (2024a)	2호 건물지	33.40	N-17°-W	남-북 3칸 : 660cm 동-서 1칸 : 280cm	토심적심	
	2호 주거지	29.50	N-84°-E	(400×300)	-내부시설 : 부뚜막, 주공	-토기류: 개배, 대부완 등 -기와류: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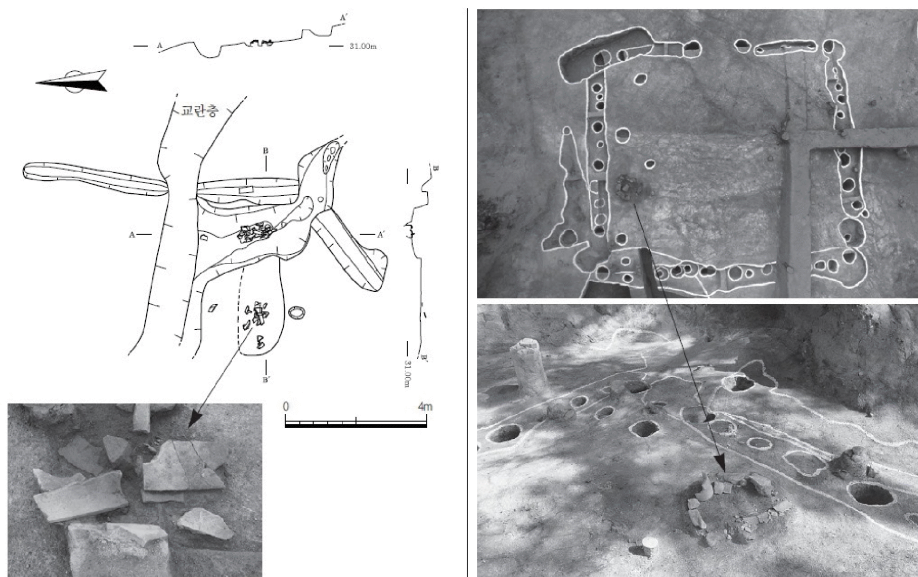
석왕동유적의 건물지(2지점)는 소왕릉 남쪽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능선 사면에서 위치하고 있다. 파괴가 심하게 이루어졌으나 구(溝)와 건물지 남쪽 중앙에 부뚜막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확인되었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2: 61~62). 연화문막새를 포함하여 완형의 수키와를 비롯하여 암키와, 그리고 토기류에서는 자배기와 뚜껑, 배 등이 출토되었다. 이와 유사한 구조가 익산 신동리 2지구 1호

벽주식(대벽) 건물지에서 확인된다. 남동쪽모서리에 타원형의 형태로 중앙에 1매 석재를 지각으로 사용된 부뚜막시설로 추정하고 있다. 출토된 유물에서도 상당 부분 유사하여 석왕동유적의 건물지 역시 벽주식 건물지로 추정되며, 자배기 등의 실생활 토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상시 거주했던 공간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정비에정지역 내 1차 유적은 소왕릉에서 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구릉과 동쪽 사면으로 1호 지상식 건물지는 해발 36.8m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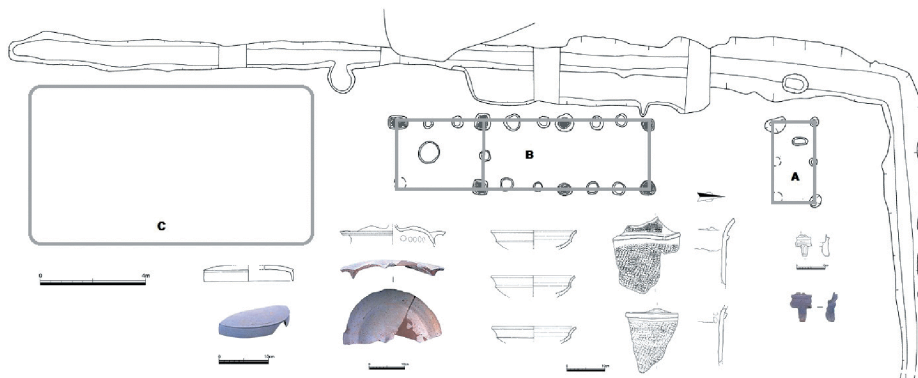
1호 건물지는 상단부인 서쪽에 ‘ㄱ’자상의 구(溝)를 두르고 그 내부에 굴립건물을 배치한 형태이다.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구의 최대 길이는 35m에 달한다.

내부의 주공열의 배치로 보아 최소 2동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서모서리의 건물(A)은 동-서 2칸, 남-북 1칸의 건물로 규모는 280cm×130cm 내외이다. 중심부 건물(B)은 동-서 1칸, 남-북 9칸으로 규모는 240cm×960cm 내외로 3칸마다 중심 기둥을 배치한 형태이다. 더불어 건물지의 남쪽에는 의도적으로 빈 공간(C)을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시설에는 불과 연관된 흔적이 없고 유물은 대부분이 기대, 원통형토기편을 비롯한 대형의 뚜껑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벼루편도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로 보아 제의와 연관된 기물(器物)을 보관하던 시설로 판단된다. 더불어 A-B 내부 건물을 일정부분 간격을 두고 배치한 것으로 보아 각 건물에 보관하던 내용물이 상이했을 것으로 추론되는데 출토된 유물로 볼 때 북서모서리(A) 건물



[그림 10] 석왕동유적 2지점 건물지(左) 및 신동리 2지구 1호 건물지(右)(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2: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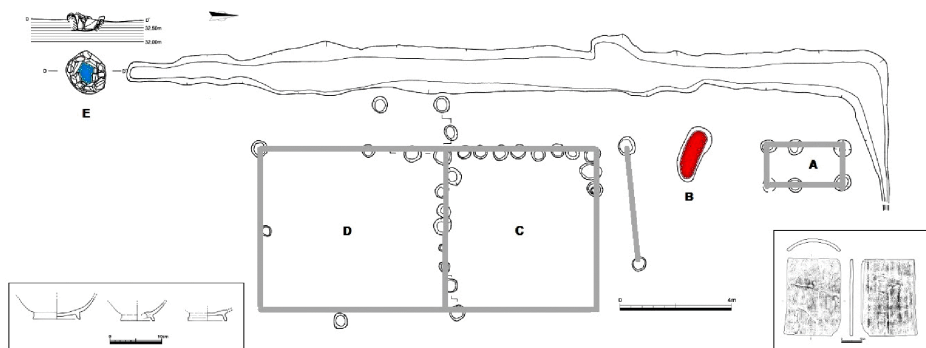
에는 벼루 등의 문방사우(紙·筆·硯·墨)를 보관하던 곳으로, 중심 건물(B)에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수량이 많은 제기 등을 보관하던 곳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정비예정지역 내 1차 유적(1호 지상식 건물지 및 주요 출토유물)

2호 지상식 건물지는 1호 건물지와 동일한 구릉의 해발 33.1m 내외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호 건물지 역시, 상단부에 ‘ㄱ’자상의 구(溝)를 두르고 그 내부에 기둥을 설치, 내부 공간 구획해서 사용한 건물지이다.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구의 최대 길이는 27.3m 내외이다.

내부의 주공간의 배치로 보아 최소 3곳의 공간을 구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서모서리의 건물(A)은 남-북 2칸, 동-서 1칸의 건물로 규모는 270×130cm 내외이다. 중심부 건물은 중앙의 벽을 통해 북쪽(C)과 남쪽(D)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규모는 북쪽(C)이 남-북 520cm, 동-서 520cm 내외로 평면형태는 방형이다. 남쪽(D)은 남-북 560cm, 동-서 520cm 내외로 장방형의 평면이다.



[그림 12] 정비예정지역 내 1차 유적(2호 지상식 건물지 및 주요 출토유물)

한편 북서모서리(A)과 중심부 건물 남쪽(C) 공간 사이에 길이 180cm, 너비 90cm, 깊이 16cm 내외의 타원형 수혈(B)이 확인되었다. 수혈의 내부에서 불에 의해 소결된 흔적이 확인되어 소성시설로 판단된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3: 72). 타원형 수혈(B)이 음식을 요리하기 위한 시설로 가정할 때 북서모서리(A) 건물은 이와 관련된 재료나 조리 도구를 보관하던 곳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혈유구(B)과 중심부 건물 남쪽(C)의 사이에 동-서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2곳의 주공이 확인되었다. 주공의 간격은 420cm 내외로 격벽을 설치하여 의도적으로 공간을 분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격벽시설의 북쪽 수혈유구(B)와 북서모서리(A)의 공간은 제의와 관련된 공헌 음식을 담당했던 곳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구상유구의 남측 끝단에는 석축으로 만든 집수정(集水井)¹⁵⁾이 확인되었다. 집수정은 요리에 필요한 물과 혹은 그릇을 세척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더불어 출토된 유물 대부분이 자비용기인 자배기류와 완(대부), 호형토기 등 실생활에 주로 사용되는 기종인 점도 관찰된다. 이러한 건물의 용도로 인해 의도적으로 낮은 곳에 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1호 및 2호 지상식 두 건물지는 유사성이 매우 짙다. 먼저 상부에 ‘溝’를 두른 점, 건물지 내부에 기둥을 배치하여 공간 구획을 한 점, 내부 건물의 배치도 중앙과 북쪽에 둔 점, 특히 북서모서리 건물은 장축 방향만 다를 뿐 크기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하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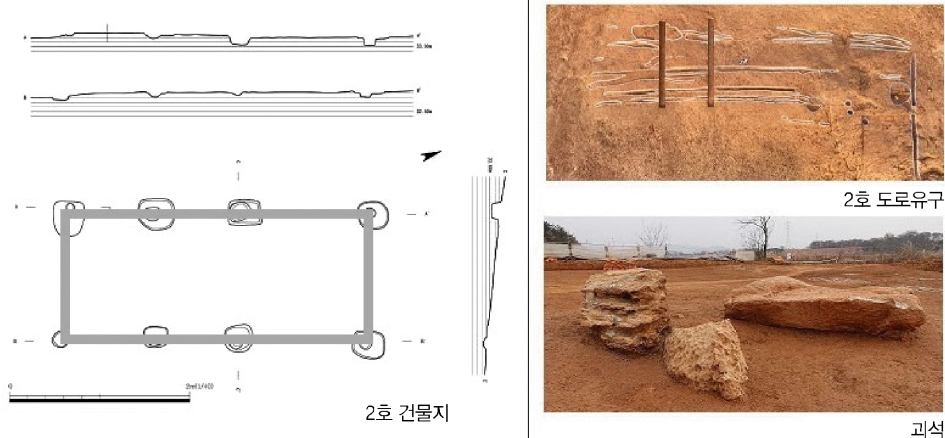
정비에정지역 내 3차 유적은 1차 지역과 남쪽으로 연결되는 구릉이다. 조사결과 삼국시대의 지상식 건물지와 주거지 각각 2기와 도로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구릉의 상단부에는 거주시설이 들어선 반면, 도로유구는 하단부 2곳에서 확인되었는데 위치, 방향성(남-북) 등을 고려해 볼 때 도로유구 1·2는 동일유구일 가능성이 짙다.

2호 건물지는 토심(土心) 구조의 건물지로 1호 주거지와 2호 주거지 사이에 남-북 방향으로 조성되었다. 규모는 남-북 3칸 660cm, 동-서 1칸 280cm 내외이다. 토심 구조의 건물지로는 왕궁리유적에서 정전으로 추정되는 대형건물지와 북문지, 부여 관북리유적의 대형건물지가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물지보다는 공적인 건물지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능원의 동쪽 경계로 추정되는 하단부 해발 30m의 지점에서 확인된 남-북 방

15) 집수정은 물을 길어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축조된 곳의 토양은 제 4기층 소위 고토양층으로 해당지역은 물이 들어오지도 빠져나가지 않는 점토의 밀도가 높은 곳이다.



[그림 13] 정비예정지역 내 3차 유적(2호 건물지 및 주요 유구)

향의 도로유구는 수묘인의 교행로로 추정된다. 또한 동쪽 도로유구 2의 인접한 서쪽 구릉에서 노출된 총 3매의 괴석 중 석회암 2매는 왕궁리유적의 정원석과 매우 흡사하여 이에 대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정비예정지역 내 2차 유적은 소왕릉에서 남서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곡간부 저지대(해발 23.50m)에 위치한 유적이다. 2차 유적에서는 우물을 포함하여 구상유구, 도로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의 토층 단면 조사결과, 회색점질토(빨층) 상부에 산화망간이 혼입된 갈색사질점토가 유적 전반에 걸쳐 수평으로 퇴적된 것으로 미루어 인위적인 성토 행위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우물을 포함하여 석렬유구 등도 굴광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성토와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하층에서 두터운 빨층이 노출되고 있어 원지형이 곡간부의 저지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 빨층에서 삼국시대 토기 및 기와편, 목기, 복숭아 씨앗 등이 출토되었다. 이로 보아 성토 이전에 경작지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3: 42~45). 따라서 해당지역은 원래 낮은 곡간부(그림 1) 경작지로 이용되던 곳을 거주목적을 위해 대대적으로 성토하여 생활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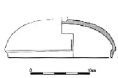
석축의 우물은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상부가 넓고 하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다. 우물의 너비는 상부 60cm, 하부 30cm 내외이다. 우물은 자연적으로 일정 수위가 유지되며, 내부에서 연화문막새편을 포함하여 복숭아 씨앗 등이 출토되었고 주변에서는 삼국에서 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토기편 대

부분이 실생활 기종인 자배기와 완(대부) 등이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입지(저지대)나 우물, 실생활 토기 등으로 볼 때 수묘인(守墓人)들의 거주 공간으로 추정된다. 향후 연결한 북쪽으로 확대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성격이 좀 더 명확해지리라 생각된다(그림 14-곡부2).

한편 출토된 유물을 주변 타 유적과 비교하여 개략적인 시기를 살펴보면 대체로 왕궁리유적이나 미륵사에서 출토된 토기류와 기와류 등과 동일한 속성을 지닌다(표 3 참고). 따라서 대왕릉의 피장자가 무왕으로 비정하듯 익산 쌍릉의 제의 혹은 수묘 관련시설 또한 무왕시기인 7세기대에 해당한다. 다만, 일부 건물지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인화문토기, 대부완 등의 토기편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 멸망 후 일정 기간은 기존 수묘인들에 의해 관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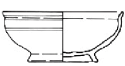
[표 3-1] 출토 유물 비교자료(토기류: 뚜껑)

석왕동유적		왕궁리유적		신동리유적	
					

[표 3-2] 출토 유물 비교자료(기와류: 막새 및 인장와)

석왕동 건물지	미륵사지	석왕동 건물지	왕궁리	미륵사지	제석사지
					
					
2차 우물지	익산 연동리	2차 우물지			

[표 3-3] 정비예정지역 내 1차 및 2차 유적 출토 통일신라시대 토기(편)

1호 지상식 건물지 인화문토기편		2호 지상식 건물지 인화문토기편		우물지 주변 대부완	
					

Ⅳ. 익산 쌍릉의 능원 영역과 공간 구성

지금까지 확인된 익산 쌍릉과 그 주변유적의 성격을 토대로 살펴보면 능원은 웅진·사비왕릉원에 견주어 보다 체계적인 능원(제의+수묘)으로서의 경관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백제 무왕과 중국 당나라와의 활발한 교류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춘추시대 ‘능’의 출현과 더불어 ‘수묘(守墓)’ 혹은 ‘수총(守冢)’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으며, 이는 후장(厚葬)에 따른 도굴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위(守衛)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윤재석 2013: 1~3). 이후 진시황제의 여산릉을 시작으로 사상·정치적 의미가 반영된 본격적인 ‘수묘제’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윤재석 2013: 52). 즉, 황릉을 중심으로 능원(陵園)과 침전(寢殿)·편전(便殿), 그리고 침원(寢園) 및 종묘(廟) 등 대규모 능읍(陵邑)¹⁶⁾이 조성되면서 수묘제는 능침에 제사의 기능까지 담당하였으며, 후대에는 신분 에 따른 수묘제가 법으로 규정되었다고 한다(윤재석 2013: 9).

중국의 역대 황제는 생전의 영화를 사후 지하에 똑같이 재현하고 능원 전체 외곽에 담장은 물론 해자까지도 시설하는데 유적의 방대함으로 인해 해당 유적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의 거대한 황제 능원과 우리의 능원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문헌기록에 의하면 당나라에서는 국장(國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新唐書』에 전하는데,¹⁷⁾ 내용인 즉 당나라에서는 국가의 흉사(凶事)를 신하들이 말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 해서 국장 기록 자체를 없애고 기록 또한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명(明)나라 『大明集禮』가 편찬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황실의 상장례와는 달리 관리(황실 구성원과 6품 이상의 고관)들의 상례 과정은 『大唐開元禮』¹⁸⁾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이현진 2011: 68~72).¹⁹⁾

16) ‘여읍(麗邑)은 전한대의 능읍과 마찬가지로 특수목적 수행하기 위한 인위적 행정구역으로서 황릉 조성과정에서는 공인(工人)의 생활공간으로 활용되다가 완공 이후에는 황릉의 관리와 수위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17) 『新唐書』卷20, 志10, 禮樂10, “五曰凶禮 周禮五禮 二曰凶禮 唐初 從其次第五 而李義府許敬宗以爲凶事非臣子所宜言 送其國卹一篇 由是天子凶禮闕焉 至國有大故 則皆臨時采摭附比以從事 事已則諱而不傳 故後世無考焉……중략……則頗詳焉”

18) 당나라 관리 3품 이상에서 6품 이하의 상장의례 과정이 모두 수록하고 있다.

19) 『대당개원례』는 당나라 이후 중국 왕조의 사인(士人)의 의례와 우리나라 조선 왕실 상장례인 『國朝五禮儀-凶禮』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우리나라 삼국의 경우 백제를 제외한 고구려와 신라에 수묘와 관련된 사실이 『三國史記』와 「廣開土王陵卑」에 기록되어 있다.²⁰⁾

① 『삼국사기』16, 「고구려본기」4, 신대왕 15년

“秋九月 國相答夫卒 年百十三歲 王自臨動 罷朝七日 乃以禮葬於質山 置守墓二十家.”

② 『삼국사기』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7년

“夏四月, 親祀始祖廟, 增置守廟二十家.”

③ 『삼국사기』6, 「신라본기」6, 문무왕 4년

“二月, 命有司徙民於諸王陵園, 各二十戶.”

④ 『삼국사기』43, 「열전」3, 김유신전(下)

“秋七月一日, 薨于私第之正寢, 享年七十有九. 大王聞訃震慟, 贈賻彩帛一千匹·租二千石, 以供喪事, 給軍樂鼓吹一百人, 出葬于〈金山〉原, 命有司立碑, 以紀功名, 又定入民戶, 以守墓焉.”

⑤ 「광개토왕릉비」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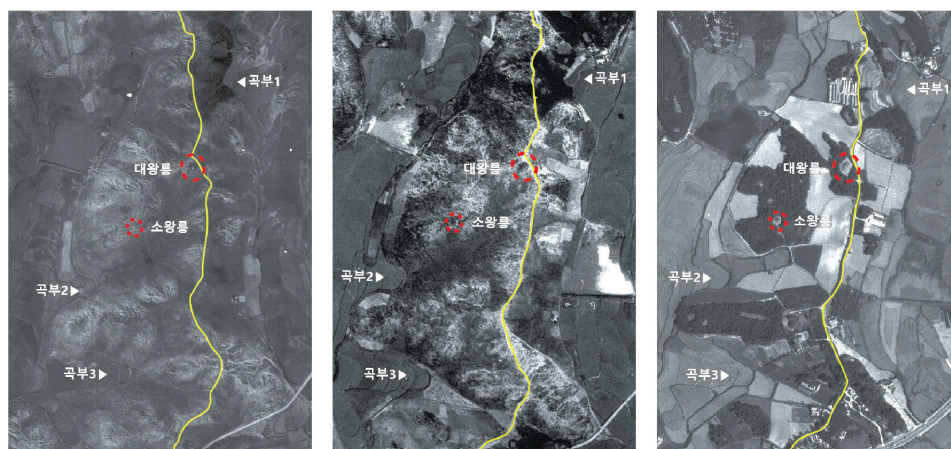
“國置上廣開土境好太王, 存時教言, 祖王先王, 但教取遠近舊民, 守墓洒掃, 吳慮舊民轉當羸劣. 若吳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吳躬巡所略來韓穢, 令備洒掃. 言教如此, 是以如教令, 取韓穢二百廿家.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 國烟卅看烟三百, 都合三百卅家.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置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又制, 守墓人, 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위의 기록은 해당 능묘에 배속된 수묘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다. 사료-③에서는 능원으로 수묘 20가를 이주시킨 사실을, 사료-④에서는 묘역의 주변 민호(民戶)들에게 수묘의 부역을 부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수묘에 전담 배속된 사람들(家)과 부역의 형태로 행한 사람들(家)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광개토왕릉비」에 기록된 수묘 330家에 해당하는 규모는 중국 한나라 황족과 외척 및 고관대작에게 그 신분에 따라 300호에서 100호까지 차등 배치한 예로 보

20) 「집안고구려비」에도 수묘에 대한 기록이 일부 전한다.

면(윤재석 2013: 21~26) 실로 엄청난 인원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비문의 내용을 통해 수묘인들은 능원에 배속된 관리(官吏) 아래 능원과 시설물에 대해 수위·청소 등의 업무를 맡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기록을 생각해 볼 때 백제에도 수묘(인)제도가 있었을 것이며, 익산 쌍릉 역시 수묘인에 의해 능묘와 부속시설들이 관리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조선시대의 왕릉을 참고하여 능원의 경관과 공간 구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왕릉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 여건에 구조물을 맞추어나가는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입지를 선택하였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0: 18). 또한 능침공간과 제향공간을 포함하여 능역 외곽의 화재 예방을 위해 설정한 화소(火巢)지역까지도 능원에 포함하였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0: 26~27). 쌍릉 역시 능묘와 주변의 제의시설을 포함하여 능원 내로 일반인들이 접근을 차단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능원의 영역을 설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쌍릉의 주변으로 하천 등의 장애물이 없는 점으로 보아 구릉의 골짜기 즉, 계곡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거 위성사진(그림 14)을 통해 능원의 영역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4] 익산 쌍릉 주변 항공사진(左:1954년, 中央:1967년, 右:1989년)

위성사진을 통해 쌍릉의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남쪽으로 뺀 구릉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은 남-북방향의 깊은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릉의 정상부에 대왕릉(해발 44m)을 정점으로 남서쪽 구릉 상에 소왕릉(해발 38m)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그림 7-右]에서 보았듯이 대왕릉과 소왕릉 두 능이 사이에 수

목이 우거지지 않았음도 확인된다. 또한 농경지가 확대됨에 따라 큰 지형적 변화(그림 14-右)가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대왕릉의 북쪽과 소왕릉의 남쪽이 크게 훼손된 것을 볼 수 있다. 위 사진을 통해 익산 쌍릉의 능원 영역을 추정해 보면 동쪽과 서쪽은 큰 골짜기가 형성되어 자연적인 경계가 되었을 것이다. 북쪽의 경계는 대왕릉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형성된 계곡부(곡부1)가, 남쪽의 경계는 소왕릉에서 남쪽으로 약 350m 떨어진 계곡부(곡부3)로 추정된다. 이렇게 추정한 능원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규모는 남-북 670m, 동-서 370m 내외로 면적은 260,000m² 정도이다. 능원의 출입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를 직선으로 연결하면 3차 조사의 도로유구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인력(병사)의 배치나 차단시설을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서쪽의 곡부2 지역은 정비예정지역 2차 조사지역으로 대규모 성토 과정을 거쳐 수묘인의 거주 지역으로 확인된 곳이다. 그리고 전방의 곡간 평야지대는 수묘인의 경제적 활동 영역이었을 것이다.

한편, 쌍릉 주변에서 조사된 시설은 왕릉(능침)을 중심으로 의례공간, 부속건물의 배치는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조선 왕릉의 경우 봉분이 있는 능침공간과 제사를 위한 시설이 있는 제향공간으로 구분되는데 왕릉은 영혼불멸설에 따라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배치를 일치시켰다고 한다.²¹⁾ 조선시대는 유교적 예의질서로 제도화가 된 반면, 상대적으로 백제를 포함하여 당시 삼국에서 이러한 제도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왕릉 및 제례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과 능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조사 성과를 토대로 익산 쌍릉 능원의 공간을 살펴보면 크게 능침공간(A)과 제의시설 및 수묘공간(B)²²⁾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쪽에 마련된 능침공간이 능원 영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입구인 남쪽 능원에는 일반인 등의 출입을 제지하는 위병(衛兵)이 배치되고 동쪽 사면으로 위병들이 생활(3차-수혈주거지)과 업무(3차-건물지)공간이 있었을 것이다.²³⁾ 이를 통과하여 북쪽으로 다가서면 동쪽 구릉 하단부(해발 33.10m)에 제의

21) 봉분은 궁궐의 침전공간이며, 제례공간에 있는 정자각의 정전이 북궁, 배위청이 중궁, 정자각 좌우의 수복방과 수라간이 동궁과 서궁, 홍살문이 남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0: 26~29).

22) 본 논고에서의 수묘공간은 능침공간을 제외한 제의 및 수묘 관련 부속시설을 아우르는 공간을 의미한다.

23) 부속건물의 명칭은 조선시대 제례시설의 명칭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祭儀) 때 음식을 마련하던 수라간(水刺間-1차 2호 건물지)이, 구릉의 상단부(해발 36.80m)에는 제기(祭器)를 보관하고 제문(祭文) 작성 등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던 향대청(香大廳-1차 1호 건물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향대청의 맞은편 서쪽 사면(해발 31.70m)에는 수묘의 업무를 관장하던 업무공간(官廳-석왕동 2지점 벽주식 건물지)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건물의 북쪽으로는 능침공간을 마련하였다. 능원은 소왕릉에서 대왕릉에 이르기까지 두 능이 동일한 능선 위에 한 눈에 조망되도록 조성하였으며, 두 기의 능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에는 조망을 저해하는 어떠한 시설물도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건물의 배치를 보면 구릉의 정상부에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사면에 부속건물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서쪽 저지대(곡부2)를 복토하여 제일 낮은 곳에 수묘인들의 거주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 구성은 구릉과 곡간부 등을 적절하게 이용하였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쌍릉 능원의 경관을 그려보면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익산 쌍릉원(추정)

V. 맺음말

본 논고에서는 최근 익산 쌍릉 주변의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능원(제의+수묘)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익산 쌍릉은 공주 및 부여왕릉원의 능과 달리 저평한 구릉 정상부에 각각 단독(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의 변화는 중국 당나라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쌍릉 주변의 조사 성과와 과거 항공사진을 분석하여 원래 지형에 형성된 골짜기를 경계로 하여 능원의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남-북 670m, 동-서 370m, 평면 형태는 장방형, 면적은 약 260,000m² 내외로 추정되었다.

쌍릉 능원의 공간은 크게 능침공간(A)과 제의 및 수묘공간(B)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능원의 북쪽에 마련된 능침공간(A)은 능원 영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남쪽에는 구릉의 동-서 사면에 북쪽으로부터 수묘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공간 즉, 관청(B-1), 제기 등을 보관하던 향대청(B-2), 구릉의 낮은 하단부에는 음식을 마련하던 수라간(B-3), 그리고 남쪽 출입구 인근에 위병(衛兵)들의 숙소와 업무공간(B-4) 순으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능원 관리의 실질적 주체였던 수묘인들의 거주 공간(C)은 시야에 띄지 않는 저지대에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쌍릉 주변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선행된 조사에서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왕릉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두 기의 묘표석(墓表石)이라 할 수 있다. 아쉽게도 묘표석 모두 일제강점기 조사 범위 내 교란층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소왕릉 봉분 내에서 확인된 석주(石柱)형 묘표석은 집안 고구려 고분에 그 사례가 알려져 있다. 고구려 우산하(禹山下) 1080호분으로 대표되는 고구려 석비는 ‘墓上立碑’로 인식하고 있다(강현숙 2014). 중국에서의 석주(石柱)는 통상 능묘의 가장 앞에 설치하는데 그 연유는 장수를 염원하고 군주의 덕정을 희망하는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윤향양·추교순 2011: 101). 이렇듯 많은 의문들이 익산 쌍릉 주변을 산재해 있다.

앞으로 익산 쌍릉 주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능원으로서 그 완전성을 기대해 본다.

* 본 논문은 2024년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한성백제박물관 공동으로 개최한 『고대 동아시아와 백제의 장송의례』 국제학술회 발표문 「백제 말 익산 쌍릉(雙陵)의 구조와 매장의례-능원으로서의 기초적 검토-」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참고문헌

- 『後漢書』.
『舊隋書』.
『新隋書』.
『三國遺事』.
『三國史記』.
『高麗史』.
『高麗史節要』.
- 강현숙, 2014, 「집안 고구려비에 대한 고고학적 추론-묘상입비와 관련하여-」, 『고구려발해연구』 50집, 고구려 발해학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백제 불교문화의 寶庫 미륵사』.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1, 「부여 왕릉원(4호분-서상총 발굴조사 학술 자료회의 자료집)』.
- 국립부여박물관, 2003, 『백제의 도량형』.
- 국립전주박물관, 2015, 『益山 雙陵』.
- 김규운·양숙자, 2016, 「부여 능산리고분군 성격에 대한 재고」, 『문화재』 49,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용성, 2014, 「백제 후기 능묘와 능원의 특성」, 『문화재』 47-2호,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충현, 2021, 「조선전기 수릉제도의 변화와 그 의미」, 『국학연구』 46, 한국국학진흥원.
- 문화재청, 2020, 『백제왕도 핵심유적 익산지역 발굴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서』.
- 박순발, 2024, 「5~6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백제」, 『백제 웅진기 동아시아의 문물교류와 지리·교통』, 2024년 백제왕도 학술대회 자료집, 국립공주대학교 역사박물관 외.
- 박용진, 1973, 「公州出土의 百濟瓦·塼에 關한 研究」, 『백제문화』 6,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0, 『서울의 능묘』.
- 서정석, 1995, 「송산리 방단계단형 적석유구에 대한 검토」, 『백제문화』 24,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양기석, 2013, 「백제 박사제도의 운용과 변천」, 『문화재』 21, 국립문화재연구소.
- 윤근일, 1988, 「공주 송산리 발굴조사 개보」, 『백제문화』 4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윤제석, 2013, 「중국고대의 수묘제도」, 『동양사학연구』 124집, 동양사학회.
- 윤향양·추교순, 2011, 『중국 당대 황제릉 연구』, 서경문화사.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2, 『익산 석왕동유적』.
- _____, 2021a, 『익산 쌍릉-조사보고서-』.
- _____, 2021b, 『익산 쌍릉-분석보고서-』.
- _____, 2023, 『익산쌍릉 정비사업부지내 유적-1·2차 발굴조사』.
- _____, 2024a, 『익산쌍릉 정비사업부지내 유적-3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24b, 「익산토성 V 구역 문화재 발굴조사-집수시설-학술자문회의자료」.
- 이남석·이현숙, 2016, 「백제 상장례 연구-금강유역 상장유례 유적의 의미」, 『백제문화』 54, 공주대학교 백제 문화연구소.
- 이문형, 2019, 「사비기 백제 왕릉의 새로운 인식-익산 쌍릉(대왕릉)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6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_____, 2022, 「고고학 자료로 본 익산 쌍릉 피장자」, 『한국고대사연구』, 106, 한국고대사학회.
- 이문형·윤옥희, 2021, 「익산 쌍릉 정비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마한·백제문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이성준 外, 2018, 「익산 쌍릉과 출토 인골의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고고학보』 109, 한국고고학회.
- 이우영 · 김이석, 2019, 「쌍릉 피장자의 신체특성과 질병」, 『익산 쌍릉-대왕릉 출토 인골 종합학술연구 보고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이현숙, 2024, 「백제 웅진기 왕릉의 입지와 공간변화」, 『백제문화』 7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이현진, 2011, 「조선후기 종묘의 부묘 의례와 성격」, 『서울학연구』 43,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임영재, 2022, 「백제왕릉의 변화와 동아세아 능원과의 비교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북문화재연구원, 2023, 「서동 생가터 유적정비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2·3차) 자료」.
- _____, 2024, 「서동 생가터 유적정비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4차) 자료」.
- 조유전, 1991, 「송산리 방단계단형 무덤에 대하여」, 『백제문화』 2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정재운 · 박초롱, 2019, 「문헌을 통해 본 고대 장송의례-백제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31, 백제학회.
- 최명주 외, 2019, 「대왕릉 석실 축조 재료」, 『익산 쌍릉-대왕릉 출토 인골 종합학술연구 보고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0, 『공주 송산리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A·D지구)』.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20, 『부여 능산리고분군Ⅱ』.
- 有光教一, 1979, 「扶餘陵山里傳百濟王陵·益山雙陵」, 『檀原考古學研究論集』, 第4集.
-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 黃曉芬(김용성 역), 2006, 『한대의 무덤과 그 제사의 기원』, 학연문화사.
- 齊東方(이정은 옮김), 2012, 『중국 고고학-수·당』, 사회평론.
- 羅宗眞(정대영 옮김), 2012, 『중국 고고학-위진남북조』, 사회평론.

A Basic Review of Iksan Ssangneung (Twin Tombs) as a Royal Tomb

Lee, Moon-Hyoung (Research Professor, Mahan · Baekje Cultural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ity)

Iksan region is the ancient capital of Baekje, where visible archaeological remains are scattered such as Wanggung-ri Historic Site and Mireuksa Temple Site which a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King Mu (reign 600–641), the 30th king of Baekje. In particular, the Iksan Twin Tombs, known as the tombs of King Mu and Consort, were re-investigated from 2017 to 2019, which served as a decisive opportunity to broaden the scope of awareness of royal tombs from the late Baekje period. Afterwards, a series of facilities that could be presumed to be ceremonial facilities, including large building sites, were discovered around the Iksan Ssangneung (Royal Twin Tombs).

Baekje's funeral rites are fundamentally known to have been greatly influenced by China. Unlike the royal tombs of Gongju and Buyeo, the Iksan Twin Tombs are located on a low hilltop singlehandedly. This difference in location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influence of the Tang Dynasty in China.

Thanks to the investigation around Iksan Ssangneung (Twin Tombs) and the analysis of the past aerial photographs, the scale of the royal tomb was estimated to have measurements of 670m north-south, 370m east-west, rectangular in plane, and the area of approximately 260,000m².

The space of Iksan Ssangneung may largely be divided into the tomb space and

the space for rituals and management. The tomb space reserved on the north side of the royal tomb occupies more than half of the royal tomb area.

And it is presumed that, to the south on the east and west slopes of the hill, there were offices in charge of all affairs of the tomb, Hyangdaechong where articles for memorial services were stored, Suragan where meals were prepared for royal family at the lower part of the hill, and the quarters and workspaces for the guards were placed near the southern entrance. Besides, it is presumed that the living space of the tomb keepers, who were the actual subjects of tomb management, was located in a low-lying area that was not visible.

Key words : Iksan Ssangneung(Twin Tombs), King Mu, royal tomb garden, royal tomb space, rituals, tomb management

일본 고훈시대 ‘U’자형 쇠삽날의 유입과 배경

Inflow And Background Of U-Shaped Iron Shovel Blades In Kofun Period

이 상 원

고훈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I. 머리말

II. 자료 분석 및 변천 양상

III. ‘U’자형 쇠삽날의 유입과 배경

IV. 맺음말

국문 요약

고대 사회의 농업 발전 과정과 생산력의 증대를 살펴볼 때,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은 목제 농구의 끝 부분에 철로 제작한 날을 끼우게 된 쇠삽날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쇠삽날은 크게 야요이시대 중기 후반부터 주조제 쇠삽날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방형판의 쇠삽날과 고훈시대 중기 전반 한반도 남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U'자형의 쇠삽날로 구분할 수 있다.

방형판의 쇠삽날은 사각형 철판의 양 끝을 접어서 제작한 것으로, 청동제 삽날에서 주조제 쇠삽날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목제 농구의 양쪽 날 끝부분만 끼워지는 형태로 농지의 개간에 있어 효율성은 좋지 않았다.

고훈시대 중기 전반 한반도 남부지역으로부터 목제 농구의 날 크기에 맞춰 끼워지도록 제작한 'U'자형의 쇠삽날이 일본열도로 전해지면서, 열도에서는 습지 이외의 지역에 대한 경작과 대규모 개발이 전개되었다. 이로 한전(乾田) 중심의 농업에서 수전(水田) 중심의 농업으로 탈바꿈되었고, 이는 고훈시대 전기와 중기의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될 만큼 파격적인 사회 변화를 창출하게 되었다.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쇠삽날은 평면형태에 따라 '凹'자형과 'U'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凹'자형의 쇠삽날은 福岡県 今光 溝2 출토품이 대표적이고, 'U'자형의 쇠삽날은 福岡県 老司 3號墳과 福岡県 古寺 6號 土壙 출토품이 대표적이다.

'U'자형의 쇠삽날이 일본열도로 유입된 배경에는 야요이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반도와의 물질(物的) 교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에서는 'U'자형의 쇠삽날과 함께 쇠스랑이 세트를 이루며 출토되는 예가 많음에도 쇠스랑만을 선별하여 유입한 흔적이 大阪府 紫金山古墳에서 확인된다. 이 고분에서는 방형판의 쇠삽날이 출토되어 'U'자형의 쇠삽날은 유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질 교류로 인해 일본열도로 유입되었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이미 유입되었을 것이다. 때문에 물질 교류보다는 다른 측면에서의 유입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광개토왕의 고구려 남정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 시기에 맞물려 일본열도에서는 스에키, 마구, 무기, 무구 등의 전쟁에 관한 도구, 새로운 단야와 금공 기술, 농경과 토목공사에 관련된 도구 등이 전해져 사회적 변화가 크게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는 인적(人的) 자원의 이동 없이는 파악하기 어렵다. 'U'자형의 쇠삽날 역시 이러한 인적 자원의 이동 속에서 일본열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남긴 물질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방형판 쇠삽날, 'U'자형 쇠삽날, '凹'자형 쇠삽날, 福岡 今光遺跡, 福岡 老司古墳, 大阪 紫金山古墳

I . 머리말

고대 사회에서 사용한 생산도구는 재질에 따라 석재와 목재, 동재, 철재로 구분되며, 석재와 목재로 만들어진 농구가 가장 오랜 기간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목재 농구의 끝부분에 철로 제작한 날(刃)을 끼우게 되면서부터 목재 농구의 기능과 형태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白木原和美 1960: 9). 즉 쇠삽날¹⁾이 등장하면서부터 농업기술은 물론 사회 변화도 일어난다.

쇠삽날은 나무 자루의 부착방법에 따라 따비(괭이), 삽, 가래로 사용되지만, 주로 따비나 가래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김재홍 2005: 76). 가래는 소가 들어가지 못하는 진흙밭이나 물이 많은 논을 갈고 밭이랑을 일구는데 사용된다. 또한, 흙을 던지고 도랑을 치고, 논둑을 깎거나 쌓을 때도 쓰인다(有光教一 1967: 67).

가래의 날 부분에 쇠삽날을 끼워서 사용하면 흙 속 깊이 삽을 밀어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삽에 묻어나는 흙이 적어 한 번에 떠서 옮길 수 있다. 이에 흙의 양이 나무 삽에 비해 훨씬 많아 진흙밭이나 물이 많이 나는 논을 갈 때, 그리고 수로 개설과 개선 작업에 효과적이라고 한다(이현혜 1991: 66).

이러한 쇠삽날의 쓰임은 농업 생산에 소요된 노동력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경지 개간에 있어 효율성도 극대화시켰다. 이는 당시의 농업 형태인 한전(乾田) 농업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농업의 형태 변화에 따른 생산력의 증대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고대 사회에서 행해진 농업 형태의 변화는 생산도구의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쇠삽날을 주제로 한다. 따라서 일본열도에서 진행되었던 쇠삽날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사를 정리하였다.

현재 사용되는 괭이(鍬)와 가래(鋤)의 민속자료와 문헌 자료의 검토를 바탕으로, 야요이시대(弥生時代)와 고훈시대(古墳時代)에 출토되는 목재 괭이와 가래의 형태를 비교·검토하였다. 그리고 목재 괭이와 가래의 날 부분에 철로 된 삽날을 끼우기 시작하면서, 습지 이외의 지역에 대한 경작 내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고훈시대 전기 말부터 중기에 이르기까지 습지 이외의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이

1) 평면형태가 'U'자형을 닮았다고 하여 'U'자형 쇠삽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V'자형과 'ㅁ'자형의 평면형태로도 확인되어 포괄적 의미로 쇠삽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방형관 쇠삽날과 대응하는 용어로 'U'자형 쇠삽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전개되었고, 목제 썰이를 신하에 상여하였다는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목제 썰이는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였다(白木原和美 1960: 2~12).

본격적인 고고학적 연구는 쓰데 히로시(都出比呂志)에 의해 시작하였다. 그는 야요이시대부터 고훈시대의 철검과 쇠삽날을 다루면서 형식의 차이와 연대관을 바탕으로 일본 고유 형태의 출현(방형판 쇠삽날,²⁾ 직인검)과 한반도에서 새로운 형태('U'자형 쇠삽날, 곡인검)의 도입과 전환을 논하였다. 전자는 야요이시대 중기 후반에, 후자는 고훈시대 중기에 일어난 큰 변화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후자의 'U'자형 쇠삽날은 그 기능으로 크게 개간 작업이나 한전(乾田) 농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고훈시대 중기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온 계기로 보았다. 또한, 쇠삽날은 출토 수가 적어 일부 계층 혹은 집단에 의해 독점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都出比呂志 1967: 46~51, 1989: 9~43).

근세 단야 도구와 고대 단야 도구를 비교하면서, 근세 단야 기술은 고훈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그 대표적인 유물을 철제 농구인 'U'자형 쇠삽날의 제작 기법을 들어 끝의 등장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마구와 찰갑, 'U'자형의 쇠삽날 등 철기 유물이 일본열도에 부장되기 시작한 것을 증거로 하여 단야 기술사에서 큰 변혁은 5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단야 기술은 조선인 기술자에 의해 개발된 것이 전해진 것으로, 새로운 기술 체계가 성립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하였다(松本正信 1969: 42~47).

한편 철제 농구의 소유 격차에 대해 8~9세기대 취락 출토품을 중심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 시기는 광범위하게 철제 농구의 보급이 이루어졌음에도 개간과 경작용 농구로서 쇠삽날의 사적 소유는 실현되지 못하고, 여전히 특정 주거에 독점된 양상이 뚜렷하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철검은 개별 가족 단위의 소유가 인정되게 되었다고 보았다(土井義夫 1971: 14~27).

그러나 쇠삽날의 집중 관리는 부호층이, 철검은 가부장 가족적인 세대가 소유한 것으로, 헤이안(平安) 시대에도 일반 농민은 수확구인 철검 조차 개인 소유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高橋一夫 1976: 92~102). 수확구인 철검은 경작과 개간구인 쇠삽날과 세트로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유 형태론은 협업이나 개별 경영 등의 노동 주체나 노동 형태를 밝혀나가는 동시에 농업공동체의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原島礼二 1968: 25~31).

2) 방형판 쇠삽날을 부르는 용어는 방형판삽날, 방형철삽날, 방형삽날, 방형판철삽날, 단조철날 등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U'자형의 쇠삽날과 대응하는 의미로서 방형판 쇠삽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980년대부터 증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쇄삽날에 대한 제작 기법과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다. 우선, 쓰데(都出)가 지적한 제1의 획기에 해당하는 방형판 쇄삽날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松井和幸 1985: 93~96), 제2의 획기인 'U'자형 쇄삽날의 도래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하였다. 이 높은 성능을 가진 농구는 5세기 전반에 삼국시대 한반도에서 전해졌고, 거의 형태를 바꾸지 않고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용되고 하였다. 이런 우수한 농구이기 때문에 고훈시대 후기에도 1~2점 소유하고 고분에 부장되었음을 재확인하였다. 소유자는 유력 호족층으로 보았다(松井和幸 1987: 294~322).

고훈시대 철제 농구에 대해 정리하면서, 직사각형 철판의 양 끝을 접어서 제작한 방형판 쇄삽날은 사용으로 인한 마모의 흔적이 확인되어 실용품으로 보았다. 또한, 그 형태는 중국이나 한반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일본열도 고유의 것으로, 야요이시대 후기 북규슈에서 출현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U'자형 쇄삽날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출토되는 것과 유사하여 무기, 무구 등의 제작 기술이 전해지는 문화의 흐름 속에서 함께 전해진 것으로 보았다(黒崎直 1991: 69~87).

한편 고분 축조 과정에 사용된 철제 농공구의 매납 상황을 정리하고(田中新史 1994: 136~156), 토공구의 주체가 되는 주조철부와 방형판 쇄삽날, 'U'자형 쇄삽날, 단조철부를 중심으로 매납 위치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제작 기법과 사용 지역이 비슷한 적겸(摘鎌-手鎌)과 함께 방형판 쇄삽날의 형태는 야요이시대 후기 북부 규슈에서 출토되는 청동제 'U'자형의 삽날과 형태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그 기원을 검토하였다. 'U'자형 쇄삽날은 5세기 전반경 북부 규슈에서 등장하며, 한반도 남동부 지역과의 교역 활동으로 그 지방의 수장층이 입수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5세기 중엽부터는 열도 내에서 자체 생산의 체제가 성립되었다고 파악하였다. 방형판 쇄삽날과 'U'자형 쇄삽날의 출토 위치가 목관 혹은 목곽의 안에서 출토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농공구와 달리 의식적으로 구분하여 고분에 부장한 것으로 파악하였다(田中新史 1995: 5~87).

고분 출토품을 중심으로 쓰데(都出)가 제시한 농구 철기화의 3단계 중 제2의 획기에 주목하여 'U'자형 쇄삽날의 출현 이전과 이후의 상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고분에 부장된 방형판 쇄삽날은 출토되는 목제 팽이와 가래에서 장착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고분 피장자의 철기 독점으로 이해하여 제사구로 쓰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방형판 쇄삽날의 인부 폭과 목제 팽이 및 가래의 폭과 비교하여 폭이

좁은 팽이(狹鍬)와 폭이 넓은 팽이(廣鍬)로 구분하였다. 야요이시대 이후로 내려온 폭이 좁은 팽이와 폭이 넓은 팽이의 조성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계기를 ‘U’자형 쇄삽날의 등장으로 보았다. 이로 목제 팽이 및 가래에 형태적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는 가축을 이용한 농경의 보급에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파악하였다(上原真人 1997: 88~95).

고분 출토품과 생활유적 출토품을 종합하여 형식학적 관점에서 都出가 제시한 농구 철기화의 3단계 중 제2의 획기에 주목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U’자형 쇄삽날과 곡인점의 세트 관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목제 농구와 철기 제작 기술의 검토를 바탕으로, 농구의 체계 및 농업기술, 단야 기술이 복합된 기술 체계는 사회 환경에 따라 선택 혹은 수정하여 받아들인 것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일괄적인 수용이 아니라 유연성을 가지고 수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魚津知克 2003: 29~48).

방형판 쇄삽날과 ‘U’자형 쇄삽날, 직인점과 곡인점을 중심으로 제작 기술사적 관점에서 제작 방법의 복원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고분 출토품과 생활유적 출토품을 실례로 들어 사용구와 미사용구를 구분하였다(河野正訓 2014).

최근에는 ‘U’자형 쇄삽날 출토 자료가 증가하면서, 지역으로 범위를 좁혀 목제 농구의 팽이와 가래의 날 부분에 초점을 맞춰 쇄삽날의 형태를 복원하고자 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杉山秀宏 2017: 61~80; 黒須亜希子 2021: 61~92; 石貫弘泰 2021: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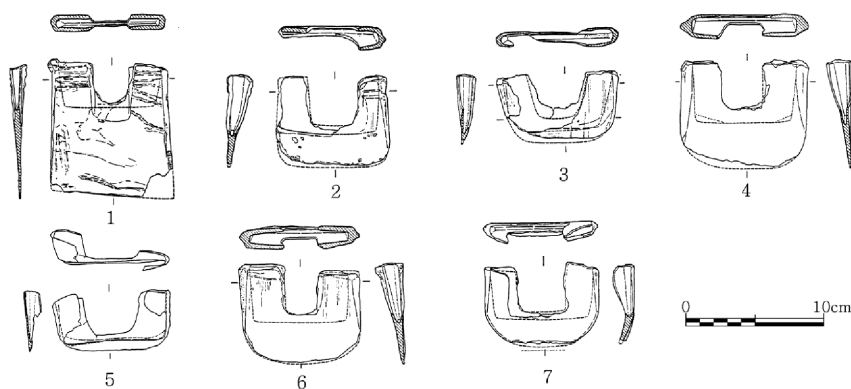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면, 일본열도에 ‘U’자형 쇄삽날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장)방형의 철판으로 만든 쇄날이 존재한다. 이것은 야요이시대 중기 후반부터 북부 규슈를 중심으로 창출되었다고 생각하는 연구자가 많다. 그러나 제작 형태의 조형(組形)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어 제작된 이유와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5세기 중엽에 가까운 시기가 되면, 내측에 설치된 구상에 나무 팽이에의 밀착도를 강하게 하여 효율이 좋은 쇄삽날이 등장한다. 평면형태가 ‘U’자형을 닮았다고 하여 ‘U’자형 쇄삽날로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U’자형 쇄삽날은 한반도 혹은 한반도 동남부지역으로부터 유입되었다는 점에서는 연구자 간 견해 차이는 없다. 그럼에도 유입된 배경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일본열도로 전해진 이후 전개되는 양상에 대한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방형판 쇄삽날과 ‘U’자형 쇄삽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자료 분석 및 변천 양상

1. 방형판 쇄삽날의 자료 분석 및 변천 양상

일본열도에는 ‘U’자형의 쇄삽날이 유입되기 이전, 사각형 철판의 양 끝을 접어서 제작한 방형판 쇄삽날이 북규슈를 중심으로 출토된다. 이것은 중국³⁾과 한반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본 고유의 철제 농구로 인식하고 있다(都出比呂志 1967: 43). 그리고 출현과 관련하여 철로 제작되기 전에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 확인되어 그 조형(組形)을 청동제 삽날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黒崎直 1991: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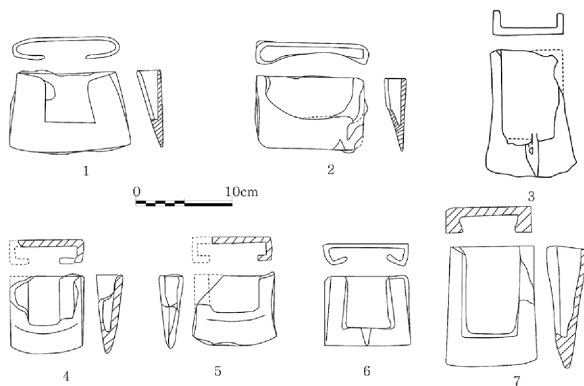
[도면 1] 청동제 삽날(柳田康雄 1980에서 수정 인용)

1. 福岡 田隈遺跡 2. 福岡 鳥越遺跡 3. 福岡 立石遺跡 4. 福岡 門田遺跡 5. 福岡 辻田遺跡 6. 佐賀 千塔山遺跡 7. 佐賀 二塚山遺跡

청동제 삽날은 평면형태가 ‘凹’자형으로, 하단에 직교하는 날이 있고, 두 개로 나뉘어 기단에 자루를 장착하기 위한 빈 공간의 소켓이 있는 구조물이다. 한쪽 면만 트여있는 단조품의 방형판 쇄삽날과는 형태적 차이는 물론 제작 기법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방형판 쇄삽날의 조형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일본열도에서 ‘U’자형의 쇄삽날과 함께 출토되는 ‘凹’자형의 쇄삽날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무엇보다 주조제 쇄삽날(鑄造鐵刃)로 재질만 청동에서 철로 바뀐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凹’자형 쇄삽날의 제작 모티브가 되었을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한다.

3) 방형판 쇄삽날과 유사한 형태의 것이 朱家台 MWT 93호와 朱家台 CYT 95호에서 출토된 예가 확인되어 중국에서는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白雲翔著・佐々木正治譯 2009: 182).

그런 점에서 방형판 쇄삽날의 조형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주조제 쇄삽날(鑄造鐵刀)을 주목해 볼 수 있다(川越哲志 1993: 117~140). 이것은 주조품으로, 한쪽 면은 열려있고 다른 면은 양측면과 연결되었다. 횡으로 긴 직사각형으로, 전체적으로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제작되었다. 인부(刃部)가 직



[도면 2] 주조제 쇄삽날(김재홍 2016에서 수정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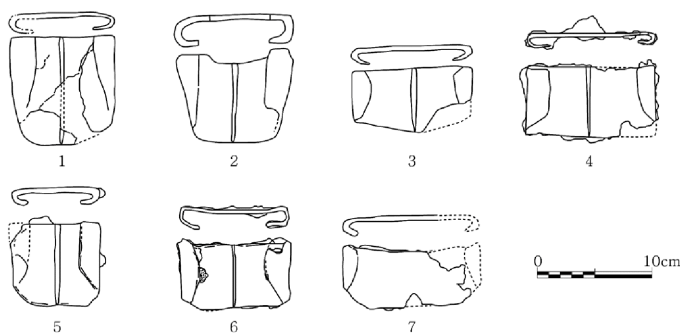
1. 김해 대성동 45호 2. 낙랑토성 3. 평안남도 부산면 4.福岡 下稗田遺跡 F 167호
5.福岡 下稗田遺跡 I 28호 6.福岡 宮田汐井掛 11호 7.長崎 三根子ゴノハナ B地點

선적으로 처리된 것도 있는 반면에 둥글게 처리된 것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주조제 쇄삽날은 한반도에서는 일면트임 삽날로 불리며, 낙랑토성과 평안남도 부산면, 김해 대성동 45호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 그 형태가 거의 동일하여 낙랑-김해-규슈의 교역 루트를 설정하였다(김재홍 2016: 109).

주조제 쇄삽날의 형태를 인지하고 일본열도에서 가장 빠른 시기의 방형판 쇄삽날로 알려진 나가사키현 하루노즈지유적(長崎県 原ノ辻遺跡) 출토된 것을 보면, 한쪽 면을 완전히 개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철판의 양 끝을 접어서 제작을 간소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간소화한 형태로 확인되는 이유는 주조제 쇄삽날을 제작할 수 있는 거푸집(鑄型)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조로 제작하였으나, 단야 기술 또한 부족하여

주조제 쇄삽날을 완벽하게 모방하지 못하고 그 형태만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야요이시대에 출토되는 방형판 쇄삽날은 마모의 흔적이 확인되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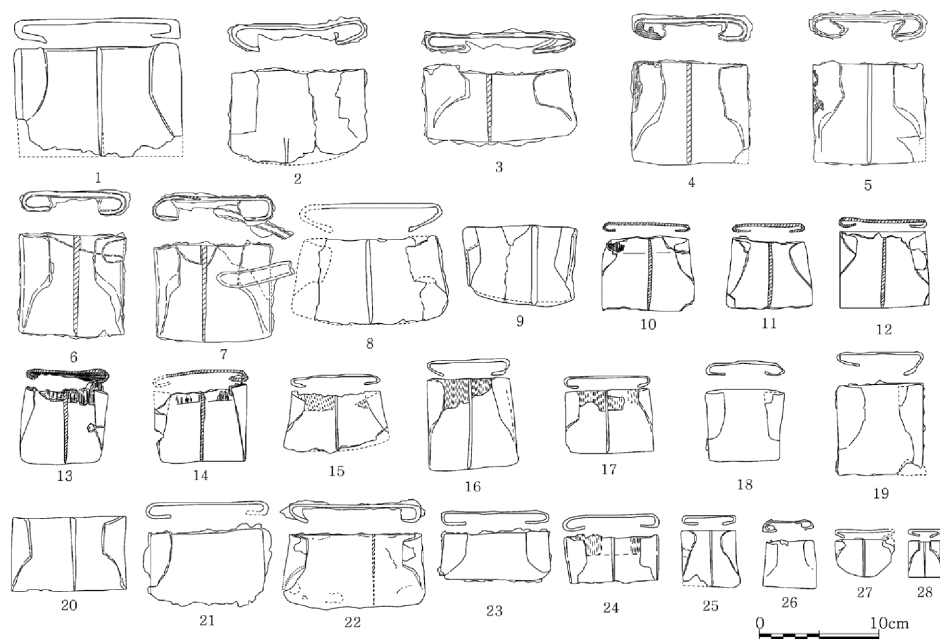
[도면 3] 야요이시대 방형판 쇄삽날

1~3. 長崎 原ノ辻遺跡 4.福岡 上々浦遺跡 5.京都 田辺天神山遺跡
6.福岡 三雲仲田地区 7.福岡 竹々本遺跡

추정할 수 있다(黒崎直 1991: 77). 따라서 처음 제작할 때 일상생활의 사용에 최대한의 편의를 고려하여 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고훈시대에 들어서도 그 형태와 쓰임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고분에는 부장이 증가하면서, 둥근 인부의 형태보다는 직선에 가까운 형태가 증가한다. 그런 점에서 제작한 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고분에 부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고훈시대 중기가 되어도 큰 차이는 없다. 그렇지만 길이는 비슷하더라도 너비가 좁아지는 변화가 확인된다. 그리고 오사카 카와치 노나카고분(大阪河内野中古墳) 출토품과 같이 철판의 양 끝을 살짝 접어 그 모티브만 가져와 제작되기 시작한다. 고훈시대 후기가 되면, 길이는 물론 너비도 좁아져 전체적으로 미니어처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한다. 따라서 실용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고 고분의 부장품 전용으로 바뀌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방형판 쇠삽날은 'U'자형의 쇠삽날이 유입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장된다. 특히, 후쿠오카 노지고분(福岡 老司古墳)과 오사카 카와치 노나카고분(大阪 河内野中古



[도면 4] 고훈시대 방형판 쇠삽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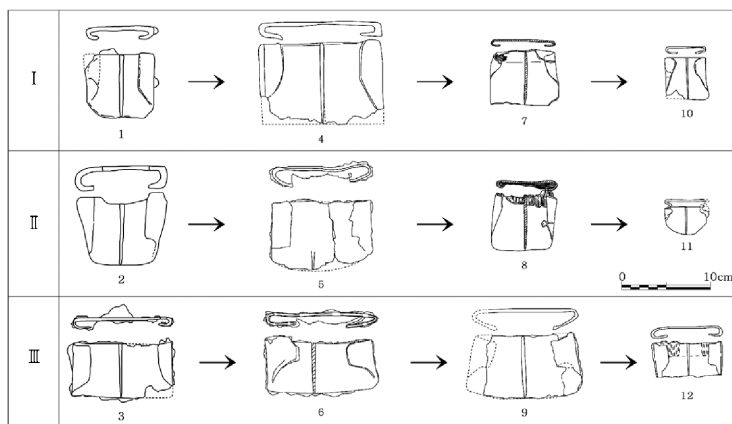
1. 大阪 紫金山古墳 2. 広島 横路小谷1號墳 3. 福岡 老司1號墳 4~7. 福岡 老司3號墳 8. 奈良 兵家2號墳 9. 大阪 松岳山古墳 10~15. 大阪 河内野中古墳 16~17. 大阪 野中アリ山古墳 18~19. 奈良 新沢千塚 500호 20. 岡山 金蔵山古墳 21. 鳥取 長瀬高浜 SI 57호 22. 宮崎 立切 65호 地下式横穴墓 23. 千葉 河原塚遺跡 24. 三重 石山 25. 大阪 黄金塚古墳 26. 千葉 石神 2호 27. 奈良 石光山 45호 28. 滋賀 瓢箪山古墳

墳)의 예와 같이 'U'자형의 쇄삽날과 함께 부장되는 경우도 있다. 출토 시기와 지역으로 보면, 규슈(九州)지방에서 처음 제작되어 사용되던 것이 고훈시대에 들어서면서 긴키(近畿)지방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고훈시대 후기가 되면, 간토(關東)지방으로 다시 확장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면, 방형판 쇄삽날의 지역 이동은 단순히 물건 및 그에 대한 정보만 이동된 것으로 보기에는 수적(數的) 한계가 있다.

또한, 규슈지방에서 간토지방까지의 분포를 보이지만, 일정한 정형성을 보이는 분포가 아닌 산발적 분포를 보인다. 무엇보다 농지 개간이나 수로 개설에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U'자형의 쇄삽날이 도입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방형판의 쇄삽날을 제작하여 고분에 부장하였다는 점에서 방형판의 쇄삽날을 사용하고 고분에 부장하던 풍습을 지닌 집단이 존재했고, 그 집단이 이동한 결과로 남겨진 물적(物的) 증거로 볼 수 있다.⁴⁾

방형판 쇄삽날은 형태로 보면, 제작 재료가 되는 철판의 길이와 너비가 유사한 형식(Ⅰ)과 철판의 길이가 너비보다 긴 형식(Ⅱ), 철판의 길이보다 너비가 긴 형식(Ⅲ)

등 크게 3가지의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등장 시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처음 제작된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철판의 재료가 점차 작아지는 변화는 확인할 수 있다.



[도면 5] 방형판 쇄삽날의 변천 양상

1. 京都 田辺天神山遺跡 2. 長崎 原ノ辻遺跡 3. 福岡 上々浦遺跡 4. 大阪 紫金山古墳 5. 広島 横路小谷 1 號墳 6. 福岡 老司 1 號墳 7~8. 大阪 河内野中古墳 9. 奈良 兵家 2 号墳 10. 大阪 黄金塚古墳 11. 奈良 石光山 45 号 12. 三重 石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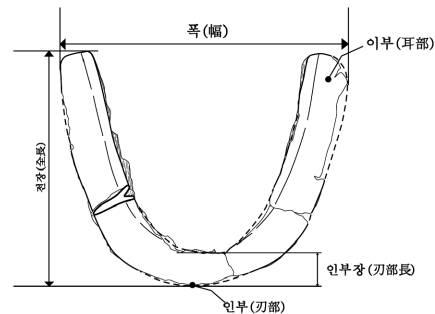
4) 이와 관련해서는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출토 유구 및 공반 유물의 검토도 포함하여 별고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를 갖고자 한다.

2. ‘U’자형 쇄삽날의 자료 분석 및 변천양상

일본열도에서 ‘U’자형의 쇄삽날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고대 사회 농업기술의 발전 과정을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훈시대 전기와 중기의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都出比呂志 1967: 46). 그렇지만 쇄삽날의 쓰임은 야요이 시대 중기 후반부터 등장한 목제 농구의 끝부분에 날을 끼워서 사용했던 방형판 쇄삽날과 동일하다. 제작 기법과 그에 따른 형태적 차이만 확인될 뿐이다. 형태적으로 방형판의 쇄삽날과 비교해보면, 크기의 차이가 눈에 띈다. 따라서 방형판 쇄삽날에 비해 경지의 개간이나 수로의 개설에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여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이현혜 1991: 66).

쇄삽날은 평면형태에 따라 ‘U’자형과 ‘V’자형, ‘凹’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하나 2013: 81). 그러나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쇄삽날의 평면형태는 ‘V’자형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U’자형과 ‘凹’자형이 중심을 이룬다(松井和幸 1987: 302~303). 일본열도에서 처음 쇄삽날이 확인되는 유적은 후쿠오카 이마미쓰 구2(福岡 今光 溝2)와 후쿠오카 노지 3호분(福岡 老司 3號墳), 후쿠오카 고데라 6호 토광(福岡 古寺 6號 土壙)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마미쓰 구2(今光 溝2)에서 출토된 것은 완형의 형태는 아니다. 그렇지만 추정 복원이 가능하며, 평면형태는 ‘凹’자형임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노지 3호분(老司 3號墳)과 고데라 6호 토광(古寺 6號 土壙)에서 출토된 것은 ‘U’자형의 평면형태이다. 그렇지만 이부와 이부의 너비에 차이가 있고, 인부에서 이부로 올라올수록 너비가 좁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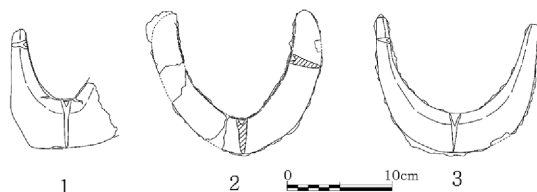


[도면 6] 쇄삽날의 세부 명칭

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인부의 길이에서도 차이가 확인되어 세부적으로는 형태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노지 3호분(老司 3號墳) 출토품은 목제 농구의 신부(身部)와 맞닿는 구(溝)의 형태로 본다면, ‘V’자형에서 ‘U’자형으로 변화되는 과도기적인 형태로도 볼 수 있다.

모두 고훈시대 중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자료이다. 형태만을 놓고 본다면,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출토되는 ‘U’자형의 쇠삽날과 가장 유사한 것은 노지 3호분(老司 3號墳) 출토품뿐이다. 그리고 이마미쓰 구2(今光 溝2) 출토품의 ‘凹’자형 역시 운성리 가말의 2호와 길림 집안현 출토품을 기원(起源)으로 춘천 우



[도면 7] 고훈시대 중기 전반의 쇠삽날

1. 福岡 今光 溝2 2. 福岡 老司 3號墳 3. 福岡 古寺 6號 土壙

두동 택지 133호 주거지, 가평 대성리 26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박경신 2018: 23). 그렇지만 시기적인 차이가 확인되어 직접적인 관련성을 언급하기엔 부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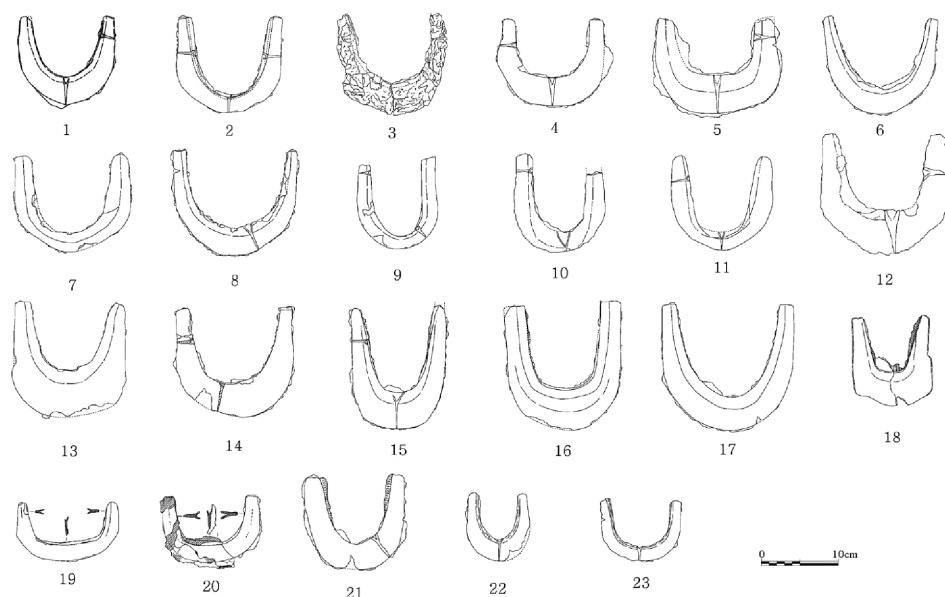
두 유적에서 출토된 쇠삽날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고데라 6호 토광(古寺 6號 土壙) 출토품의 형태는 ‘U’자형인 노지 3호분(老司 3號墳) 출토품과 ‘凹’자형인 이마미쓰 구2(今光 溝2) 출토품의 중간적 형태에 해당한다. 평면형태는 ‘U’자형에 가깝지만, 이부와 인부의 제작 방법에서는 ‘凹’자형의 쇠삽날과 유사하다. 물론 이와 같은 형태의 쇠삽날 역시 김해 양동리 299호와 경주 황오리 파괴고분 1곽, 경주 황오리 16호 11곽 등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도 출토 예는 있다. 그러나 그 수가 많지 않고, 시기적인 차이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일본열도의 특징적 형태의 쇠삽날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지 3호분(老司 3號墳) 출토품은 시기적으로 이마미쓰 구2(今光 溝2) 출토품보다 소급될 가능성은 있다.

고훈시대 중기 중반이 되면, 세토내해(瀬戸内海)를 따라 긴키(近畿)지역으로, 그리고 다시 간토(關東)지역을 지나 도후쿠(東北)지역까지 확장되어 쇠삽날의 출토 지역이 광범위하게 넓어진다. 또한, 쇠삽날의 출토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에 따라 출토 수가 증가하여 확인되는 형태도 다양하다. 그럼에도 평면형태는 ‘U’자형과 ‘凹’자형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앞 시기인 노지 3호분(老司 3號墳)과 이마미쓰 구2(今光 溝2), 고데라 6호 토광(古寺 6號 土壙) 출토품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야마가타 시모마쓰고분군(山形 下小松古墳群)에서 출토된 쇠삽날의 예로 보면, 모티브가 된 것은 ‘凹’자형의 쇠삽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크기는 작아졌으며, 인부의 너비가 ‘U’자형의 쇠삽날에서 확인되는 것과 유사하게 제작되어 ‘U’자형과 ‘凹’자형의 특징이 혼용된 형태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오이타 이미자키 2호분(大分 伊美崎 2號墳)과 후쿠오카 미야지이데노카미 2호분(福岡 宮司井手ノ上 2號墳)에서 출토된 예로 보면, 고데라 6호 토광(古寺 6號 土壙) 출토품을 모티브로 하여 인부의 길이가 길게 제작된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형태 역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특히, 서울 구의동 보루와 아차산 보루, 서울 흥련봉 보루 등 고구려와의 관련성이 높은 유적을 중심으로, 경주 사라리 12호와 경주 안계리 12호, 대구 가천동 189호, 성주 성산동 59호 1부곽, 창녕 교동 13호 등에서 출토된다. 한반도 동남부지역에서 출토되는 쇠삽날은 고구려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봉산 양동리 5호 전실묘 출토품을 기원(起源)으로 낙랑 또는 대방의 영향을 받아 고구려에서 제작된 것이 모티브가 되었다(김재홍 2005: 76; 이동관 2013: 116~118).

이부의 형태와 제작 방법에서 보면, 고구려계통의 ‘凹’자형의 쇠삽날은 양쪽 이부의 너비가 동일하게 제작되었고, 인부까지 직선에 가깝게 내려와 평면형태가 직사각형에 가깝게 제작되었다. 그에 비해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것은 양쪽 이부의 너비는 동일하지만, 인부까지 곡선으로 내려와 평면형태가 ‘U’자형에 가깝게 제작한 차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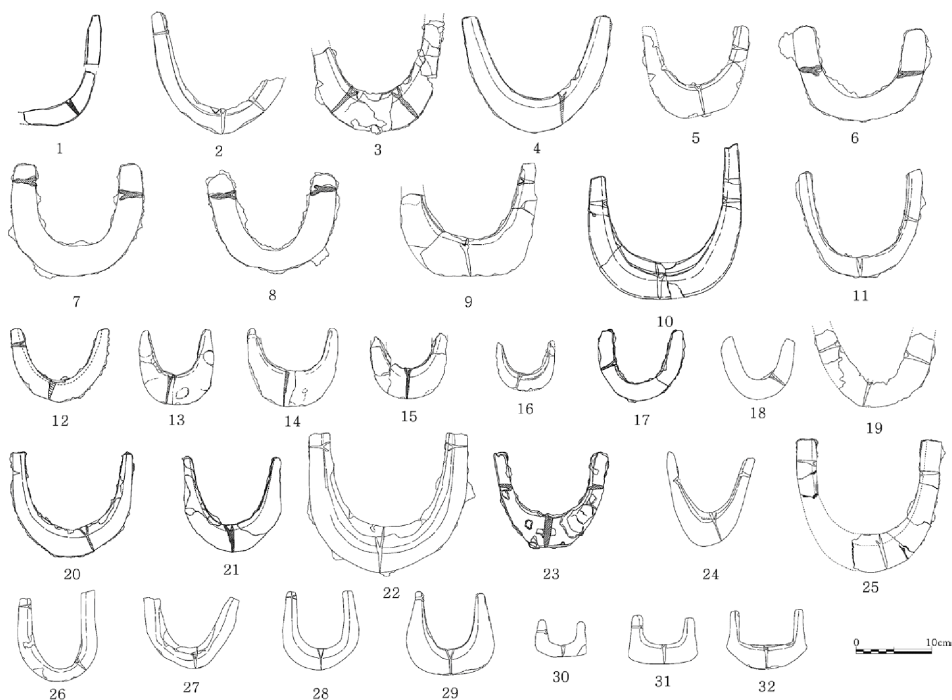


[도면 8] 고훈시대 중기 중반~후반의 쇠삽날

1.長野 溝口の塚古墳 2.福岡 小松原堤古墳 3.宮崎 元地原 5號 4.福岡 仁右衛門畑遺跡 70號 住居跡 5.福岡 仁右衛門畑遺跡 25號 住居跡 6.大分 惠良野 12號墳 7.福岡 古寺 2號墳 8.山口 市の瀬 5號墳 9.福岡 尾崎・天神 3號墳 10.大分 岬古墳 11.福岡 きょう塚古墳 12.福岡 尾崎・天神 4號墳 13.大分 惠良野 1號墳 14.大分 櫻野古墳 15.大分 伊美崎 2號墳 16.福岡 宮司井手ノ上 2號墳 17.福岡 古寺 19號墳 18.大阪 野中古墳 19.山形 下小松 2T-9號 20.山形 下小松 2T-1號 21.兵庫 宮山古墳 22.奈良 石光山 30號 23.奈良 石光山 20號

있다.⁵⁾ 이런 점에서 한반도로부터의 영향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제작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제작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훈시대 후기가 되면, 쇠삽날의 보급은 일본열도 전역으로 확장된다. 출토 수도 증가하며, 그 형태도 고훈시대 중기보다 다양하게 확인된다. 노지 3호분(老司 3號墳)과 이마미쓰 구2(今光 溝2), 고데라 6호 토광(古寺 6號 土壙) 출토품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고훈시대 중기 중반 이후의 쇠삽날이 고훈시대 후기 쇠삽날을 제작하는데 모티브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오카야마 나카야마 6-1호분(岡山 中山 6-1號墳)과 나카야마 6-2호분(岡山 中山 6-2號墳), 오카야마 도사카 1호분(岡山 戸坂 1號墳), 후쿠오카 요시다케쓰카하라 2호분(福岡 吉武塚原 2號墳)에



[도면 9] 고훈시대 후기의 쇠삽날

1.奈良 石上・豊田 8號 2.静岡 川合遺跡 3.福岡 吉武 XV-S군11號 4.福岡 元岡・桑原 5-E-2號 5.福岡 宝満尾古墳 6~8.香川 雄山 5號 石室 9.兵庫 西神ニュータウン内遺跡 第41地点 10.福岡 元岡・桑原 16-SX92號 11.福岡 裏ノ田 21號 住居 12.宮崎 中迫 1號 横穴墓 13.岡山 中山 6-2號 14~15.岡山 中山 6-1號 16.和歌山 大谷古墳 17.広島 緑岩古墳 18.愛知 神明 SB28號 住居 19.奈良 兵家 2號墳 20.宮崎 市の瀬 5號 横穴墓 21.宮崎 大萩 37號 横穴墓 22.福岡 広石 2-2號 23.福岡 吉武塚原 2號墳 24.岡山 戸坂 1號墳 25.福岡 広石 8-1號墳 26.福岡 尾崎・天神 3號墳 27.京都 佐坂 C15號墳 28.岡山 天狗山古墳 29.石川 和田山 5號墳 A櫛 30.千葉 大作 1號墳 31.兵庫 西宮山古墳 32.千葉 日秀西 032C 住居

5) 이와 유사한 형태로 창녕 고동 3호분에서 출토된 'U'자형의 쇠삽날이 있다. 창녕지역과의 관련성은 생각해볼 수 있지만, 출토 수가 적다는 수적 한계는 있다.

서 출토된 쇠삽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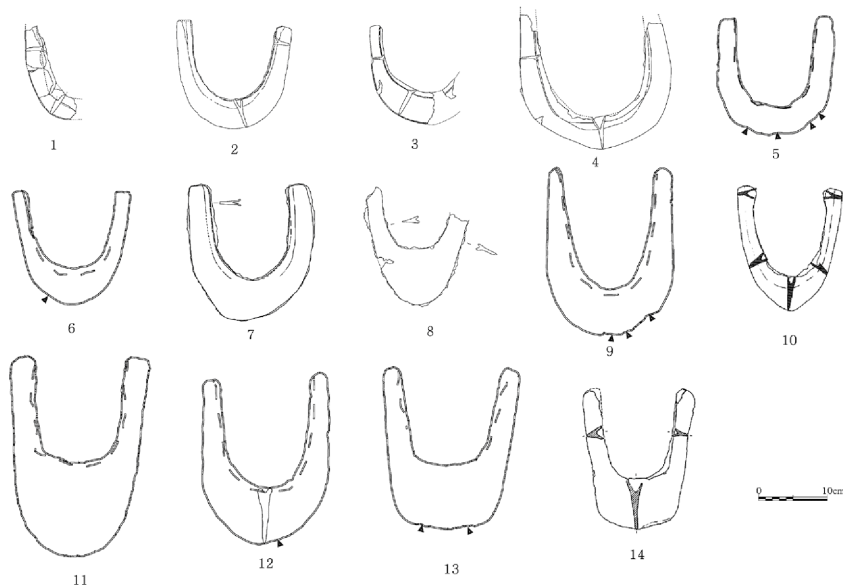
우선, 나카야마고분군(中山古墳群)에서 출토된 쇠삽날은 일부 결실된 부분은 있지만, 전체 길이가 10cm를 전후하여 다른 쇠삽날에 비해 작게 제작되었다. 그럼에도 인부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게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의 쇠삽날은 후쿠오카 니에몬바타케 25호 주거지(福岡 仁右衛門畑 25號 住居跡)에서 출토된 ‘凹’자형의 쇠삽날에서 파생되어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⁶⁾

기존 쇠삽날의 전체 길이와 인부의 길이 비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전체 길이의 1/3에 해당하는 4~5cm로 계측된다. 나카야마고분군(中山古墳群) 역시 전체 길이가 짧아진 것을 제외하면, 인부의 길이는 똑같이 계측된다. 전체 길이가 짧아진 만큼 인부의 길이도 짧아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쇠삽날은 7~8세기 주거 유적에서 출토되는 쇠삽날과 보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티브가 되었던 자료 역시 주거 유적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던 형태를 모방하여 고분에 부장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후쿠오카 요시다케쓰카하라 2호분(福岡 吉武塚原 2號墳)과 오카야마 도사카 1호분(岡山 戸坂 1號墳)에서 출토된 쇠삽날은 고데라 6호 토광(古寺 6號 土壙) 출토품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후쿠오카 미야지이데노카미 2호분(福岡 宮司井手ノ上 2號墳) 출토품을 모티브로 하여 다시 제작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형태에서 인부의 길이를 보다 길게 제작하여 변화된 형태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인부를 길게 제작한 형태는 앞서 살펴본 나카야마고분군(中山古墳群) 출토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U’자형의 쇠삽날이 다수를 점하는 한편 이시카와 와다야마 5호분 A곽(石川 和田山 5號墳 A槨)과 치바 오사쿠 1호분(千葉 大作 1號墳), 효고 니시미야야마고분(兵庫 西宮山古墳), 치바 히비리니시 032C 주거지(千葉 日秀西 032C 住居)와 같이 ‘凹’자형의 쇠삽날도 계속해서 제작된다. 평면형태는 ‘凹’자형으로 동일하지만, 모티브의 차이만 확인된다. 그럼에도 이시카와 와다야마 5호분 A곽(石川 和田山 5號墳 A槨)에서 출토된 것은 다른 ‘凹’자형의 쇠삽날과 달리 모티브가 된 것을 충실하게 모방하여 제작하진 않았다. 이와 같은 형태의 쇠삽날로 한반도에서는 서울 아차산 보루와 대구

6) 이와 유사한 형태로 창녕 교동 1호분에서 출토된 ‘U’자형의 쇠삽날이 있다. 오이타 이미자키 2호분(大分 伊美崎 2號墳)과 후쿠오카 미야지이데노카미 2호분(福岡 宮司井手ノ上 2號墳) 출토품의 예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창녕지역과의 관련성은 생각해볼 수 있지만, 출토 수가 적다는 한계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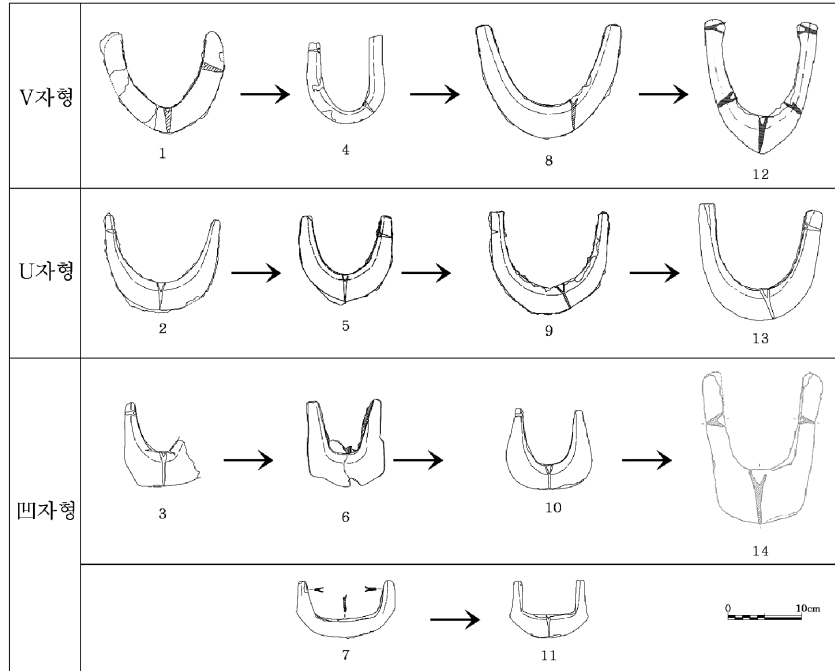
[도면 10] 고훈시대 종말기의 쇠삽날

1. 福岡 吉武 E3號墳 2. 福岡 徳永A遺跡 SK 674호 3. 福岡 七隈古墳 8號墳 4. 福岡 片江 8號墳 5. 三重 西野田遺跡 6. 静岡 神明原・元宮川遺跡 7. 福岡 九州大学筑紫キャンパス遺跡 SB 214호 8. 長崎 妙泉寺古墳 7號墳 9, 11, 13. 奈良 平城京 10. 長野 下神遺跡 12. 長野 南栗遺跡 14. 茨城 堀之内遺跡

가천동 89호에서 출토된 것이 있다.

고훈시대 종말기가 되면, 지역적 특색이 강조된 형태의 쇠삽날이 제작된다. 후쿠오카현(福岡県)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쇠삽날은 고훈시대 중기 전반, 처음 쇠삽날이 유입되었을 때의 형태와 큰 차이 없는 형태로 제작이 계속되는 한편 나라현(奈良県)을 중심으로 한 긴키(近畿)지역과 나가노현(長野県)을 중심으로 한 주후(中部)지역, 이바라키현(茨城県)을 중심으로 한 간토(關東)지역에서는 인부의 길이가 전체 길이의 1/2에 해당하는 형태의 쇠삽날이 제작되어 사용된다. 무엇보다 나라 헤이조쿄(奈良 平城京)와 이바라키 호리노우치유적(茨城 堀之内遺跡)에서는 서울 구의동 보루와 아차산 보루, 흥련봉 보루, 몽촌토성 등 고구려의 색채가 강한 유적에서 출토되는 ‘凹’자형의 쇠삽날과 유사한 형태가 출토되어 고구려와의 직접적인 관련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쇠삽날의 제작 모티브가 된 것은 노지 3호분(老司 3號墳)과 이마미쓰 구2(今光 溝2), 고데라 6호 토광(古寺 6號 土壙)에서 출토된 쇠삽날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 동일한 쇠삽날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고 해도 전체 크기 및 인부의 길이 등 세부적인 면에서는 지역에 따라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



[도면 11] 일본열도 출토 쇠삽날의 변천 양상

1. 福岡 今光 溝2 2. 福岡 老司 3號墳 3. 福岡 古寺 6號 土墳 4. 福岡 尾崎・天神 3號墳 5. 長野 溝口の塚古墳 6. 大阪 野中古墳 7. 山形 下小松 21-9號 8. 福岡 元岡・桑原 5-E-2號 9. 宮崎 市の瀬 5號 横穴墓 10. 石川 和田山 5號墳 A櫛 11. 千葉 日秀西 032C 住居 12. 長野 下神遺跡 13. 福岡 徳永A遺跡 SK 674호 14. 茨城 堀之内遺跡

태적 차이가 확인된다.

지역마다 다른 자연환경과 그 지역의 풍토에 맞게 쇠삽날을 변형하여 제작하고, 사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출토 지역에 따른 지역성을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쇠삽날은 오카야마 나카야마고분군(岡山 中山古墳群)과 이시카와 와다야마 5호분 A곽(石川 和田山 5號墳 A櫛)의 출토품 정도로 그 수가 많지는 않다.

오히려 쇠삽날의 형태와 크기로 보면, 모티브가 된 쇠삽날과 최대한 유사하게 제작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쇠삽날을 끼워서 사용한 목제 농구의 크기는 지역에 따라 대소(大小)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목제 농구의 신부 형태는 어느 정도 동일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U’자형 쇠삽날의 유입과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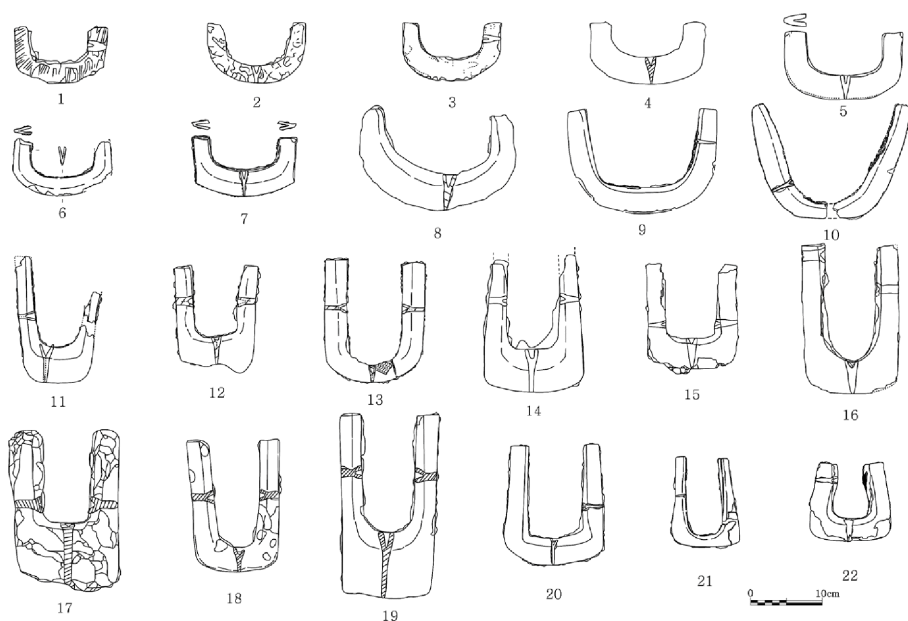
일본열도에서 고대 사회의 농업 발전 과정과 생산력의 증대를 살피는데,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은 ‘U’자형 쇠삽날의 등장이다. ‘U’자형의 쇠삽날이 한반도 남부지역으로부터 전해진 이후, 일본열도에서는 습지 이외의 지역에 대한 경작과 대규모 개발이 전개되었다(白木原和美 1960: 2~12). 이로 한전(乾田) 중심의 농업에서 수전(水田) 중심의 농업으로 탈바꿈되고, 벼농사의 전래와 함께 유입된 철제 농구로 변화되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飯沼二郎 1973: 58~66). 다만, 시스템으로 이입되었기 때문에 철제 농구는 동반되었다 하더라도 소량에 불과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都出比呂志 1967: 46~49).

그래서 처음 유입기를 제외하고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쇠삽날의 형태는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출토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魚津知克 2003: 41; 이동관 2013: 119~120). 그러나 시기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출토되는 쇠삽날의 형태를 살펴보면, 일본열도 자체의 변화로 파악하기에는 갑자기 등장하는 형태가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쇠삽날의 자료를 정리하고,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것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전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반도의 쇠삽날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쇠삽날은 평면형태에 따라 ‘U’자형과 ‘V’자형, ‘凹’자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평면형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쇠삽날을 끼워서 사용했던 목제 농구의 형태 차이와 지역마다 다른 자연환경에 맞추어 사용하다 보니 그 형태도 변화해 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 유입된 형태로 보면, 계통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에 한반도, 특히 한강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쇠삽날을 평면형태에 따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凹’자형의 쇠삽날은 운성리 가말미 2호와 길림 집안현을 중심으로 한 형태와 봉산 양동리 5호 전실묘를 중심으로 한 형태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쇠삽날은 한반도 중부지역의 경우, 거의 동일한 형태로 춘천 우두동 택지 133호 주거지와 가평 대성리 26호 주거지에서 출토된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제작되어 사용되진 못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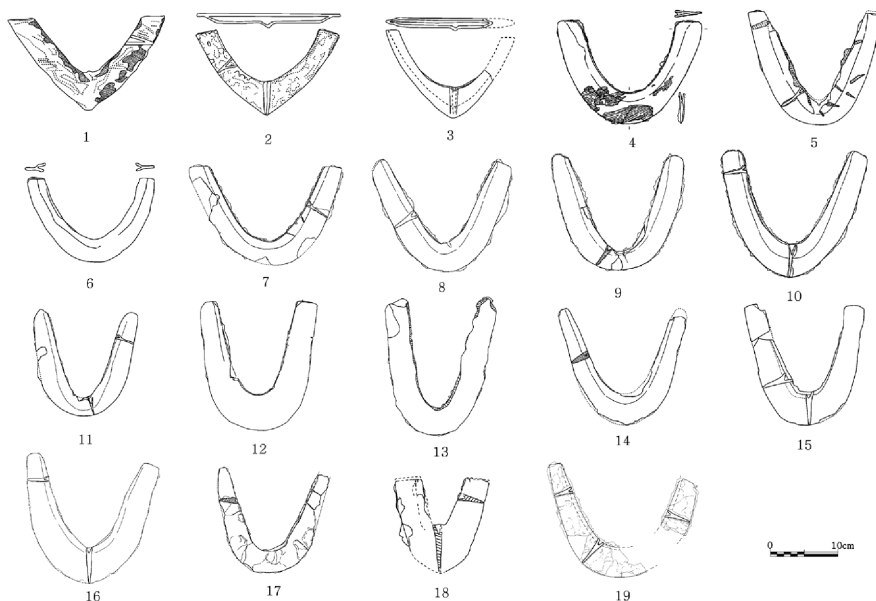
[도면 12] 한반도 출토 'U'자형의 쇄삽날

1. 운성 가말의 2호 2. 吉林 輯安縣 3. 章丘東平陵故城 4. 吳家灣東漢封土墓 5. 濰坊後埠下 6. 춘천 우두동 택지 133호 주거지
7. 가평 대성리 26호 주거지 8. 김해 양동리 299호 9~10. 김해 대성동 91호 11. 봉산 양동리 5호 전실묘 12~14. 서울 아차산 보루
15~16. 서울 구의동 보루 17. 서울 몽촌토성 88-2호 저장공 18~19. 서울 홍련봉 보루 20. 성주 성산동 59호 1부과 21. 경주 사라리
12호 22. 대구 가천동 89호

다. 반면에 한반도 남부지역은 형태에 변형은 확인되지만, 김해 양동리 299호의 제작 모티브가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해 대성동 91호분에서는 다른 유적과 달리 4점의 쇄삽날이 출토되었다. 평면형태 'U'자형의 쇄삽날 1점과 'U'자형의 쇄삽날 2점, 그리고 1점은 평면형태가 'U'자형에서 'U'자형으로 변화되는 과도기적인 형태를 보인다. 평면형태 'U'자형의 쇄삽날은 길림 집안현(吉林 輯安縣)과 오가만동한봉토묘(鳴家灣東漢封土墓), 유방후부하(濰坊後埠下)에서 출토된 것을 모티브로 제작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출토되는 쇄삽날은 크기 및 형태가 모티브가 된 것과 거의 동일하게 제작되어 유입품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출토되는 쇄삽날은 크기 및 형태에 변형이 확인되어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한반도 내에서도 지역 간 차이점이 확인된다.

후자의 쇄삽날은 서울 아차산 보루나 구의동 보루, 홍련봉 보루, 몽촌토성, 그리고 경주 사라리 12호와 경주 안계리 12호, 대구 가천동 189호, 성주 성산동 59호 1부과,



[도면 13] 한반도 출토 V자형의 쇠삽날

1. 洛陽 燒溝 M1018호 2. 咸陽 漢陽陵 K22호 3. 長武丁家 DJ호 4. 춘천 우두동 택지 209호 주거지 5. 춘천 우두동 롯데 2호 주거지 6. 가평 대성리 10호 주거지 7. 포항 옥성리 나-78호 8. 포항 옥성리 나-58호 9. 포항 옥성리 가-101호 10. 울산 하대 43호 11. 울산 하대 76호 12. 김해 양동리 280호 13. 김해 양동리 322호 14. 황남대총 남분 15. 경주 황오리 16호 10곽 16. 울산 하삼동 나지구 115호 17. 경산 조영E3-6호 18. 창녕 교동 1호 19. 청주 송절동 150호 주거지

창녕 교동 13호 등에서 출토되었다. 한반도 동남부지역에서 출토되는 ‘ㅼ’자형의 쇠삽날은 서울에서 출토된 것과 비교해 볼 때, 크기만 작아졌을 뿐 거의 동일한 형태로 확인되어 이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한반도에 등장한 시기는 장수왕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백제의 영토인 한강 유역 일대와 수도인 한성을 정복하고 개로왕을 살해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475년 이후로 볼 수 있다.⁷⁾

다음은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것과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것 중 가장 큰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 ‘V’자형의 쇠삽날이다. 일본열도에서도 교토 사사카 C15호분(京都 佐坂 C15號墳)의 예와 같이 ‘V’자형의 쇠삽날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에 반해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V’자형의 쇠삽날은 중부지역인 춘천 우두동 택지 209호 주거지와 가평 대성리 10호 주거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함양 한양릉 K22호(咸陽 漢陽陵 K22호)와 낙양 소구 M1018호(洛陽 燒溝 M1018호), 장무

7) 麗王巨璉帥兵三萬 來圍王都漢城. 王閉城門 不能出戰 麗人分兵爲四道來攻 又乘風縱火 焚燒城門. 人心危懼 或有欲出降者. 王寤不知所圖 領數十騎 出門西走 麗人追而害之. (『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 3 蓋鹵王 21年.)

정가 DJ호(長武丁家 DJ호) 등 중국의 것이(白雲翔著 · 佐々木正治譯 2009: 193) 모티브가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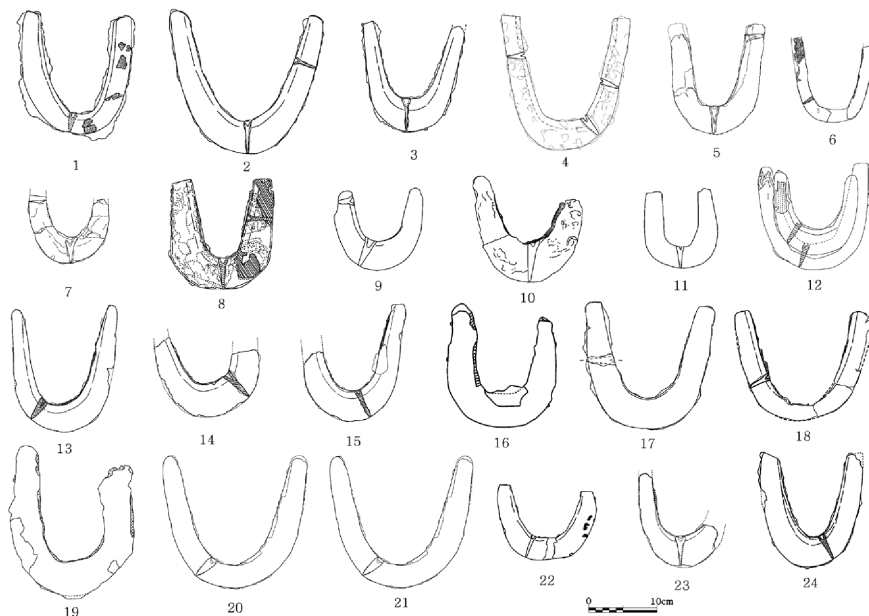
쇠삽날의 형태로 보면, 춘천 우두동 택지 209호 주거지와 가평 대성리 10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과 포항 옥성리 나-78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것의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 또한, 이부와 이부의 너비가 좁아진 변화가 확인되는 춘천 우두동 롯데 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과 포항 옥성리 나-58호 · 가-101호 목곽묘, 울산 하대 43호 · 76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것의 형태가 거의 동일하여 중부지역에서 동남부지역으로의 전파를 확인할 수 있다(박경신 2018: 24).

그러나 울산 하대유적과 포항 옥성리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쇠삽날은 쇠스랑도 함께 출토된다. 중부지역에서도 청주 송절동 165호 주거지에서 쇠스랑과 함께 출토된 예는 있다. 그렇지만 쇠삽날의 형태는 'V'자형이 아닌 'U'자형에 가까운 형태로 확인되고, 쇠스랑의 평면형태도 '∩'자형으로 확인되는 동남부지역과 달리 ^자형으로 확인되어 차이점이 있다(이상원 2023: 22~23). 이런 점에서 반드시 중부지역을 거쳐 남부지역으로 유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다.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V'자형의 쇠삽날은 'U'자형의 쇠삽날보다 먼저 등장하고, 'V'자형의 쇠삽날에서 변형되어 'U'자형의 쇠삽날로 변해가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박경신 2018:23). 그런 점에서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쇠삽날이 'U'자형의 평면형태를 갖는 것이 많다는 점은 한반도에서 'V'자형에서 'U'자형으로 평면형태가 변화된 이후에 유입되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쇠삽날의 형태를 살펴보면, 춘천 우두동 택지 209호 주거지 → 춘천 우두동 롯데 2호 주거지, 포항 옥성리 나-78호 목곽묘 → 포항 옥성리 나-58호 · 가-101호 목곽묘, 울산 하대 43호 목곽묘 → 울산 하대 76호 목곽묘로의 변화로, 'V'자형에서 'U'자형으로의 형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한반도에서는 일본열도와 달리 목제 농구의 출토가 거의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형태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쇠삽날의 형태 변화로, 쇠삽날을 끼워서 사용했던 목제 농구의 신부 형태가 일본열도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둥글게 변화되었음을 추정할 수는 있다.



[도면 14] 한반도 출토 'U'자형의 쇠삽날

1. 서울 풍납토성 가-2호 주거지 2. 강릉 초당동4-9호 주거지 3. 고양 덕절산 유적 4. 청주 송절동 165호 주거지 5. 대구 노변동 6호 6. 경산 조영 C2-1호 7. 경산 임당 C-1-116호 8. 창녕 교동 3호 9. 경주 황오리 16호 11곽 10. 경주 황오리 파괴고분-1곽 11. 경주 황오리 16호 2곽 12. 김해 대성동 1호 13~15. 경주 황남대총 남분 16. 김해 양동리 303호 17~18. 김해 대성동 91호 19. 김해 양동리 333호 20~22. 경산 조영 E3-2호 23. 울산 하삼동 가-24호 24. 동래 복천동 22호

2. 일본열도로의 유입 배경

지금까지 일본열도와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쇠삽날의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출토되는 쇠삽날의 평면형태에 유사점과 함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일본열도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 'V'자형의 쇠삽날이 한반도에서는 쇠삽날의 유입과 함께 계속해서 출토되어 한반도의 특징으로 볼 수 있었다. 반대로 한반도에서는 쇠삽날의 유입 시기에 잠깐 등장하고, 오랜 공백기 이후 장수왕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한강 유역 일대와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정복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凹'자형의 쇠삽날이 일본열도에서는 쇠삽날의 유입과 함께 소수이지만 계속해서 출토되어 일본열도의 특징으로 볼 수 있었다. 즉, 출토되는 쇠삽날의 평면형태에서 'U'자형을 제외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쇠삽날의 평면형태는 대체로 'U'자형이라는 유사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U'자형의 쇠삽날은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자료로 보면, 'V'자형의 쇠삽날에서 파생되어 등장한다. 지역에 따라 크기의 대소(大小)와

인부 및 이부의 너비 차이는 확인되지만, 목제 농구의 신부와 맞닿는 구(溝)의 형태가 ‘U’자형으로 정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형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열도로 쇄삽날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쇄삽날은 신부와 맞닿는 구(溝)의 형태가 ‘U’자형이 많다고 생각한다.

일본열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쇄삽날의 하나인 후쿠오카 노지 3호분(福岡 老司 3號墳) 출토품은 ‘V’자형에서 ‘U’자형으로 변화되는 과도기적인 형태의 특징이다. 즉, 양쪽 이부가 중앙을 중심으로 비대칭으로 확인되는 형태로, 오른쪽 혹은 왼쪽의 이부가 바깥쪽으로 살짝 더 벌어진 형태로 확인된다. 이러한 형태적 비대칭은 김해 대성동 91호분과 대성동 1호분, 울산 하대 43호, 울산 하삼동 나지구 115호 등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확인되며, ‘V’자형에서 ‘U’자형으로 변화되는 과도기 때 나타난다. 따라서 노지 3호분(老司 3號墳) 출토품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V’자형에서 ‘U’자형으로 변화되는 과도기 때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출토되는 것 중 울산 하대 43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것을 제외하고, 4세기 중엽부터 늦으면 5세기 중엽까지 폭넓게 확인된다. 그렇지만 크기나 인부 및 이부의 너비로 본다면, 김해 대성동 91호분과 1호분의 중간적 위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당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고구려의 남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일본열도에서는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다. 즉, 스에키, 마구, 무기, 무구 등의 전쟁과 권세에 관한 도구, 새로운 단야와 금공 기술, 농경과 토목공사에 관련된 도구의 출현이 그것이다(龜田修一 2011: 126).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일본열도로 이러한 문물이 전해져 일본열도의 기술은 크게 변화하였다. 또한, 말의 사육과 새로운 취사 시설인 부뚜막도 전해져 생활 문화도 크게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U’자형의 쇄삽날 역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을 가진 사람의 이동이 없다면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단순한 물건의 이동만으로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를 방증해주는 것이 바로 고훈시대 중기 중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U’자형의 쇄삽날이라고 생각한다.

고훈시대 중기 이전부터 한반도와의 교류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그 결과의 물적 증거가 되는 것이 철제 농구 중 하나인 쇄스랑이다(이상원 2023: 29~31). 쇄스랑은 고훈시대 전기 중반부터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며, 그 대표적 고분이 오사카 시킨잔 고분(大阪 紫金山古墳)이다. 이 고분에서는 통형동기를 비롯하여 단갑(短甲), 작살,

유견철부, 단조철부 등 한반도와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유견철부와 단조철부는 공부가 밀착하고 단점이라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阪口英毅 2007: 38~40). 이외의 철제 농구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인검과 방형판 쇠삽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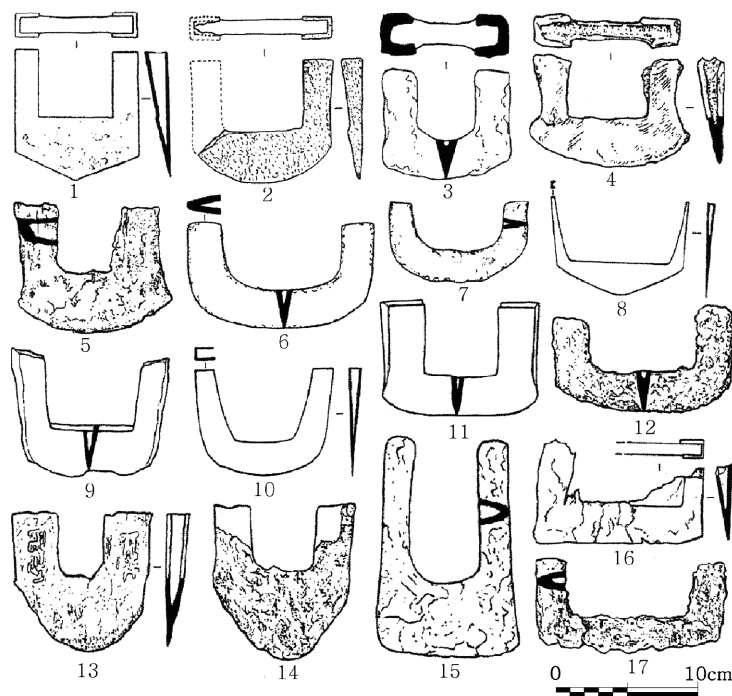
철검은 기부의 끝만 살짝 접어 사용한 직인검이고, 방형판 쇠삽날도 철판의 양쪽 끝을 접어 사용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직인검과 방형판 쇠삽날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확인되는 곡인검과 ‘U’자형 쇠삽날과 형태적으로 다른 일본열도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한 열도 고유의 것이다(都出比呂志 1967: 46; 河野正訓 2014: 16~22).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U’자형의 쇠삽날을 검토하면서, 울산 하대유적과 포항 옥성리고분군에서 주목한 것이 ‘U’자형 쇠삽날과 쇠스랑의 공반 관계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반 관계는 김해 양동리고분군에서도 확인된다. 오사카 시킨잔고분(大阪紫金山古墳)에서 출토된 쇠스랑의 계보 역시 이들 유적에서 구할 수 있다(이상원 2023: 32). 때문에 만약 물질 교류의 일환으로 일본열도로 유입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이미 유입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약 100년이 지난 후에 ‘U’자형의 쇠삽날이 유입되었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오사카 시킨잔고분(大阪紫金山古墳)의 당시 ‘U’자형의 쇠삽날이 유입되지 않은 이유는 방형판의 쇠삽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U’자형 쇠삽날이 고훈시대 중기 전반부터 일본열도로 유입된 이유는 단순한 물질 자원의 이동이 아니라 인적 자원의 이동을 상징하는 물질 증거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열도에서 가장 빠른 시기의 ‘凹’자형 쇠삽날은 후쿠오카 이마미쓰 구2(福岡 今光 溝2) 출토품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는 아직까지 한반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출토되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유사한 형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일본열도에 ‘U’자형의 쇠삽날이 유입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방형판 쇠삽날의 조형(祖形)이 되었던 주조제 쇠삽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부에서 인부로 내려오는 너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선 한계는 있다.

그러나 이마미쓰 구2(今光 溝2)를 모티브로 해서 제작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고훈시대 중기 중반부터 고훈시대 종말기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부에서 인부로 내려오는 너비가 동일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특징은 열도 내에선 주조제 쇠삽날에서 찾아볼 수 있고, 중국에서는 ‘凹’자형 쇠삽날에서 찾아볼



[도면 15] 중국 출토 '凹'자형의 쇠삽날(白雲翔著・佐々木正治譯 2009에서 수정 인용)

1. 藍田鹿原寨 CB 2. 臨潼趙背戸 ZH79C 3. 桑植朱家台 CYT95 4. 広州 漢墓 M1005 5. 洛陽 燒溝 M1002 6. 濰坊後埠下 M15 7. 章丘東平陵故城DPL 8. 成都龍泉驛 M5 9, 11. 修水橫山 BB 10. 龍泉驛 M25 12. 離石馬茂莊 M2 13. 西昌東坪村 DP87C 14. 清鎮漢墓 M10 15. 鞏鼎鉄生溝 TSG 16. 広州 南趙王墓 B 17. 洛陽 燒溝 M45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장수왕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한강 유역 일대와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정복한 이후 조영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서울 아차산 보루와 구의동 보루에서 출토되며, 그 영향으로 경주 사라리 12호와 경주 안계리 12호, 대구 가천동 189호, 성주 성산동 59호 1부곽, 창녕 교동 13호 등 신라 사회로 유입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가장 근접한 것은 장수왕이 이끄는 고구려군의 백제 공격과의 관련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훈시대 중말기에 등장하는 이바라키 호리노우치유타(茨城 堀之内遺跡)에서 출토된 쇠삽날은 고구려의 멸망 이후 일본열도로 이주하여 온 고구려계 유민이 남긴 증거로,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의 인적 자원의 이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다만, 이마미쓰 구2(今光 溝2) 출토품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동시기의 후쿠오카 고데라 6호 토광(福岡 古寺 6號 土壙)에서 출토된 쇠삽날이 있다. 이것

은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평면형태는 ‘U’자형인 노지 3호분(老司 3號墳) 출토품과 ‘凹’자형인 이마미쓰 구2(今光 溝2) 출토품의 중간적 형태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목제 농구의 신부와 맞닿는 구(溝)가 ‘U’자형에 가깝다는 점에선 노지 3호분(老司 3號墳) 이후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부에서 인부로 내려오는 너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凹’자형의 쇠삽날인 이마미쓰 구2(今光 溝2) 출토품과 유사하여 동시기로 파악되는 두 점과는 형태적 차이가 확인되어 시기적인 차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데라 6호 토광(古寺 6號 土壙)의 예로 본다면, 이마미쓰 구2(今光 溝2) 출토품의 제작 방법은 일본열도 내에서 야요이시대부터 확인되는 주조제 쇠삽날을 모방하여 제작하면서 발생한 일본열도의 특징적인 형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갖는 쇠삽날이 후쿠오카 고데라 19호분(福岡 古寺 19號墳), 후쿠오카 호우만오 고분(福岡 宝満尾古墳), 후쿠오카 모토오카·쿠와바라 16-SX92號(福岡 元岡·桑原 16-SX92號), 오이타 에라 12호분(大分 恵良 12號墳), 미야자키 이치노세 5호 횡혈묘(宮崎 市の瀬 5號 横穴墓), 미야자키 오하기 37호 횡혈묘(宮崎 大萩 37號 横穴墓), 나라 세코잔 30호(奈良 石光山 30號)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단야 및 제철 기술의 발전이다. 단야 기술은 고훈시대 중기 이후에 일본열도로 유입되어 규슈부터 간토까지 전파된 상황으로, 단야구의 분포로 짐작해 볼 수 있다(村上恭通 1998: 126~127). 이로 보면, 5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성행을 맞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으로 ‘U’자형 쇠삽날의 제작도 현지화되어 다양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IV. 맺음말

고대 사회의 농업 발전 과정과 생산력의 증대를 살펴인데,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은 목제 농구의 끝부분에 철로 제작한 날을 끼우게 된 쇠삽날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쇠삽날은 크게 야요이시대 중기 후반부터 주조제 쇠삽날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방형판의 쇠삽날과 고훈시대 중기 전반 한반도 남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U’자형의 쇠삽날로 구분할 수 있다.

방형판의 쇠삽날은 사각형 철판의 양 끝을 접어서 제작한 것으로, 청동제 삽날에

서 주조제 쇠삽날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중국에서 제작된 예가 확인되기 전까지 일본열도에서만 확인되는 고유의 철제 농구로 알려져 왔다. 목제 농구의 양쪽 날 끝부분만 끼워지는 형태여서 농지의 개간에 있어 효율성은 좋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훈시대 중기 전반 한반도 남부지역으로부터 목제 농구의 날 크기에 맞춰 끼워지도록 제작된 'U'자형의 쇠삽날이 일본열도로 전해지면서, 열도에서는 습지 이외의 지역에 대한 경작과 대규모 개발이 전개될 만큼 효율성이 압도적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로 한전(乾田) 중심의 농업에서 수전(水田) 중심의 농업으로 탈바꿈되고, 고훈시대 전기와 중기의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되었다.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쇠삽날은 평면형태에 따라 '凹'자형과 'U'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凹'자형의 쇠삽날은 후쿠오카 이마미쓰 구2(福岡 今光 溝2) 출토품이 대표적이고, 'U'자형의 쇠삽날은 후쿠오카 노지 3호분(福岡 老司 3號墳)과 후쿠오카 고데라 6호 토광(福岡 古寺 6號 土壙) 출토품이 대표적이다. 노지 3호분(老司 3號墳)에서 출토된 것은 'U'자형의 평면형태를 갖지만, 목제 농구의 신부와 맞닿는 구(溝)의 형태가 'U'자형으로 정형화되진 않아 'V'자형에서 'U'자형으로 변화되는 과도기의 형태가 한반도 남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분에 부장되는 시기는 유사할지 몰라도 제작 시기는 고데라 6호 토광(古寺 6號 土壙) 출토품보다 조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고훈시대 중기 전반, 일본열도에서 쇠삽날이 유입된 이후 출토되는 쇠삽날의 제작 모티브가 된 것은 이마미쓰 구2(今光 溝2)와 노지 3호분(老司 3號墳), 고데라 6호 토광(古寺 6號 土壙)에서 출토된 쇠삽날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 동일한 쇠삽날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고 해도 전체 크기 및 인부의 길이 등 세부적인 면에서는 지역에 따라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태적 차이가 확인된다. 대체로 모티브가 되는 쇠삽날을 충실하게 모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출토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쇠삽날도 계속해서 확인된다.

이와 같은 'U'자형의 쇠삽날이 일본열도로 유입된 배경으로, 우선 야요이시대부터 이루어졌던 한반도와의 물적(物的) 교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쇠스랑과 살포를 중심으로 한 철제 농구도 고훈시대 전기부터 일본열도로 유입되어 그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에서는 고훈시대 전기 이전부터 'U'자형의 쇠삽날과

함께 쇠스랑이 출토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쇠스랑만을 선별하여 유입한 흔적이 오사카 시킨잔고분(大阪 紫金山古墳)에서 확인된다. 이 고분에서는 방형판 쇠삽날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U’자형의 쇠삽날은 유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면, 방형판 쇠삽날과 ‘U’자형 쇠삽날의 쓰임이 동일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물적 교류로 일본열도로 유입되었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이미 유입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때문에 ‘U’자형 쇠삽날의 유입을 물적 교류로 이해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볼 때,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광개토왕의 고구려 남정과 관련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이 시기에 맞물려 열도에서는 스에키, 마구, 무기, 무구 등의 전쟁에 관한 도구, 새로운 단야와 금공 기술, 농경과 토목공사에 관련된 도구 등이 전해져 사회적 변화가 크게 확인되기 때문에 ‘U’자형 쇠삽날 역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일본열도로 이주하면서 가지고 온 물적 증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전 농업과 관련하여 시스템이 이입되었다고 한다면, 단순한 물질 자료의 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스템을 이입해 줄 사람들도 함께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방증해 주는 물적 증거가 고훈시대 중기 중반 이후 열도 내에서 계속해서 한반도 남부지역과 유사한 형태의 ‘U’자형 쇠삽날이 출토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고일 2025. 2. 28 | 심사완료일 2025. 5. 26 | 게재확정일 2025. 6. 5

참고문헌

- 國文 -

- 김재홍, 1991, 「新羅 中古期の 村制와 地方社會 構造」, 『韓國史研究』72輯, 한국사연구회.
- _____, 2005, 「樂浪地域의 鳳山 養洞里 5호 埴室墓 출토 'U'자형쇠날」, 『고고학지』14권, 한국고고미술연구소.
- _____, 2016, 「금관가야 고분 축조세력의 생업 환경」, 『금관가야 고분의 축조세력과 대외교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박경신, 2018, 「原三國時代 中部地域과 嶺南地域의 內陸 交易」, 『고고광장』23號, 부산고고학회.
- 이동관, 2013, 「철제농공구와 단야관련유물로 본 한일교섭-규슈지역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영남고고학』66號, 영남고고학회.
- 이상원, 2023, 「고훈시대 쇠스랑의 부장양상 및 성격변화」, 『지역과 역사』53號, 부경역사연구소.
- 이하나, 2013, 「신라 철제농구의 변천과 확산」, 『한국고고학보』86집, 한국고고학회.
- 이현혜, 1991, 「三國時代의 農業技術과 社會發展」, 『韓國上古史學報』8호, 한국상고사학회.

- 日文 -

- 高橋一夫, 1976, 「製鉄遺蹟と鉄製農具」, 『考古学研究』22-3, 考古学会.
- 古瀬清秀, 1991, 「副葬品の種類と編年-4.農工具」, 『古墳時代の研究』8, 雄山閣.
- _____, 2002, 「見て触って知る古墳時代の鐵器生産」, 『研究紀要』, 下関市立考古博物館.
- 亀田修一, 2011, 「考古学からみた日本列島と朝鮮半島の交流-古墳時代の西日本地域を中心に-」, 『専修大学東アジア世界史研究センター年報』第5號.
- 今尾文昭, 1984, 「古墳祭祀の画一性と非画一性-前期古墳の副葬品配列から考える-」, 『橿原考古学研究所論集』第六, 雄山閣.
- 内田眞雄, 2001, 「鉄製農工具」, 『寺戸大塚古墳の研究』1, 前方部副葬品研究編.
- 渡邊芳貴, 2008, 「鉄製農工具から見た古墳祭祀の変容」, 『地域・文化の考古学』, 下條信行先生退任記念論文集.
- 都出比呂志, 1967, 「農具鉄器化の二つの画期」, 『考古学研究』13-3
- _____, 1989, 『日本農耕社會の成立過程』, 岩波書店.
- 柳田康雄, 1980, 「青銅製鋤先」, 『古文化論攷』, 鏡山先生古稀記念論文集刊行会.
- 飯沼二郎, 1973, 「五世紀における農業革命」,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19號, 朝鮮文化社.
- 白木原和美, 1960, 「クワやスキについての研究ノート」, 『歴史評論』118, 歴史科学協議会.
- 白雲翔著・佐々木正治譯, 2009, 『中国古代の鉄器研究』, 同成社.
- 卜部行弘, 1988, 「鉄鍬(鋤)先小考」, 『考古學論集: 網干善教先生華甲記念』, 網干善教先生華甲記念会.
- 北野耕平, 1985, 「古墳時代中期における鉄器の二相-古市古墳群出土遺物を中心として-」, 『三上次男博士喜寿記念論文集』考古編.
- 寺澤知子, 1979, 「鉄製農工具副葬の意義」, 『橿原考古学研究所論集』第四, 雄山閣.
- 杉山秀宏, 2017, 「群馬県内古墳・祭祀跡出土鉄製農工具について: 金井東裏遺跡出土鉄製農工具検討のための基礎作業」, 『群馬県埋蔵文化財調査事業団研究紀要』35, 群馬県埋蔵文化財調査事業団.
- 上原真人, 1997, 「農具の画期としての5世紀」, 『王者の武装-5世紀の金工技術』, 京都大学総合博物館.
- 石貫弘泰, 2021, 「愛媛県内出土のU字形鋤鍬先-製作方法の検討をもとに-」, 『紀要愛媛』, 愛媛県埋蔵文化財センター.
- 松本正信, 1969, 「U字形鍬(鋤)先論」, 『考古学研究』15-4, 考古学会.
- 松井和幸, 1985, 「鉄の鋤・鍬先」, 『弥生時代の研究』5, 道具と技術Ⅰ, 雄山閣.
- _____, 1987, 「日本古代の鐵製鍬先・鋤先について」, 『考古學雜紙』第72卷3号.

- 岩崎卓也, 1985, 「鉄製鍬・鋤先の周辺」, 『日本史の黎明: 八幡一郎先生頌寿記念考古学論集』, 八幡一郎先生頌寿記念考古学論集編集委員会編, 六興出版
- 魚津知克, 2003, 「曲刃鎌とU字形鍬鋤先—農具の画期の再検討—」, 『研究報告』第11集, 帝京大学山梨文化財研究所.
- , 2012, 「鉄製生産用具からみた古墳のはじまり」, 『菟原Ⅱ』森岡秀人さん還暦記念論文集.
- 有光教一, 1967, 「朝鮮半島における鉄製農具の變遷について」, 『末永先生古稀記念古大學論叢』
- 原島礼二, 1968, 『日本古代社会の基礎構造』, 未来社.
- 田中新史, 1994, 「使用具の古墳埋納(上)」, 『古代』第98號, 早稲田大学考古学会.
- , 1995, 「使用具の古墳埋納(下)」, 『古代』第100號, 早稲田大学考古学会.
- 川越哲志, 1993, 『弥生時代の鉄器文化』, 雄山閣.
- 村上恭通, 1998, 『倭人と鉄の考古学』, 青木書店
- 土井義夫, 1971, 「関東地方における住居址出土の鉄製農具について」, 『物質文化』13-3, 考古学民俗学研究.
- 阪口英毅, 2007, 『前期古墳解明の道標-紫金山古墳』シリーズ「遺蹟を学ぶ」081, 新泉社.
- 河野正訓, 2014, 『古墳時代の農具研究』, 雄山閣.
- 黒崎直 1991, 「農具」, 『古墳時代の研究』4, 生産と流通 I, 雄山閣.
- 黒須亜希子, 2021, 「京都府内出土の木製農耕具-弥生時代~古墳時代の鍬鋤類を中心として-」, 『京都市文化財保護課研究紀要』4, 京都市文化市民局 文化芸術都市推進室 文化財保護課.

Inflow And Background Of U-Shaped Iron Shovel Blades In Kofun Period

Lee, Sang-Won(Researcher, Koun Cultural Heritage Institute)

A major turning point in exploring the proces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the increase in productivity in ancient society was the appearance of an iron shovel blade, which was made of iron, at the end of the wooden farming tool. In the Japanese archipelago, the iron shovel blade can be divided into a square plate iron shovel blade made from the middle of the Yayoi period and a U-shaped iron shovel blade introduced from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middle of the Kofun period.

In the early middle of the Kofun period, U-shaped iron shovel blades were introduced to the Japanese archipelago from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ultivation and large-scale development of areas other than wetlands are carried out in the archipelago. As a result, it was transformed from dry field-centered agriculture to paddy field-centered agriculture, and it was used as a reference material to distinguish the period between the early and mid-Kofun period, creating exceptional social changes.

The 𠂔-shaped iron shovel blade is represented by the Imamitsu-groove 2 excavated items in Fukuoka Prefecture, and the U-shaped iron shovel blade is represented by the Noji 3 tomb in Fukuoka Prefecture and the Kodera 6 Tomb of Fukuoka Prefecture excavated items.

The U-shaped iron shovel blade was introduced into the Japanese archipelago due to physical exchanges with the Korean Peninsula that have continued since the Yayoi period. At that time, however, there were many cases of excavation with a U-shaped iron shovel blade and pitchfork, but only the pitchfork was selected and the traces of inflow were found in Osaka Prefecture. It is confirmed at the Sikiinzan tomb. A square plate iron shovel blade was excavated from this tomb, and it seems that the U-shaped iron shovel blade did not flow in.

If physical exchanges had led to an influx into the Japanese archipelago, it would have already flowed into the Japanese archipelago at this time. Therefore, I think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flows from other aspects rather than physical exchanges. In this way, it is noteworthy that the incident was related to King Gwanggaeto's Goguryeo expedition to the south. In conjunction with this period, social changes are greatly confirmed as war-related tools such as suhye, harness, weapons, and armour, new blacksmiths and metalworking techniques, and tools related to agricultural and civil engineering work are delivered from the Japanese archipelago. These changes are difficult to grasp without the movement of human resources. The U-shaped iron shovel blade is also considered to be a physical evidence left by people who immigrated to the Japanese archipelago amid the movement of human resources.

Key words : square plate iron shovel blade, U-shaped iron shovel blade, ㄱ-shaped iron shovel blade, Imamitsu-groove in Fukuoka, Noji Tombs of Fukuoka, Sikiinzan Tomb Of Osaka



731부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의 의미

- 사이다와 맥주를 중심으로 -

Significance of Glass Beverage Bottles Excavated from Unit 731 Sites

- Focusing o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ider and Beer -

김 동 일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I. 머리말

II. 731부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 소개

III. 음료 유리병의 용도와 연대 검토

IV. 생산과 이동 과정

V. 근현대고고학의 역할과 전범 재인식

VI. 맺음말

국문 요약

731부대 유적에서는 다수의 음료 유리병이 출토되었다. 보고된 음료 유리병은 맥주병 6병과 술병 3병이었지만, 분석 결과 맥주병 5병과 와인병 1병, 사이다병 3병임을 확인하였다. 731부대 유적 전 시관에서 추가로 확인한 결과, 미보고된 음료 유리병도 다수 존재하였다. 주목할 점은 필자가 확인한 유리병의 수량은 유적이 폐기된 이후의 조사 자료라는 점이다. 이를 고려할 때, 731부대 활동 당시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이 보급되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어떠한 이유에서 대량의 음료가 보급되었는지와 어떻게 보급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731부대 유적에서 출토된 음료는 주로 사이다와 맥주였고, 이 음료의 생산과 이동에서 특정 인물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 인물은 네즈 가이치로이고, 그는 1920~1930년대부터 사이다를 일본군에게 납품하였으며, 사이다의 보급은 하얼빈에서 특수감옥과 세균실험실이 운영되는 1940년대까지 지속된다. 이 시기는 일본의 국가 총동원령으로 인해 모든 기업이 위축된 시기였다. 그러나 네즈 가문과 대일본맥주주식회사는 사이다 등의 군수보급으로 인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이다 등의 음료가 전범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사이다 등은 기호 음료에 불과하지만, 당시에는 중요 군수품이었다. 네즈 가이치로와 그 가문은 사이다와 맥주 납품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전쟁의 지지자가 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네즈 가이치로가 사망한 이후에도 네즈 가문과 관련 기업이 이어받아서 수행하게 된다.

필자는 네즈 가이치로와 그 가문의 활동을 여러 시점에 걸쳐 분석하였고, 그와 그 가문이 전범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파악하였다. 그들은 일제 국가 총동원령 전과 후 모두 의도적으로 전범 행위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네즈 가이치로는 일본의 패망 이전에 사망하였고, 사이다라는 기호 음료가 중요한 군수품으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전범으로 인식된 적이 없다. 이에 네즈 가이치로와 그 가문에 대한 새로운 전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제어 : 사이다, 731부대, 산업고고학, 산업유산, 근현대고고학, 네즈 가이치로, 네즈미술관, 부국징병보험, 전범

I . 머리말

대중에게 사이다와 콜라는 매우 친숙한 탄산음료이며, 맥주나 와인도 보편적으로 음용하는 주류이다. 콜라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반대로 사이다의 기원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스트라이프나 7UP과 혼동하여 서양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다수이다. 서양에는 일반 대중이 인식하는 사이다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나마 ‘7UP’과 ‘Sprite’가 유사한 제품으로 존재할 뿐이다.

한편, 중국의 ‘설벽(雪碧)’과 ‘칠희(七喜)’가 한국이나 일본의 ‘사이다’와 같은 제품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설벽은 코카콜라 브랜드의 소다 제품이고, ‘Sprite’ 제품이 설벽과 같은 제품이며, 이것은 영어가 중국어로 번역된 것일 뿐이다. 즉, 한국과 일본의 사이다와 중국의 설벽은 다른 제품이다. 이것은 칠희 역시 마찬가지이며, 칠희는 7UP의 중국 생산 제품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사이다’의 경우, 대부분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엄격한 의미의 사이다는 동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한정적으로 인식되는 음료이다. 이것이 스트라이프 등과 구분이 되지 않아서 사이다가 서양에도 존재한다고 착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이다가 근대 중국에서 확인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일본군과 관련된 유적에서 발견되었으며 일본군을 위한 목적으로 중국까지 이동된 사례이다. 다른 출토품인 맥주와 와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두 제품의 표면에는 일본어가 존재하여 중국이나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 음료 유리병의 생산과 이동에 주목하였다. 일본어가 새겨진 맥주와 와인이 근대의 중국으로 이동되는 과정 등을 밝힌다면 이 역시 일제강점기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잊힌 역사를 밝힐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이 연구는 사이다와 맥주, 와인 등의 생산과 이동 과정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과 이동 배경을 통해 일제강점기 알려지지 않은 사회의 단면을 파악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덧붙여, 이 연구는 근현대고고학의 한 연구 사례이며, 기존의 방법을 변형하여 접근하였다. 예를 들면, 개개 유물의 생산연대와 유적의 조성연대가 밝혀졌기에 형식학적 방법 중 형식학적 배열만을 응용하여 사용하였다.¹⁾

1) 근현대를 대상으로 한 고고학 연구는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전 연구(김동일 2020, 2024)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참고 바란다.

Ⅱ. 731부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 소개

731부대 유적은 흑룡강성(黑龍江省) 하얼빈시(哈爾濱市) 평방구(平房區) 신장대가(新疆大街) 47호(號)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731부대의 본부와 세균실험실, 바이러스 실험실, 특수감옥 등이 있었던 곳으로, 여러 차례의 조사를 통해 731부대 유적에 대해 자세히 알려지게 된다.

1987년 5월 23일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 기초적인 탐사가 진행되었고, 2000년 8월 3일부터 같은 해 8월 8일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지만(김동일 2022: 508),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2008년 9월 27일부터 같은 해 10월 17일까지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와 침화 일본군 제731부대 죄증 전시관(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罪證陳列館)의 연구원들이 합동으로 전문적인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김동일 2022: 509). 2014년과 2015년에는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와 동북사범대학(東北師範大學) 역사문화학원(歷史文化學院)이 공동으로 중심복도와 세균실험실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고, 고고학적 조사 성과는 『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舊址細菌實驗室及特設監獄考古發掘報告』라는 발굴조사 보고서(李陳奇 2018)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공개된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음료 유리병이 다수 보고되었다. 세균실험실 3동(2014P731SF3)에서 맥주병 2병, 중심복도(2014P731SFZ)에서 맥주병 1병, 폐기구덩이



[그림 1] 보고된 731부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 사진(李陳奇 2018 수정후 전제)

1-2. 세균실험실 3동 3. 중심복도 4-8. 폐기구덩이 5호(1. 맥주병 2. 술병)

이 5호(2015P731SH5)에서 맥주병 3병과 술병(酒瓶) 3병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그림 1). 술병으로 보고된 사례 1병의 사진은 보고문에서 누락되었다.

맥주병은 갈색인 것과 다갈색인 것, 갈색이지만 약간 투명한 것이 있고, 길이는 28.8cm인 것과 29cm인 것이 있다. 술병은 무색투명한 것과 투명한 녹색인 것이 있고, 길이는 모두 23.4cm이다. 보고된 병은 파손되지 않아서 형태가 온전하게 남아있다(표 1).

[표 1] 보고된 731부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 목록

출토 유적	종류	색깔	높이	명문
세균실험실 3동	맥주	갈색	29cm	'DAINIPPON BREWERY CO LTD'와 'TRADE MARK' 등
	맥주	갈색	29cm	상동(上同)
중심 복도	맥주	다갈색	29cm	'SAKURA BEER'와 'サクラビール' 등
폐기구덩이 5호	맥주	약간 투명, 갈색	28.8cm	'DAINIPPON BREWERY CO LTD'와 'TRADE MARK' 등
	맥주	약간 투명, 갈색	28.8cm	'NIPPON HACHIMITSU JOZO CO'와 'HONEY PORT WINE' 등
	맥주	약간 투명, 갈색	28.8cm	'キリンビール'와 '登録商標' 등
	술병	무색투명	23.4cm	'日本麦酒釀泉株式会社製造'와 'BNK' 등
	술병	무색투명	23.4cm	상동
	술병	투명 녹색	23.4cm	없음

이외 발굴조사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대량의 음료 유리병이 존재한다. 중국의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일부 수량만을 보고하는 사례가 매우 흔하다. 현재 침화 일본군 제731부대 죄증 전시관에 발굴조사 당시 상태로 보존 및 전시된 유구가 존재하고, 그 상황을 살펴보면 더 많은 음료 유리병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실제 출토 자료를 참고하면 731부대 유적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음료 유리병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침화 일본군 제731부대 죄증 전시관에서 필자가 확인한 자료의 정확한 규격 등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보고서의 정보를 참고하여 731부대 유적 출토 전체 음료 유리병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침화 일본군 제731부대 죄증 전시관에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같은 형태의 음료 유리병이 훨씬 더 많이 출토되었음을 고려할 때, 보고된 음료 유리병의 해석을 미보고된 음료 유리병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그림 2] 731부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 사진(침화 일본군 제731부대 죄증 전시관 필자 촬영)

Ⅲ. 음료 유리병의 용도와 연대 검토

731부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에서는 일본어가 확인되므로 일본에서 출토된 음료 유리병을 서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용도와 대략적인 연대를 파악하고자 하며, 동시에 형식학적 배열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종합하여 음료 유리병의 편년을 완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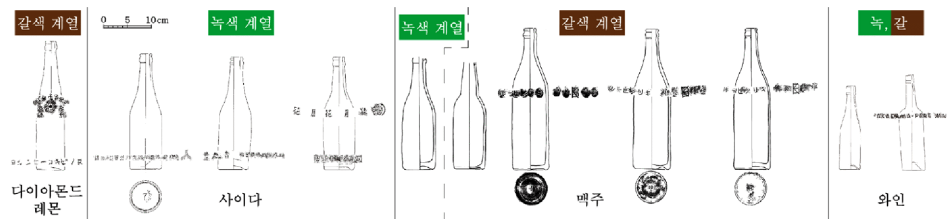
1. 일본 출토 음료 유리병의 소개

일본에서는 가지카자와 하안 유적(鰻澤河岸跡)과 우에다 성터 유적(上田城跡), 나카마치 유적(中町遺跡), 호소야지 유적(細谷地遺跡) 등지에서 근대 사이다(サイダ一)병이 출토되었으며, 공반된 맥주병 등도 함께 분석하였다.

1) 가지카자와 하안 유적

이 유적은 야마나시현(山梨県) 가지카자와정(鰺澤町)의 강변에 위치한다. 유적은 정작과 하천 공사로 교란이 심하다. 음료 유리병이 출토된 곳은 건물과 수로가 존재하였던 곳이다. 사이다병은 7병, 맥주병이 19병, 와인병은 2병, 다이아몬드 레몬(탄산수)병 1병이 출토되었다(山梨県教育委員會・建設省關東地方建設局甲府工事事務所 1998). 온전한 병도 존재하지만, 훼손되어 절반 이하만 남은 병이 다수이다.

사이다병은 녹색 혹은 반투명한 녹색을 띠며, 형태가 온전하게 남은 병을 기준으로 길이는 23.7cm인 것과 24.4cm인 것이 있다. 맥주병은 짙은 갈색을 띠고, 온전하게 남은 병을 기준으로 길이는 29.2cm인 것과 29.3cm인 것, 29.5cm인 것이 있다. 와인병은 반투명한 녹색인 것과 갈색인 것이 있고, 전자는 25cm이며, 후자는 28.8cm이다. 다이아몬드 레몬(탄산수)병은 반투명한 갈색을 띠고, 길이는 27cm이다(그림 3).



[그림 3] 가지카자와 하안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

(山梨県教育委員會・建設省關東地方建設局甲府工事事務所 1998 수정후 전제)

2) 우에다 성터 유적

이 유적은 나가노현(長野県) 우에다시(上田市) 성곽(二の丸)에 위치한다. 유적에서는 사이다병 1병이 지표에서 채집되었다(上田市教育委員會 2010). 사이다병은 무색투명하지만,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하부만 남아있다.

3) 나카마치 유적

이 유적은 미야자키현(宮崎県) 미야코노조시(都城市)에 위치한다. 쓰레기 구덩이에서 사이다병 1병, 맥주병 2병, 와인병 1병이 출토되었다(宮崎県都城市教育委員會 2017).

사이다병은 반투명한 녹색을 띠고, 구연부 일부가 훼손되어 있다. 맥주병은 반투명한 갈색을 띠고, 길이는 29.5cm이다. 와인병은 반투명한 갈색을 띠고, 길이는 28.8cm이다(그림 4).



[그림 4] 나카마치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宮崎県都城市教育委員會 2017 수정후 전제)

4) 호소야지 유적

이 유적은 이와테현(岩手県) 모리오카시(盛岡市)에 위치한다. 쓰레기 구덩이에서 사이다병 9병, 맥주병 15병이 출토되었다(盛岡市教育委員會 2021a, 2021b). 온전한 병도 존재하지만, 훼손되어 절반 이하만 남은 병이 다수이다.

사이다병은 투명하면서 옅은 담녹색인 것과 반투명한 녹색인 것, 무색투명한 것이 있다. 온전하게 남은 병을 기준으로 길이는 22.6cm인 것과 23.4cm인 것, 24cm인 것, 24.5cm인 것이 있다. 맥주병은 반투명한 갈색인 것과 불투명한 갈색인 것이 있고, 형태가 온전하게 남은 병을 기준으로 길이는 17.2cm인 것과 17.3cm인 것, 24.1cm인 것, 28.5cm인 것, 29cm인 것이 있다(그림 5).



[그림 5] 호소야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盛岡市教育委員會 2021a, 2021b 수정후 전제)

2. 용도 과학과 형식학적 배열

앞서 기호 음료가 확인된 일본의 유적은 음료의 소비 지역에서 소비 후 폐기된 쓰레기 구덩이, 즉 폐기 유적이다. 폐기 유적의 유리병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일본 출토 근대 음료 유리병

출토 유적	종류	색깔	높이	명문
가자카자와 하안 유적	사이다	녹색	파손	없음(미츠야 마크)
	사이다	녹색	파손	없음(미츠야 마크)
	사이다	녹색	파손	‘… 鉱泉株 …’ 등(미츠야 마크)
	사이다	녹색	파손	없음(미츠야 마크)
	사이다	반투명 녹색	23.7cm	‘別府礦泉株式會社’와 ‘登録商標’ 등
	사이다	반투명 녹색	23.7cm	‘東京石川日進舎’와 ‘花月’ 등
	사이다	반투명 녹색	24.4cm	‘日本麦酒礦泉株式會社’와 ‘登録商標’ (미츠야 마크)
	다이아몬드 레몬	반투명 갈색	27cm	‘ダイヤモンド印’와 ‘ヌノビキコーセーション’, ‘登録商標’ 등
	맥주	짙은 갈색	29.5cm	‘麒麟ビール’와 ‘登録商標’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麒麟ビール’와 ‘登録商標’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YOKOHAMA(麒麟) KIRIN BREWA …’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없음
	맥주	짙은 갈색	29.2cm	‘麒麟ビール’와 ‘登録商標’ 등
	맥주	짙은 갈색	29.3cm	‘麒麟ビール’와 ‘登録商標’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 KOTOBUKIYA BEER …’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 KABU …’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 KABUTO …’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 ANGLO JA …’와 ‘… COMPA …’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登録商標’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TRADE MA …’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大日本麦酒株式会社釀造’와 ‘登録商標’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大日本麦酒株式会社釀造’와 ‘登録商標’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없음
	맥주	짙은 갈색	파손	없음
	맥주	짙은 갈색	파손	‘DAINIPPON BREWERY CO LTD’ 등
	맥주?	녹색	파손	없음

출토 유적	종류	색깔	높이	명문
가지카자와 하안 유적	와인	반투명 녹색	25cm	없음
	와인	갈색	28.8cm	'AKADAMA PORT WINE' 등
우에다 성터 유적	사이다	무색투명	파손	'金線サイダー' 등
나카마치 유적	사이다	반투명 녹색	파손	'大日本麦酒株式会社製造'와 '登録商標' 등
	맥주	반투명 갈색	파손	'登録商標'와 'KB' 등
	맥주	반투명 갈색	29.5cm	'KABUTO BEER' 등
	맥주	반투명 갈색	29.5cm	'キリンビール'와 'KIRIN BREWERY CO' 등
	와인	반투명 갈색	28.8cm	'KOZAN WINE BEE BRAND'와 'R. KONDO & CO', 'TOKYO' 등
호소야지 유적	사이다	투명 담녹색	22.6cm	'KINSEN'과 '金線飲料株式會社製造' 등
	사이다	투명 담녹색	파손	'BNK'와 '大日本麦酒株式會社製造' 등(별마크)
	사이다	반투명 녹색	파손	'金線 ...' 등
	사이다	투명 담녹색	23.4cm	'大日本麦酒株式會社製造' 등(별마크)
	사이다	무색투명	24cm	'KIRIN BREWERY CO LTD'와 'KB' 등
	사이다	투명 담녹색	22.2cm	'KINSEN'과 '日本麦酒鑛泉株式會社' 등
	사이다	반투명 녹색	24.5cm	'日本麦酒鑛泉株式會社'와 '登録商標' 등(미츠야 마크)
	사이다	투명 담녹색	23.4cm	'日本麦酒鑛泉株式會社'와 '登録商標' 등(미츠야 마크)
	사이다	투명 담녹색	23.4cm	'ASAHI BREWERIES LTD' 등(미츠야 마크, 해방이후의 형태)
	맥주	반투명 갈색	파손	'サクラビール'와 'SAKURA B ...' 등
	맥주	반투명 갈색	파손	'NIPPON BEER KO ...' 등
	맥주	반투명 갈색	파손	'Ball' 등
	맥주	반투명 갈색	파손	'Duraglas' 등
	맥주	반투명 갈색	17.2cm	'NO DEPOSIT NO RETURN'과 'NOT TO BE REFILLED' 등
	맥주	반투명 갈색	17.2cm	'NO DEPOSIT NO RETURN'과 'NOT TO BE REFILLED' 등
	맥주	반투명 갈색	17.2cm	'NO DEPOSIT NO RETURN'과 'NOT TO BE REFILLED', 'Duraglas' 등
	맥주	반투명 갈색	17.2cm	'NO DEPOSIT NO RETURN'과 'NOT TO BE REFILLED', 'Duraglas' 등
	맥주	반투명 갈색	17.3cm	'NO DEPOSIT NO RETURN'과 'NOT TO BE REFILLED' 등
	맥주	반투명 갈색	파손	'DB'와 'TRADE MARK', 'DAINIPPON BREWERY CO LTD' 등
	맥주	반투명 갈색	28.5cm	'DB'와 'TRADE MARK', 'DAINIPPON BREWERY CO LTD' 등
	맥주	반투명 갈색	파손	'キリンビール'와 '登録商標', 'KB' 등
	맥주	불투명 갈색	파손	없음
	맥주	반투명 갈색	29cm	'DB'와 'TRADE MARK', 'DAINIPPON BREWERY CO LTD' 등
	맥주	반투명 갈색	24.1cm	'タカラビール'와 'TAKARA BEER' 등

[표 2]에서 주목할 점은 유리병과 내용물의 관계이다. 근대 일본과 미국에는 특정 목적에서 맞추어 제작된 유리병이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음료 유리병의 사례가 있다.

당시 음료 유리병에는 종이로 된 라벨이 존재하였지만, 발굴조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종이 라벨이 부식되어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대체할 정보의 출처가 유리병에 새겨진 명문이고, 유리병에는 'DAINIPPON BREWERY CO LTD'나 '日本麦酒醸泉株式會社'처럼 특정 회사의 정보가 새겨져 있으며, 이를 통해 대략적인 용도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알코올이 함유된 맥주는 갈색 계열의 유리병을 사용하지만,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는 갈색 계열의 유리병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편적 규칙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규칙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보고된 음료 유리병과 그 용도를 살펴보면 음료 유리병과 내용물이 일치하게 된다. 일본의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도 같은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유리병의 형태와 명문을 통해 내용물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제하에 음료 유리병의 이동이 특정 음료의 이동과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0.1~0.2cm의 차이는 실측할 때마다 발생한 오차로 이해할 수 있다. 가령 호소야지 유적에서는 규격이 17.2cm인 맥주병과 17.3cm인 맥주병이 출토되었다. 실제로는 한 번에 조사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실측 과정에서의 오차이거나, 혹은 생산 과정에서의 작은 불량으로 판단하며, 0.1cm 정도의 차이는 같은 용도의 유리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격적인 재분류에 앞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높이 17.2cm (17.3cm 포함)의 음료 유리병은 미국의 오웬-일리노이스(Owens-Illinois)사에서 1940년대에 제작한 맥주병이므로, 일본 맥주와의 비교에서 분리해야 한다. 바닥에 새겨진 '듀라글라스(Duraglas)'는 오웬-일리노이스사에서 개발한 특정 유리병의 상표명(trade name)이다. 즉, 듀라글라스 자체가 미국산임을 반영한다. 듀라글라스 상표를 사용하는 갈색 유리병은 미국과 유럽에서 맥주의 전용 유리병으로 사용되었고, 1940년대의 규격이 17.2cm 전후였다.

둘째, 1944년 일본이 과세를 위해 '대병(大瓶)'의 용량을 633ml로 통일하고, '소병(小瓶)'의 용량을 334ml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1957년에는 다카라주조(寶酒造)가 '중병(中瓶)'을 만들었다. 1944년 이전까지는 기업마다 사용하는 음료 유리병의 규격이 존재하였지만, 맥주는 대체로 대병 용량의 규격과 비슷하였다. 즉, 일본의 패망

직전(1944년 기준)의 자료를 비교할 때, 맥주의 소병과 중병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지카자와 하안 유적 출토 맥주 중에는 파손되어 일부만 출토된 맥주병이 있는데, 이 병은 보고자도 ‘물음표’로 의문을 제기하였으므로, 근거가 불확실한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731부대 유적 출토 자료를 포함하여 음료 유리병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면 [표 3] 및 [표 4]와 같다. 사이다병과 술병은 모두 크기가 25cm 미만이고, 색깔은 무색계열이거나 녹색계열이다. 반면, 맥주병의 색깔은 모두 갈색계열이고, 일본의 맥주병 크기는 25cm 이상이며, 미국의 맥주병 크기는 25cm 미만이다. 실제로 미국 맥주병의 경우, 17.2cm를 전후한 크기만이 출토되었다.

[표 3] 규격에 따른 구분

	25cm 미만	25cm 이상
일본 맥주병		○
미국 맥주병	○	
술병	○	
사이다병	○	
다이아몬드 레몬병		○
와인병		○

[표 4] 색깔에 따른 구분

	무색 계열	녹색 계열	갈색 계열
일본 맥주병			○
미국 맥주병			○
술병	○	○	
사이다병	○	○	
다이아몬드 레몬병			○
와인병		○	○

일본의 패망 직전인 1944년까지만을 상기의 기준으로 정리하면, 사이다와 맥주 등의 유리병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사이다병은 25cm 미만의 녹색 및 무색계열 유리병이고, 일본의 맥주병은 25cm 이상의 갈색계열 유리병이며, 미국의 맥주병은 17.2cm 전후의 갈색계열 유리병이다. 다이아몬드 레몬병은 25cm 이상의 갈색계열 유리병이므로, 일본 맥주병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명문을 참고해야 한다. 와인병은 대체로 25cm 이상이고 갈색계열 유리병이다.

이를 바탕으로 731부대 유적 폐기구덩이 5호에서 출토된 ‘술병’이 어떠한 음료인지 파악할 수 있다. 유리병은 무색이면서 투명한 것과 약간 녹색을 띠면서 투명한 것이 있고, 크기는 23.4cm이며 제조 회사에 대한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근대 일본에서 생산된 사이다병의 특징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731부대 유적 출토 술병은 일본에서 생산된 사이다병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폐기구덩이 5호에서 출토된 맥주병 역시 재분류할 수 있다. 유리병을 살펴보면, 형태와 색깔은 다른 맥주병과 일치하지만 ‘HONEY PORT WINE’이라는 명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병과 가지카자와 하안 유적 출토 와인병의 크기와 색깔이 일치한다. 가지카자와 하안 유적 출토 와인병에는 ‘AKADAMA PORT WINE’으로 새겨져 있고, 이 때문에 근대 일본에서 생산된 와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폐기구덩이 5호 출토 맥주병 중 ‘HONEY PORT WINE’라고 새겨져 있는 것은 맥주병이 아니라 근대 일본에서 생산된 와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덧붙여, 가지카자와 하안 유적에서 보고자가 ‘맥주병?’으로 보고한 병은 필자의 분류를 참고할 때, 사이다병임을 알 수 있다. 해당 병은 색깔이 맥주와 달리 녹색이다. 극히 일부만 파손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규격과 몇 mm 정도로 극히 적은 수치의 차이만 날 가능성이 높다. 이 병은 잔존 높이가 약 23.5cm이고, 그렇다면 맥주가 아니라 사이다라고 인식해야 한다. 즉, ‘맥주병?’으로 보고된 것을 형식학적 배열을 통해 ‘사이다’로 재분류하였다.

3. 편년

일본은 1944년에 과세를 위하여 주류 유리병 규격을 변경하였다. 이 때문에 731부대 유적에서 출토된 유리병은 대체로 1930~1940년대에 일본에서 생산된 유리병과 같은 형태이며, 1944년 이후에 생산된 유리병의 규격은 극히 일부라고 판단한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의 유적인 가지카자와 하안 유적과 나카마치 유적, 호소야지 유적 등지에서 731부대 유적 출토 유리병과 같은 형태의 유리병이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호소야지 유적 발굴 보고자는 출토된 맥주 유리병 중 색깔이 반투명한 갈색을 띠면서 높이가 29cm인 것을 1906년부터 1949년 사이에 생산된 형태로 추정하였으며, 색깔이 반투명하면서 갈색을 띠고 높이가 28.5cm인 것은 1920년대 중반부터 1949년까지 생산된 형태로 추정하였다(盛岡市教育委員會 2021a, 2021b).

이외 사쿠라 맥주를 참고할 수 있다. 사쿠라 맥주는 1943년 11월에 대일본맥주에 소속되면서 상표 자체가 바뀌게 된다. 이 때문에 731부대 유적에서 출토된 사쿠라 맥주는 1943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것이다.

당시에 이미 선박과 기차 등 근대적인 운송수단이 사용된 시점이고, 음료 유리병의 성격 자체가 정기적이며 빠른 이동이 필요한 군수품이므로, 경사편년은 거의 무의미하다. 일본 내에서 하얼빈 731부대 세균실험실까지의 이동 시간은 최대한으로 설정하여도 1년을 넘지 못하고, 대체로 몇 개월 이내로 추측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사쿠라 맥주의 731부대 유입 시점을 고려하면 1940년부터 1944년 초까지로 한정된다.

부대의 존속 시점으로도 상한연대와 하한연대를 파악할 수 있다. 상한연대는 1940년이다. 관동군 방역급수부 본부(關東軍防疫給水部本部)가 하얼빈시에 건설된 것은 1940년이므로 이 시점 이후가 되어서야 731부대로 보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한연대는 1945년이다. 1945년 8월 14일 일본은 연합국에 항복을 전달하였고, 다음날 대중에게 항복을 발표하였다. 731부대는 이 시기에 하얼빈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유적 자체가 폐기된다. 그러므로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육의 하한연대를 1945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731부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의 연대는 1940년부터 1945년까지이다. 필자의 이전 연구에 의하면, 731부대가 일본으로 귀환할 당시 실험에 사용한 건물의 의도적인 폐기 시도가 있었다(김동일 2022). 현재는 폐기 시점까지 남은 것만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731부대 활동 당시에는 훨씬 더 많은 수량의 음료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다와 맥주 등은 731부대가 등장한 이후, 단발적으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출토된 음료 유리병의 연대를 1940년부터 1945년 사이의 특정 시점에 한정할 수 없고, 이 시기 전체를 유적의 연대로 판단해야 한다.

Ⅳ. 생산과 이동 과정

1. 생산 배경 검토

1) 사이다와 맥주의 등장

국내의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일본의 사이다 연구자에게는 사이다가 본래 중세 유럽의 사과 음료를 지칭한 것이었고,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도 있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지식이다. 지금도 유럽에서 ‘cider’은 알코올이 함유된 사과술을 지칭하고, 원재료로 인해 갈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 간혹 무알코올인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다.

탄산이 들어간 ‘cider’은 근대에 일본으로 유입된다. 1853년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이자 일본 특파 대사였던 페리(Matthew Calbraith Perry) 제독이 처음으로 일본에 들여놓았다는 설도 있지만 확인이 어렵다. 1860년대 영국 선원들에 의한 cider의 반입은 비교적 명확하다. 나가사키에서는 이 시기부터 외국인들에 의해 ‘cider’이 자체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다.

1875년 cider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팔고 있던 영국인 소유의 약품상에는 니시 무라 진사쿠(西村甚作)라는 일본인 직원이 있었다. 그는 cider과 관련하여 아키토모 미노스케(秋元巳之助)에게 여러 조언을 하였고, 이후 아키토모 미노스케에 의해 ‘히노데츠루(日の出鶴)’가 완성되며 이것이 한국과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사이다의 시초이다.

히노데츠루는 1899년에 ‘금선사이다(金線サイダー)’로 개칭하면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가타가나로 만들어진 ‘サイダー(사이다)’라는 용어가 제시된다. 이때, 현재 사이다의 병뚜껑과 같은 형태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일본에서는 이것을 ‘왕관(王冠)’ 병뚜껑이라고 지칭하였다.²⁾ 반면, 뚜껑의 구조를 달리하여 내부에 구슬이 들어간 병은 ‘라무네(ラムネ)’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이다와 라무네는 병의 형태에 따라 다른 음료가 되었다.

어찌 되었든 1900년대 초반부터는 ‘미츠야 사이다(三ツ矢サイダー)’ 등 다양한 사이다가 제작 및 유통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이다는 더 이상 사과와 관련이 없고 레몬이 첨가되었으며, 알코올이 아닌 탄산수만을 사용하여 현재 대중이 알고 있는 무색의 탄산음료가 되었다. 또한, 탄산은 천연 탄산수(鑛泉水)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サイダー’는 ‘cider’의 일본식 영어 발음(Japlish)이다. 즉, 한국에서 유통되는 사이다는 영미권의 ‘cider’이 아니고, 일본의 ‘サイダー’이다.

맥주는 사이다에 비해 훨씬 일찍부터 지구상에 등장한다. 맥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2) 왕관 병뚜껑은 1892년 미국의 윌리엄 페인터(William Painter)와 그의 아내(Harriet Deacon Painter)가 제작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Crown cap’이다.

고대 이집트설이나 이란설 등 몇몇 가설이 있으며, 대체로 기원전에 등장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후 맥주는 유럽으로 퍼져 나가고, 홉(hop)을 첨가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다가 19세기가 되면 현대적인 맥주에 가까워지게 된다.

일본 내 맥주의 등장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은 19세기 이전부터 맥주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일본 내 최초의 공장이 1876년 9월 삿포로 시내에 설립되었다는 주장을 참고할 때(立石勝規 2009: 114), 실제로 일본 내에서 제작되기 시작한 시점은 19세기 후반부터이다.

근대 일본의 맥주는 카와모토 코우민(川本幸民)에 의해 제작이 시도된 이후, 미국인 윌리엄 코플랜드(William Copeland)와 독일계 미국인 에밀 비간토(Emil Wiegand)에 의해 일본의 맥주 회사가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그 뒤를 이어 다양한 맥주 회사가 생겨나면서 근대 일본에 맥주가 자리잡게 된다.

어찌 되었든 20세기로 넘어가기 전까지 일본 내 양상을 살펴보면, 외국인에 의해 맥주 회사들이 설립되다가 점차 일본인의 주도로 맥주 회사가 설립되어 다양한 맥주 회사가 등장하게 된다.

2) 사이다와 맥주의 생산 배경 검토

근대 일본의 사이다와 맥주 생산에 있어서 주목할 곳은 대일본맥주주식회사(大日本麦酒株式会社)이다. 이 회사는 맥주 회사로 표기되어 있지만, 맥주뿐만 아니라 사이다까지 생산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도 유명한 아사히 맥주(アサヒビール, ASAHI)와 삿포로 맥주(サッポロビール, SAPPORO), 에비스 맥주(エビスビール, YEBISU) 등이 대일본맥주주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다가 독립하였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출범하였지만 이후 대일본맥주주식회사에 소속되었다가 다시 독립하여 출범한 맥주 상표들이다.

이외 사쿠라 맥주(サクラビール)가 대일본맥주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731부대 유적에서 출토된 유리병에 ‘SAKURA BEER’라고 새겨진 글자는 일본의 사쿠라 맥주를 의미한다. 즉, 731부대 유적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사이다와 맥주는 대일본맥주주식회사와 연관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일본맥주주식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일본맥주주식회사의 배경에는 네즈 가이치로(根津 嘉一郎)가 있다. 네즈 가이치로가 경영하던 가부토맥주주식회사(加富登麥酒株式會社)는 1921년에 제국광천주식회사(帝國鑛泉株式會社)와 합병이 이루어진다(矢倉伸太郎·生島芳郎 1986: 86).

타테이시 카츠노리에 의하면, 네즈 카이치로가 제국광천주식회사를 합병한 이유가 미츠야(三ツ矢) 사이다를 손에 넣기 위해서였다(立石勝規 2009: 121).

네즈 가이치로는 두 회사가 합쳐져서 탄생한 일본맥주광천주식회사(日本麥酒鑛泉株式會社)의 사장이 되고, 19세기부터 생산하였던 미츠야 사이다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타테이시 카츠노리에 의하면, 1926년에 청량음료세가 생기면서 고급품이었던 사이다는 일본군의 함대로 판매되어 중국 등지로 이동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立石勝規 2009: 136~137). 또한, 사이다의 제작자와 도매점, 소매점의 이익은 약 60%이지만, 제작지에서 일본군으로 바로 납품되면 이익이 제로에 가깝다고 하였다(立石勝規 2009: 137). 정황을 종합하면, 미츠야 사이다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일본군에 납품되었고, 늦어도 1920년대에는 중국까지 이동하게 된다.

1933년에는 일본맥주광천주식회사가 대일본맥주주식회사에 합병되면서 사이다 등의 일본군 납품은 대일본맥주주식회사가 이어간다. 이때, 네즈 가이치로는 대일본맥주주식회사를 떠나게 된다. 그러나 1934년 7월 29일에 네즈 가문의 후계자였던 네즈 케이키치(根津 啓吉)가 대일본맥주주식회사의 감사(이사)로 임명되면서(濱田徳太朗 1936), 네즈 가문의 영향력이 계속 이어진다. 즉, 네즈 가이치로가 떠나면서 네즈 가문이 대일본맥주주식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거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네즈 가문의 영향력을 거두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네즈 케이키치는 네즈 가이치로의 형인 네즈 카즈히데(根津 一秀)의 장녀와 1903년 결혼하여 데릴사위가 되었고, 1905년에 네즈 가문에서 가장의 권리를 획득하였다(名古屋大學大學院法學研究科 2025년 4월 12일 접속). 실제로 네즈 케이키치는 1932년부터 1935년까지 네즈 가이치로의 저택(現 네즈미술관)을 정비하기도 하였다(山梨市 2025년 4월 12일 접속). 어찌 되었든 네즈 케이키치가 대일본맥주주식회사의 이사로 임명되면서 군수품인 사이다와 맥주의 생산에 네즈 가문이 계속 관여하였다. 무엇보다 대일본맥주주식회사는 전쟁 특수를 통한 이득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본군이 선호한 두 종의 음료를 납품하였다.

타테이시 카츠노리는 일제 국가 총동원령이 이루어지던 1938년 5월 당시 일본 육군 군매점 최고 책임자인 마루키 쇼조(丸木彰造)의 발언을 설명하였다. 그 내용은 청량음료가 일본의 육군에서는 ‘군수품’이었고, 중국 내 일본인의 일상생활 및 전쟁의 사기 진작의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立石勝規 2009: 138).

이것을 정리하면, 1920~1930년대에 이미 사이다는 중요 군수품이었고,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군인을 위한 군수품으로 보급되었다. 사이다의 원가에 가까운 납품은 대일본맥주주식회사가 담당하였고, 미츠야 사이다는 일제 국가 총동원령과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이후에도 1940년대 초반까지 최대 생산량 달성을 계속 갱신한다. 이것은 군수품 납품을 통해 네즈 가문과 대일본맥주주식회사가 전쟁 특수를 누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자면, 본래 1920년대 마츠야 사이다와 맥주는 네즈 가이치로가 생산 및 군납을 담당하였고, 1933년부터는 네즈 가이치로를 대신하여 가문의 후계자 네즈 케이키치가 생산과 납품에 관여되었다.

2. 이동 과정 추적

1) 도착 지점 출토품으로 본 출발 지점

앞서 설명하였듯이, 중국 하얼빈의 731부대 유적 출토 사이다와 맥주는 일본산이다. 그 근거는 병의 명문이다. 가령 세균실험실 3동과 폐기구덩이 5호 출토 맥주병에서는 병 상부에 'TRADE MARK'라는 글자가 있고, 병 하부에 'DAINIPPON BREWERY CO LTD'라는 글자가 있으며, 병 저부에 별마크와 숫자가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본의 가지카자와 하안유적과 호소야지 유적 등에서 같은 형태가 발견되었다.

일본군이 중국의 산둥지역 일부를 점령한 후, 칭다오(靑島)맥주 공장은 1916년에 대일본맥주의 외국식 표기 방식에 따라 'DAINIPPON BREWERY'의 공장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DAINIPPON BREWERY CO LTD'로 표기된 맥주는 칭다오에서 731부대로 자체 조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심복도(SFZ)에서 출토 맥주병에서는 병 상부에 벚꽃문양과 '登録商標'라는 글자가 있고, 병 하부에 'SAKURA BEER'와 'サクラビール'라는 글자가 있으며, 병 저부에 알파벳과 숫자가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본의 호소야지 유적에서 같은 형태를 찾을 수 있다. 호소야지 유적 출토품은 하부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단의 형태는 알 수 없지만, 하부와 글자가 일치하고 저부의 글자가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일본산임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사쿠라 맥주가 일본 규슈(九州)에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규슈에서 중국 하얼빈까지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폐기구덩이 5호 출토 사이다병에서는 병 상부에 'BNK'라는 글자가 있고, 병 하부에 '日本麥酒鉦泉株式会社製造'라는 글자가 있다. 이러한 형태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가지카자와 하안유적과 호소야지 유적 등에서도 출토되었다. 일본맥주광천 주식회사가 1933년에 대일본맥주에 합병되기 전까지 일본에서 사이다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였기 때문에, 이 유리병 역시 일본산임을 알 수 있다.

폐기구덩이 5호 출토 맥주병에는 'キリンビール'와 '登録商標'라는 글자가 병 상부와 병 하부에 표기되어 있고, 'KB'를 겹쳐서 만든 마크를 '登録商標' 사이에 새겨놓았다. 이 병은 기린 맥주병으로 일본에서 매우 흔하게 확인된다. 실제로는 가지카자와 하안유적과 호소야지 유적, 나카마치 유적 등에서 같은 형태의 맥주병이 확인된다. 이를 고려할 때, 일본에서 생산된 기린 맥주가 731부대로 이동하였다고 판단한다.

폐기구덩이 5호 출토 와인병에는 병 상부에 'HONEY PORT WINE'라고 적혀 있고, 병 하부 윗줄에 'NIPPON HACHIMITSU'라는 글자와 아랫줄에 'JOZO CO'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적혀 있는 문구로 보아 벌꿀주의 병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PORT WINE'은 포르투갈 와인을 지칭하는 용어이고, 1970년대부터 포르투갈 이외 국가에서 생산된 와인을 포트와인이라 부를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JOZO'이다. 일본어로 '釀造(양조)'를 영어식으로 표기하면 'JOZO'가 된다. 또한, 'HACHIMITSU'는 일본어로 '蜂蜜(봉밀)'을 영어식으로 표기한 것이고, 해석하면 벌꿀이 된다. 이를 종합하면, NIPPON HACHIMITSU JOZO CO는 일본 봉밀(蜂蜜) 양조(釀造) 회사가 된다. 이 일본의 회사가 PORT WINE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제재가 생기기 이전에 만든 벌꿀 와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와인은 일본에서 생산된 와인이다.

무엇보다 사이다는 일본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반도 등 일본 내지가 아닌 곳에서 생산될 때 상표가 다르게 제작되었다. 이 때문에 사이다 자체가 일본에서 생산된 후 중국 하얼빈으로 이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기 자료를 참고할 때, 731부대 유적에서 출토된 맥주병과 사이다병, 와인병은 731부대가 활동할 당시에 일본 현지에서부터 731부대까지 조달된 음료로 이해할 수 있다. 일부는 중국 경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수가 일본에서 생산되는 음료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중국 하얼빈의 731부대로 유입되었다고 판단한다.

2) 군수품 이동 방법1 : 해로의 이용

당시 일본에서 한반도 및 중국으로 건너오기 위해서는 선박이나 비행기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비행기로 이동하기에는 1942년까지의 정기 항공노선에서 하얼빈이 존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당시 전쟁 상황 및 기술 수준의 부족으로 인해 비행기로 대량의 물자를 정기적으로 보급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부터 물자가 건너오기 위해서는 주로 선박을 이용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1933년의 항로도를 참고하면 야마구치현(山口県) 시모노세키(下関)에서 부산과 청진, 나선으로 선박의 운행이 이루어졌다. 1934년에 발행된 만주철도 지도를 참고하면, 함경북도 동북 끝의 나선과 청진에는 일본에서 오는 선박을 위해 항구가 존재하였다(그림 6).

731부대 건물이 완공되기 직전 해인 1939년에는 이미 일본의 시모노세키뿐만 아니라, 하카타와 히로시마, 도야마, 니가타 등지에서도 한반도로 선박이 운행하였다. 그중 부산으로는 시모노세키와 하기, 하카타 간의 항행이 존재하였고, 일본 내 다른 지역에서는 근해를 통과하여 시모노세키 등지로 집결 후 다시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청진으로는 니가타와 시모노세키 등지 간에 항행이 존재하였다. 즉, 1939년까지 부산으로의 항행이 다수 존재하였다.

1944년의 상황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944년에는 일본의 선박 피해가 증가한 시점이다. 이때 필리핀 방어를 위해 부산 및 남해안의 선박이 급감하였다는 견해가 있다(임채성 2015: 175). 그렇다면 1944년부터 일본이 패망한 1945년까지는 선박의 활용보다 기차의 활용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1944년부터는 거리가 가깝고 활용도가 높은 부산으로



[그림 6] 1934년 철도 현황(高木宏之 2010 수정 후 전제)

군수품이 이동한 후, 나선과 청진 등을 거쳐 하얼빈의 731부대까지 군수품이 보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1944년과 1945년에는 선박의 부족으로 인해 노선이 짧은 부산을 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종합하면, 세균실험실이 건설되기 이전부터 일본에서는 주로 부산항을 이용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사정상 부산항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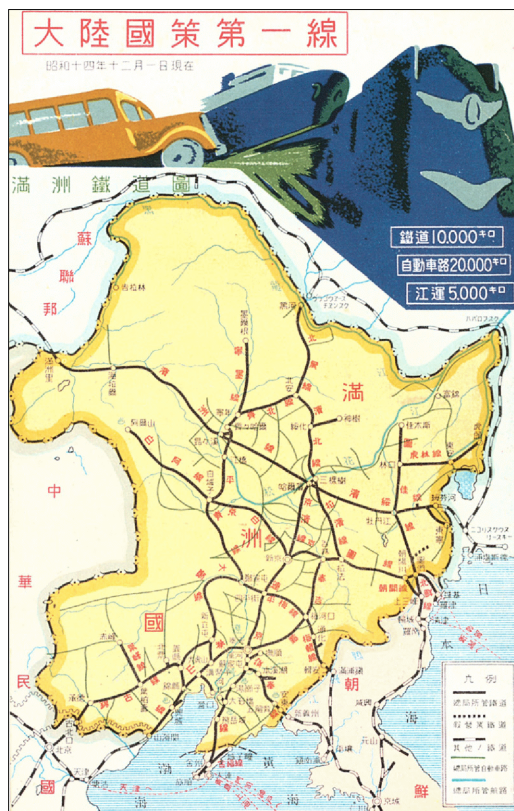
3) 군수품 이동 방법2 : 철도의 이용

이어 실제로 부산에서 하얼빈까지의 군수품 보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앞의 음료 유리병 자료를 참고할 때 분명 일본에서 하얼빈까지 군수품이 이동한 것이 명백하며, 직접적으로는 731부대 유적의 사례가 있다.

당시 일본에서 한반도로 이동한 물자 중 다수가 부산에서 서울(당시 경성)로 이어지는 철도를 이용하였다. 서울에서는 다시 서북한으로 연결되는 철도와 동북한으로 연결되는 철도로 나뉘어진다(그림 7). 이 철도들을 제외하면 대량의 물자가 하얼빈까지 정기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산에서 하얼빈의 731부대까지 기차를 이용하여 군수품 보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정재정의 견해를 참고하면, 그는 한반도의 조선 철도망을 이용하여 중국 동북지역까지 군사수송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는 일본에서 이동한 인력과 군마, 군수품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하였다(정재정 2022: 456~457).

한편, 남만주철도는 1940년부터 관동군과 만주국의 감시하에 계획수송을 실시하였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임채성은 당시 조선과 일본에



[그림 7] 1939년 철도 현황(高木宏之 2010 수정 후 전제)

비해 훨씬 이른 시점부터 군이 직접적으로 개입 및 통제하였을 지적하였다(임채성 2015: 159). 임채성의 견해가 맞건 틀리건 간에 늦어도 1940년에는 관동군과 만주국에 의해 남만주철도의 운용이 통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군의 군수 보급품은 한반도에서 남조선철도를 이용하고, 중국 동북지역에서 남만주철도를 이용하여 보급이 이루어졌다.

3. 731부대로의 군수품 보급 최종 과정

앞의 연구를 통해 일본군의 군수 보급품은 기차를 이용하여 보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731부대로의 군수품 보급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하얼빈으로 통하는 철도는 ‘중동철도(中東鐵路)’라 하여 소련이 20세기 초에 건설한 철도였다. 만주사변 이후, 소련은 일본의 영향이 강하였던 동북지역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1935년에 중동철도를 만주국에 넘겼다. 즉, 1935년부터 하얼빈으로 연결된 철도는 일본의 소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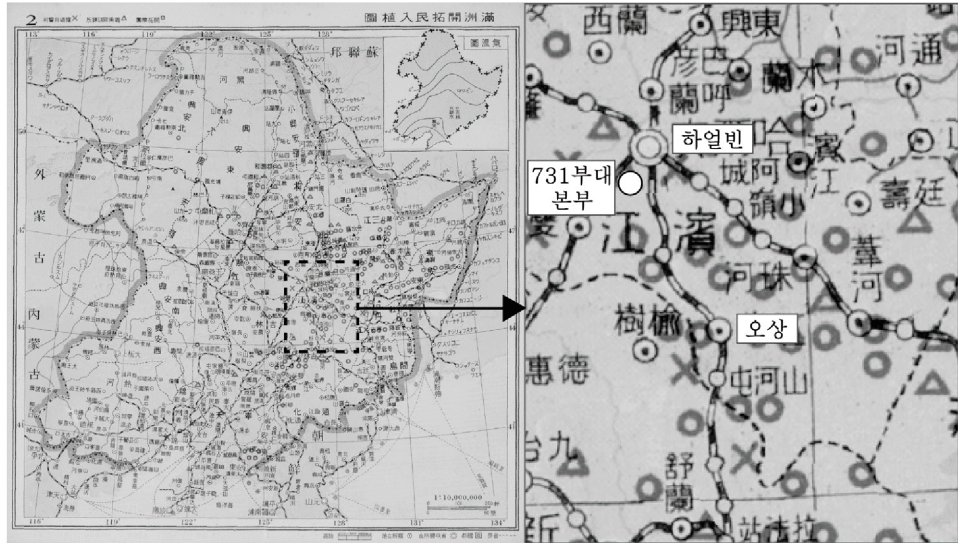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731부대 인근의 철도 상황을 집중하고자 한다. 1933년 하얼빈시 남쪽에 오상(五常)역이 건설되면서 1932년까지와는 다른 루트의 철도가 건설된다. 이 철도는 731부대와 비교적 인접하며, 한반도와 연결되는 주요 철도 중 하나로도 활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철도와 731부대는 직선거리로 4km 가까이 떨어진 상태였다(그림 8). 1934년 731부대와 4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평방(平房)역이 건설된다. 물론, 더 인접한 곳에 여명(黎明)역이 존재하지만 여명역은 1984년에 건설되었기에 731부대와 관계가 없다.

이 문제는 전 731부대 부대원이었던 이시바시 나오카타(石橋 直方)가 1986년에 작성한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옥 일대의 약도를 참고할 수 있다(그림 9). 그가 작성한 약도에는 세균실험실 옆으로 이동하는 철도가 존재하고, 철도에서부터 이어진 이동 경로도 묘사되어 있다. 또한, 본부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세균실험실 입구로 직접 이동하는 트럭도 묘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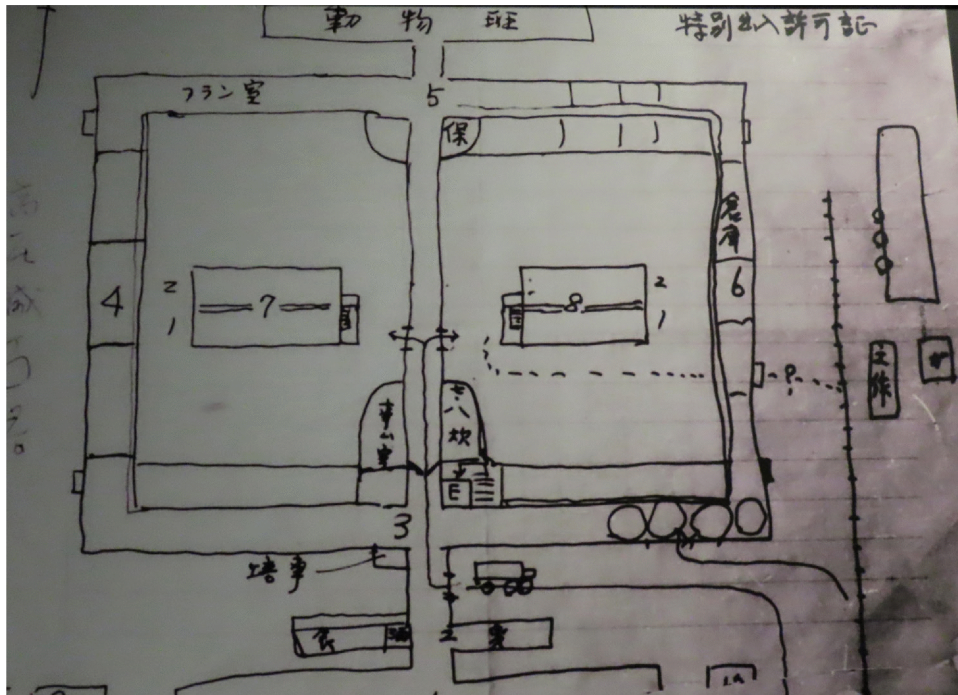
철도는 침화 일본군 제731부대 최종 전시관에서 제작한 모형에서도 잘 드러나며(그림 10: 좌), 현재까지 철도가 일부 보존되어 있으므로 이것 역시 참고할 수 있다(그림 10: 우). 이로 보아, 남만주철도가 731부대 세균실험실까지 직접 이동하여 군

수품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한다.

필자가 확인한 결과, 이 철도의 북쪽은 창고로 연결되고, 남쪽은 현재 일부 철도가



[그림 8] 1940년도 만주개척입식도(植野錄夫 1940 수정 후 전제)



[그림 9] 이시바시 나오키타가 1986년에 작성한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옥 일대 약도
(침화 일본군 제731부대 죄증 전시관 전시판넬 필자 촬영)



[그림 10] 731부대의 철도 현황

(좌: 세균실험실과 철도 배치 모식, 우: 실제 731부대 내 철도 ; 침화 일본군 제731부대 최종 전시관 필자 촬영)

끊겨있지만 평방역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철도는 1930년대 지도(그림 6·7 참조)뿐만 아니라 1940년대 지도(그림 8 참조)에서도 표기되지 않는다. 1942년 일본의 국제지학협회(國際地學協會)가 제작한 『滿洲帝國分省地圖並地名總攬』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군이 숨겨놓은 철도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일본군은 선박을 이용하여 부산으로 군수품을 이동시켰고, 다시 기차를 이용하여 하얼빈까지 보급을 진행하였다. 다만, 731부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철도는 지도에 표기되지 못하였다. 철도가 731부대 바로 옆으로 연결되고, 그 뒤는 창고라는 점을 참고할 때 기차로 비밀리에 군수품 보급이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V. 근현대고고학의 역할과 전범 재인식

1. 전범의 재인식

국가 총동원령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 총동원령 상황에서 민간 기업은 군수품 납품을 거부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반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서 설명한 내용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731부대 군수품 납품은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국

가 총동원령 전후에는 어떠하였는지, 또한 다른 전범 정황이나 증거는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검토를 통해 국가 총동원령 상황에서의 전범 행위가 자발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일제 국가 총동원령 이전의 상황

일본은 1894년의 콜레라 대유행과 1894~1895년의 청일전쟁, 1904~1905년의 러일전쟁 등을 겪으면서 살균력이 강한 사이다를 군수품으로 주목하였다(Asahi 2024년 11월 13일 접속: 5). 러일전쟁이 끝나면서 미츠야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는 살균력 뿐만 아니라, 라무네에 비해 고급품이라는 인식까지 생겼다(秋山久美子 2006: 63). 이러한 인식은 일본의 패망 전까지 유지되었다.³⁾ 즉, 당시 사이다에 대한 인식은 고급 기호 음료이자, 살균력을 통한 안정된 수분 보급이 가능한 음료였다.

사이다에 대한 요구는 일본군으로 이어졌으며, 해군에서 먼저 선호되었지만, 육군으로도 납품이 이루어졌다. 야마구치 카즈오미에 의하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기호 음료의 군수품 납품에 대한 붐이 일었고, 1930년대 맥주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군수 산업이 더욱 호황을 이룬다(山口一臣 2010: 23).

이러한 상황에서 네즈 가이치로는 미츠야 사이다를 손에 넣기 위해 제국광천주식회사를 합병하였다. 그는 1920년대에 이미 군수품 생산으로 회사의 규모를 늘려가고 있었다. 그의 입장에서는 사이다가 군수품으로 납품되는 것이 당장 큰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것에는 기여가 가능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기호 음료의 군수품 납품이 자발적이면서, 동시에 전쟁에 의한 호황을 누리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군수품의 유통은 기차와 철도가 중점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철도와 관련된 정황을 살펴보면,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 일본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는 여러 철도회사가 존재하였다. 그중 1920년대에 설립된 남조선철도⁴⁾에 네즈 가이치로가 창립자로 합류하였고, 이 철도회사는 1936년에 조선총독부에 인수되었다.

대중과 국내 학계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도 존재한다. 부산에서 경성까지 연결되는 철도에서도 네즈 가이치로가 등장한다. 이 철도는 경부철도(京釜鐵道)라 불리었

3) 1940년 사이다의 가격은 18~22센이고, 라무네의 가격은 3~8센이다(東京清涼飲料協會編 1975: 566). 100센(錢)이 1엔(円)이다.

4) 동명의 회사가 존재하므로 인식에 주의가 필요하다.

고, 후에 이 철도 역시 조선총독부가 인수한다. 이 경부철도의 발기인에도 네즈 가이치로가 참여하였다(澁澤榮一傳記資料刊行會 1957: 368). 이 철도는 군수품 보급의 주요 경로로 사용되었다.

중국 동북지역에서도 네즈 가이치로의 이름이 등장한다. 네즈기념관 상설전시실의 설명에 의하면 그가 만주국의 철도에까지 관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總務課廣聽廣報擔當 2008: 2). 또한, 1934년 3월 1일에 만주국 건국공로 훈장(建國功勞章)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문제는 그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국내와 일본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 내 그의 일대기나 인물 소개 자료 등에서는 한반도 및 중국 동북지역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의 확보가 매우 어렵다.

필자는 남만주철도가 민간에서도 운영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남만주철도는 1917년부터 전 노선을 민간에서 운영하였지만, 수익이 충분하지 못하였기에 민간 기업은 곤란한 상황이었고, 결국 1925년에 남만주철도를 조선총독부로 환원한다.

네즈 가이치로는 민간 기업이 모두 힘들어하였던 1924년에 남만주철도의 새로운 노선으로 금북철도(金福鐵道)를 계획하였다(南滿洲鐵道株式會社庶務部調査課 1927: 548). 네즈 가이치로를 중심으로 여러 일본인이 자본을 합친 금북철도공사(金福鐵路公司)가 설립되었으며, 이 기업이 직접 철도를 경영하였다(南滿洲鐵道株式會社庶務部調査課 1927: 548). 이것은 조선총독부의 철도 사업에 힘을 실어준 행위이며,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어지는 물자 운송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일본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네즈 가이치로는 1905년에 동무철도(東武鐵道)의 사장이 되고, 이후 이 기업의 운영은 주로 네즈 가문의 후손들이 맡게 된다(東武鐵道株式會社 2025). 네즈 가이치로가 동무철도의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국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조선인 강제 동원의 정황이 존재한다.

1923년 9월 1일에 관동대지진이 발생한다. 당시 사이타마현(埼玉縣)에는 노다선(野田線)의 건설이 진행 중이었고, 해당 철도는 동무철도가 담당하였다. 다나카 마사타카에 의하면, 9월 4일 노다선 건설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이 수용소로 이동할 때 자경단이 습격하여 조선인 57명을 학살하였다(田中正敬 2014: 24). 이 57명에 대한 학살은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 埼玉 中間報告』에서도 보고된 내용이다(埼玉縣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1998).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동무철도의 노다선 철도 건설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이 존재하였지만, 관련 조선인이 학살당하면서 강제 동원에 대

한 당사자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처럼 네즈 가이치로의 행적을 검토하면, 철도와 관련된 그의 전범 행위가 드러난다.

네즈 가이치로와 관련된 행적은 부국징병보험(富國徵兵保險)⁵⁾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1923년부터 부국징병보험의 사장이 된다(富國生命保險相互會社 1981: 462). 당시 한반도에는 조선생명징병보험 등이 더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부국징병보험은 학계나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여 왔다.

한반도에서는 1933년 1월 1일 경성부 황금정(현재 서울)에 부국징병보험의 경성지부가 정식으로 건설되어(富國生命保險相互會社 1981: 464), 당시 조선인들에 대한 보험 가입이 시작되었다. 이 부국징병보험은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이 깊다.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는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장소이다. 이 신사의 두 번째 도리이(鳥居) 좌우에는 대석등롱(大石燈籠)이 존재한다. 각 대석등롱 아래 8면에는 부조로 그림과 글이 새겨져 있다. 이 대석등롱은 1935년 12월 27일에 네즈 가이치로가 부국징병보험의 대표로 봉헌한 것이다(富國生命保險相互會社 1981: 466).⁶⁾

대석등롱의 부조에서는 일본군과 러일전쟁, 만주사변 장면 등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부국징병보험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네즈 가이치로가 대석등롱을 봉헌한 것이라고 새겨져 있다.

대석등롱의 존재와 부조로 새겨진 그림과 글을 고려하면, 네즈 가이치로와 부국징병보험은 일본군이 중국을 침략하여 발생한 만주사변과 러일전쟁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일본에서 상징적인 야스쿠니 신사에 해당 내용을 새겨서 봉헌한 것으로 보아,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로 보인다.

이의 조선공로자명감(朝鮮功勞者銘鑑)에서도 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阿部 薰 1935). 조선공로자명감은 1910년부터 1935년까지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 및 공헌한 민간 공로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정리한 책으로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책이다. 그는 식민통치에 대한 공로 이외에 러일전쟁과 일독전쟁의 훈장 수여자이기도 하다.

이상의 정황을 종합하면,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이전에 이미 네즈 가이치로와 그

5) 당시 일본에서 징병보험은 연금보험의 일종으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보험에 가입하면 징집 시 보험금을 받는 종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10대 중후반의 젊은 청년을 징병한 후, 사망하면 돈을 주는 종류로 목적 자체가 바뀌었다.

6) 대석등롱의 부조에 1935년 10월 22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10월 22일에 봉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국징병보험의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봉헌된 날짜는 12월 27일이다(富國生命保險相互會社 1981: 466). 10월 22일은 부조를 제작할 당시 계획된 봉헌 날짜로 판단한다.

가 이끌던 기업들이 군수품 납품과 조선인 강제 동원 등 여러 행위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일본의 여러 전쟁에 적극적으로 지지 및 공헌하였다. 네즈 가이치로는 그 보답으로 여러 훈장을 수여 받았다.

2) 일제 국가 총동원령 당시 상황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은 1938년 4월 1일에 공포하여, 1938년 5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것은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까지 그 영향이 확대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앞서 설명한 금복철도가 있으며, 이 금복철도는 1939년에 일본의 총독부에 인수되었다.

기호 음료를 군수품으로 납품한 대일본맥주주식회사는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한다. 다른 기업과 달리 1940년대 초반까지 공장을 뺏기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대일본맥주주식회사가 오랫동안 일본군에게 기호 음료를 군수품으로 납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동아시아 침략을 통해서도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시행 이후의 부국징병보험도 살펴보아야 한다. 1940년 1월 부국징병보험의 사장이었던 네즈 가이치로가 사망하면서(富國生命保險相互會社 1981: 470), 네즈 가문과 한반도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네즈 가이치로의 장남이었던 네즈 후지타로(根津 藤太郎)가 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부국징병보험 등 다수의 사업을 승계한다(東武鐵道株式會社 2025: 21, 富國生命保險相互會社 1981: 470). 철도는 직접적으로 운영하였고, 부국징병보험은 가이치로 사망 한 달 뒤에 이사로 임명되어 가문의 사업을 이어간다. 심지어 후지타로는 아버지의 이름과 같은 가이치로(嘉一郎)로 개명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문의 사업을 이어갔다.

부국징병보험은 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어 갔던 1943년 1월에는 평양과 부산에 지부를 건설하였고, 두 달 뒤 일본이 이에 맞추어 병역법을 개정하여 조선인에 대한 징병을 실시하였다(富國生命保險相互會社 1981: 472). 같은 해 4월, 부국징병보험에서는 정식으로 조선인에 대한 징병보험을 개시한다(富國生命保險相互會社 1981: 472).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징병보험을 정식으로 운영한 것일 뿐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국징병보험의 여러 보험은 1933년에 경성지부가 설립되면 이미 조선인을 대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富國生命保險相互會社 1981: 464).

한반도의 징병보험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강제적이었으며 보험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이 사업 역시 네즈 가이치로가 일으켰으며,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이전부터 한반도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되었다. 그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의 아들이 사업을 승계하여 이어갔기 때문에 네즈 가이치로를 중심으로 네즈 가문 자체가 전범 행위와 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네즈 가이치로의 다른 행적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임업개발주식회사(朝鮮林業開發株式會社)는 1937년에 설립된 후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시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기업이다. 네즈 가이치로는 이 기업의 설립위원이었다(根津翁傳記編纂會 1961: 486). 강정원의 주장을 참고하면, 이 기업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한 기업이다(강정원 2018).

또한,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에 대응하기 위한 조선총독부 자문 회의 기구로 총독부 직속 기관인 시국대책조사회(時局對策調査會)가 존재하였으며, 이 기관은 총독의 자문을 맡아왔다. 네즈 가이치로는 이 기관의 위원이었다.

이상의 정황을 종합하면, 네즈 가이치로는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시기에도 전범 행위를 하였고, 그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의 가문 사람들이 그의 사업을 이어갔다.

3) 일제 국가 총동원령 이후의 상황

1945년 8월 14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다음 날인 8월 15일에 종전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자체는 1946년 4월 1일에 완전히 폐지된다. 일본은 패망 이후 1952년 4월 28일까지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의해 점령된 상태로 존재한다.

부국징병보험은 일본 패망 후에 부국생명보험으로 이름을 바꾼다. 1945년 9월, 일본에 연합국이 들어서면서 야스쿠니 신사는 유취관(遊就館)의 소유권을 빼앗긴다. 이때 부국생명보험이 연합국으로부터 소유권을 받아서 건물을 사용하다가, 1980년 야스쿠니 신사 창립 130주년 기념으로 전시관이 되면서 유취관을 야스쿠니 신사에 돌려준다(靖國神社 2025년 4월 19일 접속). 이것은 부국징병보험이 야스쿠니 신사를 비롯하여, 전범 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덧붙여, 1935년 부국징병보험 당시에 야스쿠니 신사에 봉헌된 대석등롱과 부조는

일본의 패전 이후에도 보존 및 보호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큰 훼손 없이 야스쿠니 신사의 한 곳을 장식하고 있다.

이상의 정황을 종합하면,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이후에는 네즈 가이치로가 사망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네즈 가이치로의 가문과 기업이 그의 뜻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잊힌 전범, 네즈 가이치로

앞 절에서 정리하였듯이, 네즈 가이치로는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이전부터 의도적이며 적극적으로 군수품 납품에 참여하였다. 또한, 철도 등 유통에도 관여되어 있고, 강제 동원 등에도 관련되어 있다. 특히, 그와 그의 가문이 운영한 부국징병보험은 전쟁의 적극적인 옹호자였다. 다시 말해, 네즈 가이치로와 그 관계자, 관계 기업은 전범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당사자가 일본의 패망 이후에 인식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당사자는 네즈 가이치로이고(그림 11), 그는 일본의 패망 전인 1940년에 사망하였다. 그가 패망 이전에 사망하면서 그의 행적과 그의 회사들은 주목받지 않게 되었다.

네즈 가이치로가 사망하면서 핵심적인 줄기가 사라졌고, 전범 재판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생산된 네즈 가이치로의 자료에서는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실제 관련 자료는 모두 파편화되어 곳곳에 흩어졌고, 대부분 비매품 자료이거나, 너무 오래된 자료이기에 확보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네즈 가이치로는 전범에 대한 논의도 없이 일본의 기업가, 혹은 철도왕으로만 알려지게 된다.

둘째는 기호 음료를 중요한 요소로 여기기 어렵다는 점이다. 당시의 연구와 관련하여 강제 동원이나 강제 징용, 무기 생산 등 더 중요한 문제가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러한 문제들이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기호 음료 역시 중요 군수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그림 11] 네즈 가이치로 사진
(根津翁傳記編纂會 1961)

잇힌 문제를 인지하여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731부대 유적 형성 이전에 네즈 가이치로가 대일본맥주주식회사에서 이탈하였기에 731부대 및 전범 행위와 관련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731부대에 납품된 기호 음료는 네즈 가이치로가 그 기반을 닦았다. 사이다의 적극적인 군수품 납품과 생산은 네즈 가이치로가 완성하였고, 납품 방식으로 활용된 한반도에서 중국 동북지역까지 개설된 철도에도 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혹자는 전범 행위를 과거 일본 정부와 군이 주도하였으며 민간 기업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만약 참여하였더라도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변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731부대 유적을 통해 잇힌 전범 행위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 기반에 네즈 가이치로가 있었다. 기업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득을 취하였고, 이것은 분명한 전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네즈 가이치로와 그 가문, 관련 기업에 대한 전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731부대 유적이 발굴되지 않았다면 네즈 가이치로 및 관련 기업의 전범 행위는 인식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731부대 유적이 남아있었고, 해당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여러 유물이 전시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731부대 유적이 있었기에 그 배경에 있는 네즈 가이치로의 존재와 관련 전범 행위를 알 수 있었다.

Ⅵ. 맺음말

이 연구는 731부대 유적에서 출토된 음료 유리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자료를 접하였을 때, ‘731부대 세균실험실에서 왜 맥주병이 출토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731부대에서는 맥주뿐만 아니라 사이다와 와인 등 다양한 기호 음료가 보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기호 음료는 일본에서 생산되었는데, 하얼빈까지 어떻게 이동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생겨났다. 이에 생산 배경과 이동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과 교통 상황을 추적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다와 맥주 등의 기호 음료는 러일전쟁 이후부터 군수품으로 인기가 높았고, 1920년대에 맥주 회사 사장이던 네즈 가이치로가 사이다 회사를 적극적으로 합병하였으며, 그는 1920~1930년대에 호황이었던 군수품 납품에 자발적으로

열중하였다. 네즈 가이치로와 그의 가문은 운송과정에도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외에도 부국징병보험처럼 다양한 행위로 인해 전범가로 판단될 수 있는 정황과 근거들도 드러났다. 물론, 731부대 유적이 조성된 1940년에는 네즈 가이치로가 사망한 해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의 기업과 네즈 가문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여되고 있었다.

혹자는 731부대 유적과 네즈 가이치로의 공존 시기가 1년 미만이므로 너무 과한 추론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분명한 점은 731부대에 납품된 보급품의 생산과 유통 기반 대부분을 네즈 가이치로가 완성하였으며, 그것이 의도적인 이익 행위였다는 점이다.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은 731부대 등장 이전부터 있었고, 네즈 가이치로는 1920년대부터 전쟁 특수를 누렸다. 그는 러일전쟁과 만주사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림과 글을 야스쿠니 신사에 봉헌하기도 하였다. 즉, 네즈 가이치로와 그의 관계자들은 전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처럼 731부대 유적 및 그 출토품처럼 근현대의 물질자료는 전범과 관련하여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관계를 밝히는 유용한 고고학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잊힌 전범가와 전범기업을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나 관련 기록이 파편화되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특정 사건에 대해 한 번에 역사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731부대 유적과 유적 출토품은 역사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고, 역사 연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처럼 잊힌 역사를 조명하는 것 또한 근현대고고학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근현대고고학 중 일본의 산업유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산업고고학에 속하며(김동일 2020, 2024), 동시에 전쟁터와 그곳에서 출토된 물질자료를 다룬다는 점에서 전적지고고학에도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동일 2024). 다만, 일본의 산업화 과정을 바탕으로 전적지에 대한 연구와 그에 관련된 사람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적지고고학에 더 가깝다고 본다. 즉, 산업고고학적인 연구이기도 하지만, 전적지고고학에 더 가까운 연구 사례로 볼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3년 7월 7일에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제1분과에서 발표한 「근현대 사이다의 기원 및 유통과정의 의미」와 2023년 11월 4일 제47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자유패널에서 발표한 「근대 일본의 기호음료 생산 과정 및 유통에 대한 추적 - 사이다와 맥주를 중심으로 -」를 수정 및 보완한 글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高木宏之, 2010, 『寫眞に見る滿洲鐵道』, 潮書房光人社.
- 富國生命保險相互會社, 1981, 『富國生命五十五年史』, 大日本印刷株式會社.
- 根津翁傳記編纂會, 1961, 『根津翁傳』.
- 埼玉縣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查團, 1998,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 埼玉 中間報告』.
- 南滿洲鐵道株式會社庶務部調査課, 1927, 『南滿洲鐵道株式會社二十年略史』, 南滿洲鐵道.
- 東京清涼飲料協會編, 1975, 『日本清涼飲料史』.
- 東武鐵道株式會社, 2025, 『東武鐵道125周年誌』, 株式會社美松堂.
- 濱田德太朗, 1936, 『大日本麥酒株式會社三十年史』.
- 澁澤榮一傳記資料刊行會, 1957, 『澁澤榮一傳記資料』第16卷, 澁澤青淵記念財團龍門社.
- 矢倉伸太郎・生島芳郎, 1986, 『主要企業の系譜圖』, 雄松堂出版.
- 植野錄夫, 1940, 『滿洲開拓民入植圖』, 『ンサイス滿洲國地圖』, 東京地形社.
- 阿部薫, 1935, 『朝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
- 李陳奇, 2018, 『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舊址細菌實驗室及特設監獄考古發掘報告』, 科學出版社.
- 立石勝規, 2009, 『なぜ三ツ矢サイダーは生き残れたのか』, 講談社.
- 정재정, 2022, 『일제의 조선 교통망 지배 - 해운·철도·소운송·도로·항공』, 동북아역사재단.

- 발굴조사 보고서 -

- 宮崎県都城市教育委員會, 2017, 『中町遺跡(第5次調査) - 中心市街地中核施設整備支援事業に伴う埋藏文化財發掘調査報告書』, 都城市文化財調査報告書 第129集.
- 山梨県教育委員會・建設省關東地方建設局甲府工事事務所, 1998, 『鰐澤河岸跡 - 明神白子地區埋藏文化財發掘調査』.
- 上田市教育委員會, 2010, 『上田城跡(上田藩主居館跡)』, 上田市文化財調査報告書 第109集.
- 盛岡市教育委員會, 2021a, 『盛南地區遺跡群發掘調査報告書Ⅲ 一道明地區土地區畫整理事業關連遺跡平成30・令和元年度發掘調査 - 細谷地遺跡』.
- _____, 2021b, 『盛南地區遺跡群發掘調査報告書Ⅳ 一道明地區土地區畫整理事業關連遺跡令和2年度發掘調査 - 細谷地遺跡』.

- 논문 -

- 강정원, 2018, 「일제 전시체제기 朝鮮林業開發株式會社の 설립과 운영」, 『역사문화연구』66,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역사문화연구소.
- 김동일, 2020, 「한국의 산업고고학 연구」, 『영남고고학보』88, 영남고고학회.
- _____, 2022, 「제731부대 유적」의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그 의미, 『동북아역사논총』78,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4, 「한국에서의 근현대고고학 개념 정립과 전망」, 『고고광장』34, 부산고고학회.
- 山口一臣, 2010, 「日本ビール業界への警鐘：麒麟麥酒100年に見る日本ビール業界の課題」, 『成城大學經濟研究』189, 成城大學經濟學會.
- 임채성, 2015, 「전시하 만철의 수송진(1937~1945) - 수송통제와 그 실태 -」, 『동방학지』17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前田廉孝, 2020, 「帝國日本の臺灣・關東州鹽需給と流通主體 - 一九八〇—一九一〇年代を中心に」, 『史學』89-3,

三田史學會.

田中正敬, 2014,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地域における追悼・調査の活動と現状」,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雑誌』669, 法政大學大原社會問題研究所.

總務課廣聴廣報擔當, 2008, 「根津嘉一郎 その生涯と遺したものたち」, 『廣報やまなし』45, 山梨市.

秋山久美子, 2006, 「清涼飲料水の近代史(第2報) 一昭和元年から40年まで一」, 『學苑・近代文化研究所紀要』790, 昭和女子大學.

- 홈페이지 -

名古屋大學大學院法學研究科, 「根津啓吉」, 『日本研究のための歴史情報』, (<https://jahis.law.nagoya-u.ac.jp/who/docs/who8-17099>), 홈페이지 게시 자료, 2025년 4월 12일 접속.

山梨市, 「根津記念館について」, 『根津嘉一郎と根津記念館』, (<https://www.city.yamanashi.yamanashi.jp/site/nezu-kinenkan/2033.html>), 홈페이지 게시 자료, 2025년 4월 12일 접속.

靖國神社, 「遊就館の歴史」, 『靖國神社』, (<https://www.yasukuni.or.jp/yusyukan/>), 홈페이지 게시 자료, 2025년 4월 19일 접속.

Asahi, 「「三ツ矢シャンペンサイダー」の發賣」, 『ブランド史／三ツ矢』, (<https://www.asahiinryo.co.jp/entertainment/asahiinryohistory/mitsuya/>), 홈페이지 게시 자료, 2024년 11월 13일 접속.

Significance of Glass Beverage Bottles Excavated from Unit 731 Sites

- Focusing o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ider and Beer -

Kim, Dong-il(Academic Research Professor, The Institution for Marine and Island Cultures, Mokpo National University)

The excavation of the Unit 731 ruins revealed the involvement of modern Japan in the production of beverage bottles, as Japanese inscriptions were observed on the glass bottles. This author noted the presence of Japanese-produced beverage bottles at the ruins of Japanese military units in China, and the author believes that understanding the production, transportation, and background of these bottles can illuminate the social condition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reported beverage bottles included six beer bottles and two liquor bottles, but the analysis confirmed they were five beer bottles, one wine bottle, and two cider bottles. The overwhelming number of unreported beverage bottles identified at the Unit 731 Exhibition Hall, coupled with the fact that these items were collected after the site's decommissioning, suggests that beverages like these were commonly provided when Unit 731 was active.

The cider excavated from the remains of Unit 731 was supplied as a military provision by Kaichiro Nezu to the Japanese army from the 1920s and 1930s until the 1940s, when the Ad Hoc prison and Biological laboratory operated in Harbin. Despite Japan's general mobilization during this period, which caused most businesses to shrink, the Dainippon Brewery Company, responsible for supplying cider and beer as military provisions, continued to thr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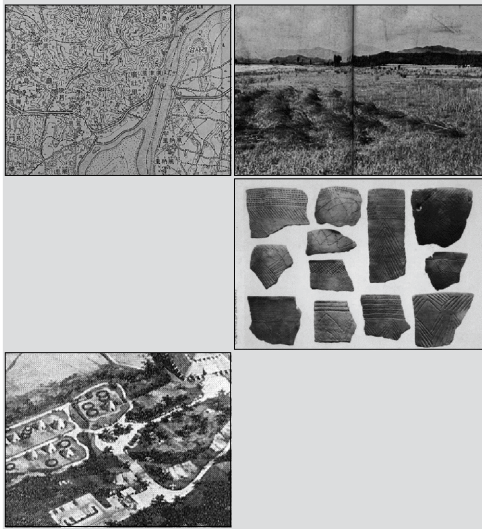
Although it is often claimed that Kaichiro Nezu ceased involvement with the Dainippon Brewery Company in 1933, in reality, this heir to the Nezu family was appoin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ensuring that the Nezu family maintained control over the company.

Kaichiro Nezu's involvement in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ailroad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transportation of military supplies. Furthermore, as president of the Fukoku Chohei Insurance Company, Nezu and his family profited immensely from both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unitions industry, not only during World War II but also before it. Therefore, the enterprises associated with Kaichiro Nezu and his family should be classified as war criminal entities or war criminal companies.

These issues have been excluded from discussions because beverages, although part of military provisions, were not direct wartime weapons, and the Fukoku Chohei Insurance Company was relatively unknown in Korea. Most importantly, Kaichiro Nezu's death shortly before Japan's defeat further limited scrutiny.

With the excavation of Unit 731's remains and the release of archival materials, however, the groundwork has been laid to bring attention to these short-lived war criminal entities and their associated enterprises.

Key words : Cider, Sprite, Unit 731, Industrial Archaeology, Industrial Heritage, Modern and Contemporary Archaeology, Nezu Kaichiro, War Criminal



일제강점기에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근대적 향유의 태동과 변천

- 암사동 선사유적을 중심으로 -

The Beginning and Transition of
Enjoyment of the Neolithic Age
Discovered Japanese colonial era
- Focusing on Prehistoric Sites in Amsa-dong-

김 해 경
전국대학교 조교수

김 선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연구관

I. 서론

II. 일제강점기 암사동 선사 유구의 발견과 향유의 태도

III. 암사동 선사유적의 발굴 과정과 가치 부각

IV. 암사동 유적의 보존과 향유를 위한 기법

V. 결론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암사동 유적의 발견 시기부터 현재까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그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문화유산을 대하는 태도와 향유 과정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암사동 유적은 일제강점기 초기에 조선에 대한 고적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1925년 대수해로 자연 노출된 후 비전문가에 의해 유물이 수습되었고, 조선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의 개괄적 조사가 뒤따랐으나, 대중적 관심을 얻지는 못하였다. 1937년 광진교 개설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1930년대 유행한 하이킹 코스에 암사리 유적이 포함되어 향유 대상으로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때 빗살무늬토기와 수혈 주거지가 선사시대 유적으로 소개되었지만 별다른 보존 조치는 없었다. 해방 후에도 이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으나, 1960년대 암사동 일대 야구장 건립에 따른 구제발굴을 계기로 학술적 가치가 부각되었고, 1979년 사적 지정과 1980년대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보존 기반이 확립되었다. 이후 공원 조성 및 암사 초록길 사업을 통해 생태·역사적 연계성이 강화되었으며,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유적지 보존의 변천을 넘어, 암사동 유적을 둘러싼 향유 양상의 변화와 주변 공간의 재구성 과정을 함께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을축년 대홍수, 암사동 신석기시대, 하이킹, 빗살무늬토기, 암사역사공원

I. 서론

암사동 유적은 한반도 내륙 지역인 서울 한강 변에 위치하며, 대체로 기원전 5천 년에서 4천 년경 형성되기 시작한 신석기시대 초기 단계의 주거지 유적으로 평가된다. 한국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문화의 유적으로서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유구(遺構)의 최초 발견 시기는 일반적으로 1925년 을축년 대수해 당시로 알려져 있다. 해방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성과로 1979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1982년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최근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

문화유산 향유는 기억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공자의 관점과 향유 기법에 따라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특히 식민지적 맥락에서는 감정적 서술이 개입될 여지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암사동 유적의 발견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문화유산 향유라는 관점에서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크게 암사동 유적의 발굴 및 정비에 관한 연구와 문화유산 향유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일제강점기에 수습된 유물인 토기와 석기를 단편적으로 소개하여 암사동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원룡 1962; 김정학 1969).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는 중서부 지역 신석기 문화의 편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한영희 1978). 이후에는 토기 편년(하인수 2003; 양성혁 2007) 제작 기술(이동주 2001; 홍은경 2010) 생계형 석기(이기길 1991; 丙山純藏 2001) 및 골각기 제작기법(윤정국 2015, 2021; 김영준 2022)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주거 공간 분석을 통한 암사동 유적의 특성 규명(정성희 1994; 김장석 2007; 조경철 · 이영한 2021)과 함께, 2010년 이후에는 백제 주거지(홍은경 · 문수균 2008) 및 청동기시대 주거지(김기룡 외 2016)의 존재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2014년부터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연구보고서 발간이 이루어졌다(이화중 · 김기룡 2020; 이화중 2023).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암사동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발굴이라는 행위를 통해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국내에서 문화유산 향유 개념은 1990년대 문화유산 인식 패러다임 변화 속

에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기되었다.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자 중심 문화정책 확대 및 한국적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구견서 1999) 역사유산 향유를 강조하는 ‘옛도시보존법’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었다(남궁승태 1998). 2000년대 들어 문화재 향유권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으며(김수갑 2002), 문화유산은 보호의 대상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에는 문화유산 활용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 전략이 추진되었다(류호철 2014). 궁궐과 종묘 등 구체적 대상의 활용방안 연구도 이어졌다(이창근 2015). 문화유산 향유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향유적 개념을 인식할수록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한 애착과 자발적 노력, 정책 수용성이 증대된다는 결과도 발표되었다(이슬기·금현섭 2016). 과거 문화유산 정책이 원형보존에 집중하였다면, 최근에는 문화유산이 제공하는 ‘문화서비스’ 향유에 주목하는 추세이다. 암사동 유적을 대상으로 한 공원 조성 및 운영 방안 연구(한영희 1999; 지건길 2007)도 이러한 맥락에 속한다. 또한, 최근에는 암사동 유적을 직접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향유 기반 지역재생 기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홍길 2023; 박인규 2020; 정해용 2019). 그러나 하나의 문화유산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가치 확장에 따른 향유 기법 변천을 다룬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암사동 유적의 발굴 및 정비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후, 유적의 미한 변화를 보이는 시기를 구분하고 이를 문화유산 향유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제강점기의 변용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발행 서류를 검토하였으며, 유적지 활용과 인식 변화는 신문 및 잡지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평면 지도와 현황 사진을 활용하여 암사동 유구를 포함한 유적 경관의 시기별 변화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암사동 유적이라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단순히 고고학적 유산으로서 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향유 기법의 변천과 문화적 수용 양상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점에 있다.

Ⅱ. 일제강점기 암사동 선사 유구의 발견과 향유의 태도

1. 조선의 고적조사사업과 암사동 유구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정당화할 이데올로기 구축을 중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고적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고적조사의 구체적 목적은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식민사관의 고고학적 증명을 도모하는 동시에, 식민 지배의 문화적 성격을 부각하는 데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매년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보고서를 간행하였다(이순자 2007). 일제강점기 고고학 조사는 제국대학 소속 관학자, 조선총독부 관료, 유물 수집가 등 아마추어 연구자, 조선인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와 계통에 의해 수행되었다. 고적조사사업은 조사 주체와 방식의 변화에 따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① 1909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1868~1935)의 조사 이전과 이후, ② 1916년 고적조사위원회 설치, ③ 1921년 고적조사와 신설, ④ 1931년 조선고적연구회 설립을 기점으로 한 구분이다(김대환 2017). 세키노 다다시는 조선 고적조사 사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그가 진행한 조사 범위에는 암사동 유적이 포함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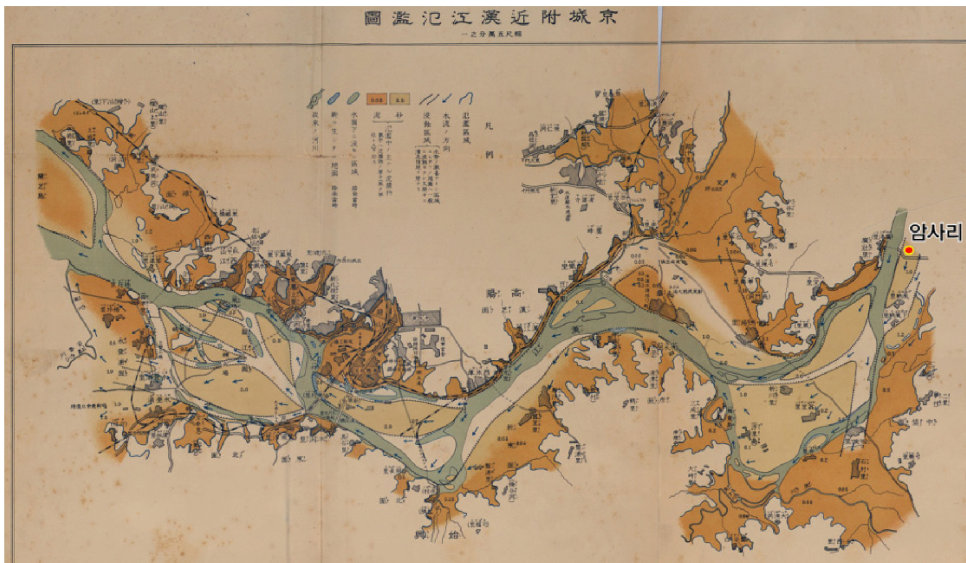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적조사는 1917년에 간행된 『대정5년도 고적조사보고』에서 확인된다. 이 조사는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이자 동경제국대학 사학과에서 조선사를 전공한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가 1916년 9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수행한 것이다. 이마니시 류는 1906년 경주를 처음 방문한 이후, 1907년 김해 패총 발굴, 1909년부터 한반도 각지 및 낙랑 고분 조사를 실시하였다. 1913년에는 동경제대에서 조선사 강의와 고고학 자료실 관리를 담당했으며, 1916년 조교수로 승진하였다. 이후 조선총독부로부터 조선사 편찬 사업을 촉탁받고, 고적조사위원으로 임명되어 『대정5년도 고적조사보고』 및 『대정6년도 고적조사보고』의 일부를 집필하였다. 이마니시 류가 『대정5년도 고적조사보고』에서 다룬 경기도 지역의 주요 유적은 백제국도터, 이성산성, 구천면 풍납리토성, 남한산성, 중대면 석촌동 고분군, 옛 광주 지역, 청태종 공덕비, 남한산성과 관련 사찰(법륜사, 봉국사) 등이다(정기학 연구센터 2019). 그러나 암사동 유적이 위치한 구천면 및 암사동 일대에 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일제강점기 초기에 일본인 전문가들이 실시한 고적조사 대상에는 암사동 유적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당시 암사동 유적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았고, 주목받지 못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2. 을축년 대수해와 암사동 유구의 발견과 가치

암사동 유적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25년 을축년 대수해로 인한 자연재해였다. 1925년 7월 9일부터 11일, 15일부터 19일까지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총 강수량은 753mm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부이촌동, 뚝섬, 잠실, 송파, 신천, 풍납동 일대의 마을이 유실되고, 용산, 마포, 영등포 지역의 대부분 주택이 침수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다(서울역사박물관 2024).

당시 피해 상황은 조선총독부 지질연구소가 1925년에 간행한 『大正十四年七月中旬京城附近ニ於ケル漢江氾濫調査報文(대정14년 7월 중순 경성 부근 한강 범람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경성한강부근범람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도는 한강 주변 피해 범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며, 침수 지역을 침적물의 크기에 따라 두 가지 색으로 구분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암사동 및 풍납동 일대에는 모래보다 큰 자갈 침적물이 주로 쌓였으며, 잠실, 이촌동, 여의도 일대는 상대적으로 입자가 작은 모래 침적물이 퇴적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1).



[그림 1] 「경성부근한강범람도」(출처: 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 1925)

또한, 이번 수해로 인해 한강 내 하중도(河中島) 형태가 변형되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925년 촬영 유리건판 사진 자료에 의하면, 암사동 일대는 당시 가옥이 모두 유실되고 별다른 구조물 없이 모래와 자갈로 뒤덮인 나지(裸地)와



[그림 2] 1925년 조사 당시 유리건판 사진(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사진)

같은 경관으로 변화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그림 2).

일반적으로 암사동 유적은 1925년 을축년 대수해를 계기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신문 보도를 검토해 보면, 구천면 암사리와 풍납리 일대의 수해 피해 상황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조선일보」 1925.8.25), 암사동 유구의 발견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그해 12월, 백제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고와(古瓦) 수백 장이 발견되어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과가 이를 수습해 가져갔다는 내용이 신문 기사에 등장한다(「조선일보」 1925.12.17). 암사리 일대에서 발견



a: 광장동에서 본 암사리



b: 「경성부근명승사적안내도」

[그림 3] 광진교와 연계된 암사리(a: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사진, b: 강전공 1938)

된 유구와 유물의 시대적 편년과 특성에 대한 언급은 1930년대에 들어서야 경성 교외 하이킹 코스를 소개하는 문헌에서 나타난다. 1938년에 간행된 『속경성사화(續京城史話)』에 수록된 「경성부근명승사적안내도」를 살펴보면, 경성 동부 지역을 지나 광진교를 건너 남한산성으로 향하는 경로 중 ‘암사리’가 명기되어 있으며, 명승 및 사적을 나타내는 붉은색 ●로 표시되어 있다(그림 3b).

이러한 자료를 통해 암사리 일대에서 올죽년 대수해로 인해 신석기 유구가 노출되었음은 추정할 수 있으나, 당시 미디어의 대대적인 관심을 끌거나, 유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취해졌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암사동 유구가 포함된 하이킹코스

2007년에 발간된 국립중앙박물관 발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25년 대홍수 당시 암사동 일대의 지형 및 경관 변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에 제시된 측량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지도에 따르면, 신천리 일대 하중도의 상부는 기존의 뾰족한 형태에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형태로 변화하였으나, 암사동 일대 강변의 선형은 큰 변동이 없음이 확인된다. 유구가 노출된 과정은 광나루 방면 한강이 곡류하는 지점에서 대량의 토사가 밀려들면서 강가 하안대지가 침식되고, 점촌 마을 일대의 토지가 유실되면서 단면의 문화층이 드러난 결과로 해석된다. 문화층 내 유물 발견에 대해서는 경성제국대학 예과 교수였던 요코야마 쇼자부로(横山將三郎)의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국립중앙박물관 2007), 확인 결과 해당 기록은 1953년 요코야마가 본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발견 시점의 직접 기록은 아니었다.

암사동 유적이 향유의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광진교가 개설된 이후의 일이다. 광진교 개설 이전, 암사동 일대는 광나루 나루터를 이용하여 배를 통해 강을 건너야만 충주를 거쳐 동래 또는 원주로 이동하는 교통로로 활용되었다(그림 4a). 1920년대 기록에 의하면 우기에는 나룻배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통이 불편했었다(그림 4b). 1930년대에 들어 대경성계획의 일환으로 경성 동부 확장을 목표로 교량 건설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광진교 건설이 추진되었다. 광진교는 한강에 건설된 두 번째 도로 교량으로, 1934년 8월 14일 착공하여 1936년 9월 30일 준공되었다(그림 4e, f). 교량의 총 길이는 1,037.6m, 너비는 9.4m였으며, 철근콘

크리트 게르버 T형교(608.1m)와 강트러스 단순교(439.5m)로 구성된 구조였다. 광진교의 개설은 남한산성 접근을 용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충주 등 내륙 도시로의 이동을 크게 편리하게 만들었다.



a: 1895년 지도



b: 1910년 지도



c: 1915년 지도



d: 1926년 지도



e: 1937년 지도



f: 광진교

[그림 4] 암사리 일대의 지형과 광진교 개설(a~e: 국토지리정보원, f: 일제강점기 엽서)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디어에서 새롭게 유행한 용어 중 하나는 ‘하이킹’이었다. 이 시기부터 신문기사 등 대중매체에 ‘하이킹’이라는 용어와 함께 ‘코스’라는 개념이 결합하여 등장했다. 1937년에는 민영 전기회사인 경성전기주식회사가 자사가 부설한 경성 주변 전차 노선을 활용하여 서울 교외 경승지에 대한 하이킹 코스를 책

자 형태로 발간하였다. 『경전 하이킹코스』라는 제목의 이 소책자는 휴대가 용이한 콤팩트 형태(12.7×18.4cm)로 제작되었으며, 1937년부터 1938년까지 제1집 북한산, 제2집 비봉, 제3집 풍납리토성, 제4집 당인리, 제5집 양천, 제6집 벽제관, 제7집 남한산성 등이 순차적으로 발간되었다. 암사리는 제3집 풍납리토성 코스에 포함되어 소개되었다.

『경전 하이킹코스』는 각 코스별 지도를 첨부하여 경로를 도식화하고, 이동 방법과 소요 시간을 명기하였다. 책자의 성격상 경성에 부설된 전차 노선을 활용하는 경로에 제한되었으나, 1930년대 당시 대중이 경험하고자 했던 하이킹 코스의 특성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암사리를 포함한 코스는 ‘뚝도(蠓島) 방면으로부터의 코스’로 설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경성은행 앞에서 대절한 버스를 이용해 뚝도(뚝섬)에 도착한 후,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석촌리를 경유하여 풍납리토성, 암사동을 지나 광진교를 거치는 경로였다. 전체 거리는 약 24km, 소요 시간은 약 3시간 40분으로 제시되어 있다(그림 5).



[그림 5] 「풍납리토성」 하이킹 코스와 암사리
(출처: 경성전기주식회사(1938))

이 과정에서 암사동 일대의 경관은 사진 자료를 통해 제시되었는데, 광진교를 지나 한강변에 인접한 목가적 분위기의 풍경으로 묘사되었다(그림 6). 이는 암사동 일대가 1930년대 하이킹 문화 속에서 자연친화적 경관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8] 암사리 전경 (출처: 경성전기주식회사(1938))

신문기사에 등장한 암사리 관련 하이킹 코스는 ‘암사리 고적’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광진리에서 광진교를 건너 좌절(挫折)하여 강안을 따라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암사리가 나온다. 이 암사리 근방은 선사시대부터 상당한 부락이 발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삼국시대에도 매우 번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까지 꾸준히 발굴된 선사시대의 토기, 석기, 도편 등이 이를 증명한다. 더욱이 임우기(霖雨期)에 홍수가 지나간 후에는 강안 단층에서 무수한 와력(瓦礫)과 기편(器片)이 노출되어 하이커의 취미를 충족시켜준다”고 서술하고 있다(『동아일보』 1939.11.2). 또한, 당시 ‘광진성지’로 불렸던 아차산성에 오르면, 한강 상류에 위치한 암사리 일대부터 광진교 부근의 풍납리토성, 송과진, 잠실리, 신천리, 남산 산성 수어장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동아일보』 1939.11.2).

이처럼 광진교의 개설로 암사리 유적이 하이킹 코스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선사시대 유구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하이커들에게 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다만 이 시기의 향유 방식은 문화유산 보호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유물 채집 가능성 자체를 하이킹의 매력 요소로 서술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암사동 유적이 당시 대중에게 향유의 대상으로 경험되었지만, 문화유산 보호 개념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되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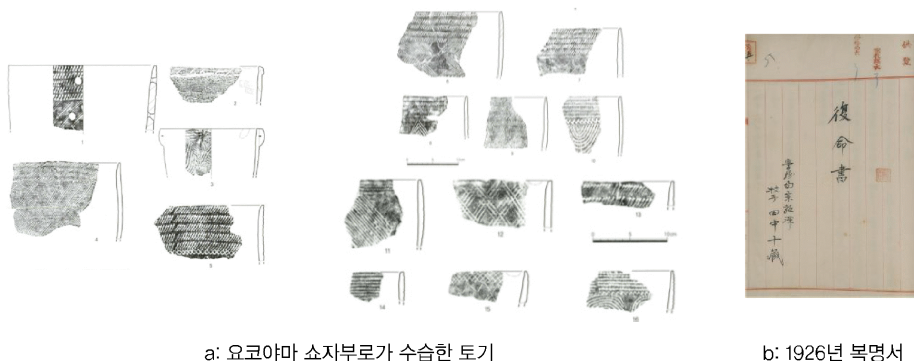
Ⅲ. 암사동 선사유적의 발굴 과정과 가치 부각

1. 일제강점기 암사동 관련 서술에서 발현된 역사적 가치

요코야마 쇼자부로¹⁾는 1923년 경성제국대학에 부임하여 윤리학과 철학을 강의함과 동시에 고고학적 활동에서 상당한 열의를 보였다. 그는 부산과 함경북도 지역의 발굴 조사에 참여하였고, 주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한강 유역에서 다수의 유물을 채집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10). 일본 귀국 이후인 1953년에는 『ソウル東校外の史前遺蹟(서울 동교 밖의 선사 유적)』을 저술하여 암사리 유적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남겼다. 그에 따르면 1925년 을축년 대수해 당시 풍납리토성 인근 암사리 일대 말이 유실되어 한강 강변으로 변모하였고, 이로 인해 빗살무늬토기와 석기

등 다량의 유물이 노출되었으며, 자동차로 여러 차례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 수습되었다고 했다.

『ソウル東校外の史前遺蹟』에 의하면 홍수로 인한 격류에 의해 형성된 암사리 일대의 직선 단층에서 빗살무늬토기 파편뿐만 아니라 완형에 가까운 토기와 석기 단편이 발견되었다. 특히 직경 4~5m, 깊이 약 1.5m 규모의 수혈(豎穴住居址)과 수혈 하층 수평면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 그리고 부적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토기 조성 재료로는 운모를 혼입한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고, 석면 및 골석을 혼입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요코야마는 암사리 출토 토기를 독일어로 'Kammkeramik'이라 표기하면서, 고고학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이들의 용도와 특징을 설명했다. 더불어 암사리와 망우리 유물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하고, 이들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수습한 토기에 대해 실측 및 탁본을 실시한 뒤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그림 7).



[그림 7] 1925년 암사리 유물과 조사 복명서(a: 국립중앙박물관 2010, b: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자료)

암사동 유적에 대한 공식 조사는 1926년(대정 15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 종교과 소속 기수(技手)였던 다나카 슈조(田中十藏)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조사 과정에서 수습된 토기 및 유물들은 1929년, 조선 식민통치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조선박람회에 전시되었다. 당시 전시품 목록을 살펴보면, 환석(環石), 석포정(石庖丁), 유문토기파편(有文土器破片)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암사동에서 수습된 유물들은 「조선총독부박물관진열품회첩서(朝鮮總督府博物館陳列品繪葉書)」로도 제작·배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습 당시 유물의 구체적인 형태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그림 8).



a: 1929년 전시품 목록

b: 총독부 박물관 진열 유물 엽서

[그림 8] 암사동 전시 유물과 일제강점기 관련 엽서(a: 국립중앙박물관 2010, b: 일제강점기 엽서)

『경전(京電) 하이킹코스 제3집』에서는 지도 후면에 암사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 사진을 첨부하였다. 당시 서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암사리 유구에 대한 1930년대 대중적 가치 인식과 평가가 일정 부분 확인된다.

광장리에서 광진교를 건너 길을 왼쪽으로 틀어, 흰 모래를 밟고 상류를 따라가면 암사리(岩寺里)가 있다. 대정(大正) 14년 7월의 대홍수 때, 이 강안(江岸) 일대 몇 개의 마을에 걸쳐 2~3장(丈) 깊이로 쓸려 나갔다. 원래 한강은 상류부터 다량의 토사(土砂)가 흘러 내려와, 끊임없이 강안을 매워 온 일은, 부근의 부락에서 정호(井戶)를 팔 때 등, 2~3장의 깊이가 된다면 대부분의 삼국시대의 토기나 선사시대의 유물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암사리 주변은 선사시대부터 상당한 부락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풍납리토성 등 백제시대의 외성(外城)과도 연결되는 관계로, 하안(河岸) 부근에는 삼국시대에도 상당히 번성했던 것 같다. 게다가 마침 하수(河水)가 구부러져 흐르는 관계로, 그 침전물에 여러 종류의 물질이 흘러내려와 퇴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리하여 다수의 선사시대부터 퇴적되어진 유물은 대정 14년의 홍수로 그 일부가 노출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부터 수년 후까지도, 다양한 형태를 한 토기(土器)·석기(石器)·도편(陶片) 등이 채취되었다. 특히 석기시대의 것으로서 진귀한 것은 적색의 토기에 병행사선(並行斜線)을 실제로 대충 새긴 것이지만, 토기의 저부(底部)가 날카로운 원추형을 이루어 보통의 마루 위에 세울 수가 없는 것도 있었다. 아마도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강안의 모래 안에 꽂아놓고 세워 놀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것들 선사시대의 것은 미생식(彌生式)에 가까운 것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문양의 어느 부분에서는 미생식이지만 매우 드문 것으로 말해지기도 한다. 다음으로 고구려·백제시대의 종선문(縱線紋), 신라시대의 포목(布目)·시인문토

기(矢引紋土器), 백제 특유의 횡조병행선(橫條並行線)이 들어간 토기, 기와 종류의 파편과 고려청자, 조선시대 쇄모(刷毛), 목(目)·삼도수(三島手)·염부(染付)와 같은 것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것을 발견하는 일 이 가능했다. 지금도 매년 홍수 발생 직후가 되면 고고학에 흥미가 있는 우리 다수가 왕래하는 모습이 있다.

『정전 하이킹코스 제3집』에 수록된 암사리 설명을 분석하면, 당시 발견된 토기는 적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로 추정되며, 문양은 어골문(魚骨文) 계통으로 보인다. 또한 암사동이 강안(江岸)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기의 저부가 뾰족한 첨저(尖底)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의 전형적 특징에 해당한다. 그러나 1930년대 당시에는 빗살무늬토기에 대한 체계적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 유물을 일본 야요이시대(彌生時代, 미생식: 청동기시대) 문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한국 학계에서도 1960년대까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양 시대를 동시기로 간주하는 견해가 일부 존재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1960년 북한 지탑리 유적 발굴을 계기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가 명확히 구분되면서 정립되었다. 이후 암사동 유적에서 확인된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편년되었다.

한편, 암사동 유적에서는 신석기 유구뿐만 아니라 백제, 통일신라시대 유구도 함께 확인되었다. 2015년 이후 진행된 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사동 일대에서는 구석기시대 문화층,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수혈(竪穴), 통일신라 및 백제시대 주거지와 수혈, 고려시대 아궁이, 조선시대 기와가마 등 다양한 시기의 유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홍은경·문수균, 2008; 김기룡 외 2016). 이를 통해 암사동 일대는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주거지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동안 암사동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구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에도 고고학에 관심을 가진 일부 하이커들인 비전문가들의 산발적인 방문만이 있었을 뿐 체계적인 연구나 보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암사동 유적은 일제강점기 중 자연재해로 발견된 후 조선총독부의 개괄적 조사와 비전문가들의 관찰을 통해 선사시대 유적임이 확인되었지만, 본격적인 발굴 및 연구는 해방 이후에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2. 1차 : 1925년부터 2000년 이전 발굴 후 밝혀진 가치

암사동 유적이 알려지기 이전, 『대정5년도 고적조사보고』에서는 선사시대 유적으로 평양 근처의 미림리와 청호리 유적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를 소개하였다. 당시 고고학 발굴은 주로 고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시기로, 선사시대 유물과 유적이 언급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암사동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조사는 1960년대에 들어서야 이루어졌다. 1967년 암사동 유적지 내에 야구장 건립 공사가 진행되던 중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면서 몇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1968년에는 경희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영남대, 우석대, 전남대, 숭실대 등 8개 대학이 참여한 대규모 연합발굴이 진행되었다. 이 발굴에서 주거지와 야외 노지 등 유구가 확인되었고,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으나, 발굴조사 보고서가 제대로 간행되지 않아 연구 성과의 체계적 정리에 한계가 있었다. 1960년대의 조사는 지표 수습 유물과 일부 시굴조사 결과를 학술지나 신문에 단편적으로 투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1970년대에 이르러 국립중앙박물관 주도로 본격적인 학술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1971년부터 1975년까지 4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약 30여 기의 주거지와 적석유구, 빗살무늬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이들 발굴조사 보고서는 2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발간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1994, 1995, 2006, 2007). 비록 보고서 간행이 지연되었지만, 이 시기의 발굴 성과를 통해 암사동 유적은 중서부지역을 대표하는 신석기시대 유적임이 학술적으로 입증되었고, 1979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사적 지정 이후 1983년부터 1984년에 걸쳐 전시관 확장과 공원 조성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긴급 발굴조사 및 기초조사도 병행되었다. 1970년대 학술발굴이 본격화되면서 1980년대에는 암사동 유적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임효재와 한영희는 암사동 유적 자료를 중심으로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토기의 편년 작업을 시도하였으며, 이들의 연구 성과는 1990년대 이후까지도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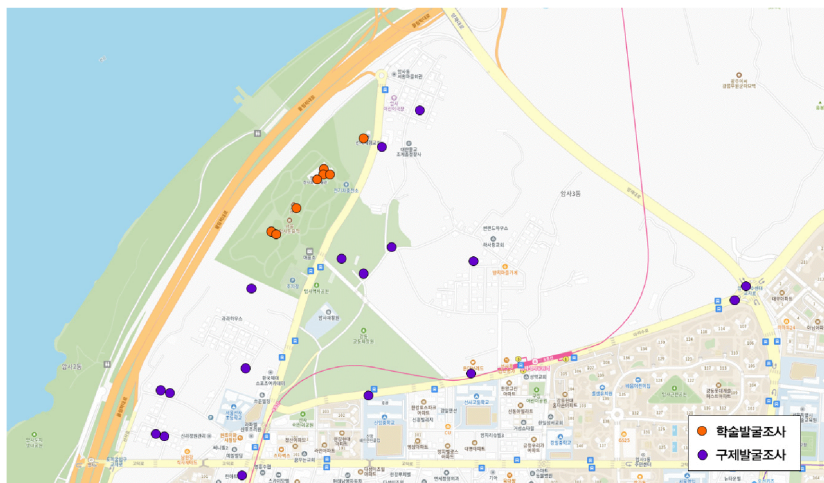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인 신석기시대 유적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시기 구분이 세분화되었고, 암사동 유적에서는 토기 제작 기술, 생활 방식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단순히 문양 패턴에 의존하던 분석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3. 2차 : 2000년대 발굴 후 밝혀진 가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의 도시화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암사동 유적 주변에서도 산발적인 개발 공사가 진행되었다. 개발에 수반된 구제발굴이 연이어 이루어지면서 암사동 유적의 신석기시대 유적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확고히 증대되었다. 도시화에 따른 유적 훼손을 최소화하고, 암사동 유적의 가치와 문화유산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암사유적공원의 조성 요구가 본격화되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선사체험마을 조성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3년에는 서울대학교 박물관과 경기고고학연구소가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2005년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년 고려문화재연구원, 2008년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이 암사동 선사주거지 확대 부지 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이어 수행하였다(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09). 2010년에는 선사문화재연구원이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서울문화유산연구원이 추가 지표조사를 진행하였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백문화재연구원이 시발굴조사를 통해 주거지 분포를 확인하였으며(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같은 시기 국방문화재연구원은 구석기시대 문화층, 청동기시대 주거지, 고려시대 토광묘, 조선시대 회곽묘 등을 확인하였다(국방문화재연구원 2016). 2015년에는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가 신석기시대 및 삼국시대 문화층을 확인하였고(한양대학교 2017), 2016년에는 한백문화재연구원이 입회조사를 진행하였다. 2017년 해안문화재연구원은 조선시대 건물지와 석렬, 수혈 등을 확인하였으며(해안문화재연구원 2019), 2018년에는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가 신석기시대 및 삼국시대 주거지, 고려시대 아궁이와 수혈 등을 발굴하였다(한양대학교 2018, 2020). 같은 해 한백문화재연구원은 조선시대 기와가마, 분묘, 주거지를 확인하였다(한백문화재연구원 2020). 2019년에는 한울문화재연구소가 청동기시대 주거지, 삼국시대(백제) 주거지,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및 수혈 등을 추가로 발굴하였다(한울문화재연구원 2021).

2000년대 이후 암사동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재단법인 형태의 발굴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고, 택지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미발간 보고서를 제외하더라도 총 15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시설 정비, 주택 신축 부지, 도로 확장 부지 등 택지개발을 위한 구제발굴이 주를 이루었



[그림 9] 암사동 발굴 위치

다. 특히 2014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보존·활용 계획 수립 과정에서 암사동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와 보존정비 계획이 마련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유적과 역사공원 조성 부지를 대상으로 한 학술발굴이 포함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암사동 유적은 한반도 중서부 지역 신석기시대 편년 연구의 세분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방사성탄소연대(C^{14}) 측정치를 참고하여 새로운 편년안이 제시되었으며, 기존의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선사시대' 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미시적이고 정밀한 선사시대 유구로서 암사동 유적의 성격이 규명되기 시작한 시기였다(그림 9).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발굴성고가 축적되면서 암사동 유적은 단순한 보존 대상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가치의 향유와 교육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기제로 기능하게 되었다. 더불어 현재까지도 발굴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Ⅳ. 암사동 유적의 보존과 향유를 위한 기법

1. 교육적 목적의 선사유적 공원 조성

1960년대 암사동 유적 발굴 성과를 통해 신석기시대의 상대편년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골동품 수집 위주의 '진품고고학'에서 '종합 발굴 및 정비'로 전환되는 변곡점으로 평가되었다(「조선일보」 1971.12.19). 1974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암사동 유

적은 선사시대 주거지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립박물관의 연간 발굴 예산으로는 종합적 발굴이 어렵고, 한강변의 홍수 위험과 함께 사질토가 주물공장 재료로 채취되는 상황이 유적 인멸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제시되었다(『동아일보』 1974.5.6). 이에 따라 유적 보존을 위한 조치와 역사적 가치를 고려한 사적 지정, 그리고 유구 보존을 위한 야외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어 1979년 6월 15일, 암사동 일대는 사적 제267호로 지정되었다(『경향신문』 1979.6.15).

사적 지정과 보존 조치 필요성은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진행된 제1차 한강종합개발계획, 특히 강변도로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택지개발과도 관련이 높다. 해방 이후 모래사

장이었던 암사동 일대는 한강 수해의 주요 대상지였으나(그림 10a), 1977년 12월 강남일로 불리는 구간에 제방도로가 축조되면서 수해 위험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암사동 유적은 한강과 물리적으로 단절되었고, 도로가 유적 경계의 기준선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979년 사적으로 지정된 구역은 당시 강남일로 안쪽 농경지 부분에 해당하였다(그림 10b). 이후 2009년 도로가 왕복 8차선으로 확장



[그림 10] 암사동 유적의 경계와 주변 현황(a~d: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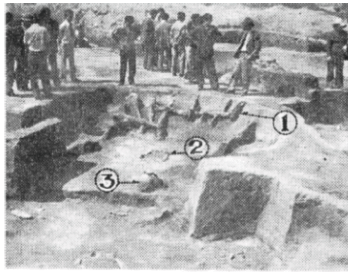
되면서 한강과의 단절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1986년에는 암사동 유적까지 연결되는 길이 636m의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유적의 동측 경계가 확정되었다(「경향신문」 1986.1.8).

암사동 유적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형성된 도로망에 의해 지형적 경계가 규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유적은 인위적인 부지 한계 내에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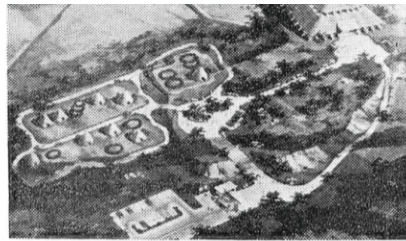
사적 지정 당시 암사동 유적은 선사유적 일부에 해당하는 5,759평 규모만이 보호 대상으로 설정되었다(그림 10b). 이후 지속적인 사유지 매입을 통해 보호 구역은 점차 확대되었으며, 1988년에는 약 24,000평까지 확장되었다(그림 10c). 1980년대 초반에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암사동 선사유적에 대한 실질적인 정비 계획이 수립되었고, 1988년 10월 복원 정비가 완료되었다. 당시 정비의 기본 관점은 ‘유구의 보존 및 복원’, ‘유적지의 활성화(revitalization)’로 설정되었다(백찬규 1988). 유구의 보존 및 복원은 ‘움집터 보존 및 움집 복원 공사’를 통해, 유적지 활성화는 ‘선사시대 사적 공원 조성’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사적공원은 학생 및 일반 국민이 선사시대를 산교육으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것을 목표로 조성되었다. 이는 암사동 유적의 공공적 성격을 문화유산 보호뿐 아니라 공원 조성을 통한 향유 영역으로까지 확장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복원 관련 설계안은 1981년에 작성되었고, 1982년부터 1983년까지 전시관 설치, 1983년부터 1984년까지 움집 복원, 1987년부터 1988년까지 정문, 관리사무소, 매표소 등 공원 기능을 갖춘 시설물 구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그림 8). 1987년에는 생태학적 지표분석을 바탕으로 선정된 소나무, 참나무, 오동나무, 갈대, 억새 등 원시림 식생으로 숲을 조성하고, 토끼, 닭, 노루 등의 방목도 계획되었다(「경향신문」 1987.1.15).

2024년 5월 17일부터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지만, 1985년에는 당시 용어인 문화재지구로 추가 지정된 18,200평에 대해 1988년까지 사유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1989년에는 움집 9채를 복원하여 일반에 개방하였다(「조선일보」 1988.8.11). 이처럼 문화재지구 확장 과정에서 사유지 매입은 계획 일정에 지속적인 차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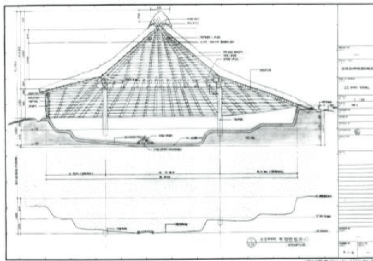
암사동 유적에 대한 종합정비방안에 따라 조성된 공원의 기본 목적은 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었다. 공원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은 안내판, 음수대, 화장실, 산책로, 주차장 등 일반적인 편의시설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암사동 선사유적의 디자인적 특징을 반영한 특수한 조형적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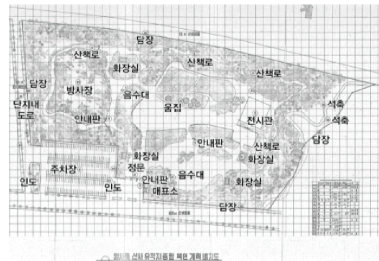
a: 암사동 취락지 발굴현장



b: 암사동 선사주거지 사적공원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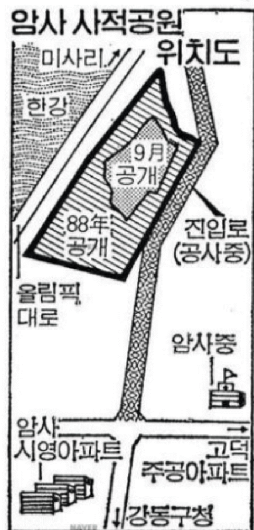
c: 1986년 제6호 움집 단면 설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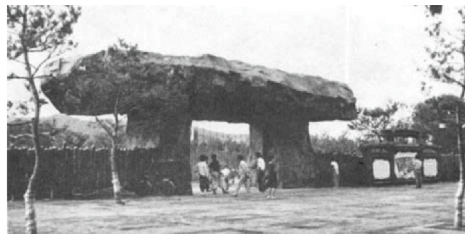
d: 1986년 정비 설계 평면도

[그림 11] 암사동 유적지의 사적공원화

(a: 「경향신문」 1975년 5월 27일 기사), b: 「경향신문」 1982년 10월 18일 기사), c · d: 국가유산청)



a: 암사동 공원



b: 암사공원 정문(1988년 사진)



c: 유물전시관(1988년 사진)

[그림 12] 암사공원 개원(a: 「조선일보」 1986년 7월 20일 기사, b·c: 국가유산청)

소는 부각되지 않았다(그림 12b). 다만, 공원 입구에는 고인돌 형태의 조형물이 정문 장식물로 설치되었는데, 이는 곧 문제로 지적되었다. 고인돌은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유구로서, 신석기시대 유적인 암사동과 편년이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고인돌 조형물은 철거되었고, 대신 자연목 조형물이 설치되었다(KBS 뉴스 2010.10.4).

이후 암사동 선사유적을 상징하는 대표적 이미지로 ‘빗살무늬토기’가 선정되었다. 암사동 유적이 공원화되면서, 대중이 시각적으로 선사유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조형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고인돌 조형물 철거라는 시행착오를 거쳐 빗살무늬토기가 상징적 이미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 강동구 곳곳에는 빗살무늬토기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경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선사유적지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 공원 일몰제와 세계유산 지정을 위한 노력

암사동 유적의 문화재지구 정비 방안은 문화재 보호구역 자체뿐만 아니라 인접 공간에 대한 공원 조성까지 포함하여 계획되었으며, 이에 따라 발굴조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발굴 성과를 통해 암사동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는 한층 높아졌으나, 방문객을 유도하는 관광지로서의 기능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암사동 유적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유산 향유 관점을 반영한 암사역사공원 조성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암사동 유적 건너편 부지는 비닐하우스 재배 농지와 건축자재 야적장 등으로 점유되어 경관이 크게 훼손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유적지 주변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2년에는 암사동 선사주거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착수되었고, 2005년에는 암사동 유적 건너편 부지를 대상으로 역사공원 현상공모 설계가 진행되었다. 이 공모에서는 ‘켜’라는 제목의 안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구암서원 복원, 빗고을뜰, 색동마당, 초화언덕, 여울마당 등의 공간이 도입되는 계획안이었다(환경과조경 제207호: 110).

2006년, 암사역사공원 부지인 암사동 211-1 일대 110,198㎡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시와 강동구는 약 3만 3천여 평에 달하는 부지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총 6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 조성을 계획하였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및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일환인 생활권 녹지 100만 평 확충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다(장종수 · 김충식 2006). 암사역사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사업비는 총 141,939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다(『동아일보』 2022.8.26). 그러나 최초 공원 지정 이후 20년이 경과하는 2026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실효되는 ‘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강동구는 공원 일몰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보상 및 사업 추진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현재, 총 사업 면적 110,198㎡ 중 약 85.4%에 해당하는 94,112㎡의 토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다.

암사동 선사유적지로 대표성을 확보한 일대는 암사역사공원뿐만 아니라 도로에 의해 단절된 한강과의 연결성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3년 중단되었던 ‘암사 초록길’ 사업은 2021년부터 재개되어, 2024년에 완공되었다(그림 13d). 또한 암사동 유적의 다양한 가치는 일련의 학술 연구와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2014년에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서울 암사동 유적 보존 · 활용 계획 학술연구’(강동구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4)가 수행되었으며, 2017년에는 ‘서울 암사동 유적 종합정비계획’(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7)이 수립되었다. 아울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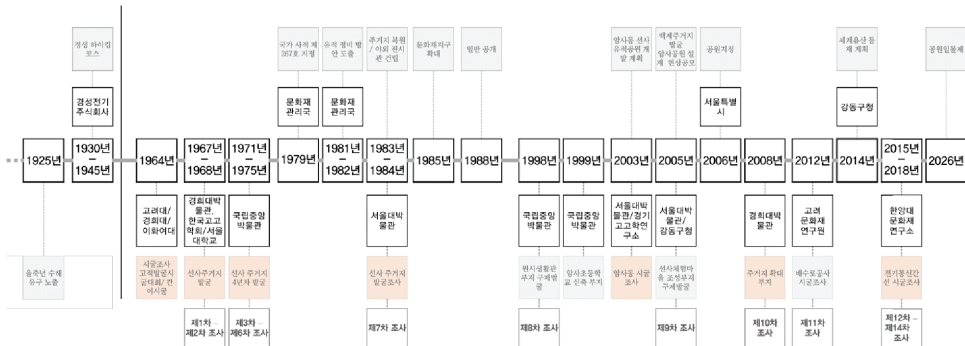
이처럼 암사동 유적은 공원화된 유적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암사역사공원과 암사 초록길 조성 등 일대 녹지 중심의 다양한 계획이 실천되었다. 아울러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한 노력 또한 병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효과 창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 재발견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 및 주민 자긍심 고취, 그리고 지방 도시 간 경쟁력 우위 확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13] 암사동유적과 암사역사공원(a: 항공사진, b · d: 강동구청 홈페이지, c: 환경과조경)

암사동 유적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문화유산 향유의 관점에서 암사동 유적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면, 일제강점기 이전의 ‘문화유산 잠재기’, 자연재해에 의한 ‘타자적 발견기’, 문화향유 대상으로서 가치가 발굴되고 경험된 ‘문화향유 경험기’, 문화유산 보존과 향유가 공존하는 ‘공존기’, 문화유산의 공공재적 가치가 강조되며 보편적 향유가 이루어진 ‘보편적 향유기’, 그리고 문화유산 가치와 향유의 외연이 확장되는 ‘확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은 암사동 유적이 발굴 과정을 거치면서 유구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부각되고,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향유 방식에도 변화를 초래한 특성에 기반한 것이다. 특히 선사유적이라는 특성상, 새로운 발굴 결과가 문화유산 보존 및 향유 방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임이 암사동 유적을 통해 확인된다.



[그림 14] 암사동 유적의 연대기표

V. 결론

본 연구는 암사동 유적의 발견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연대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그 변천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암사동 유적에서 나타난 문화유산을 대하는 태도와 향유 과정의 변화 양상을 검증하고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 초기에 식민지 이데올로기의 정당화를 목적으로 고적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암사동 유적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암사동 유적은 1925년 을축년 대수해 당시 자연재해에 의해 노출되었으며, 요코야마 쇼자부로에 의

해 다량의 유물이 수습되었고, 1926년에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에서 개괄적인 조사가 실시되었다. 1929년 일부 유물이 조선박람회에 출품되었으나, 1920년대 암사동 유적은 대중적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둘째, 1937년 광진교 개설 이후 암사리 일대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1930년대에 유행하기 시작한 하이킹 코스에 암사리 유적이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암사동 유적은 향유 대상으로서의 인식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셋째, 암사동 유적의 당시 가치는 하이킹 코스 소개 책자와 요코야마 쇼자부로가 1953년에 발간한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빗살무늬토기와 수혈을 선사시대의 특징으로 인식하였으나, 면밀한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호조치 역시 부재하여 유물은 하이커들의 수집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넷째, 해방 이후에도 암사동 유적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960년대 야구장 건립에 따른 구제발굴을 계기로 연합발굴과 국립중앙박물관 주도의 학술 발굴이 이어졌다. 비록 발굴보고서의 간행은 늦어졌지만, 완형 선사 주거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1979년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섯째, 사적 지정 이후 보존 및 교육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1982년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85년에는 문화재지구의 면적이 확대되었다. 더불어 암사동 유적 일대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보편적 향유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여섯째, 암사동 유적은 우리나라 선사유적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암사동 유적 건너편 부지가 '암사역사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암사초록길 조성 사업을 통해 한강과의 생태적·역사적 연결성 또한 강화되었다. 암사동 유적은 단순한 경계 내 보존을 넘어 주변으로 확장되었으며, 현재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암사동 유적의 보존 과정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향유의 관점에서 유적지 주변 변화 과정을 함께 고찰한 데에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문화유산 향유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개발 계획과의 대립적 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문화유산 향유 기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암사동 유적에 비견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발굴을 통해 발견된 유물 및 유적이 현존하기까지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 설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고일 2025. 4. 30 | 심사완료일 2025. 5. 26 | 게재확정일 2025. 6. 9

참고문헌

- 저서 및 보고서 -

- 岡田貢, 1939, 『續京城史話』, 京城: 日韓書房.
- 강동구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4,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서울 암사동 유적 보존 · 활용계획 학술연구」.
- 강전공(술) · 경성공립소학교교원회(편), 1938, 『속경성사화』, 경성: 일한서방.
- 경기학연구센터, 조선총독부 편, 정혜선 역, 2019, 『다이쇼 5년도 고적조사보고서, 일제강점기 경기도 유적조사보고서』.
-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09a, 『서울 강동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포장 내 유적(A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09b, 『서울 강동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포장 내 유적(B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09c, 『서울 암사유적지 주변 선사로 고덕지구간 도로확장구간(2구간)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10a, 『서울 강동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포장 내 유적(C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10b, 『서울 강동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포장 내 유적(D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10c, 『암사지구 출토유물 기획전 학술대회 자료집』.
- 국립중앙박물관, 1994, 『암사동,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6책』.
- _____, 1995, 『암사동,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6책(Ⅱ)』.
- _____, 1999, 『암사동Ⅱ,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30책』.
- _____, 2006, 『암사동Ⅲ,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35책』.
- _____, 2007a, 『암사동Ⅳ,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36책』.
- _____, 2007b, 『암사동Ⅴ,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37책』.
- _____, 2010, 『한강유역 선사유물, 橫山將三郎 채집자료, 일제강점기자료조사보고4』.
- 국방문화재연구원, 2016, 『서울 암사동 유적-구리 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부지 내』.
- 서울대학교박물관, 1985, 『암사동』.
- 서울역사박물관, 2024, 『을축년대흥수 그후 100년, 서울의 변화』.
- 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서울 고덕동 · 암사동 유적-서울 암사동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20, 『서울 암사동 기와가마 유적-서울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부지 내 유적조사 보고서』.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7, 『2015 서울 암사동 유적-전기통신 간선공사 구간 내 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18, 『서울 암사동 유적-2016-2017년 발굴조사 보고서』.
- 한양대학교 박물관, 2020, 『서울 암사동 유적-2018년 발굴조사 보고서-』.
- 한양대학교ERICA산학협력단, 2022, 『서울 암사동 유적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 한울문화재연구원, 2021, 『서울 암사동 193번지 유적-서울 암사동(193번지 일원) 암사역사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 헤안문화재연구원, 2019, 『서울 암사동 115번지 유적(소규모 발굴조사)』.

- 논문 -

- 구건서, 1999, 「일본의 문화정책」, 『일본학보』 43, 467-483.
- 김기룡 · 이상현 · 신의주 · 배기동, 2016, 「서울 암사동 유적-청동기시대 주거지를 중심으로」,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논문집』2, 중부고고학회, 39-6.
- 김대환, 2017, 「일제강점기 조선고적조사사업과 한국고고학사」, 『한국상고사학보』 97, 79-100.

- 김수갑, 2002, 「문화재향유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일본에서의 논의와 한국헌법상의 범지구성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23, 227-262.
- 김영준, 2022, 「신석기시대 펜돌칼과 생업활동-암사동 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 『한국신석기연구』43, 한국신석기학회, 35-56.
- 김원룡, 1962, 「암사리유적의 토기 석기」, 『역사학보』 17, 355-383.
- 김장석, 2007, 「사회적 측면에서 본 암사동 선사취락지의 위치」, 『한국선사고고학보』13, 한국선사고고학회, 29-48.
- 김정학, 1969, 「고고학상으로 본 한국문화의 기원」, 『한국문화인류학』 2(1), 2-6.
- 김홍길, 2023, 「역사문화유적 트레킹을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김천시 청암사 인현왕후길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33(4), 176-188.
- 남궁승태, 1998, 「역사적문화환경을 향유하기 위한 법제도화 방향: 옛도시보존법(가칭)의 입법방향」, 『대불대 학교 논문집』 4(1), 227-251.
- 류호철, 2014, 「문화재 활용의 개념 확장과 활용 유형 분류체계 구축」,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47(1), 4-17.
- 박인규, 2020,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천 직지사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30(2), 118-132.
- 백찬규, 1988, 「암사동선사유적 복원정비 공사」, 『국립문화재연구원』 21, 역사와 과학, 246-265.
- 양성혁, 2007, 「암사동식 토기의 편년적 위치에 대한 검토」, 서울경기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중부고고학회, 99-107.
- 윤정국, 2015, 「신석기시대 석기·골각기 연구 현황과 과제」, 『고고학지』 21, 153-185.
- _____, 2021, 「서울 암사동유적의 석기제작기술과 체계」, 『한국신석기연구』 42.
- 이기길, 1991,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주민들의 생계유형, 박물관기요 7』.
- 이동주, 2001, 「암사동 신석기문화 암사동 빗산문토기의 원류에 대한 새로운 시점」, 『한국선사고고학보』8, 한국선사고고학회, 35-56.
- 이순자, 2007,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슬기·금현섭, 2016, 「문화재 향유 만족도와 가치인식」, 『예술경영연구』 37, 65-93.
- 이창근, 2015, 「문화유산의 활용과 관광자원화 방안: 궁궐·종묘의 활용사업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35, 207-232.
- 이현태, 2011, 「1960년대 서울 암사동유적의 조사과정과-발굴조사 경위와 내용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고문화』77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32-53.
- 이화준, 2023, 「서울 암사동 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 검토」, 『한국신석기연구』45, 한국신석기학회, 35-58.
- 이화준·김기룡, 2020, 「세계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고려한 서울 암사동 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암사초록길 검토」, 『한국신석기연구』39, 한국신석기학회, 107-132.
- 장중수·김충식, 2006, 「암사 역사생태공원 계획」,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1), 85-94.
- 정성희, 1994, 「암사동 주거지에 대하여」,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한국고고학회, 85-96.
- 정해용, 2019, 「지역원형 복원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강원도 칠원군을 사례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9(1), 125-134.
- 조경철·이영한, 2021, 「암사동 신석기 유적 주거지 공간 특성 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21, 131-138.
- 지건길, 2007, 「암사동 선사주거지 유적의 효율적 활용방안」, 『한국선사고고학보』13, 한국선사고고학회, 15-21.
- 하인수, 2003, 「영선동식토기와 암사동식토기」, 『한국신석기연구』5, 한국신석기학회, 45-56.

한영희, 1978, 「한반도 중서부지방의 신석기문화」, 『한국고고학보』 5, 한국고고학회.
 —, 1999, 「서울 암사동 신석기 유적과 선사유적공원으로서의 활용 현황」, 『한국신석기문화연구』, 735-714.
 홍길, 2021, 「다크투어리즘 유산의 현황과 활용에 관한 연구 -제주 4·3 유적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국 사진지리학회지』 31(4), 18-31.
 홍은경, 2010, 「암사동 유적 신석기시대 토기의 시문기법」, 『한국신석기연구』 20, 한국신석기학회, 113-146
 —, 2021, 「암사동유적의 시간적 위치 재고」, 『고고학』 20, 중부고고학회, 5-28.
 홍은경·문수근, 2008, 「암사동 백제주거지 발굴조사」, 서울경기고고학회 학술대회, 중부고고학회, 75-82.
 內山純藏, 2001, 「縄文から岩寺洞へ」, 『한국선사고고학보』 8, 한국선사고고학회.
 朝鮮總督府地質研究所, 「大正十四年七月中旬京城附近ニ於ケル漢江氾濫調査報文」, 『朝鮮地質調査報告』 第5券.
 横山將三郎, 1953, 「ソウル東郊外の史前遺蹟」, 文學論叢 5(6).

- 신문기사 -

「경향신문」 1975년 5월 27일 기사.
 「경향신문」 1979년 6월 5일 기사.
 「경향신문」 1982년 10월 18일 기사.
 「경향신문」 1986년 1월 18일 기사.
 「동아일보」 1939년 11월 2일 기사.
 「동아일보」 1974년 5월 6일 기사.
 「동아일보」 2022년 8월 26일 기사.
 「조선일보」 1925년 12월 17일 기사.
 「조선일보」 1925년 8월 25일 기사.
 「조선일보」 1934년 10월 31일 기사.
 「조선일보」 1971년 12월 19일 기사.
 「조선일보」 1988년 7월 20일 기사.

- 잡지와 뉴스 -

환경과조경 207호.
 조선총독부 유리건판 사진
 2010년 10월 4일 KBS뉴스.
 강동구청 홈페이지.

The Beginning and Transition of Enjoyment of the Neolithic Age Discovered Japanese colonial era - Focusing on Prehistoric Sites in Amsa-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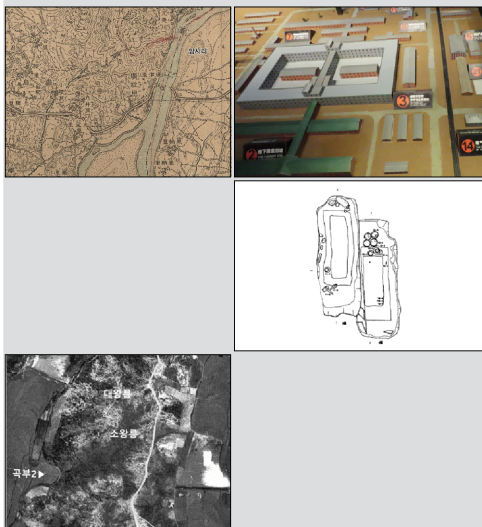
Kim, Hai-Gyoung (Senior Researcher, Konkuk University)

Kim, Sun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This study examines the chronological transformation of the Amsadong Site from its discovery to the present, focusing on changes in attitudes toward cultural heritage and the processes of its enjoyment. The findings reveal that although active archaeological surveys were conducted in Korea during the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Amsadong Site was excluded from these investigations. It was only after the Great Flood of 1925 that the site was naturally exposed, leading to the recovery of artifacts by non-specialists and a cursory investigation by the Religious Affairs Section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Despite these developments, the site did not attract public attention. In 1937, the opening of Gwangjingyo Bridge significantly improved access to the area, and during the 1930s, the site became incorporated into popular hiking routes, prompting a shift in its perception as an object of leisure. Although comb-pattern pottery and pit dwellings were introduced as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prehistoric period, there were no significant preservation measures at the time. After Korea's liberation, public interest in the site remained low until the 1960s, when rescue excavations during the construction of a baseball stadium brought renewed academic attention. Subsequently, the site's value was recognized, leading to its designation as a Historic Site in 1979 and the establishment of a preservation framework through a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in the 1980s. In later years, the development of park facilities and the Amsa Greenway project enhanced ecological and historical connectivity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Currently, efforts are underway to expand the site's reach and to achieve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not only traces the transformation of preservation practices but also examines changes in the ways the site has been enjoyed and how the surrounding space has been restructured over time.

Key words : The Great Flood of the Eulchuk Year, Amsa-dong Neolithic Age, Hiking, Comb-patterned pottery, Amsa Historical Park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칙

원고 집필 요령

원고 투고 요령

『中央考古研究』 연구윤리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中央考古研究』(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간 및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학술지 발간)

1.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中央考古研究』(Journal of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라 한다.
2. 학술지는 매년 3차례(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발간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구성과 임기)

1. 편집위원은 연구원 내·외의 고고학 연구자 가운데 연구 업적이 우수하고 덕망있는 연구자를 연구원 이사장이 위촉하며, 5~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이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역할)

1.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편집 방향 설정
2. 투고된 논문의 심사회부 여부 및 심사위원 위촉
3. 심사를 완료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4.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 동향과 자료 소개, 서평, 번역문 등의 기획과 심사

5. 기타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6조(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과 의무)

1.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를 위해 편집위원회는 논문 한 편당 3인 이상의 관련 연구자를 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편집위원도 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위원은 당해 학술지 논문 심사 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3. 논문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서약서, 투고 논문 심사 평가서, 논문 수정 제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심사과정)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원고 집필 요령에 적합한지와 형식 등을 살피는 1차 심사를 한다.
2.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해 편집간사는 논문 심사위원에게 저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자료를 논문에서 삭제한 후 발송한다.
3. 논문 심사위원은 요약문의 적절성, 인용자료의 적절성, 형식요건 및 논문체제, 학술적 수준, 독창성 및 논리성 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한다.
4.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논문에 대해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6. 심사위원의 수정요구를 받은 논문의 필자는 자신의 논문을 수정하고 필자 회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7.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판정결과에 따른 처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호에 한하여 재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 투고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②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투고 되어 다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적으로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③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8조(게재 논문의 조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고고학 등 문화유산에 관한 논문과 번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원에서 정한 원고 집필 요령에 따른 형식이어야 한다.

제9조(논문 심사위원과 심사평점의 보안 의무)

1. 논문 심사에 참여한 사람은 심사위원과 심사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
2. 만일 논문 심사자와 심사평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원고료 및 심사료 지급)

1. 학술지 게재 원고에 대해 연구원에서 정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논문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연구원의 허가없이 저작을 전용할 수 없다.

제12조(연구윤리)

1.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논문 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 투고자와 논문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中央考古研究』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의 운영규칙 및 『中央考古研究』 연구윤리를 위배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때부터 3년간 투고할 수 없다.

제13조(기타)

1.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 등의 형식은 『中央考古研究』 원고 집필 요령을 따른다.
2. 원고는 중앙문화유산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jungang.medsoft.kr>)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3. 원고의 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채택되지 않은 원고는 반환한다.

부 칙

1.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9년 12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0년 3월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6년 10월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4년 4월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5년 2월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5년 6월부터 시행한다.

원고 집필 요령

1. (문자) 원고는 한글을 원칙으로 작성하며, 한자는 고유명사나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사용한다.
2. (분량) 논문은 본문과 도면과 사진, 표 등을 포함하여 학술지 인쇄 쪽수로 30쪽 내외로 하며, 도면과 사진은 논지 전개상 필요한 최소한의 양으로 한다(도면과 사진은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구성) 논문은 제목, 저자명, 목차, 국문요약,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저자, 영문요약, 영문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요약문) 국문요약은 제목, 저자명, 목차, 주제어와 함께 학술지 인쇄 쪽수 1쪽을 넘지 않을 만한 분량으로 한다. 영문요약은 제목, 저자명, 요약문, 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하되, 학술지 인쇄 쪽수 1쪽을 넘지 않을 분량으로 한다.
5. (항목) 본문의 항목은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章, 項, 目, 細目을 각각 I., 1., 1), (1)의 순으로 기재한다. 서론(머리말)과 결론(맺음말)도 章에 포함시킨다. 목차에는 章과 項까지 기재한다.
6. (주요 표기) 주요 표기는 논문명을 ‘『』’으로, 책명과 정기간행물명을 ‘『』’으로 통일한다.
7. (인용문헌) 본문 중의 인용문헌은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하며 가급적 인용한 쪽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적명이 반복적으로 열거되는 경우 처음만 인용문헌을 표기한다.

1) 인용문헌 표기 예

- ① 단독 연구 논문 : (홍길동 2005), (홍길동 2005b), (홍길동 2008: 25), (홍길동 2008: 14~36), (홍길동 2022, 2023), (이몽룡 2023; 성춘향 2023) 등
- ② 2인 연구 논문 : (이몽룡 · 성춘향 2008), (이몽룡 · 성춘향 2008b), (이몽룡 · 성춘향

2008: 3), (이몽룡 · 성춘향 2008: 5~7) 등

- ③ 3인 이상 연구 논문 : (홍길동 외 2008), (홍길동 외 2008b), (홍길동 외 2008: 128),
(홍길동 외 2008: 146~151) 등

2) 인용문헌 구성방식의 예

- ① 홍길동(1998: 21)에 의하면……, 홍길동(1998: 21)은 ……., 홍길동(1998: 21~27)
은 …….
- ② ……로 보는 견해(홍길동 1998: 21)가 있다., ……로 보기도 한다(홍길동1998: 215).
- ③ “홍길동에 의하면 ……라고 한다(홍길동 1998: 21).”는 식으로 필자가 중복 인용
되는 표현은 피한다.

8. (각주) 각주는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기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 내용을 간략하게 달 수 있는데, 각주는 해당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를 매기고, 각주 중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인용문헌 표기법과 동일한 원칙으로 작성한다.

9.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인용한 문헌만 기재하되,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 서양어의 문헌의 순으로 표기하고, 논문과 저서 구별 없이 한국어 문헌은 저자의 한글 자모순, 중국어와 일본어 문헌은 저자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 문헌은 저자의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출판연도 순으로 작성하며,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책수나 간행일이 빠른 것부터 출판연도 뒤에 ‘a, b, c, …’를 덧붙여 구별한다. 공동연구는 같은 저자명의 단독 연구 다음에 배열한다. 참고문헌의 표기 예는 아래와 같다.

1) 단행본의 경우 : 저자명, 출판연도, 『책명』판수, 출판기관명의 순으로 표기한다.

(1)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단행본

① 단행본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概說』제3판, 一志社.

② 발굴조사보고서

國立中央博物館, 2002, 『法泉里Ⅱ』, 古蹟調查報告 第三十三冊.

③ 번역서

트리거, 브루스(성춘택 역), 1997, 『고고학사: 사상과 이론』, 학연문화사.

(2) 서양어 단행본 : 서명은 이탤릭체로 작성

Renfrew, C. and P. Bahn, 2004, *Archaeology :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4th ed., Thames & Hudson.

2) 논문의 경우 :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정기간행물명』권 또는 호수, 출판기관명의 순으로 표기한다.

(1)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논문

① 학술지 수록 논문

金元龍, 1952, 「慶州九政里 出土 金屬併用期遺物에 對하여」, 『歷史學報』1, 歷史學會.

② 학위논문

홍길동, 2005, 「韓國 OOOO의 考古學的 研究」, OO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 서양어 논문 : 정기간행물명은 이탤릭체로 작성

Binford, L. R., 1968, Post-Pleistocene adaptations, *In New Perspectives in Archaeology*, S. R. Binford and L. R. Binford, eds., Aldine.

10. (표, 도면, 사진 등) 표, 도면, 사진은 ‘[]’를 사용하여 ‘[표(도면, 사진) 1, 2···]’로 표시하고 그 뒤에 제목을 표기하며, 출전은 제목 뒤에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기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한다. 표, 도면, 사진은 문헌화하였을 경우 설명문을 포함하여 가로 13.5cm, 세로 20.5cm를 넘지 않게 편집하여야 한다.

1) 표는 본문 중에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제목은 표 상단 왼쪽에 표기한다.

2) 도면은 가급적 흑색으로 제도하며, 사진은 선명한 것이어야 한다. 도면과 사진은 본문이나 참고문헌 뒤에 편집할 수 있으며, 제목은 도면이나 사진하단 중앙부에 표기한다.

11. (세부편집요령) 논문의 세부편집요령은 한글의 경우 아래와 같다.

1) 편집용지 : 용지종류 B5(4×6배판), 용지여백은 위쪽 15mm, 머리말 10mm, 왼쪽 · 오른쪽 30mm, 아래쪽 13mm, 꼬리말 17.5mm로 한다.

2) 문단모양 : 정렬방식은 章만 양쪽 정렬하고 들여쓰기 하지 않으며, 項, 目, 細目은 양쪽 정렬과 함께 첫줄을 들여쓰기하며, 줄간격은 본문 180%, 각주 130%로 한다.

3) 글자모양

- (1) 題目 : 기준크기 15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계
- (2) 著者 : 기준크기 11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보통
- (3) 국문요약 : 기준크기 9pt, 글꼴 신명조, 장평100%, 자간 0%, 속성 보통, 줄간격 180%
- (4) 章 : 기준크기 14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계
- (5) 項 : 기준크기 12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계
- (6) 目·細目 : 기준크기 10.5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계
- (7) 본문 : 기준크기 10pt, 글꼴 신명조, 장평100%, 자간 -6%, 속성 보통
- (8) 표·도면·사진 제목 : 기준크기 7.5pt, 글꼴 중고딕, 장평100%, 자간 -20%, 속성 보통
- (9) 표 내용 : 기준크기 9.5pt, 글꼴 중고딕, 장평 100%, 자간 0%, 속성 보통
- (10) 각주 : 기준크기 9pt, 글꼴 신명조, 장평 95%, 자간 -9%, 속성 보통
- (11) 참고문헌(제목) : 기준크기 10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계

원고 투고 요령

1. 투고자격 : 국내 · 외 고고학 연구자
2. 투고분야 : 투고된 원고는 고고학에 관한 논문, 조사보고문, 자료소개문, 서평 등으로서 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할만한 독창적인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3. 접수 및 마감 : 논문은 상시 접수하며 각 호별 논문접수 마감은 당해 학술지 발행일의 두달전(12월 31일, 4월 30일, 8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청방법 : 중앙문화유산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jungang.medsoft.kr>)에 회원가입 후 매뉴얼에 따라 논문투고
5. 논문의 제출 형태
 - ① 논문은 게재신청서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와 함께 원고를 제출하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은 아래의 집필 요령에 따라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국문과 영문으로 된 요약문과 주제어(Key Word)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투고자는 게재 확정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내에 논문 한글파일과 도면 원본(해상도 300dpi 이상)을 이메일로 제출한다.

1.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 1) 연구원의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 성과나 주장, 아이디어를 참조할 경우 『中央考古研究』 원고 집필 요령의 인용문헌, 각주, 참고문헌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 2) 연구원의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원 편집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비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 4)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성과를 전부 또는 일부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할 경우 연구 표절이라 하며,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5) 일반적으로 타인의 논문 및 저서를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또는 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인정한다.
- 6) 연구자 본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이중게재에 해당하며, 이중게재는 일반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하고 학위논문은 예외로 한다.
- 7)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저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자와의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의 관점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한 사실과 논문의 내용 등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학술지가 간행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3.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 1)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사적인 친분관계나 어떤 선입견 없이 오로지 원고집필요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관련연구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